

KREI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소비자 조사 결과

김상호 · 이계임 · 최윤영 · 김종진 · 이육직 · 정소영 · 연미영



KREI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소비자 조사 결과

김상호·이계임·최윤영·김종진·이욱직·정소영·연미영



연구 담당

김상호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이계임 | 선임연구위원 | 3장 집필

최윤영 | 부연구위원 | 4장 집필

김종진 | 연구위원 | 2장 집필

이육직 | 연구원 | 3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정소영 | 연구원 | 4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연미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R963 연구자료-1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소비자 조사 결과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지아이지인

I S B N | 979-11-6149-605-4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서론

1. 소비자 조사의 필요성 3
 2. 조사 개요 4
 3. 조사별 응답자 특성 7

제2장 식품 주 구입자 조사

1. 물가 관련 조사 13
 2. 식생활 관련 조사 20
 3. 영양표시제도 관련 조사 27
 4. 식품에 포함된 당류 및 나트륨에 대한 저감 정책 추진 관련 조사 66
 5. 식품 관련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79

제3장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

1. 식품 구입 형태 조사 113
 2. 식생활 조사 128
 3. 건강 상태 및 식품·영양 섭취 조사 139
 4. 물가 관련 조사 147
 5. 기존 식품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156
 6. 신규 식품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176
 7.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 180
 8. 식생활 교육 관련 조사 186

제4장 초등학생 부모 조사

1. 가구 내 식생활 평가	199
2. 응답자의 아동기, 가정형편 및 식생활	209
3. 응답자의 아동기, 부모의 식사 양육 행위	217
4. 응답자의 현재 식습관	220
5. 응답자의 식사 양육 실태	222
6. 현재 응답자 자녀의 식습관	226
7. 자녀 식생활 관련 정책 추진체계 개선	230
참고문헌	237

제1장

〈표 1-1〉 주 구입자 조사 5
 〈표 1-2〉 취약계층 조사 6
 〈표 1-3〉 초등학교 부모 조사 6
 〈표 1-4〉 농식품 주 구입자 설문조사 응답 표본 구성 7
 〈표 1-5〉 취약계층 설문조사 응답 표본 구성 8
 〈표 1-6〉 초등학교 부모 설문조사 응답 표본 구성 9

제2장

〈표 2-1〉 평소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 28
 〈표 2-2〉 전면 영양표시제도가 건강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 이유 .. 37
 〈표 2-3〉 평소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 39
 〈표 2-4〉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보는 표시정보 48
 〈표 2-5〉 음식점 내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위치 52
 〈표 2-6〉 각 메뉴별 칼로리 추측결과 56
 〈표 2-7〉 급식 이용 여부 59
 〈표 2-8〉 급식 이용하면서 영양 표시정보 확인 경험 여부 60
 〈표 2-9〉 어린이 음료에 표시된 당류 1회 섭취 용량이 일일 권장량 대비 수준 .. 64
 〈표 2-10〉 당류 관련 동의도 66
 〈표 2-11〉 나트륨 관련 동의도 71
 〈표 2-12〉 가공식품/음료와 외식/배달/테이크아웃 식품에 포함된
 나트륨 양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 76
 〈표 2-13〉 정책 수단별 인지도 79

〈표 2-14〉 정책 수단 중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및 충분하고 다양한 영양 섭취 차원에서 선호하는 정책 수단	81
〈표 2-15〉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자녀/가족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책	82
〈표 2-16〉 우리나라의 건강한 식생활, 영양 관련 정책 수준 평가	84
〈표 2-17〉 국민의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정부, 민간분야, 소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	86
〈표 2-18〉 국내산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91
〈표 2-19〉 수입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	94
〈표 2-20〉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정책 수단별 인지도	98
〈표 2-21〉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관련된 소비자 정책 평가 결과	100
〈표 2-22〉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102
〈표 2-23〉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체계에 있어 관리부처의 일원화 필요성	107

제3장

〈표 3-1〉 취약계층의 식료품 주 구입처	114
〈표 3-2〉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여부	117
〈표 3-3〉 평소 가계부 작성 여부	118
〈표 3-4〉 평소 장 볼 때 물건 목록 작성 여부	119
〈표 3-5〉 최근 한 달 장보기 이동 불편 정도	120
〈표 3-6〉 월평균 식품비 지출 금액	121
〈표 3-7〉 가구 내 식품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22
〈표 3-8〉 추가적으로 필요한 식품비	123
〈표 3-9〉 식생활 또는 품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126

〈표 3-10〉 가족 구성원 모두 하루에 세 끼를 챙겨 먹는지 여부	128
〈표 3-11〉 본인 또는 가구원의 급식소/급식 이용 여부	130
〈표 3-12〉 최근 일주일간 식사 현황(아침)	131
〈표 3-13〉 최근 일주일간 식사 현황(점심)	132
〈표 3-14〉 최근 일주일간 식사 현황(저녁)	133
〈표 3-15〉 최근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혼자 식사한 횟수	134
〈표 3-16〉 최근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의 정시성	135
〈표 3-17〉 최근 일주일 동안 식사의 규칙성	136
〈표 3-18〉 최근 한 달 동안 식비 부족 경험 정도	137
〈표 3-19〉 최근 한 달 균형 잡힌 식사 부족 경험 정도	138
〈표 3-20〉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139
〈표 3-21〉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쌀)	140
〈표 3-22〉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잡곡)	141
〈표 3-23〉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육류)	142
〈표 3-24〉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과일류)	143
〈표 3-25〉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채소류)	144
〈표 3-26〉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가공식품)	145
〈표 3-27〉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외식)	146
〈표 3-28〉 올해 물가 체감 변화(농축수산물)	150
〈표 3-29〉 올해 물가 체감 변화(가공식품)	151
〈표 3-30〉 올해 물가 체감 변화(외식)	152
〈표 3-31〉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비 지출 변화	154
〈표 3-32〉 생계급여의 식품비 지원항목 별도 분리 필요성	177
〈표 3-33〉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교육을 받길 원하는 시점	183

제4장

〈표 4-1〉 가족 구성원 하루 3끼 식사 여부	199
〈표 4-2〉 자녀 식생활 환경별 우려도 평가	230
〈표 4-3〉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개선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	234

제2장

<그림 2-1> 올해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항목(1, 2, 3순위) 14

<그림 2-2>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줄일 수 있는 항목(1, 2순위) 14

<그림 2-3>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항목
(1, 2순위) 15

<그림 2-4> 식품비(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물가 체감 정도 15

<그림 2-5> 농축수산물 원물(신선식품) 물가 체감 정도 16

<그림 2-6> 전년 대비 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가공식품 품목(1, 2, 3 순위) ... 17

<그림 2-7> 전년 대비 물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외식점(1, 2, 3 순위) 18

<그림 2-8>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품비 지출액이 이전과 비교 시
변화도 18

<그림 2-9> 올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방법 19

<그림 2-10>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별 구입 변화 20

<그림 2-11> 식품 품목별 섭취에 관한 태도 21

<그림 2-12> 열량/영양성분별 섭취에 관한 태도 22

<그림 2-13> 지난 한 달 기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여부 23

<그림 2-14> 지난 한 달 동안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 23

<그림 2-15> 전반적인 건강 상태 24

<그림 2-16> 식생활 만족도 조사 24

<그림 2-17> 평소 가계부 작성 여부 25

<그림 2-18> 식료품 구매 시 구매 품목 미리 작성 여부 25

<그림 2-19>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제/비타민/건강보조식품 섭취 여부 ... 26

<그림 2-20> 가공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 2순위) 30

<그림 2-21> 오프라인에서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정보 확인 여부 31

〈그림 2-22〉 오프라인 가공식품 구입 시 필요한 영양정보(1, 2, 3순위) ……	31
〈그림 2-23〉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	32
〈그림 2-24〉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개선 방안 ……	33
〈그림 2-25〉 현재 제공되는 영양정보 외 확인하고 싶은 정보(중복 응답) ……	33
〈그림 2-26〉 평소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여부 ……	34
〈그림 2-27〉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몰 유형 ……	35
〈그림 2-28〉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 여부 ……	35
〈그림 2-29〉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시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	36
〈그림 2-30〉 전면 영양표시제도가 건강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	36
〈그림 2-31〉 영양정보 표시 예시 ……	39
〈그림 2-32〉 제품에 제시된 영양정보 응답 소요시간 ……	42
〈그림 2-33〉 전면 영양표시제도 ……	43
〈그림 2-34〉 전면 영양표시제도 효과성 평가(상/하위 1, 2순위) ……	44
〈그림 2-35〉 집에서 먹는 식사보다 외식이 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	45
〈그림 2-36〉 집에서 먹는 식사보다 외식이 덜 건강하다고 생각한 이유 (1, 2순위) ……	45
〈그림 2-37〉 음식점에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1, 2순위) ……	46
〈그림 2-38〉 배달 앱에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1, 2순위) ……	47
〈그림 2-39〉 식품정보 표시 예시 ……	47
〈그림 2-40〉 음식점에서 식품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	49
〈그림 2-41〉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	49
〈그림 2-42〉 음식점에서 원산지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	50
〈그림 2-43〉 음식점에서 인증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	50
〈그림 2-44〉 음식점에서 요리 주문 시, 확인하고 싶은 표시정보(1, 2순위) ……	51

〈그림 2-45〉 외식업 영양 표시정보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 (1, 2순위)	51
〈그림 2-46〉 영양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외식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여부 ..	53
〈그림 2-47〉 영양 표시정보 확인이 건강한 식품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54
〈그림 2-48〉 영양 표시정보 의무화가 필요한 외식점(1, 2, 3순위)	55
〈그림 2-49〉 각 메뉴별 칼로리 설문 예시	55
〈그림 2-50〉 배달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한 외식 주문 시 영양 표시정보 확인 여부	56
〈그림 2-51〉 배달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한 외식 주문 시 영양 표시정보 확인하지 않은 이유 (1, 2순위)	57
〈그림 2-52〉 배달 앱 또는 온라인으로 음식 주문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표시정보 (1, 2, 3순위)	58
〈그림 2-53〉 배달 앱 또는 온라인에서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부분	58
〈그림 2-54〉 급식으로 식사 시 제공된 표시정보 확인 여부	61
〈그림 2-55〉 급식으로 식사 시 제공된 표시정보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	62
〈그림 2-56〉 급식 이용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1, 2, 3순위)	62
〈그림 2-57〉 급식에서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위치	63
〈그림 2-58〉 감자칩에 표시된 영양소 중 가장 우려되는 영양소(1, 2순위)	65
〈그림 2-59〉 첨가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한 간식	68
〈그림 2-60〉 자연당과 첨가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차이 인지도	68
〈그림 2-61〉 자연당과 첨가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	69

〈그림 2-62〉 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양정보 예시	70
〈그림 2-63〉 미국과 같이 영양표시에 첨가당 표시 추가 필요성	70
〈그림 2-64〉 식품 구매 시 식품에 첨가된 나트륨의 양 고려 여부	72
〈그림 2-65〉 당류/나트륨 저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분야, 소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	72
〈그림 2-66〉 당류/나트륨 저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1, 2순위)	73
〈그림 2-67〉 배달 음식/외식업소에서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1, 2순위)	74
〈그림 2-68〉 가공식품의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1, 2순위)	74
〈그림 2-69〉 음료의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1, 2순위)	75
〈그림 2-70〉 식품에 첨가된 당류를 줄이기 위한 우수 저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도입 필요성	75
〈그림 2-71〉 식품에 첨가된 당류 조절하는 데 있어 첨가당 양에 대한 세금 부과제도 도입 필요성	77
〈그림 2-72〉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활성화를 위한 세금 부과 시 적합한 부과 단계	78
〈그림 2-73〉 우리나라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분야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	85
〈그림 2-74〉 국민의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87

〈그림 2-75〉 국민의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민간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88
〈그림 2-76〉 국민의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88
〈그림 2-77〉 정부의 소비자 영양/건강관리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 (1, 2순위)	89
〈그림 2-78〉 영양/건강 관련 사업 추진체계 관리 일원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통합 부처	90
〈그림 2-79〉 해당 부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	90
〈그림 2-80〉 신선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92
〈그림 2-81〉 가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93
〈그림 2-82〉 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94
〈그림 2-83〉 오프라인 마트를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 ..	96
〈그림 2-84〉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	96
〈그림 2-85〉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	97
〈그림 2-86〉 자녀/가족 대상으로 선호하는 식품 정책	99
〈그림 2-87〉 식품 안전 분야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	101
〈그림 2-88〉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	103
〈그림 2-89〉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민간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104
〈그림 2-90〉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104
〈그림 2-91〉 정부의 식품 안전 확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1, 2순위)	105

〈그림 2-92〉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체(1, 2순위) ..	106
〈그림 2-93〉 해당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106
〈그림 2-94〉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통합 부처	108
〈그림 2-95〉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부처로 해당 부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	109

제3장

〈그림 3-1〉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쌀)	114
〈그림 3-2〉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청과물)	115
〈그림 3-3〉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육류)	115
〈그림 3-4〉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수산물)	116
〈그림 3-5〉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가공식품)	116
〈그림 3-6〉 식품 구매 시 중량당 가격 확인 여부	124
〈그림 3-7〉 식품 구매 시 중량당 가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124
〈그림 3-8〉 평소 장 볼 때 마트 할인정보 확인 여부	125
〈그림 3-9〉 주로 식품 관련 정보를 얻는 프로그램	127
〈그림 3-10〉 가족구성원이 끼니를 거르는 이유	129
〈그림 3-11〉 열량/영양성분 소비 및 관심 수준	147
〈그림 3-12〉 올해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항목	148
〈그림 3-13〉 지출항목별 소비 절약 가능 여부	148
〈그림 3-14〉 지출 분야 중 가장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2개 분야 ...	149
〈그림 3-15〉 올해 농축수산물 원물 물가 체감 변화	153
〈그림 3-16〉 가장 물가가 크게 오른 가공식품(중복 응답)	153
〈그림 3-17〉 물가 상승 대응 방법	155

〈그림 3-1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별 구입 변화	155
〈그림 3-19〉 식품지원사업이 도움이 되는 정도	156
〈그림 3-20〉 수혜 받는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	157
〈그림 3-2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참여 현황	158
〈그림 3-2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58
〈그림 3-23〉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이후 변화	159
〈그림 3-24〉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시행 적절성 설문 결과	159
〈그림 3-25〉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개선 방안	160
〈그림 3-26〉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참여 현황	161
〈그림 3-27〉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이후 변화	161
〈그림 3-28〉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절성 설문 결과	162
〈그림 3-29〉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개선 방안	163
〈그림 3-30〉 임신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 참여 현황	163
〈그림 3-31〉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참여 현황	164
〈그림 3-3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164
〈그림 3-33〉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절성 설문 결과 ..	165
〈그림 3-3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개선 방안	166
〈그림 3-35〉 급식형태 지원서비스 참여 현황	166
〈그림 3-36〉 급식형태 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167
〈그림 3-37〉 급식형태 지원서비스 시행에 대해 불편한 점	167
〈그림 3-38〉 급식형태 지원사업 시행의 적절성	168
〈그림 3-39〉 생계급여가 식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	168
〈그림 3-40〉 생계급여 지원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169

〈그림 3-41〉 생계급여 사용 비중	170
〈그림 3-42〉 적절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170
〈그림 3-43〉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 인지도 및 참여 여부	171
〈그림 3-44〉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의 식생활 도움 정도	171
〈그림 3-45〉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으로 인한 농축산물 추가 구매 여부 ..	172
〈그림 3-46〉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 이용의 불편한 점	172
〈그림 3-47〉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 인지도 및 참여 여부	173
〈그림 3-48〉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의 식생활 도움 정도	173
〈그림 3-49〉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으로 인한 외식 증가 여부	174
〈그림 3-50〉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 이용의 불편한 점	174
〈그림 3-5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 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175
〈그림 3-5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 시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175
〈그림 3-53〉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176
〈그림 3-54〉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적합한 운영 부처	176
〈그림 3-55〉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직접 수령/배달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정도	178
〈그림 3-56〉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전자카드 지급 및 정해진 판매점에서 정해진 식품을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정도	178
〈그림 3-57〉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정도	179
〈그림 3-58〉 음식(급식)을 통한 지원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정도	179
〈그림 3-59〉 농식품을 지원받아 구매하는 경우 특성별 중요도	180

〈그림 3-60〉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지정 농산물만 구매 가능한 경우 원하는 품목	181
〈그림 3-6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사용하길 희망하는 오프라인 구매처	181
〈그림 3-6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사용하길 희망하는 온라인 구매처	182
〈그림 3-63〉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 희망하는 구매처를 선택한 이유	182
〈그림 3-64〉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교육을 받길 원하는 시간대(중복 응답)	184
〈그림 3-65〉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예상되는 식생활 도움 정도 ..	185
〈그림 3-66〉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원하는 지급형태(중복 허용) ..	185
〈그림 3-67〉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바우처 분할 사용 횟수	186
〈그림 3-68〉 식생활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방법, 식생활교육이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187
〈그림 3-69〉 식생활교육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점	187
〈그림 3-70〉 영양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방법,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 정도	188
〈그림 3-71〉 식생활교육과 영양교육 분리의 적절성	188
〈그림 3-72〉 온라인을 통한 식생활교육 시 사용 가능한 장비와 PC/스마트폰 능숙도 비교	189
〈그림 3-73〉 선호하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방식	189
〈그림 3-74〉 적절한 식생활 교육 빈도	190
〈그림 3-75〉 식생활 교육에 구입 및 조리 등 실습과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	190

〈그림 3-76〉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중 선호하는 방식	191
〈그림 3-77〉 선호하는 오프라인 교육장소	191
〈그림 3-78〉 적절한 오프라인 교육인원	192
〈그림 3-79〉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기에 적절한 오프라인 교육시간 ..	192
〈그림 3-80〉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	193
〈그림 3-81〉 적절한 온라인 교육시간	193
〈그림 3-82〉 1년 기준 적절한 온라인 교육횟수	194
〈그림 3-83〉 적합한 온라인 식생활 교육자료 형태	194
〈그림 3-84〉 식생활 교육의 우선사항	195

제4장

〈그림 4-1〉 응답자 현재 평균적인 끼니별 식사 현황	201
〈그림 4-2〉 가정 내외 식사에 대한 태도	201
〈그림 4-3〉 가정 외 식사 메뉴 선정 시 고려사항	202
〈그림 4-4〉 규칙적 식사 여부	202
〈그림 4-5〉 식생활교육 경험 여부	203
〈그림 4-6〉 가정 내 식단 사전 계획 여부	203
〈그림 4-7〉 식사 메뉴 사전 계획 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준(1, 2순위) ..	204
〈그림 4-8〉 주관적 요리실력 평가	204
〈그림 4-9〉 초등 부모가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	205
〈그림 4-10〉 오프라인 통한 식품 구매 시 이용 교통수단 및 자차 소유 여부 ..	206
〈그림 4-11〉 자주 장을 보러 가는 장소까지 이동 시 불편함	206
〈그림 4-12〉 최근 1년간 식생활 형편	207

<그림 4-13> 형편이 어려워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하지 못한 경험 여부	208
<그림 4-14> 최근 1년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 빈도	208
<그림 4-15> 응답자 아동기 편부모, 맞벌이 환경 여부	209
<그림 4-16> 응답자 10세 당시 부모님의 나이	209
<그림 4-17> 응답자 부모님의 최종학력	210
<그림 4-18> 응답자 아동기: 가정 내 식사 준비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구성원	210
<그림 4-19> 응답자 아동기: 식생활 형편	211
<그림 4-20> 응답자 아동기: 형편이 어려워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 및 빈도	212
<그림 4-21> 응답자 아동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 빈도	212
<그림 4-22> 응답자 아동기: 자주 장을 보러 가는 장소까지 이동 시 불편함	213
<그림 4-23> 응답자 아동기: 가족 구성원 모두 하루 3끼 식사 여부	213
<그림 4-24> 응답자 아동기: 끼니별 식사 현황 및 가족 구성원과 함께한 식사횟수	214
<그림 4-25> 응답자 아동기: 규칙적인 식사 여부	215
<그림 4-26> 응답자 아동기: 귀택 가정 내외 식사에 대한 태도	215
<그림 4-27> 응답자 아동기: 외식 메뉴 선정 시 고려사항	216
<그림 4-28> 응답자 아동기: 식단 사전 계획 여부 및 우선적 고려 기준 (1, 2순위)	216
<그림 4-29> 응답자 아동기: 부모의 식사 양육 실태	217
<그림 4-30> 응답자 아동기: 부모님이 제공하는 간식 vs 본인이 원하고 즐긴 간식(1, 2순위)	218
<그림 4-31> 응답자 아동기: 건강보조제나 영양제 섭취 여부	219
<그림 4-32> 응답자 본인의 어린 시절 vs 현재 식습관 변화 여부	220

〈그림 4-33〉 응답자 본인의 현재 식습관	221
〈그림 4-34〉 응답자 자녀: 끼니별 식사 현황 및 가족 구성원과 함께한 식사 횟수	222
〈그림 4-35〉 응답자 자녀: 응답자의 식사 양육 실태	223
〈그림 4-36〉 응답자 자녀: 응답자가 제공하는 간식 vs 자녀가 원하고 즐긴 간식(1, 2순위)	224
〈그림 4-37〉 응답자 자녀: 건강보조제나 영양제 섭취 여부	225
〈그림 4-38〉 응답자 자녀: 식습관	226
〈그림 4-39〉 채소, 과일, 흰 우유 섭취 빈도 비교: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227
〈그림 4-40〉 라면, 짜장면, 피자, 햄버거, 치킨, 짬 과자, 단 음식, 당 음료 섭취 빈도 비교: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228
〈그림 4-41〉 영양소별 섭취 빈도 비교: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	229
〈그림 4-42〉 식생활 관련 질병 노출 위험도 비교: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229
〈그림 4-43〉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및 충분·다양한 영양 섭취 차원에서 선호하는 정책	231
〈그림 4-44〉 자녀 대상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및 충분·다양한 영양 섭취 차원에서 선호하는 정책	232
〈그림 4-45〉 어린이 식생활 관련 정책 평가	232
〈그림 4-46〉 어린이 식생활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233
〈그림 4-47〉 당류, 나트륨 첨가량에 따른 세금 부과제도 도입 필요	233
〈그림 4-48〉 식품류 및 매식 형태별 당, 나트륨 첨가량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 정도	234

〈그림 4-49〉 해당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235
〈그림 4-50〉 어린이 식생활 및 영양 개선 관련 정책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부분(1, 2순위)	235

제1장

서론



1

서론

1. 소비자 조사의 필요성

○ 포용성장이라는 가치로 푸드시스템의 다양한 영역을 평가한다면, ① 영세한 생산자 및 판매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② 이들의 생산·경영활동에서의 수익성 및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특징을 보이고, ③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먹거리 기본권(The Right to Foods) 보장 수준이 낮고, ④ 높은 농식품 가격 변동성(volatility)은 식품보장성(food security)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⑤ 국내 및 지역 먹거리 생산자들의 생계보장¹⁾ 역시 미흡한 상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특징들로부터 푸드시스템 전반을 광의의 ‘포용성장’ 또는 ‘포용성 강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1)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및 지역(로컬)의 영세 생산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중요한데, 분배의 개선을 통해 사회 전체의 소비동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면, 이들의 영양/건강 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공급량(labor supply)이나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r) 또한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푸드시스템 및 식품정책 분야, 특히 우리 국민의 식생활 또는 식품소비 분야도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 및 식품 주 구입자 조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구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응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식품정책(food policy)’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속가능성’ 개선이 필요함. 나아가 식품정책은 지속가능성 개선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적용 가능한 영역이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 농식품 물가, 식품 관련 피해 구제, 건강한 식품 선택, 식생활·영양교육 등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식품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거나, 혹은 평가·설계되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의 식품구입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응과제 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함.

2. 조사 개요

- 식품소비 및 식생활 이슈에 대한 소비자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고, 의향과 선호를 식별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1. 농식품 주 구입자 설문조사

- 식품 주 구입자의 물가 관련 식품소비 이슈,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영양표시제도 이용을 파악하여 당류/나트륨 저감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조세제도 도입 검토 관련 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1-1〉 주 구입자 조사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식품 주 구입자(20대 이상)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 표본 수	1,000가구
조사 기간	2022년 9월 8일~9월 19일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 관련 식품소비 이슈• 가공식품 선택을 위한 영양표시제도 이용 실태• 당류/나트륨 저감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조세제도 도입 수용성• 영양/건강관리 및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 추진체계 개선 의견 등

자료: 저자 작성.

2.2. 취약계층 설문조사

-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식품 안정성 및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물가 관련 식품소비 이슈, 농식품 지원정책들의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고도화 및 본 사업화 추진 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식생활교육과의 연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1-2〉 취약계층 조사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수도권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식품 주 구입자
조사 방법	방문 면접 조사
조사 표본 수	500가구
조사 기간	2022년 8월 29일~9월 30일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관련 식품소비 이슈 •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식품 안정성 및 식생활 실태 • 농식품 지원정책들의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고도화 및 본 사업화 추진에 대한 의견 •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

자료: 저자 작성.

2.3. 초등학교 학부모 설문조사

○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 내 주 구입자들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식사 양육 방식, 현재 식습관 및 자녀 식습관 방식을 파악하여 식습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고,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과 관련한 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1-3〉 초등학교 학부모 조사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식품 주 구입자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 표본 수	1,000가구
조사 기간	2022년 9월 15일~9월 21일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식생활 관련 사항 • 아동기 가정형편 및 식생활 형태 • 아동기, 부모의 식사 양육 실태 • 응답자의 현재 식습관 및 식사 양육 실태, 자녀 식습관 • 자녀 식생활 관련 정책 추진체계 개선

자료: 저자 작성.

3. 조사별 응답자 특성

3.1. 농식품 주 구입자 설문조사

○ 농식품 주 구입자 설문조사의 응답 표본은 1,000명임.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40대와 5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단위에서 추출되었음. 최종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218명, 대졸 이상 782명으로 나타남. 결혼 유무는 기혼이 697명, 미혼이 124명임. 표본 내 맞벌이 가구는 403가구이며, 만 18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282가구임.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비교적 균등하게 표본이 배분되었음. 구체적 표본 구성은 아래와 같음.

〈표 1-4〉 농식품 주 구입자 설문조사 응답 표본 구성

단위: 명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성별	전체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남성	188		대졸 이상	782
	여성	812	결혼 유무	기혼	697
연령대	20대	68		미혼	124
	30대	204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40대	272		맞벌이 가구 아님	294
	50대	272	만 18세 미만 가구원	있음	282
	60대 이상	184		없음	718
	지역	서울	2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경기/강원권		340	200만~400만 원 미만		253
충청권		108	400만~600만 원 미만		262
호남권		100	600만~800만 원 미만		196
경북권		96	800만 원 이상		192
경남권		156	확인하지 않는 편		210
가구원 수	1명	179	농식품 정보 확인 후	보통이다	389
	2명	259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는 편
	3명	253			
	4명 이상	3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3.2. 취약계층 설문조사

○ 취약계층 설문조사의 경우 500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고, 여성 비중, 55세 이상 응답자 비중, 2인 이상 가구 비중,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응답자 비중, 고졸 응답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또한, 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혜 중인 지원사업별로 표본을 확보함. 구체적 표본 구성은 아래와 같음.

〈표 1-5〉 취약계층 설문조사 응답 표본 구성

단위: 명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전체		500	생계급여	255
성별	남성	137	의료급여	186
	여성	363	주거급여	278
연령대	55세 미만	244	교육급여	47
	55세 이상	256	긴급복지 지원	11
거주지	서울	170	정부양곡할인 지원	98
	인천	165	초등돌봄과일간식 지원	6
	경기	165	우유 무상급식	23
가구 형태	1인가구	244	영양플러스	1
	2인 이상	256	건강과일바구니	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273	노인 급식/도시락 지원	3
	100만~150만 원 미만	133	아동 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150만~200만 원 미만	63	아동 도시락 배달	4
	200만~250만 원 미만	29	기타 식료품 지원	4
	250만~300만 원 미만	2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7		
	고졸	366		
	대졸 이상	2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3.3. 초등학생 부모 설문조사

○ 초등학생 부모 설문조사의 경우 1,000명 규모의 조사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특성상 여성, 40대 가구의 비중이 높음. 구체적 표본 구성은 아래와 같음.

〈표 1-6〉 초등학생 부모 설문조사 응답 표본 구성

단위: 명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전체		1,000	최종 학력 (본인 기준)	고졸 이하	118
성별	남자	121	맞벌이 가구 여부	대졸 이상	882
	여자	879		맞벌이 가구	608
연령대	30대 이하	219	월평균 가구소득 (세전)	맞벌이 가구 아님	392
	40대	730		200만 원 미만	16
	50대	51		200만~400만 원 미만	190
지역	서울	155	자녀 체중 감량 필요성	400만~600만 원 미만	395
	경기/강원권	372		600만~800만 원 미만	238
	충청권	114		800만 원 이상	161
	호남권	114		감량 필요 낮음	642
	경북권	3		보통	157
	경남권	152		감량 필요 높음	201
자녀수	1명	236	규칙적 운동 여부	운동하지 않는 편	453
	2명	627		보통	264
	3명	124		운동하는 편	283
	4명	1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제2장

식품 주 구입자 조사



2

식품 주 구입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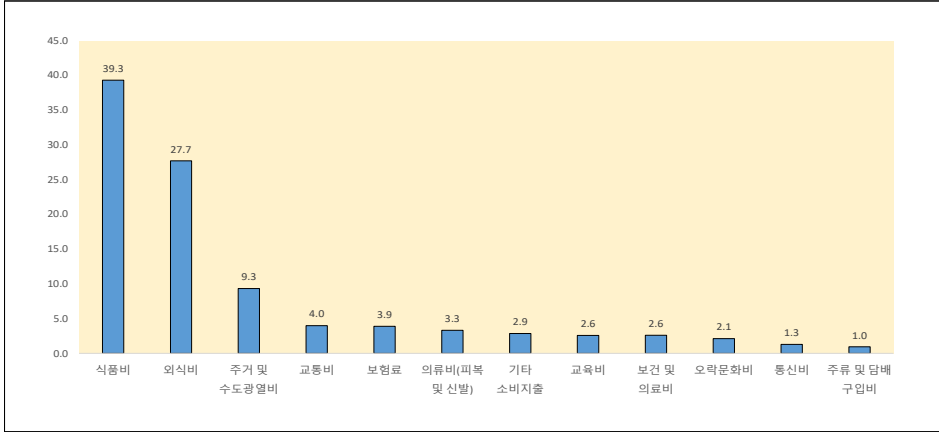
1. 물가 관련 조사

- 최근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했음. 이러한 물가 상승이 가계에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물가 상승 관련 조사를 실시함.
 - 올해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하여 식품 주 구입자는 식품비(39.3%)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였고, 외식비(27.7%), 주거 및 수도광열비(9.3%) 순으로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1>.

-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줄일 수 있는 항목을 3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오락문화비(2.43점), 주류 및 담배구입비(2.34점), 외식비(2.25점) 순으로 크게 나타남<그림 2-2>.

〈그림 2-1〉 올해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항목(1, 2, 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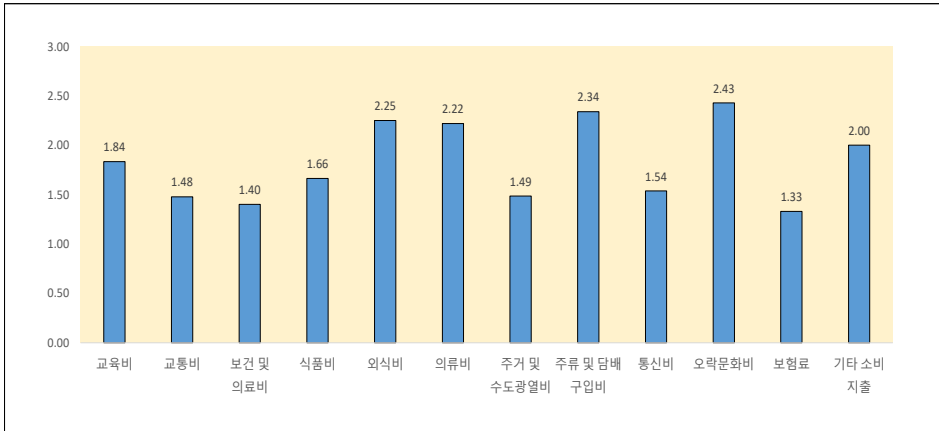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3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그림 2-2〉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줄일 수 있는 항목(1, 2순위)

단위: 점, %



주 1) 척도평균은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1점)', '조금 줄이는 것이 가능(2점)',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3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2) 1순위 응답에 3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3) 주거 및 수도광열비는 주거비, 연료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등 기타 주거비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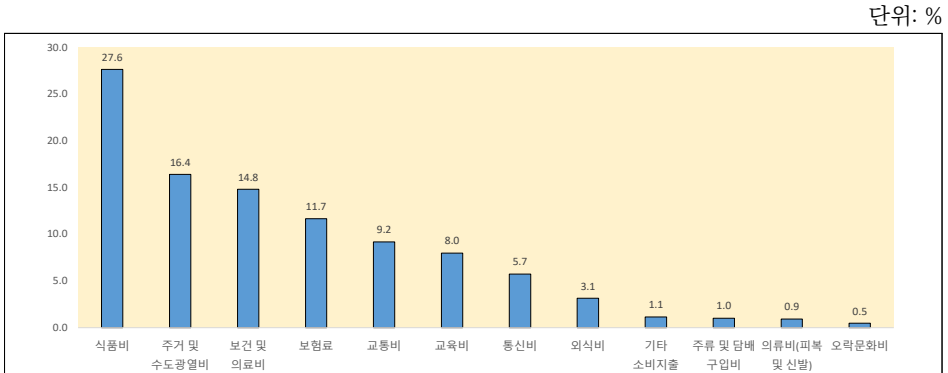
4) 통신비는 전화비, 이동통신비, 인터넷사용료, 정보통신요금 등을 포함.

5) 기타 소비지출은 이미용 비용, 위생용품비용, 사회복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식품비(27.6%), 주거 및 수도권광역비(16.4%), 보건 및 의료비(14.8%) 순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항목으로 조사됨.

〈그림 2-3〉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항목(1,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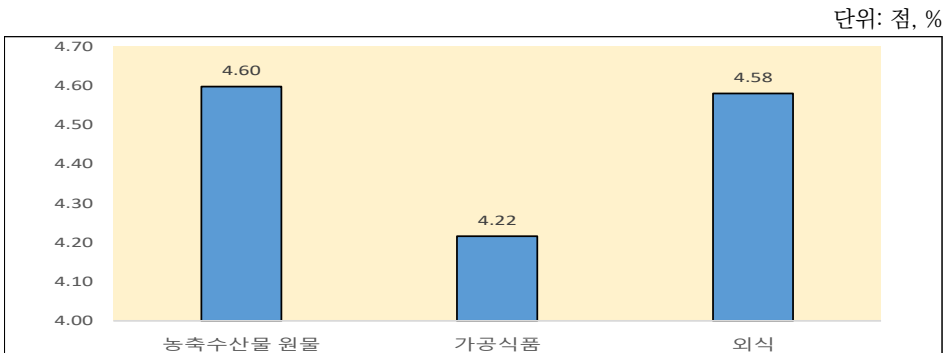


- 주 1)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 2) 주거 및 수도권광역비는 주거비, 연료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등 기타 주거비를 포함.
- 3) 통신비는 전화비, 이동통신비, 인터넷사용료, 정보통신요금 등을 포함.
- 4) 기타 소비지출은 이마용 비용, 위생용품비용, 사회복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을 포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농식품 및 외식에 대한 체감 물가를 설문한 결과, 농축수산물 원물(4.60점), 외식(4.58점), 가공식품(4.22점) 순으로 체감 물가가 상승했다고 조사됨.

〈그림 2-4〉 식품비(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물가 체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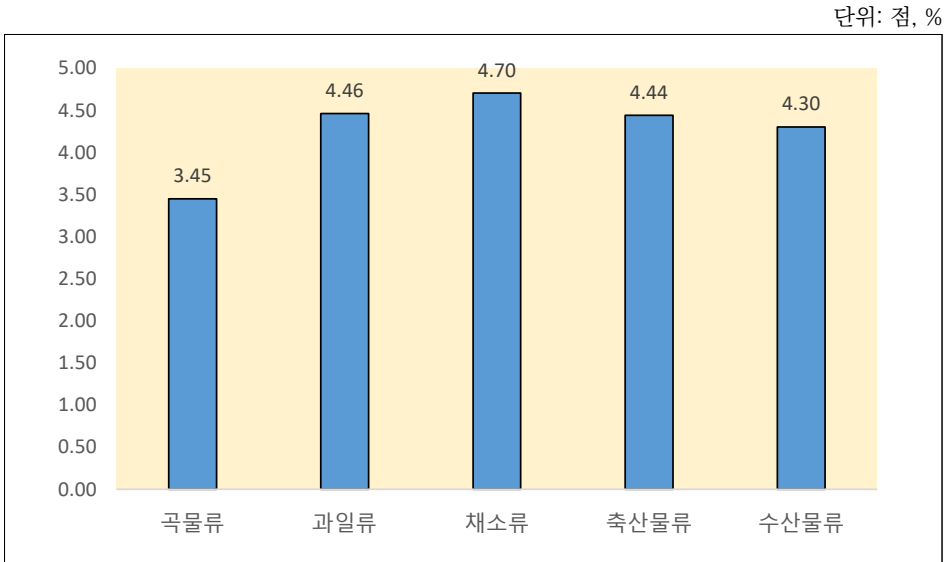


주: 척도평균은 '하락했다(1점)'~'6% 이상 상승했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농축수산물 원물(신선식품) 물가 체감 정도에 대한 조사를 5점 척도 평균 점수 기준으로 설문한 결과, 채소류(4.70점), 과일류(4.46점), 축산물류(4.44점), 수산물류(4.30점), 곡물류(3.45점) 순으로 체감 물가가 상승했다고 조사됨.

〈그림 2-5〉 농축수산물 원물(신선식품) 물가 체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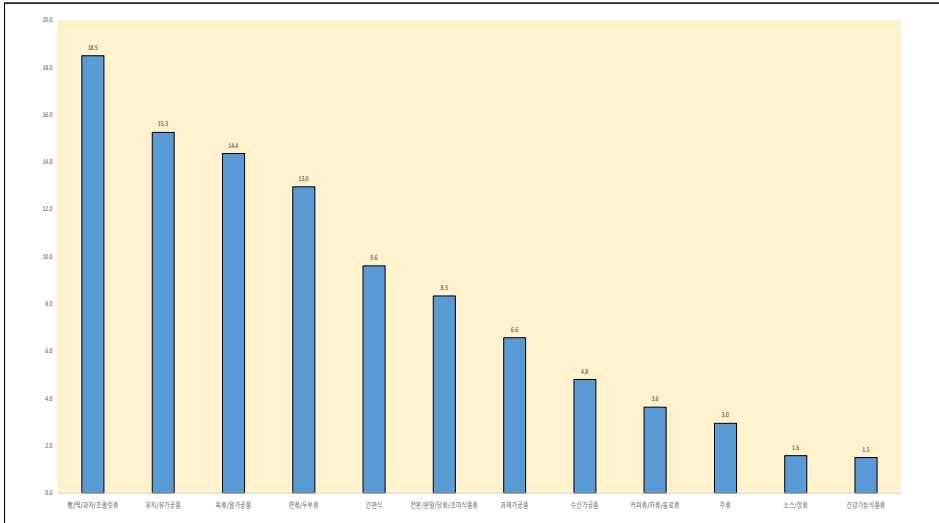


주: 척도평균은 ‘하락했다(1점)~6% 이상 상승했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전년 대비 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가공식품 품목에 대해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설문한 결과, ‘빵/떡/과자/초콜릿류(18.5%)’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보였고, ‘유지/유가공품(식용유, 우유, 치즈 등)(15.3%)’, ‘육류/알가공품(햄, 베이컨 등)(14.4%)’, ‘면류/두부류(라면, 국수, 두부 등)(13.0%)’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2-6〉 전년 대비 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가공식품 품목(1, 2, 3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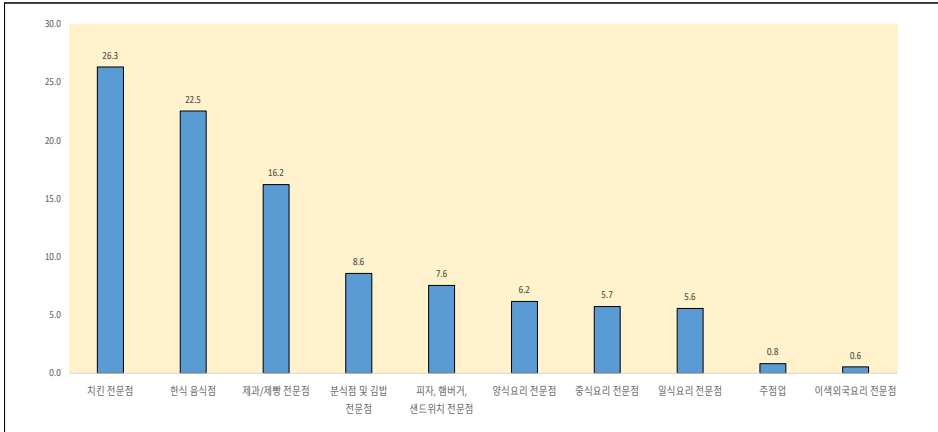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3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전년 대비 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외식점에 대해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설문한 결과, ‘치킨 전문점(26.3%)’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고, ‘한식 음식점 (일반 음식점, 면/해산물요리, 육류요리 전문점 포함)(22.5%)’, ‘제과/제빵 전문점(빵집, 베이커리)(16.2%)’, ‘분식점 및 김밥 전문점(8.6%)’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2-7〉 전년 대비 물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외식점(1, 2, 3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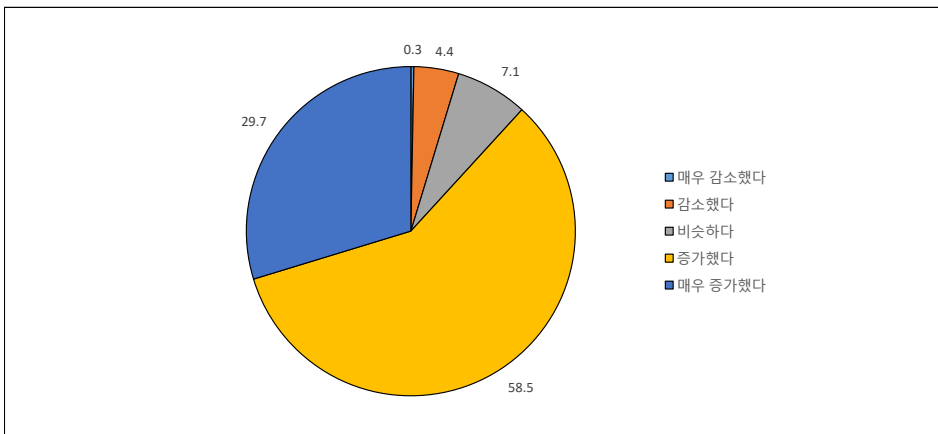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3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품비 지출액이 이전과 비교 시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가했다(58.5%)’, ‘매우 증가했다(29.7%)’, ‘비슷하다(7.1%)’, ‘감소했다(4.4%)’, ‘매우 감소했다(0.3%)’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품비 지출액이 이전과 비교 시 변화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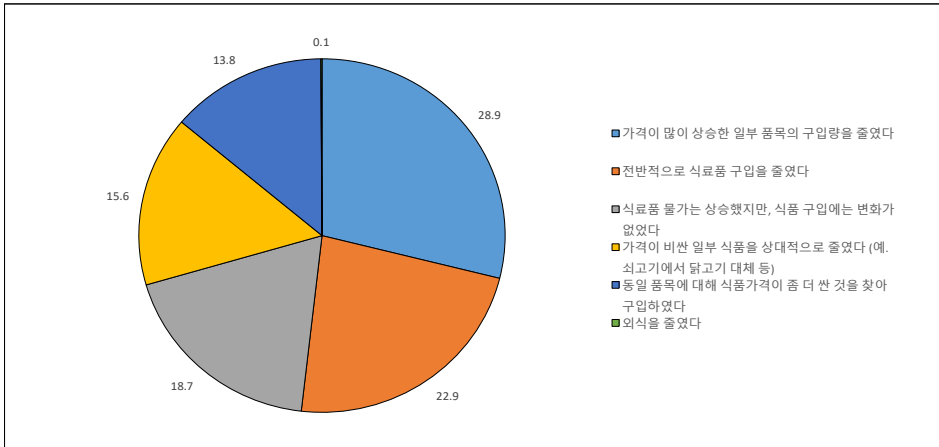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올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일부 품목의 구입량을 줄였다(28.9%)’, ‘전반적으로 식료품 구입을 줄였다(22.9%)’, ‘식료품 물가는 상승했지만, 식품 구입에는 변화가 없었다(18.7%)’, ‘가격이 비싼 일부 식품을 상대적으로 줄였다(예: 쇠고기에서 닭고기 대체 등)(15.6%)’, ‘동일 품목에 대해 식품가격이 좀 더 싼 것을 찾아 구입하였다(13.8%)’, ‘외식을 줄였다(0.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9〉 올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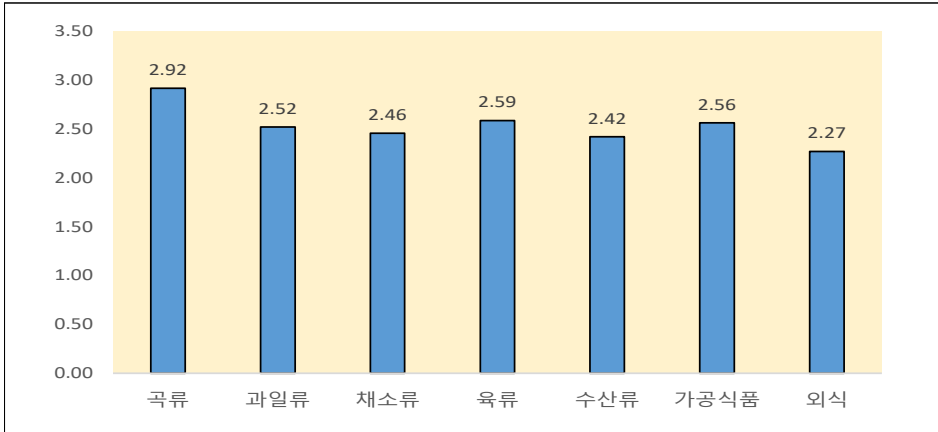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품별 구입 변화를 5점 척도 평균 점수 기준으로 설문한 결과, 곡류(2.92점), 육류(2.59점), 가공식품(2.56점), 과일류(2.52점), 채소류(2.46점), 수산류(2.42점), 외식(2.27점) 순으로 조사됨.

〈그림 2-10〉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별 구입 변화

단위: 점, %



주: 척도평균은 '매우 감소(1점)~'매우 증가(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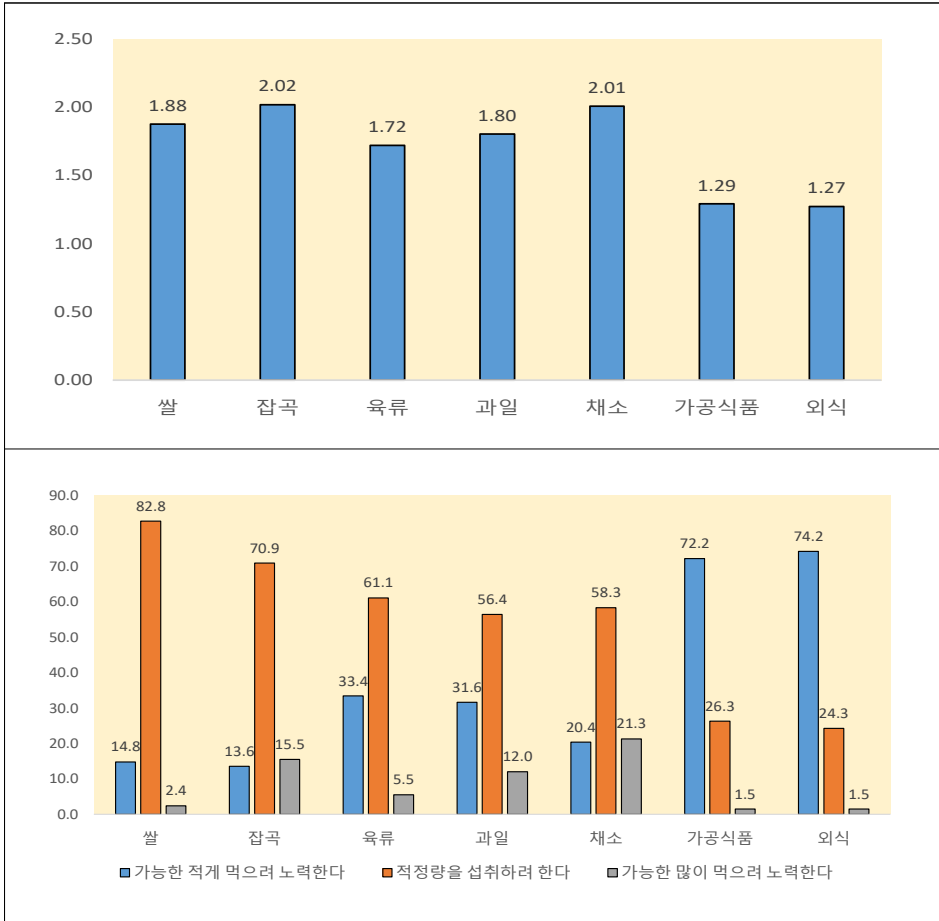
2. 식생활 관련 조사

○ 향후 소비자의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생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 식생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함.

- 식품 품목별로 섭취 태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노력한다'에 1점,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에 2점,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노력한다'에 3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을 때, 식품류는 잡곡(2.02점), 채소(2.01점), 쌀(1.88점), 과일(1.80점), 육류(1.72점), 가공식품(1.29점), 외식(1.2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쌀, 잡곡, 육류, 과일, 채소는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노력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11〉 식품 품목별 섭취에 관한 태도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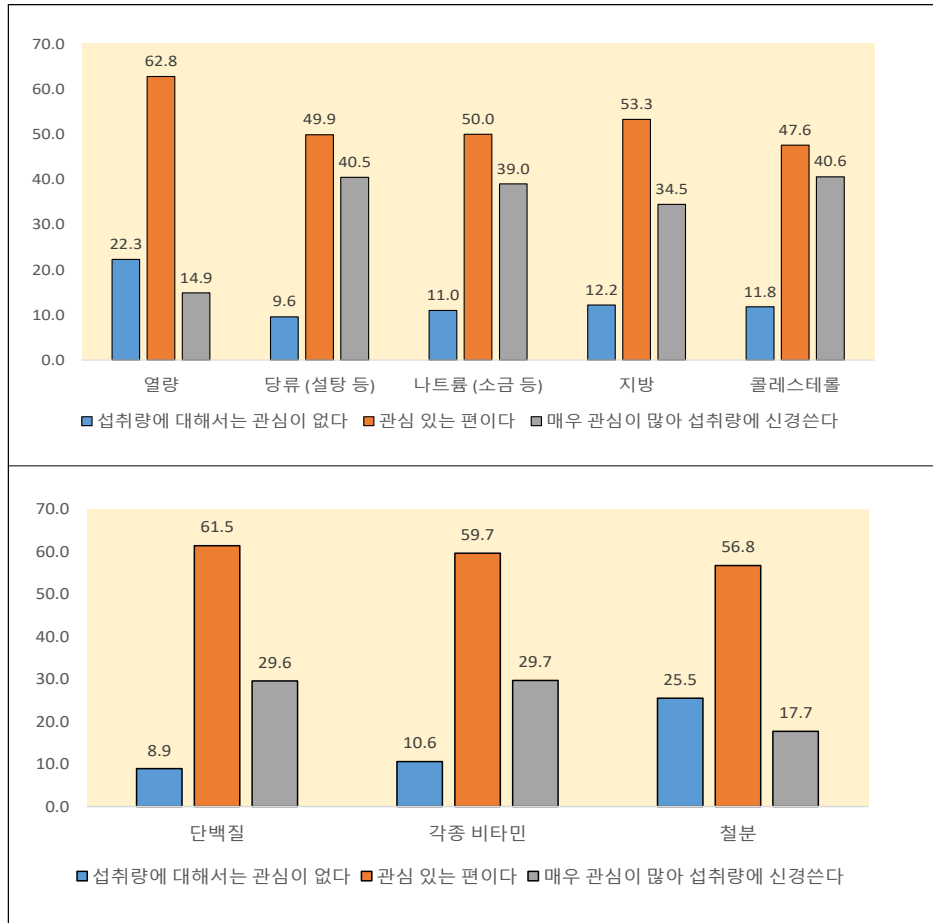
주: 척도평균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노력한다(1점)’~‘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노력한다(3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열량/영양성분별 섭취 태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 있어 ‘관심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됨. ‘열량(62.8%)’, ‘단백질(61.5%)’, ‘각종 비타민(59.7%)’, ‘철분(56.8%)’, ‘지방(53.3%)’, ‘나트륨(소금)(50.0%)’, ‘당류(설탕 등)(49.9%)’, ‘콜레스테롤(47.6%)’ 순으로 ‘관심 있는 편이다’로 조사됨.

〈그림 2-12〉 열량/영양성분별 섭취에 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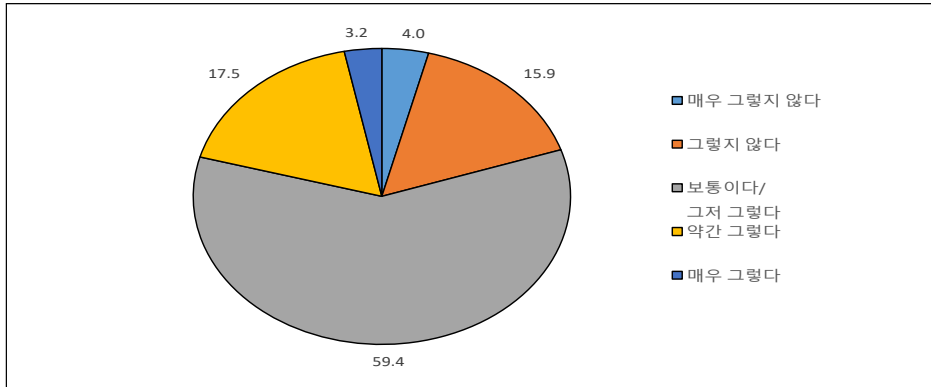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지난 한 달 기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59.4%)’, ‘약간 그렇다(17.5%)’, ‘그렇지 않다(15.9%)’, ‘매우 그렇지 않다(4.0%)’, ‘매우 그렇다(3.2%)’ 순으로 조사됨.

〈그림 2-13〉 지난 한 달 기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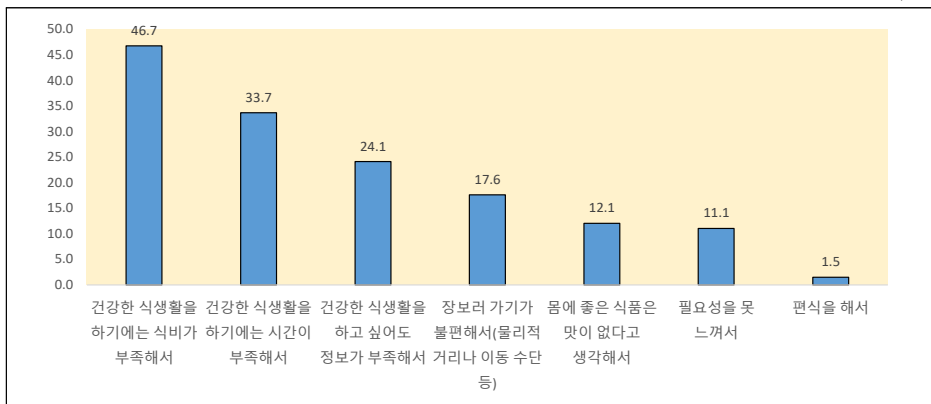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지난 한 달 동안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에는 식비가 부족해서(46.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33.7%)’,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24.1%)’, ‘장보러 가기가 불편해서(물리적 거리나 이동 수단 등)(17.6%)’ 등 순으로 조사됨.

〈그림 2-14〉 지난 한 달 동안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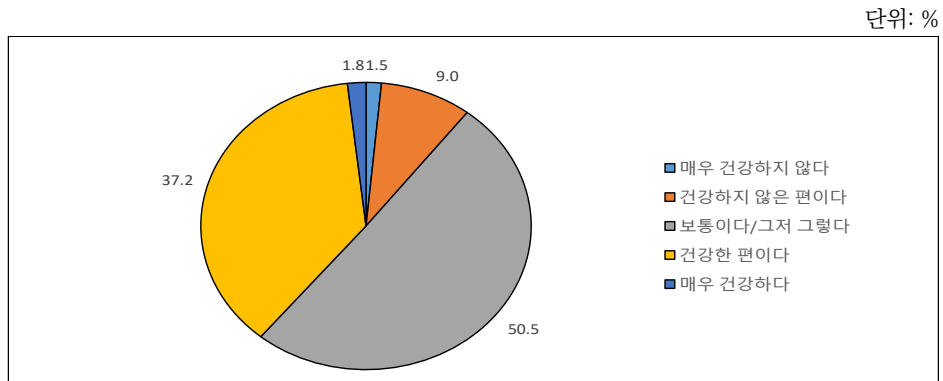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주 구입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50.5%)’, ‘건강한 편이다(37.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9.0%)’, ‘매우 건강하다(1.8%)’, ‘매우 건강하지 않다(1.5%)’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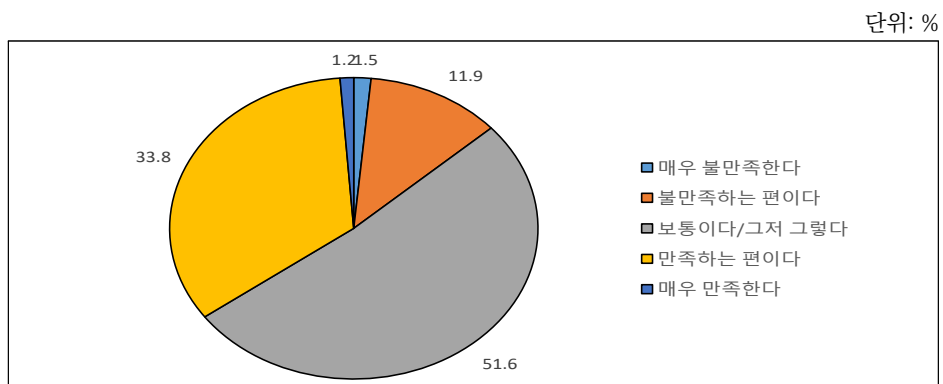
〈그림 2-15〉 전반적인 건강 상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주 구입자의 식생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51.6%)’, ‘만족하는 편이다(33.8%)’, ‘불만족하는 편이다(11.9%)’, ‘매우 불만족한다(1.5%)’, ‘매우 만족한다(1.2%)’ 순으로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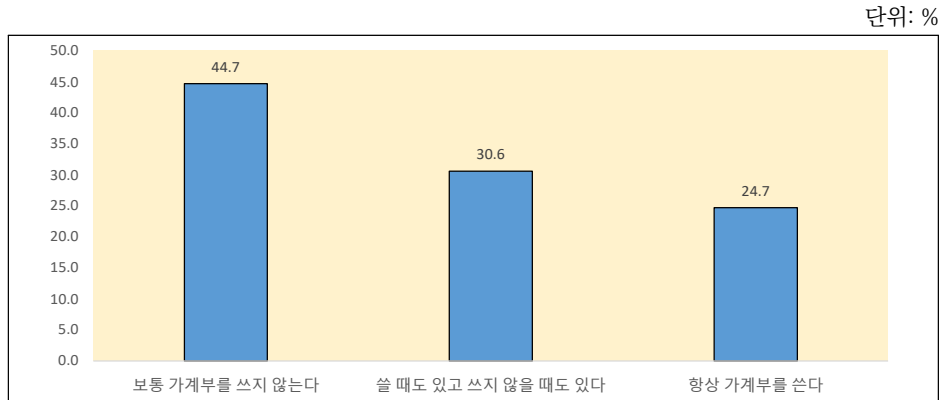
〈그림 2-16〉 식생활 만족도 조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평소 가계부 작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44.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다 (30.6%)’, ‘항상 가계부를 쓴다(24.7%)’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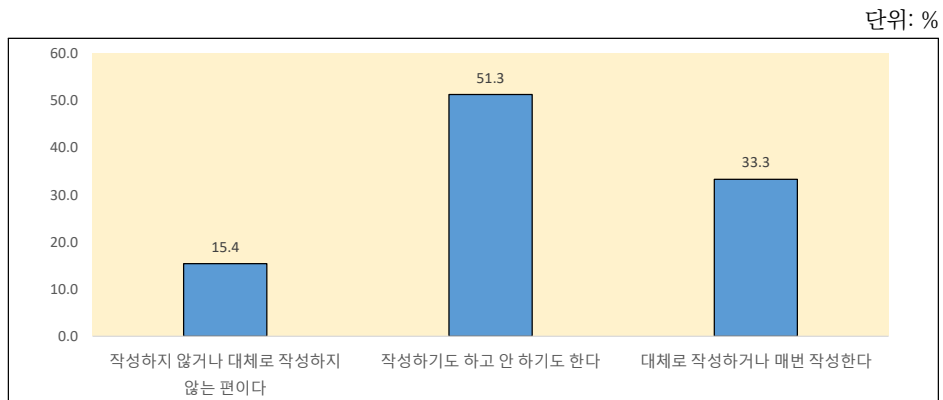
〈그림 2-17〉 평소 가계부 작성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료품 구매 시 구매 품목 미리 작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작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51.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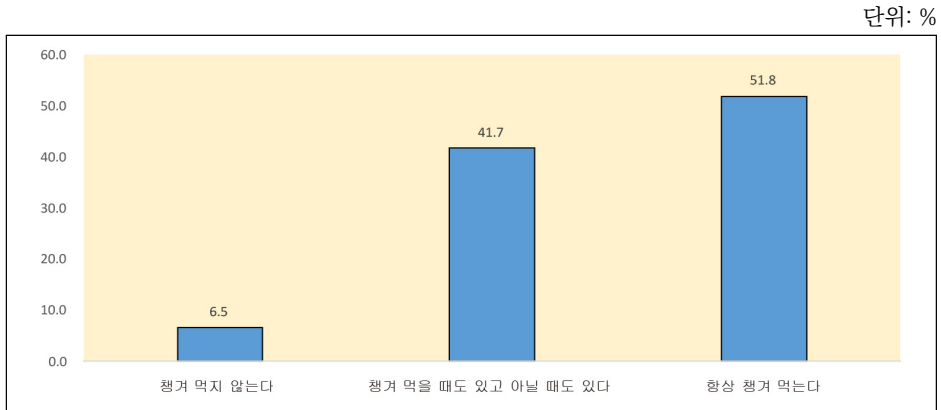
〈그림 2-18〉 식료품 구매 시 구매 품목 미리 작성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제/비타민/건강보조식품 섭취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항상 챙겨 먹는다(5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챙겨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41.7%)', '챙겨 먹지 않는다(6.5%)' 순으로 조사됨.

〈그림 2-19〉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제/비타민/건강보조식품 섭취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3. 영양표시제도 관련 조사

- 평소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를 질문한 결과,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34.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온라인 쇼핑몰(인터넷, 모바일, 해외직구, 라이브 커머스(라이브방송) 등)(21.9%)’, ‘동네 슈퍼마켓(대기업 운영 제외)(19.9%)’ 등 순으로 조사됨.
 -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비중은 여성(34.2%), 30대(34.8%), 경남권(36.1%), 4명 이상(37.0%), 대졸 이상(35.3%), 기혼(35.4%), 맞벌이 가구 아님(39.2%), 만 18세 미만 가구원 있음(35.8%),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39.1%),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하는 편(35.7%)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 평소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

구분	응답자 수	오프라인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동네 슈퍼마켓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진통시장	편의점	친환경 식품 전문점	TV 홈쇼핑	백화점	오프라인 로컬푸드 마켓
전체	1,000	34.0	21.9	19.9	14.3	3.7	1.9	1.7	0.9	0.8	0.8
성별	남성	33.3	22.2	20.9	11.5	4.3	3.9	1.2	0.5	2.0	0.2
	여성	34.2	21.9	19.7	15.0	3.6	1.5	1.8	0.9	0.6	0.9
연령대	20대	32.4	20.6	18.1	14.2	2.5	8.8	2.0	0.0	1.0	0.5
	30대	34.8	26.6	17.0	14.9	2.0	2.3	1.0	0.0	1.1	0.3
	40대	33.8	24.5	20.7	14.5	3.1	0.6	1.3	0.2	0.7	0.5
	50대	33.7	19.2	21.0	14.2	4.2	2.1	2.2	1.7	0.5	1.2
	60대 이상	34.4	17.4	21.2	13.8	6.3	0.7	2.0	1.8	1.1	1.3
지역	서울	32.5	25.0	16.3	14.5	4.3	2.0	2.7	0.7	1.3	0.7
	경기/강원권	33.0	25.1	17.5	15.9	2.8	2.5	0.9	1.2	0.7	0.5
	충청권	35.2	22.2	21.6	12.0	2.8	1.2	2.5	0.9	1.2	0.3
	호남권	35.7	16.0	27.7	10.0	3.7	1.0	2.0	1.3	1.0	1.7
	경북권	34.0	17.0	27.1	13.2	4.2	2.1	0.3	0.3	0.3	1.4
	경남권	36.1	17.7	19.4	15.8	5.1	1.7	2.1	0.4	0.4	1.1
가구원 수	1명	29.2	22.5	22.0	15.6	3.0	4.3	0.6	0.9	0.7	1.1
	2명	31.8	23.8	19.4	14.9	4.0	2.1	1.7	0.6	0.8	0.9
	3명	36.0	21.1	20.0	12.5	4.1	1.4	2.1	0.9	1.1	0.8
최종학력	4명 이상	37.0	20.7	19.1	14.6	3.6	0.9	1.9	1.0	0.8	0.5
	고졸 이하	29.2	16.5	26.1	16.7	5.4	2.8	1.1	1.7	0.0	0.6
	대졸 이상	35.3	23.4	18.2	13.7	3.2	1.7	1.8	0.6	1.1	0.9
결혼 유무	기혼	35.4	21.7	19.8	13.9	4.1	0.9	1.8	1.0	0.8	0.7
	미혼	32.8	22.6	18.0	14.8	2.7	4.6	2.4	0.0	1.1	1.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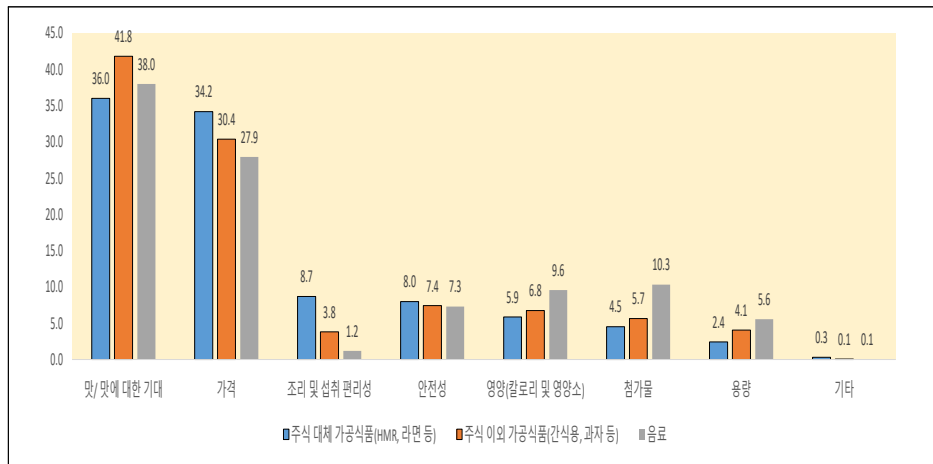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오프라인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동네 슈퍼마켓	대기업 운영 중 소형 슈퍼마켓	전통시장	편의점	친환경 식품 전문점	TV 홈쇼핑	백화점	오프라인 로컬푸드 마켓
맛별이 가구	맛별이 가구	32.7	23.7	19.5	14.7	4.2	0.9	1.5	1.2	1.0	0.7
	맛별이 가구 아님	39.2	18.9	20.1	12.8	3.9	0.8	2.3	0.8	0.6	0.7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35.8	22.3	18.1	15.6	3.5	0.7	1.8	0.6	1.1	0.5
	없음	33.3	21.8	20.7	13.8	3.8	2.4	1.6	1.0	0.7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5	19.2	24.4	15.8	4.5	4.1	0.7	0.7	0.0	2.1
	200만~400만원 미만	30.8	20.9	24.4	14.9	3.3	2.5	0.9	0.8	0.9	0.5
	400만~600만원 미만	34.1	24.3	17.4	13.0	5.3	1.8	1.5	1.1	0.9	0.5
	600만~800만원 미만	35.7	21.9	18.4	15.6	2.6	1.5	2.2	0.5	1.0	0.5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800만 원 이상	39.1	21.4	16.8	13.4	2.8	0.7	2.8	1.0	0.9	1.2
	확인하지 않는 편	32.2	21.3	22.4	15.1	4.1	2.9	0.5	0.6	0.2	0.8
	보통이다	33.2	21.9	21.7	13.9	3.5	2.1	1.0	0.6	1.3	0.9
	확인하는 편	35.7	22.3	17.0	14.4	3.7	1.3	2.9	1.2	0.7	0.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가공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주식 대체 가공식품, 주식 이외 가공식품, 음료류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모든 식품에서 ‘맛/맛에 대한 기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품목별로 ‘주식 이외 가공식품(간식용, 과자 등)(41.8%)’, ‘주식 대체 가공식품(HMR, 라면 등)(36.0%)’, ‘음료(38.0%)’ 순으로 조사됨.

〈그림 2-20〉 가공식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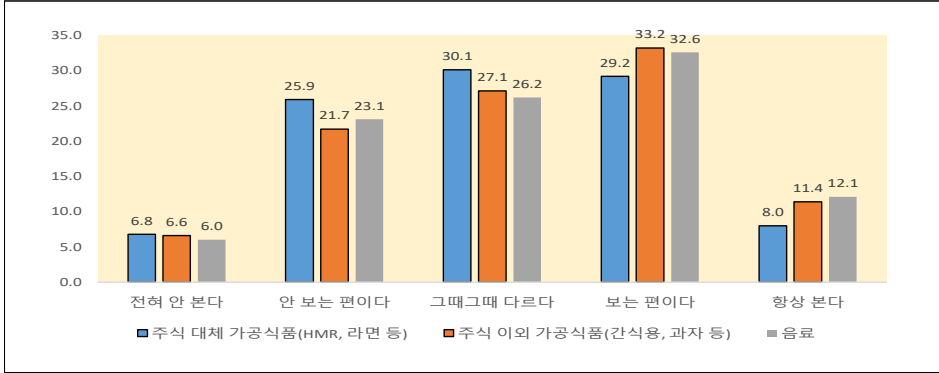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오프라인에서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정보 확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식 이외 가공식품(간식용, 과자 등)과 음료의 경우 ‘보는 편이다’의 응답이 각각 33.2%, 32.6%로 가장 높았고, 주식 대체 가공식품(HMR, 라면 등)은 ‘그때그때 다르다(30.1%)’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됨.

〈그림 2-21〉 오프라인에서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정보 확인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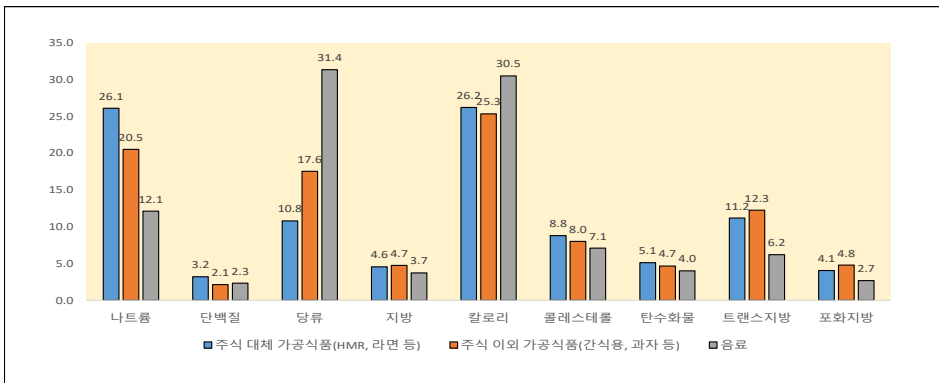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오프라인에서 가공식품 구입 시 필요한 영양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식 대체 가공식품(HMR, 라면 등)은 ‘칼로리(26.2%)’와 ‘나트륨(26.1%)’이 높게 조사되었고, 주식 이외 가공식품(간식용, 과자 등)의 경우도 ‘칼로리(25.3%)’, ‘나트륨(20.5%)’이 높게 조사됨. 음료 또한 ‘칼로리(30.5%)’를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당류(31.4%)’가 가장 높게 조사됨.

〈그림 2-22〉 오프라인 가공식품 구입 시 필요한 영양정보(1, 2, 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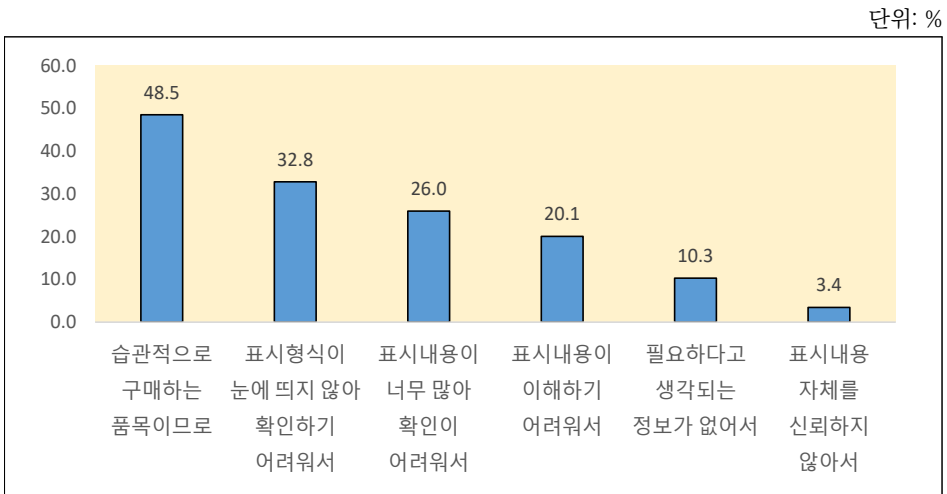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3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므로(48.5%)’, ‘표시형식이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서(32.8%)’, ‘표시내용이 너무 많아 확인이 어려워서(26.0%)’, ‘표시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20.1%)’,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없어서(10.3%)’, ‘표시내용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3.4%)’ 순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2-23〉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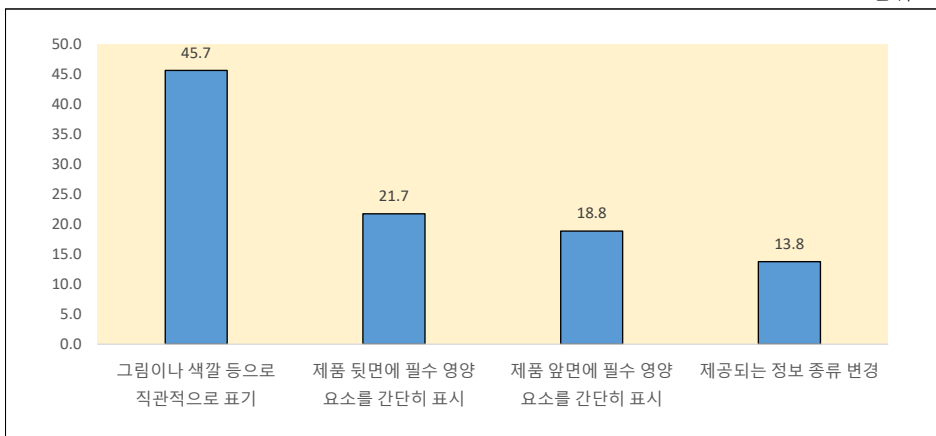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이나 색깔 등으로 직관적으로 표기(예: 신호등 표시제 등)(45.7%)’, ‘제품 뒷면에 필수 영양 요소를 간단히 표시(21.7%)’, ‘제품 앞면에 필수 영양 요소를 간단히 표시(18.8%)’, ‘제공되는 정보 종류 변경(예: 1인 분량당, 1단위 포장당 함량 등)(13.8%)’ 순으로 조사됨.

〈그림 2-24〉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개선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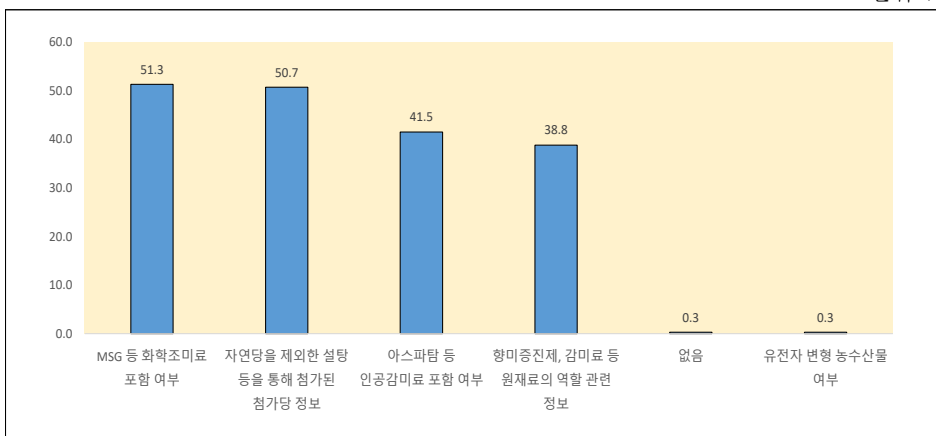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현재 제공되는 영양정보 외 확인하고 싶은 정보를 설문한 결과, ‘MSG 등 화학조미료 포함 여부(51.3%)’, ‘자연당을 제외한 설탕 등을 통해 첨가된 첨가당 정보(50.7%)’,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 포함 여부(41.5%)’, ‘향미증진제, 감미료 등 원재료의 역할 관련 정보(38.8%)’ 등 순으로 조사됨.

〈그림 2-25〉 현재 제공되는 영양정보 외 확인하고 싶은 정보(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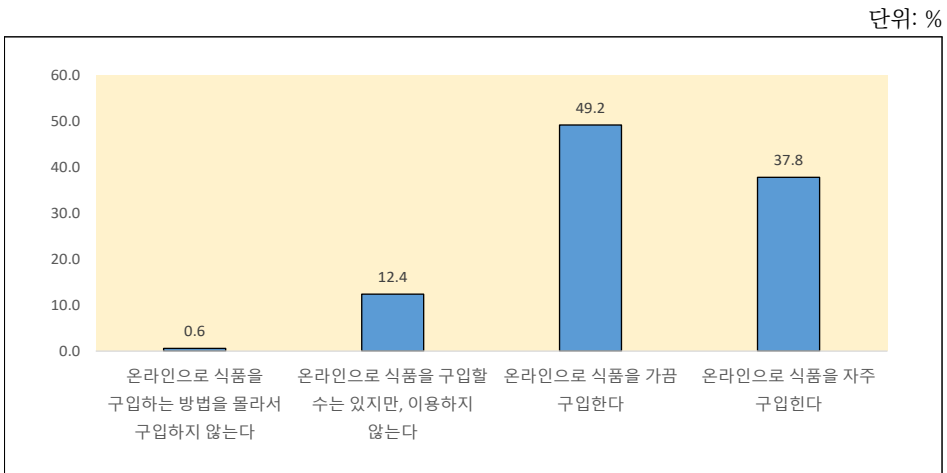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평소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온라인으로 식품을 가끔 구입한다(49.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온라인으로 식품을 자주 구입한다(37.8%)’,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12.4%)’,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몰라서 구입하지 않는다(0.6%)’ 순으로 조사됨.

〈그림 2-26〉 평소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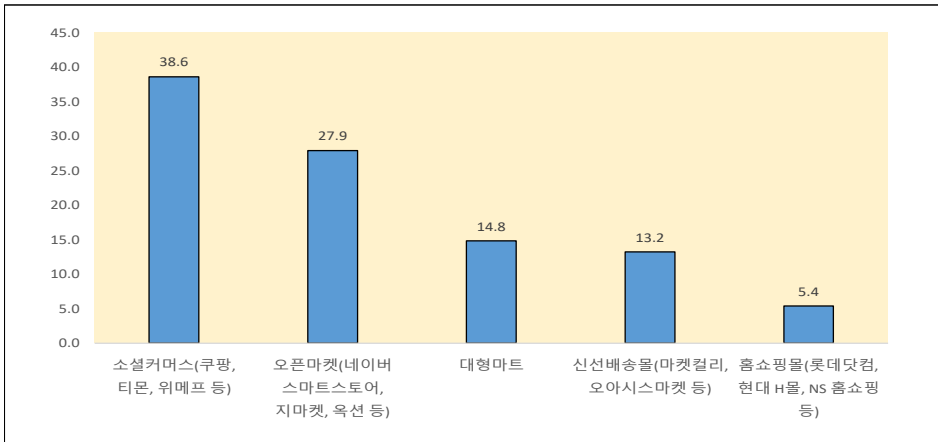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몰 유형으로는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3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등)(27.9%)’, ‘대형마트(14.8%)’, ‘신선배송몰(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13.2%)’, ‘홈쇼핑몰(롯데닷컴, 현대 H몰, NS 홈쇼핑 등)(5.4%)’ 순으로 조사됨.

〈그림 2-27〉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몰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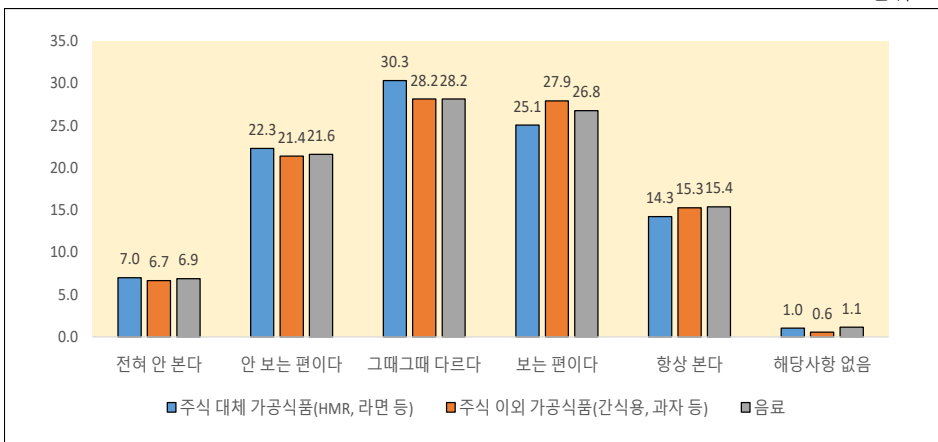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때그때 다르다’는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품목별로는 ‘주식 대체 가공식품(30.3%)’, ‘주식 이외 가공식품(간식용, 과자 등)(28.2%)’, ‘음료(28.2%)’로 조사됨.

〈그림 2-28〉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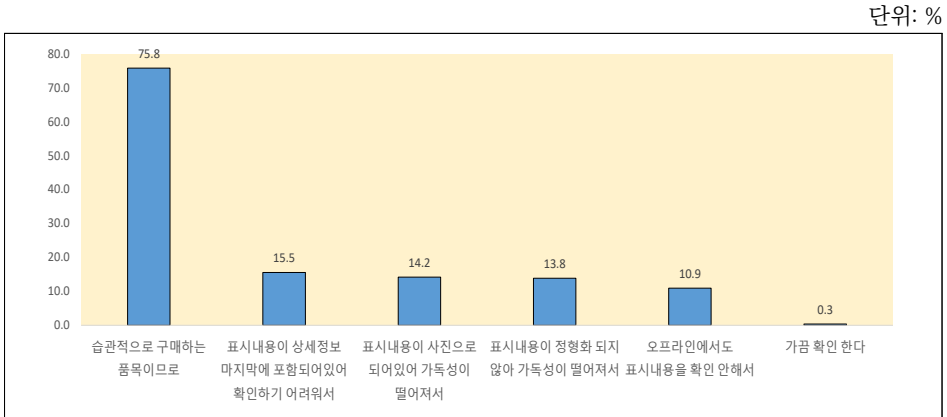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시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므로(75.8%)’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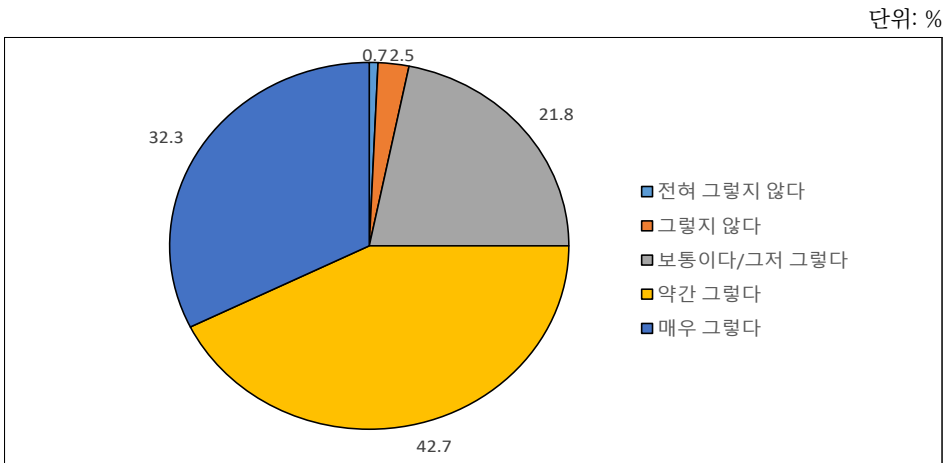
〈그림 2-29〉 가공식품 온라인 구입 시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전면 영양표시제도가 건강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약간 그렇다(42.7%)’, ‘매우 그렇다(32.3%)’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함.

〈그림 2-30〉 전면 영양표시제도가 건강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전면 영양표시제도가 건강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면 영양표시를 확인 안 할 것 같아서(37.5%)’, ‘전면 영양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28.1%)’, ‘전면 영양 표시에는 제한적인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서(25.0%)’, ‘영양표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서(9.4%)’ 순으로 조사됨.

- ‘전면 영양표시를 확인 안 할 것 같아서’ 응답 비중이 높은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40.0%), 50대(70.0%),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600만 원 미만(57.1%), 농식품 정보 확인 후 구매하는 편(42.9%)인 것으로 조사됨.

〈표 2-2〉 전면 영양표시제도가 건강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전면 영양표시를 확인 안 할 것 같아서	전면 영양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면 영양표시에는 제한적인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표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서
전체		32	37.5	28.1	25.0	9.4
성별	남성	10	40.0	30.0	30.0	0.0
	여성	22	36.4	27.3	22.7	13.6
연령대	20대	2	50.0	0.0	50.0	0.0
	30대	8	12.5	62.5	12.5	12.5
	40대	7	14.3	28.6	42.9	14.3
	50대	10	70.0	10.0	10.0	10.0
	60대 이상	5	40.0	20.0	40.0	0.0
지역	서울	3	66.7	33.3	0.0	0.0
	경기/강원권	9	11.1	33.3	44.4	11.1
	충청권	3	100.0	0.0	0.0	0.0
	호남권	2	50.0	50.0	0.0	0.0
	경북권	3	33.3	33.3	0.0	33.3
가구원 수	경남권	12	33.3	25.0	33.3	8.3
	1명	10	20.0	60.0	10.0	10.0
	2명	7	57.1	0.0	28.6	14.3
	3명	8	62.5	12.5	12.5	12.5
	4명 이상	7	14.3	28.6	57.1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9	33.3	33.3	22.2	11.1
	대졸 이상	23	39.1	26.1	26.1	8.7

(계속)

구분		응답자 수	전면 영양표시를 확인 안 할 것 같아서	전면 영양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면 영양표시에는 제한적인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표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서
결혼 유무	기혼	17	35.3	17.6	41.2	5.9
	미혼	5	80.0	0.0	0.0	20.0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9	33.3	11.1	55.6	0.0
	맞벌이 가구 아님	8	37.5	25.0	25.0	12.5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7	0.0	28.6	57.1	14.3
	없음	25	48.0	28.0	16.0	8.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	25.0	0.0	25.0	50.0
	200만~400만 원 미만	13	38.5	53.8	0.0	7.7
	400만~600만 원 미만	7	57.1	0.0	42.9	0.0
	600만~800만 원 미만	3	0.0	33.3	66.7	0.0
	800만 원 이상	5	40.0	20.0	40.0	0.0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16	37.5	18.8	31.3	12.5
	보통이다	9	33.3	33.3	22.2	11.1
	확인하는 편	7	42.9	42.9	14.3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제품의 영양정보 표시 방법에 따라 식품 주 구입자가 영양정보를 인식하고, 응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함.

- <그림 2-31>과 같이 제품의 영양정보를 제시하고, <표 2-3>처럼 그룹을 4개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함.
- 어린이음료의 경우 1그룹 전면표시(18.97초)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2그룹 전면표시(20.98초), 3그룹 전면표시(21.15초), 4그룹 전면표시(22.27초) 등 순으로 빠르게 응답함.
- 감자칩의 경우 2그룹 전면표시(23.71초)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3그룹 전면표시(23.96초), 1그룹 전면표시(24.24초), 4그룹 전면표시(24.62초) 등 순으로 빠르게 응답함.

〈표 2-3〉 평소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

그룹	표시위치	설명
1그룹	전면표시	텍스트 전면영양표시
	후면표시	
2그룹	전면표시	영양정보 이미지 전면영양표시
	후면표시	
3그룹	전면표시	신호등 표시제 전면영양표시
	후면표시	
4그룹	전면표시	배터리 표시제 전면영양표시
	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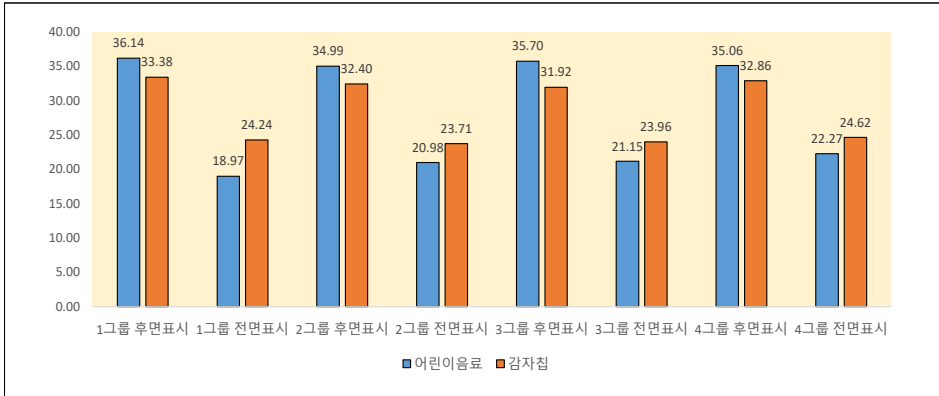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그림 2-31〉 영양정보 표시 예시

 <p>영양정보 총 내용량 235 ml 80 kcal</p> <p>나트륨 45 mg 2% 탄수화물 19 g 8% 지방 14 g 10% 당류 1 g 미만 1% 단백질 2 g 4%</p>	 <p>〈어린이음료-1그룹 전면표시〉</p>
 <p>영양정보 총 내용량 38 g 210 kcal</p> <p>나트륨 140 mg 7% 탄수화물 19 g 6% 지방 14 g 26% 트랜스지방 0 g 포화지방 5 g 33% 콜레스테롤 0 mg 0% 단백질 2 g 4%</p>	 <p>〈감자칩-1그룹 전면표시〉</p>

〈그림 2-32〉 제품에 제시된 영양정보 응답 소요시간

단위: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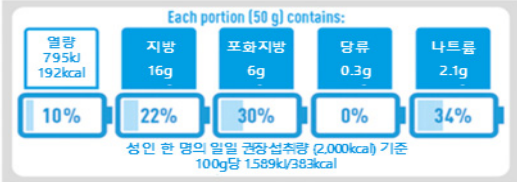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그림 2-33〉과 같은 전면 영양표시제도 7가지 중 가장 효과적인 표시 상위 1, 2순위를 조사한 결과, 상위 1순위는 ‘보기3(35.9%)’, ‘보기2(33.0%)’, ‘보기1(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1순위는 ‘보기7(37.6%)’, ‘보기4(25.4%)’, ‘보기6(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면 영양표시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로 ‘가독성이 좋다’, ‘색상이 눈에 띈다’,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보를 파악하기 쉽다’, ‘명확한 수치를 나타낸다’ 등의 이유가 있었음.
- 전면 영양표시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로는 주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가독성이 떨어진다’, ‘정확한 수치가 없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영양표시를 알 수 없다’ 등이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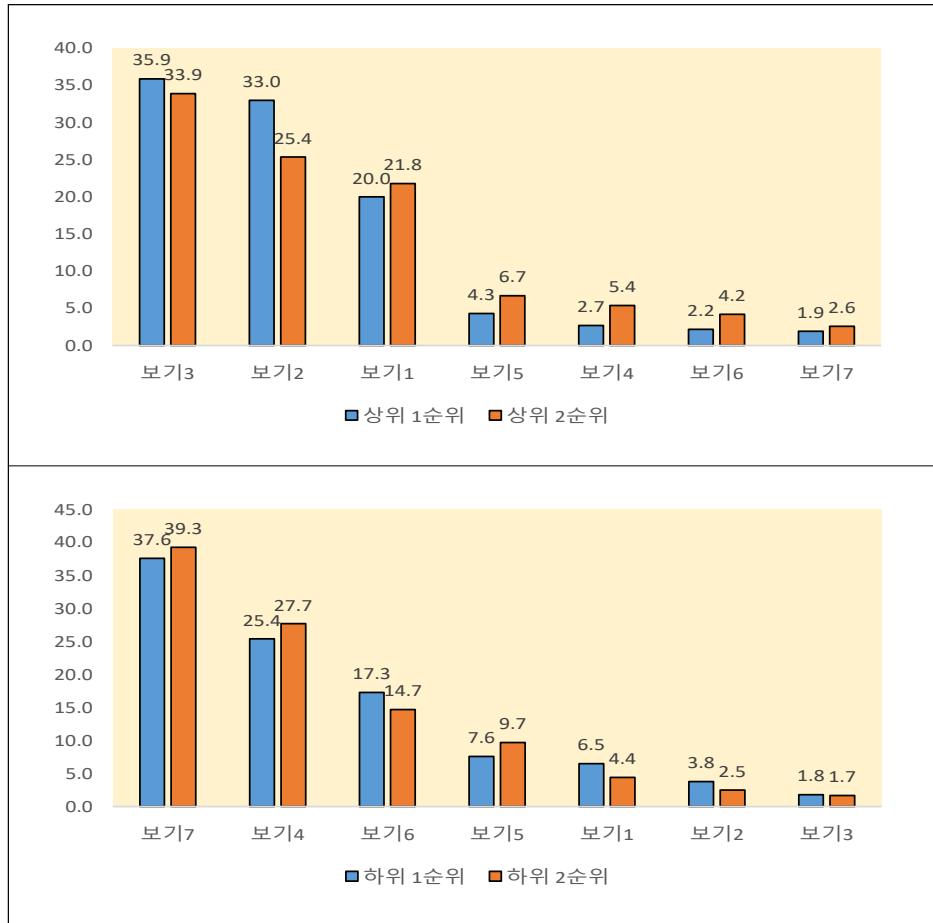
〈그림 2-33〉 전면 영양표시제도

<p>보기1.</p>	 <p>Each portion (50 g) contains:</p> <table border="1"> <tr> <td>열량 795kJ 192kcal</td> <td>지방 16g</td> <td>포화지방 6g</td> <td>당류 0.3g</td> <td>나트륨 2.1g</td> </tr> <tr> <td>10%</td> <td>22%</td> <td>30%</td> <td>0%</td> <td>34%</td> </tr> </table> <p>성인 한 명의 일일 권장섭취량 (2,000kcal) 기준 100g당 1,589kJ/383kcal</p>	열량 795kJ 192kcal	지방 16g	포화지방 6g	당류 0.3g	나트륨 2.1g	10%	22%	30%	0%	34%
열량 795kJ 192kcal	지방 16g	포화지방 6g	당류 0.3g	나트륨 2.1g							
10%	22%	30%	0%	34%							
<p>보기2.</p>	 <p>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당류 00g (00%) 나트륨 00mg (00%)</p> <p>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당류 00g (00%) 나트륨 00mg (00%)</p> <p>높음 ■ 보통 ■ 낮음 ■</p>										
<p>보기3.</p>	<p>1회 제공량(150g)에 포함</p> <table border="1"> <tr> <td>열량 1046kJ 250kcal</td> <td>지방 3.0g</td> <td>포화지방 1.3g</td> <td>당류 34g</td> <td>나트륨 0.9g</td> </tr> <tr> <td>13%</td> <td>4%</td> <td>7%</td> <td>38%</td> <td>15%</td> </tr> </table> <p>성인 한 명의 일일 권장섭취량 (2,000kcal) 기준 100g당 1,589kJ/383kcal</p>	열량 1046kJ 250kcal	지방 3.0g	포화지방 1.3g	당류 34g	나트륨 0.9g	13%	4%	7%	38%	15%
열량 1046kJ 250kcal	지방 3.0g	포화지방 1.3g	당류 34g	나트륨 0.9g							
13%	4%	7%	38%	15%							
<p>보기4.</p>	 <p>나트륨 높음 당류 높음 포화지방산 높음 열량 높음</p>										
<p>보기5.</p>	 <p>건강영양점수 3.5 건강영양점수 3.5</p> <table border="1"> <tr> <td>열량 1020kJ</td> <td>포화지방 1.0g</td> <td>당류 2.1g</td> <td>나트륨 645mg</td> <td>섬유질 8.0g</td> </tr> <tr> <td></td> <td>낮음</td> <td>낮음</td> <td></td> <td>높음</td> </tr> </table> <p>100 g당</p>	열량 1020kJ	포화지방 1.0g	당류 2.1g	나트륨 645mg	섬유질 8.0g		낮음	낮음		높음
열량 1020kJ	포화지방 1.0g	당류 2.1g	나트륨 645mg	섬유질 8.0g							
	낮음	낮음		높음							
<p>보기6.</p>	 <p>영양점수 ABCDE</p>										
<p>보기7</p>	 <p>[건강영양식품 인증] 건강영양식품만 인증하는 마크임</p>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그림 2-34〉 전면 영양표시제도 효과성 평가(상/하위 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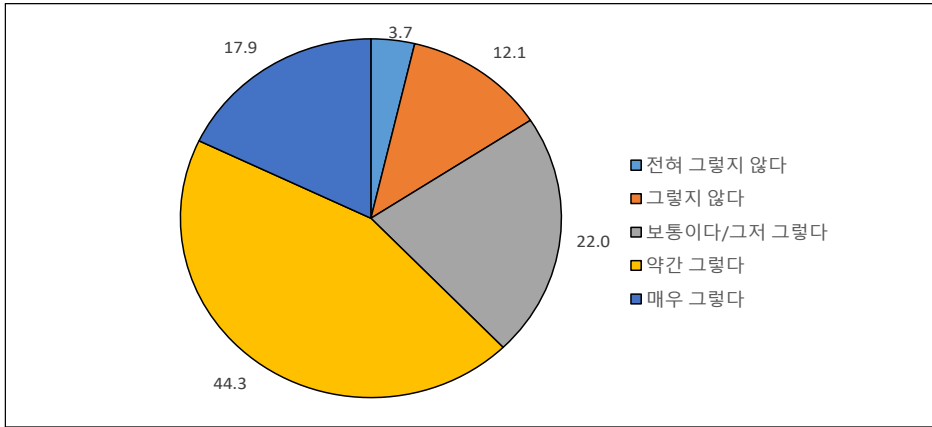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집에서 먹는 식사보다 외식이 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약간 그렇다(44.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22.0%)’, ‘매우 그렇다(17.9%)’, ‘그렇지 않다(12.1%)’, ‘전혀 그렇지 않다(3.7%)’ 순으로 조사됨.

〈그림 2-35〉 집에서 먹는 식사보다 외식이 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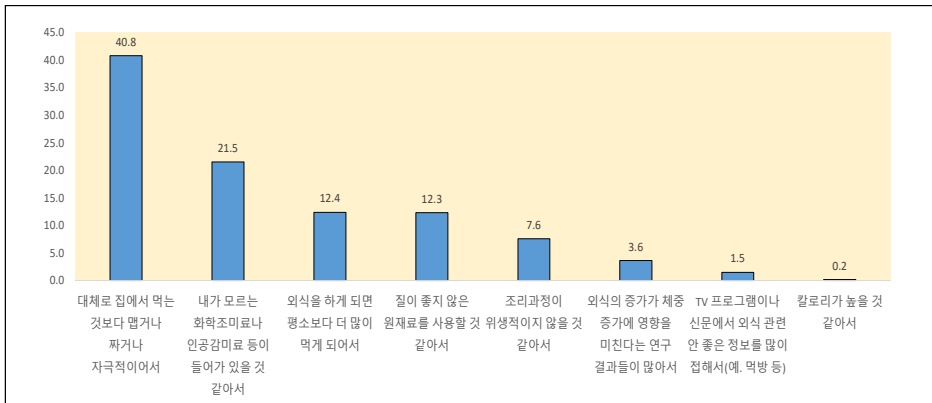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집에서 먹는 식사보다 외식이 덜 건강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이어서(40.8%)’, ‘내가 모르는 화학조미료나 인공감미료 등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21.5%)’, ‘외식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어서(12.4%)’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2-36〉 집에서 먹는 식사보다 외식이 덜 건강하다고 생각한 이유(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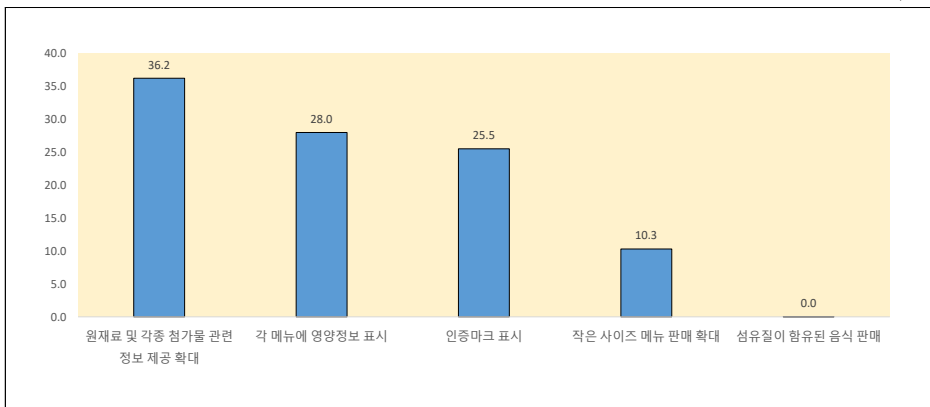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식점에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재료 및 각종 첨가물 관련 정보 제공 확대(원산지,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등)(36.2%)’, ‘각 메뉴에 영양정보 표시(열량, 지방, 나트륨 등)(28.0%)’, ‘인증마크 표시(세스코 멤버스, 위생등급, 안심음식점 등)(25.5%)’ ‘작은 사이즈 메뉴 판매 확대(0.5인분, 0.8인분 등)(10.3%)’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2-37〉 음식점에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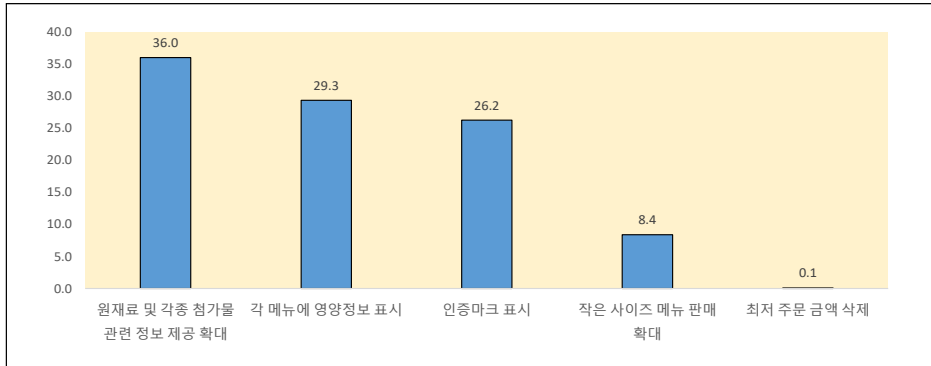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배달 앱에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및 각종 첨가물 관련 정보 제공 확대(원산지, 화학조미료, 인공 감미료 등)(36.0%)’, ‘각 메뉴에 영양정보 표시(열량, 지방, 나트륨 등)(29.3%)’, ‘인증마크 표시(세스코 멤버스, 위생등급, 안심음식점 등)(26.2%)’ ‘작은 사이즈 메뉴 판매 확대(0.5인분, 0.8인분 등)(8.4%)’ ‘최저 주문 금액 삭제(0.1%)’ 순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2-38〉 배달 앱에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1, 2순위)

단위: %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영양정보, 원산지정보, 인증정보, 기타 정보 확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산지정보(3.76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증정보(3.12점)’, ‘기타 정보(2.85점)’, ‘영양정보(2.77점)’ 순으로 조사됨.

- ‘원산지정보’ 응답 점수가 높은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3.81점)’, ‘60대 이상(4.05점)’,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90점)’,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하는 편(4.13점)’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2-39〉 식품정보 표시 예시

영양정보	원산지정보	인증정보	기타
			<p>가격, 용량/중량, 알레르기 유발물질, 첨가물 정보 등</p>

주: 식품의 표시정보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재, 판매대 등에 문자, 숫자 또는 도형/로고를 이용하여 표시한 것을 말하며 다양한 표시제도와 인증제도로 구성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표 2-4〉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보는 표시정보

단위: 명, 점(5점 평균)

구분	응답자 수	영양정보	원산지 정보	인증정보	기타 정보	
전체	1,000	2.77	3.76	3.12	2.85	
성별	남성	188	2.65	3.54	2.94	2.68
	여성	812	2.79	3.81	3.17	2.90
연령대	20대	68	2.74	3.29	2.87	2.72
	30대	204	2.77	3.63	3.08	2.86
	40대	272	2.68	3.69	3.09	2.79
	50대	272	2.80	3.84	3.21	2.93
	60대 이상	184	2.84	4.05	3.18	2.89
지역	서울	200	2.77	3.79	3.19	2.90
	경기/강원권	340	2.73	3.85	3.15	2.88
	충청권	108	2.71	3.73	2.98	2.79
	호남권	100	2.61	3.66	2.92	2.76
	경북권	96	2.89	3.76	3.21	2.84
가구원 수	경남권	156	2.89	3.62	3.15	2.85
	1명	179	2.60	3.37	2.82	2.64
	2명	259	2.78	3.85	3.14	2.86
	3명	253	2.76	3.83	3.20	2.90
최종학력	4명 이상	309	2.85	3.85	3.22	2.94
	고졸 이하	218	2.64	3.66	3.00	2.72
결혼 유무	대졸 이상	782	2.80	3.79	3.16	2.89
	기혼	697	2.80	3.89	3.20	2.90
맞벌이 가구	미혼	124	2.78	3.60	3.11	2.94
	맞벌이 가구	403	2.86	3.85	3.21	2.90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맞벌이 가구 아님	294	2.73	3.95	3.20	2.89
	있음	282	2.77	3.77	3.19	2.88
월평균 가구소득	없음	718	2.76	3.75	3.10	2.84
	200만 원 미만	97	2.70	3.44	2.92	2.80
	200만~400만 원 미만	253	2.61	3.55	3.00	2.70
	400만~600만 원 미만	262	2.81	3.84	3.15	2.93
	600만~800만 원 미만	196	2.80	3.96	3.27	2.90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800만 원 이상	192	2.90	3.90	3.20	2.93
	확인하지 않는 편	210	2.14	3.34	2.58	2.29
	보통이다	389	2.72	3.61	3.03	2.78
	확인하는 편	401	3.14	4.13	3.50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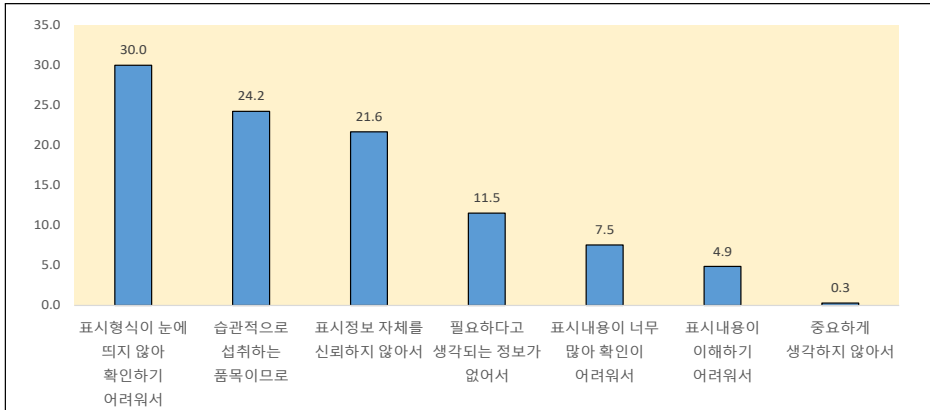
주: '전혀 안 본다(1점)~'지의 매번 본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식점에서 식품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표시형식이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30.0%)',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품목이므로(24.2%)', '표시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21.6%)'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0〉 음식점에서 식품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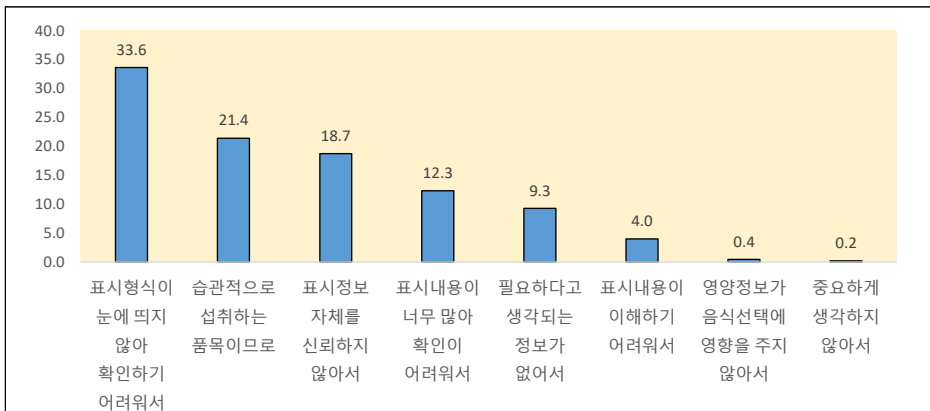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표시형식이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서(33.6%)’, ‘습관적으로 skim하는 품목이므로(21.4%)’, ‘표시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18.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1〉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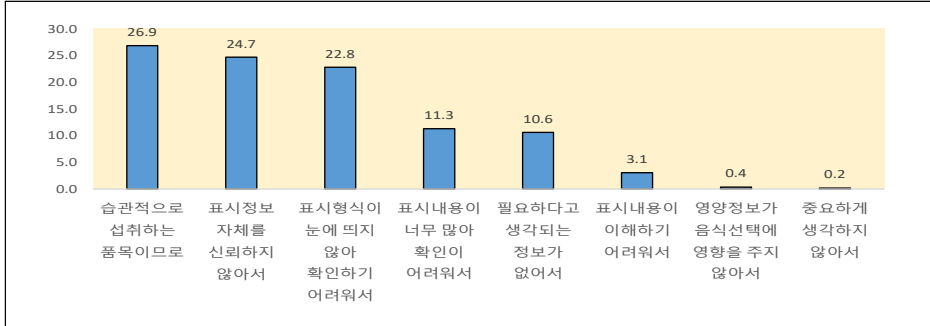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식점에서 원산지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품목이므로(26.9%)’, ‘표시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24.7%)’, ‘표시형식이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22.8%)’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2〉 음식점에서 원산지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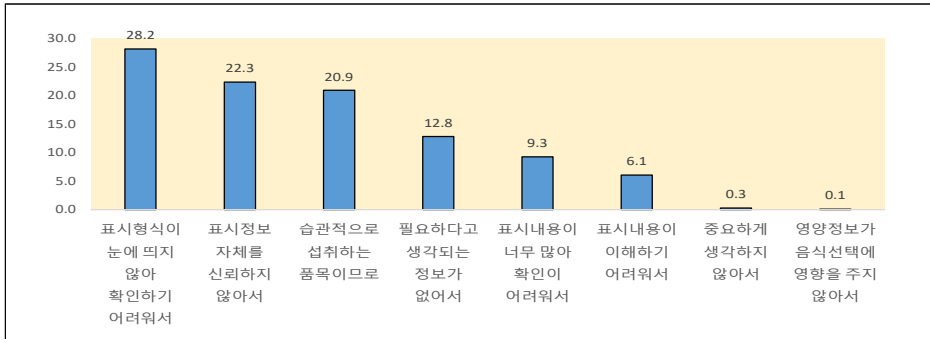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식점에서 인증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표시형식이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서(28.2%)’, ‘표시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22.3%)’,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품목이므로(20.9%)’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3〉 음식점에서 인증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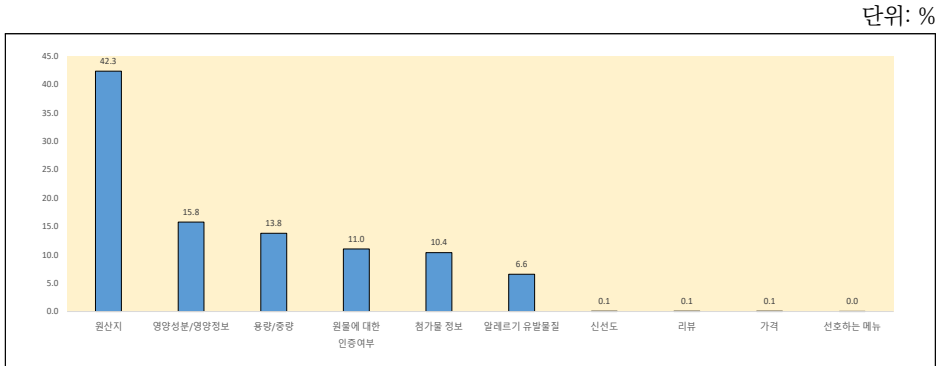
단위: %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식점에서 요리 주문 시 확인하고 싶은 표시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산지(42.3%)’, ‘영양성분/영양정보(kcal, 지방, 나트륨, 당류, 단백질 함량 등)(15.8%)’, ‘용량/중량(13.8%)’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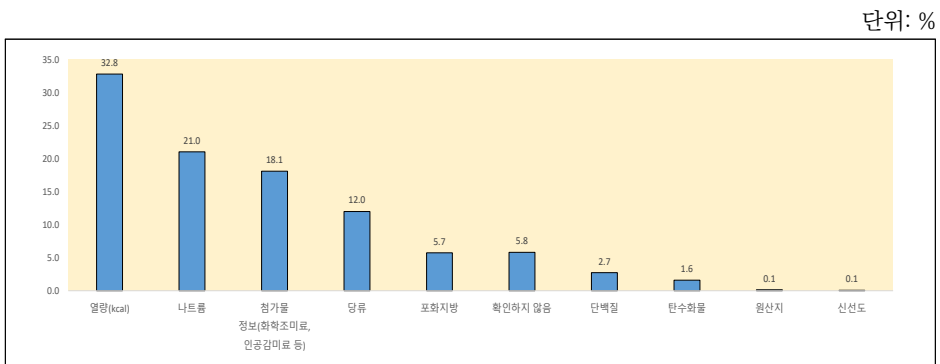
〈그림 2-44〉 음식점에서 요리 주문 시, 확인하고 싶은 표시정보(1, 2순위)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외식업에서 영양 표시정보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열량(kcal)(32.8%)’, ‘나트륨(21.0%)’, ‘첨가물 정보(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등)(18.1%)’, ‘당류(12.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5〉 외식업 영양 표시정보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1, 2순위)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식점 내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위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기준으로 ‘메뉴 사진과 함께(52.4%)’, ‘메뉴 이름 아래 혹은 옆에(32.2%)’, ‘벽에 걸린 메뉴판(10.2%)’, ‘벽에 걸린 메뉴판(3.4%)’, ‘벽에 걸린 메뉴판(1.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메뉴 사진과 함께’ 비중이 높은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54.7%), 50대(56.3%), 가구원 수 4명 이상(57.0%),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56.8%), 농식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편(56.7%)인 것으로 조사됨.

〈표 2-5〉 음식점 내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위치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메뉴 사진과 함께	메뉴이름 아래 혹은 옆에	벽에 걸린 메뉴판	별도 브로슈어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
전체		1,000	52.4	32.2	10.2	3.4	1.8
성별	남성	188	42.6	34.6	11.7	7.4	3.7
	여성	812	54.7	31.7	9.9	2.5	1.4
연령대	20대	68	42.6	42.6	4.4	7.4	2.9
	30대	204	47.1	39.2	6.4	4.4	2.9
	40대	272	62.1	25.7	6.6	4.0	1.5
	50대	272	56.3	28.3	12.1	2.2	1.1
	60대 이상	184	41.8	35.9	19.0	1.6	1.6
지역	서울	200	52.0	34.5	8.5	3.5	1.5
	경기/강원권	340	52.1	34.4	9.1	2.9	1.5
	충청권	108	51.9	31.5	13.0	0.9	2.8
	호남권	100	56.0	26.0	15.0	2.0	1.0
	경북권	96	51.0	33.3	10.4	5.2	0.0
가구원 수	경남권	156	52.6	28.2	9.6	5.8	3.8
	1명	179	46.4	33.5	13.4	3.4	3.4
	2명	259	50.6	34.4	10.8	3.1	1.2
	3명	253	53.0	32.0	8.7	4.3	2.0
	4명 이상	309	57.0	29.8	9.1	2.9	1.3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51.8	29.8	14.2	2.3	1.8
	대졸 이상	782	52.6	32.9	9.1	3.7	1.8
결혼 유무	기혼	697	53.8	31.1	10.8	2.9	1.4
	미혼	124	53.2	36.3	2.4	6.5	1.6
맛별이 가구	맛별이 가구	403	57.6	29.0	8.9	3.7	0.7
	맛별이 가구 아님	294	48.6	34.0	13.3	1.7	2.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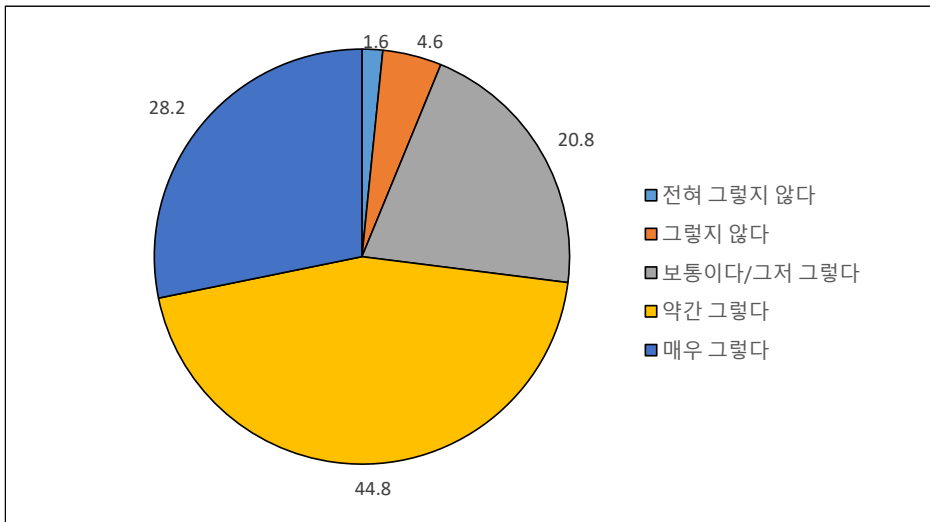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메뉴 사진과 함께	메뉴이름 아래 혹은 옆에	벽에 걸린 메뉴판	별도 브로슈어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60.3	27.0	7.1	3.9	1.8
	없음	718	49.3	34.3	11.4	3.2	1.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51.5	28.9	15.5	3.1	1.0
	200만~400만원미만	253	51.4	32.0	10.7	2.4	3.6
	400만~600만원미만	262	50.0	31.3	12.2	4.6	1.9
	600만~800만원미만	196	53.1	36.2	7.7	2.6	0.5
	800만 원 이상	192	56.8	31.3	6.8	4.2	1.0
농식품 정보 확인 후	확인하지 않는 편	210	56.7	26.2	13.3	3.3	0.5
	보통이다	389	53.0	30.1	10.3	3.9	2.8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는 편	401	49.6	37.4	8.5	3.0	1.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영양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외식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여부에 대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약간 그렇다(44.8%)’, ‘매우 그렇다(28.2%)’, ‘보통이다/그저 그렇다(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6〉 영양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외식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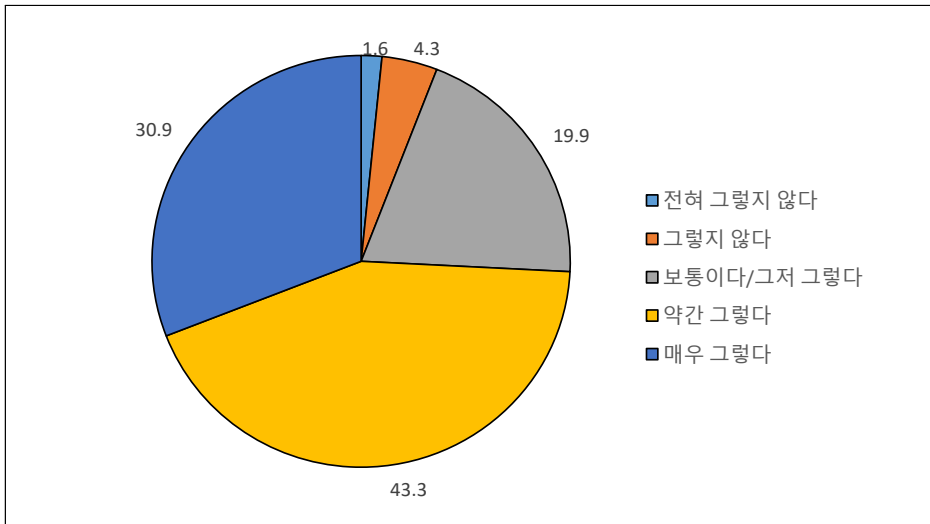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영양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식품 선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그렇다(43.3%)’, ‘전혀 그렇지 않다(30.9%)’, ‘보통이다/그저 그렇다(19.9%)’, ‘그렇지 않다(4.3%)’, ‘전혀 그렇지 않다(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7〉 영양 표시정보 확인이 건강한 식품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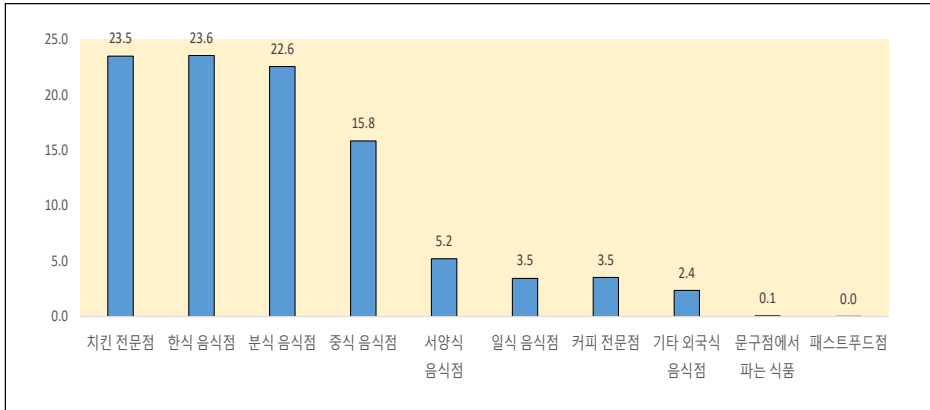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영양 표시정보 의무화가 필요한 외식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식 음식점(23.6%)’이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치킨 전문점(23.5%)’, ‘분식 음식점(22.6%)’, ‘중식 음식점(15.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8〉 영양 표시정보 의무화가 필요한 외식점(1, 2, 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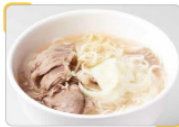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3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각 메뉴별 칼로리를 추측하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답률 10% 기준으로 ‘돼지갈비(23.9%)’, ‘떡볶이(17.1%)’, ‘짜장면(17.1%)’, ‘쌀국수(16.4%)’, ‘크림스파게티(14.6%)’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9〉 각 메뉴별 칼로리 설문 예시

돼지갈비(200g, 1인분)	떡볶이(200g, 1인분)	치킨(900g, 한 마리)	짜장면(650g, 1인분)
			
()kcal	()kcal	()kcal	()kcal
광어회 초밥(10피스)	크림스파게티(400g, 1인분)	쌀국수(600g, 1인분)	카페라떼(355ml, 1잔)
			
()kcal	()kcal	()kcal	()kcal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표 2-6〉 각 메뉴별 칼로리 추측결과

단위: kcal, %

메뉴	평균	표준편차	정답률(10% 기준)	정답률(20% 기준)
돼지갈비	540.55	305.14	23.9	39.1
떡볶이	491.82	241.75	17.1	25.7
치킨	1,109.02	615.91	9.6	11.4
짜장면	772.16	362.22	17.1	39.0
광어회 초밥	437.03	219.83	6.7	38.3
크림스파게티	629.57	308.56	14.6	28.9
쌀국수	523.63	248.44	16.4	17.8
카페라테	362.99	211.21	2.8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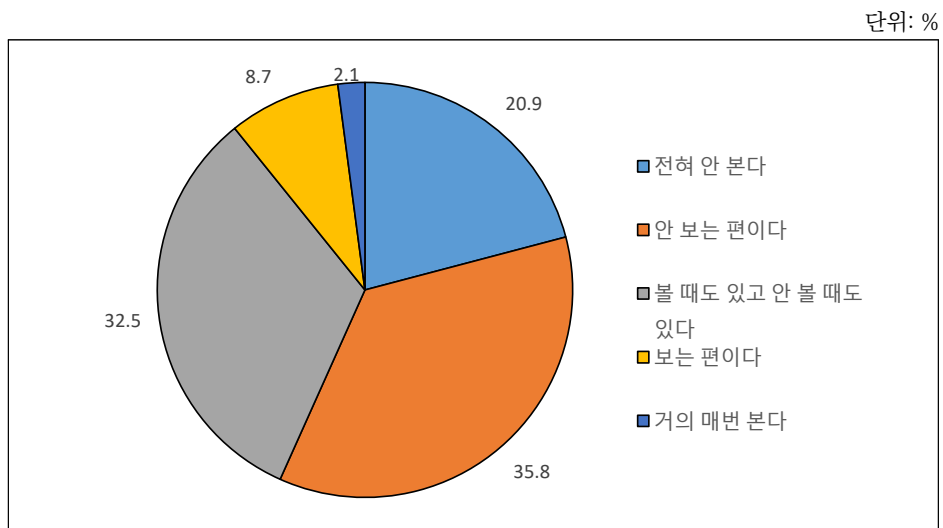
주 1) 설문결과 평균 및 표준편차, 오답률(정답±10% 이상)를 계산한 것임.

2) 각 메뉴에 대한 칼로리 정답은 표의 행 순서대로 538, 304, 2709, 797, 454, 838, 320, 180 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배달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한 외식 주문 시, 영양 표시정보 확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 보는 편이다(35.8%)’,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32.5%)’, ‘전혀 안 본다(20.9%)’, ‘보는 편이다(8.7%)’, ‘거의 매번 본다(2.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0〉 배달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한 외식 주문 시 영양 표시정보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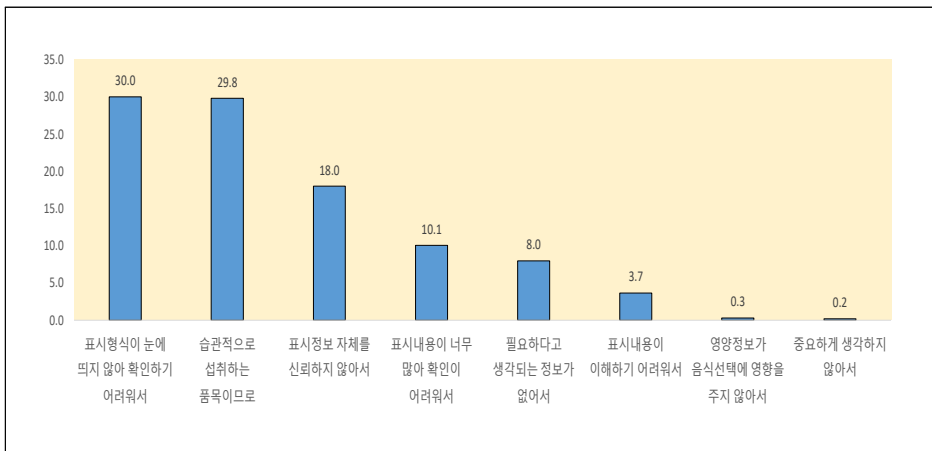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배달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한 외식 주문 시, 영양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표시형식이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서(3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품목이므로(29.8%)’, ‘표시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18.0%)’, ‘표시내용이 너무 많아 확인이 어려워서(10.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1〉 배달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한 외식 주문 시 영양 표시정보 확인하지 않은 이유 (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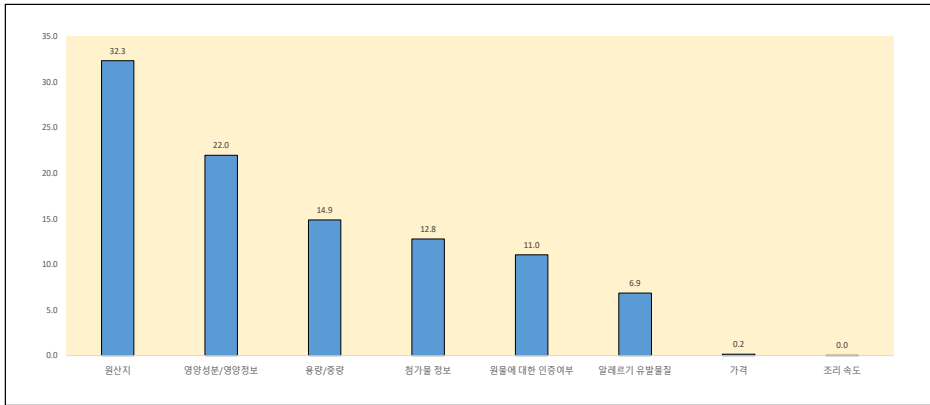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배달 앱 또는 온라인으로 음식 주문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표시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산지(32.3%)’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영양성분/영양정보(22.0%)’, ‘용량/중량(14.9%)’, ‘첨가물 정보(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2〉 배달 앱 또는 온라인으로 음식 주문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표시정보 (1, 2, 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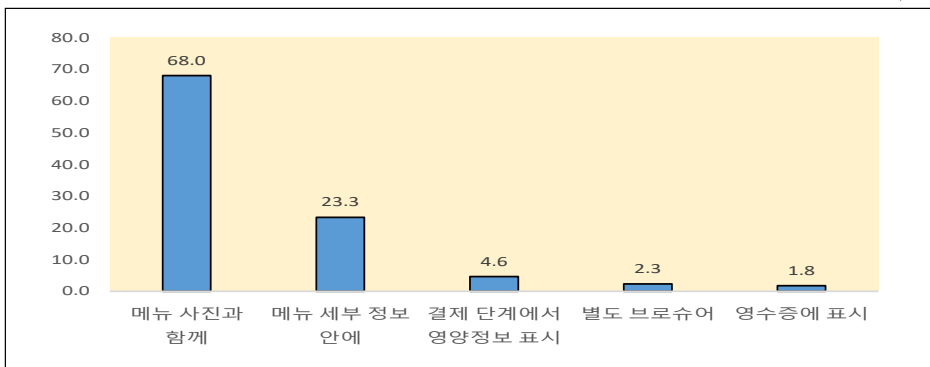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3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배달 앱 또는 온라인에서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메뉴 사진과 함께(68.0%)’, ‘메뉴 세부 정보 안에(23.3%)’, ‘결제 단계에서 영양정보 표시(4.6%)’, ‘별도 브로슈어(2.3%)’, ‘영수증에 표시(1.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3〉 배달 앱 또는 온라인에서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부분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급식 이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기준으로 ‘아니오(75.7%)’, ‘예(24.3%)’ 순으로 조사됨. 급식을 이용하는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28.2%), 20대(32.4%), 가구원 수 4명 이상(28.5%),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800만 원 미만(28.1%) 등이 높은 비율로 조사됨.

〈표 2-7〉 급식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예	아니오
전체		1,000	24.3	75.7
성별	남성	188	28.2	71.8
	여성	812	23.4	76.6
연령대	20대	68	32.4	67.6
	30대	204	30.9	69.1
	40대	272	27.9	72.1
	50대	272	21.7	78.3
	60대 이상	184	12.5	87.5
지역	서울	200	22.0	78.0
	경기/강원권	340	23.5	76.5
	충청권	108	31.5	68.5
	호남권	100	22.0	78.0
	경북권	96	22.9	77.1
가구원 수	경남권	156	26.3	73.7
	1명	179	24.6	75.4
	2명	259	20.5	79.5
	3명	253	22.9	77.1
	4명 이상	309	28.5	71.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17.0	83.0
	대졸 이상	782	26.3	73.7
결혼 유무	기혼	697	24.5	75.5
	미혼	124	22.6	77.4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32.0	68.0
	맞벌이 가구 아님	294	14.3	85.7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32.3	67.7
	없음	718	21.2	78.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12.4	87.6
	200만~400만 원 미만	253	21.3	78.7
	400만~600만 원 미만	262	26.3	73.7
	600만~800만 원 미만	196	28.1	71.9
	800만 원 이상	192	27.6	72.4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24.8	75.2
	보통이다	389	21.9	78.1
	확인하는 편	401	26.4	73.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급식을 이용하면서 영양 표시정보 확인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기준으로 ‘아니오(54.3%)’, ‘예(45.7%)’ 순으로 조사됨. 영양 표시정보를 확인한다는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46.8%), 20대(63.6%), 가구원 수 4명 이상(56.8%),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54.7%) 등이 높은 비율로 조사됨.

〈표 2-8〉 급식 이용하면서 영양 표시정보 확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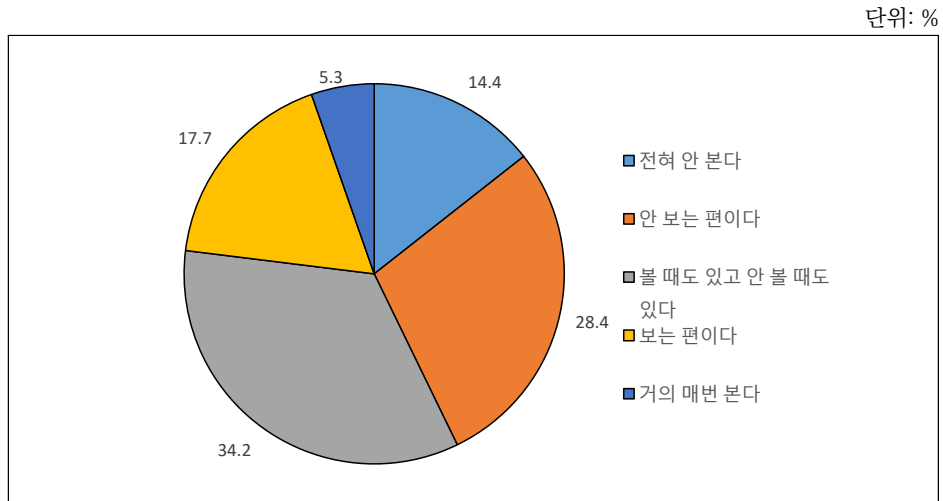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예	아니오
전체		1,000	45.7	54.3
성별	남성	188	41.5	58.5
	여성	812	46.8	53.2
연령대	20대	68	63.6	36.4
	30대	204	39.7	60.3
	40대	272	47.4	52.6
	50대	272	40.7	59.3
	60대 이상	184	52.2	47.8
지역	서울	200	50.0	50.0
	경기/강원권	340	42.5	57.5
	충청권	108	47.1	52.9
	호남권	100	31.8	68.2
	경북권	96	40.9	59.1
가구원 수	경남권	156	56.1	43.9
	1명	179	38.6	61.4
	2명	259	34.0	66.0
	3명	253	44.8	55.2
최종학력	4명 이상	309	56.8	43.2
	고졸 이하	218	43.2	56.8
결혼 유무	대졸 이상	782	46.1	53.9
	기혼	697	43.9	56.1
맞벌이 가구	미혼	124	67.9	32.1
	맞벌이 가구	403	46.5	53.5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맞벌이 가구 아님	294	35.7	64.3
	있음	282	48.4	51.6
월평균 가구소득	없음	718	44.1	55.9
	200만 원 미만	97	41.7	58.3
	200만~400만 원 미만	253	42.6	57.4
	400만~600만 원 미만	262	42.0	58.0
	600만~800만 원 미만	196	45.5	54.5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800만 원 이상	192	54.7	45.3
	확인하지 않는 편	210	34.6	65.4
	보통이다	389	41.2	58.8
	확인하는 편	401	54.7	45.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급식으로 식사 시 제공된 표시정보 확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34.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안 보는 편이다(28.4%)’, ‘보는 편이다(17.7%)’, ‘전혀 안 본다(14.4%)’, ‘거의 매번 본다(5.3%)’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4〉 급식으로 식사 시 제공된 표시정보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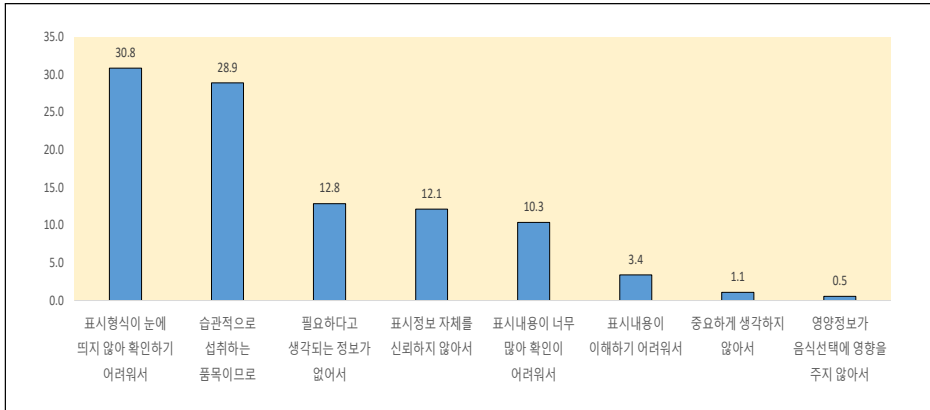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급식으로 식사 시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시형식이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워서(30.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품목이므로(28.9%)’,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없어서(12.8%)’, ‘표시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12.1%)’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5〉 급식으로 식사 시 제공된 표시정보 확인하지 않는 이유(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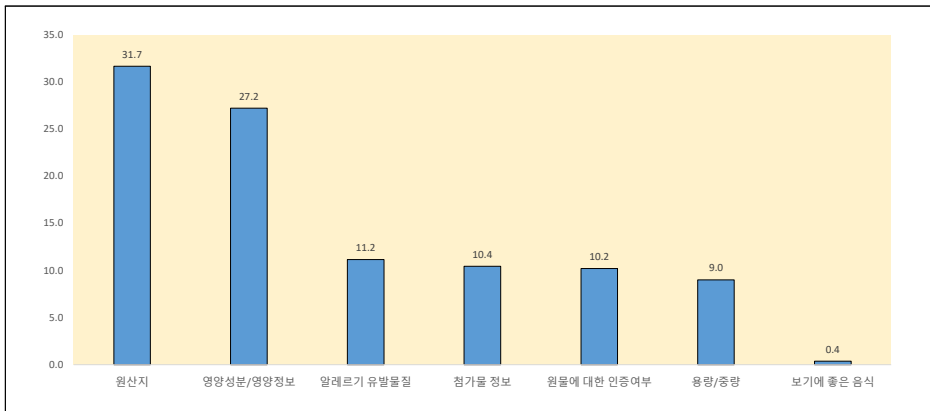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급식 이용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산지(31.7%)’, ‘영양성분/영양정보(27.2%)’, ‘알레르기 유발물질(11.2%)’, ‘첨가물 정보(10.4%)’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6〉 급식 이용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정보(1, 2, 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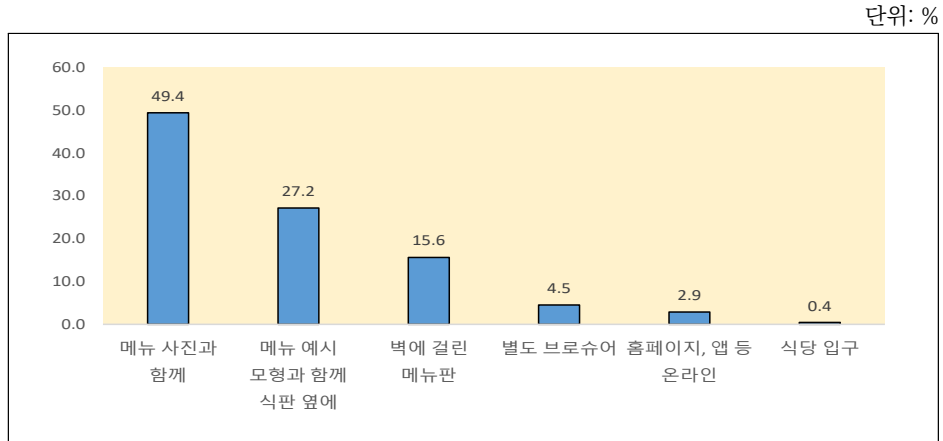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급식에서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위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메뉴 사진과 함께(49.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메뉴 예시 모형과 함께 식판 옆에(27.2%)’, ‘벽에 걸린 메뉴판(15.6%)’, ‘별도 브로슈어(4.5%)’,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2.9%)’, ‘식당 입구(0.4%)’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7〉 급식에서 영양 표시정보를 표기하길 원하는 위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어린이 음료에 표시된 당류 1회 섭취 용량이 일일 권장량 대비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기준 ‘높은 편이다(75.5%)’, ‘보통이다(23.0%)’, ‘낮은 편이다(1.5%)’ 순으로 나타났고, 3점 척도 평균 점수는 1.26점으로 조사됨.

- 일일 권장량 대비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78.3%), 60대 이상(81.5%), 만 18세 미만 가구원 있음(77.0%),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800만 원 미만(79.6%),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하는 편(80.5%) 등으로 조사됨.

〈표 2-9〉 어린이 음료에 표시된 당류 1회 섭취 용량이 일일 권장량 대비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3점 평균
전체		1,000	75.5	23.0	1.5	1.26
성별	남성	188	63.3	34.0	2.7	1.39
	여성	812	78.3	20.4	1.2	1.23
연령대	20대	68	58.8	39.7	1.5	1.43
	30대	204	65.2	34.3	0.5	1.35
	40대	272	77.9	20.2	1.8	1.24
	50대	272	80.9	16.9	2.2	1.21
	60대 이상	184	81.5	17.4	1.1	1.20
지역	서울	200	76.0	22.0	2.0	1.26
	경기/강원권	340	77.9	20.9	1.2	1.23
	충청권	108	73.1	25.0	1.9	1.29
	호남권	100	77.0	21.0	2.0	1.25
	경북권	96	75.0	24.0	1.0	1.26
	경남권	156	70.5	28.2	1.3	1.31
가구원 수	1명	179	67.6	31.3	1.1	1.34
	2명	259	76.1	21.6	2.3	1.26
	3명	253	74.7	24.1	1.2	1.26
	4명 이상	309	80.3	18.4	1.3	1.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72.5	24.8	2.8	1.30
	대졸 이상	782	76.3	22.5	1.2	1.25
결혼 유무	기혼	697	78.3	20.4	1.3	1.23
	미혼	124	71.0	25.8	3.2	1.32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74.9	24.1	1.0	1.26
	맞벌이 가구 아님	294	83.0	15.3	1.7	1.19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77.0	22.0	1.1	1.24
	없음	718	74.9	23.4	1.7	1.2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61.9	35.1	3.1	1.41
	200만~400만 원 미만	253	73.9	24.5	1.6	1.28
	400만~600만 원 미만	262	77.1	20.2	2.7	1.26
	600만~800만 원 미만	196	79.6	20.4	0.0	1.20
	800만 원 이상	192	78.1	21.4	0.5	1.22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76.7	22.9	0.5	1.24
	보통이다	389	69.7	28.8	1.5	1.32
	확인하는 편	401	80.5	17.5	2.0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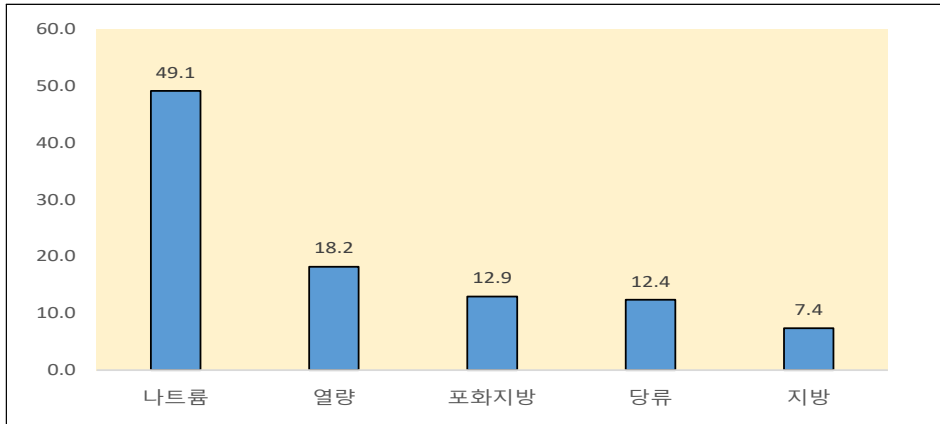
주: '높은 편이다(1점)~'낮은 편이다(3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감자칩에 표시된 영양소 중 가장 우려되는 영양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나트륨(49.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열량(18.2%)’, ‘포화지방(12.9%)’, ‘당류(12.4%)’, ‘지방(7.4%)’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8〉 감자칩에 표시된 영양소 중 가장 우려되는 영양소(1, 2순위)

단위: %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4. 식품에 포함된 당류 및 나트륨에 대한 저감 정책 추진 관련 조사

○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당류 관련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나는 당류의 건강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3.62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나는 식생활에 너무 많은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3.27점)’, ‘나는 자연당과 첨가당의 차이를 안다(3.15점)’, ‘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어렵다(2.97점)’, ‘나는 당류 일일권장량을 안다(2.54점)’ 순으로 조사됨.

- ‘나는 당류의 건강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3.65점), 60대 이상(3.74점), 만 18세 미만 가구원 있음(3.63점), 월 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69점) 등으로 조사됨.

〈표 2-10〉 당류 관련 동의도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나는 식생활에 너무 많은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나는 당류의 건강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어렵다	나는 당류 일일 권장량을 안다	나는 자연당과 첨가당의 차이를 안다
전체		1,000	3.27	3.62	2.97	2.54	3.15
성별	남성	188	3.24	3.47	3.01	2.53	2.87
	여성	812	3.28	3.65	2.96	2.54	3.21
연령대	20대	68	3.37	3.62	3.06	2.57	2.79
	30대	204	3.56	3.67	3.16	2.46	3.02
	40대	272	3.32	3.51	2.95	2.46	3.13
	50대	272	3.17	3.59	2.94	2.56	3.21
	60대 이상	184	2.99	3.74	2.78	2.72	3.35
지역	서울	200	3.25	3.59	3.01	2.57	3.23
	경기/강원권	340	3.34	3.64	2.99	2.45	3.19
	충청권	108	3.32	3.50	2.93	2.66	2.91
	호남권	100	3.11	3.60	2.88	2.59	3.11
	경북권	96	3.27	3.72	2.94	2.49	3.09
	경남권	156	3.21	3.63	2.97	2.63	3.18

(계속)

구분	응답자 수	나는 식생활에 너무 많은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나는 당류의 건강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어렵다	나는 당류 일일 권장량을 안다	나는 자연당과 첨가당의 차이를 안다	
가구원 수	1명	179	3.29	3.51	2.98	2.46	2.86
	2명	259	3.17	3.65	2.88	2.47	3.11
	3명	253	3.33	3.59	3.03	2.58	3.19
	4명 이상	309	3.29	3.66	2.98	2.61	3.3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3.19	3.45	2.86	2.61	3.04
	대졸 이상	782	3.29	3.66	3.00	2.52	3.18
결혼 유무	기혼	697	3.24	3.65	2.93	2.56	3.24
	미혼	124	3.42	3.56	3.13	2.53	3.05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3.30	3.65	2.95	2.56	3.22
	맞벌이가구 아님	294	3.15	3.66	2.92	2.57	3.27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3.37	3.63	3.01	2.53	3.22
	없음	718	3.23	3.61	2.95	2.55	3.1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3.22	3.43	3.03	2.56	3.05
	200만~400만 원 미만	253	3.27	3.58	2.97	2.53	2.91
	400만~600만 원 미만	262	3.33	3.65	3.02	2.52	3.22
	600만~800만 원 미만	196	3.19	3.64	2.86	2.56	3.28
	800만 원 이상	192	3.29	3.69	2.97	2.56	3.28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3.40	3.35	3.07	2.17	2.82
	보통이다	389	3.22	3.49	2.97	2.52	2.99
	확인하는 편	401	3.25	3.88	2.91	2.76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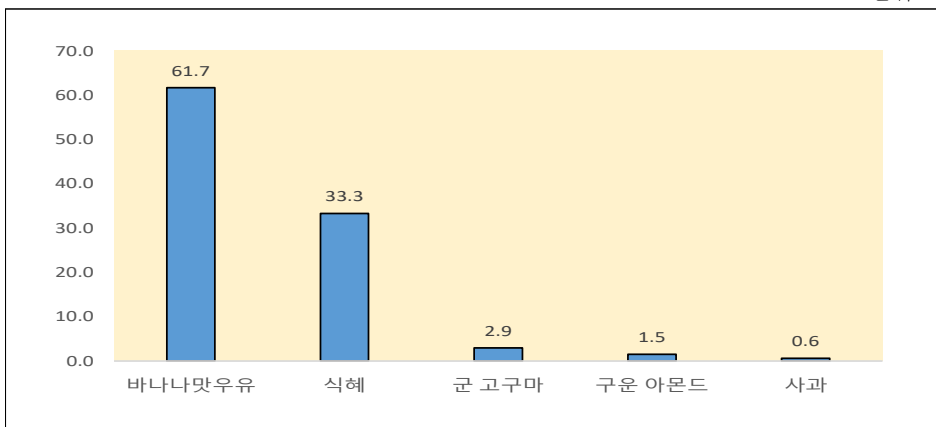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첨가당이 많이 함유됐다고 생각하는 간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나나맛 우유(61.7%)'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식혜(33.3%)', '군고구마(2.9%)', '구운 아몬드(1.5%)', '사과(0.6%)' 순으로 조사됨.

〈그림 2-59〉 첨가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한 간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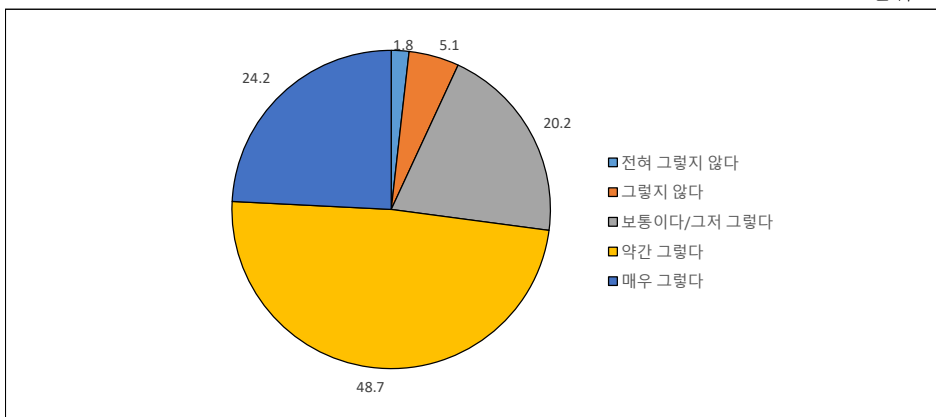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외식업 진흥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N=38).

○ 자연당과 첨가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차이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그렇다(48.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매우 그렇다(24.2%)’, ‘보통이다/그저 그렇다(20.2%)’, ‘그렇지 않다(5.1%)’, ‘전혀 그렇지 않다(1.8%)’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0〉 자연당과 첨가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차이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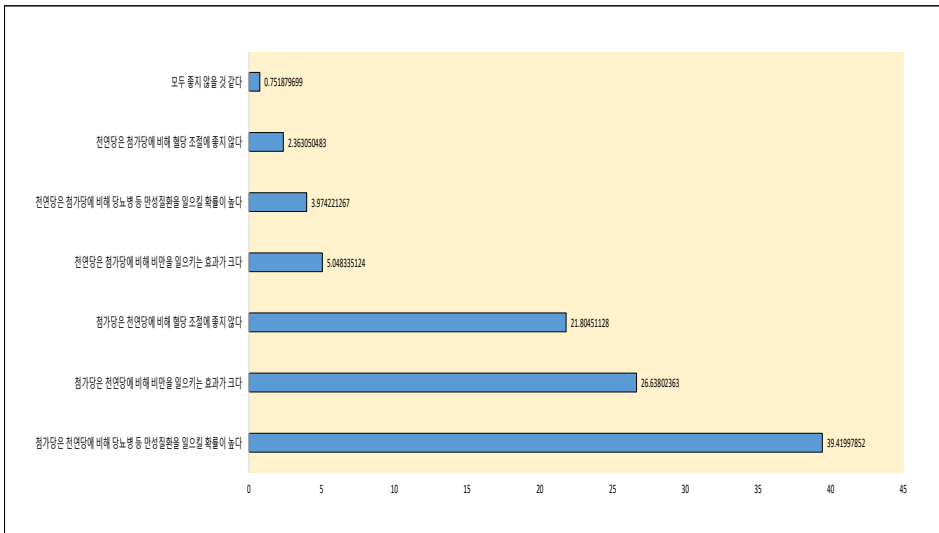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자연당과 첨가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첨가당은 자연당에 비해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39.4%)’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첨가당은 자연당에 비해 비만을 일으키는 효과가 크다(26.6%)’, ‘첨가당은 자연당에 비해 혈당 조절에 좋지 않다(21.8%)’, ‘자연당은 첨가당에 비해 비만을 일으키는 효과가 크다(5.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1〉 자연당과 첨가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양정보 표시는 〈그림 2-62〉와 같이 차이가 있음. 미국 과 같이 영양표시 첨가당 표시 추가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한 편이다(52.3%)’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필요한 편이다(24.5%)’, ‘보통이다(18.9%)’,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3.5%)’, ‘전혀 필요하지 않다(0.8%)’ 순으로 조사되었고, 척도 평균은 3.96점으로 조사됨.

〈그림 2-62〉 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양정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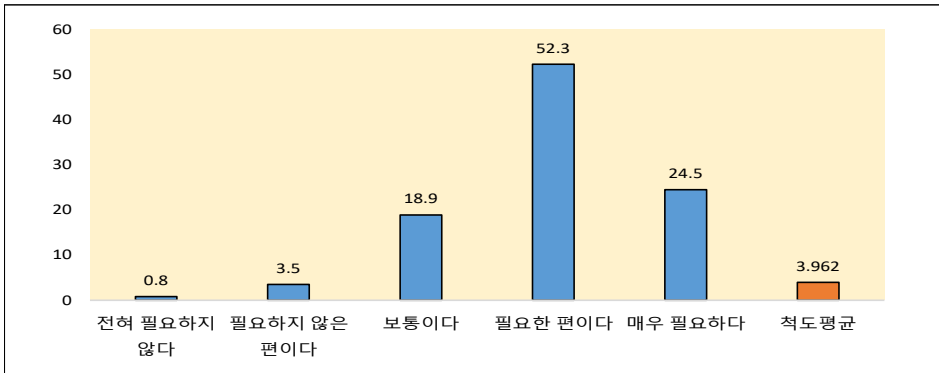
〈우리나라〉	〈미국〉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영양정보</td> <td>총 내용량 00g</td> </tr> <tr> <td colspan="2"></td> <td>000kcal</td> </tr> <tr> <td>총 내용량당</td> <td>1일 영양성분</td> <td>기준치에 대한 비율</td> </tr> <tr> <td>나트륨 00mg</td> <td></td> <td>00%</td> </tr> <tr> <td>탄수화물 00g</td> <td></td> <td>00%</td> </tr> <tr> <td>당류 00g</td> <td></td> <td>00%</td> </tr> <tr> <td>지방 00g</td> <td></td> <td>00%</td> </tr> <tr> <td>트랜스지방 00g</td> <td></td> <td>00%</td> </tr> <tr> <td>포화지방 00g</td> <td></td> <td>00%</td> </tr> <tr> <td>콜레스테롤 00mg</td> <td></td> <td>00%</td> </tr> <tr> <td>단백질 00g</td> <td></td> <td>00%</td> </tr> <tr> <td colspan="3">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에너지 42kcal 필요 232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td> </tr> </table>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에너지 42kcal 필요 232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table border="1"> <tr> <td colspan="2">Nutrition Facts</td> </tr> <tr> <td colspan="2">8 servings per container</td> </tr> <tr> <td colspan="2">Serving size 8 fl oz (240mL)</td> </tr> <tr> <td colspan="2">Amount per serving</td> </tr> <tr> <td>Calories</td> <td>110</td> </tr> <tr> <td colspan="2">Total Fat 0g 0%</td> </tr> <tr> <td colspan="2">Saturated Fat 0g 0%</td> </tr> <tr> <td colspan="2">Trans Fat 0g 0%</td> </tr> <tr> <td colspan="2">Cholesterol 0mg 0%</td> </tr> <tr> <td colspan="2">Sodium 0mg 0%</td> </tr> <tr> <td colspan="2">Dietary Fiber 0g 0%</td> </tr> <tr> <td>Total Sugars 25g</td> <td>46%</td> </tr> <tr> <td colspan="2">Includes 23g Added Sugars</td> </tr> <tr> <td>Protein 0g</td> <td></td> </tr> <tr> <td colspan="2">Vitamin D 0mcg 0%</td> </tr> <tr> <td colspan="2">Calcium 0mg 0%</td> </tr> <tr> <td colspan="2">Iron 0mg 0%</td> </tr> <tr> <td colspan="2">Potassium 40mg 0%</td> </tr> <tr> <td colspan="2">*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td> </tr> </table>	Nutrition Facts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8 fl oz (240mL)		Amount per serving		Calories	110	Total Fat 0g 0%		Saturated Fat 0g 0%		Trans Fat 0g 0%		Cholesterol 0mg 0%		Sodium 0mg 0%		Dietary Fiber 0g 0%		Total Sugars 25g	46%	Includes 23g Added Sugars		Protein 0g		Vitamin D 0mcg 0%		Calcium 0mg 0%		Iron 0mg 0%		Potassium 40mg 0%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에너지 42kcal 필요 232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Nutrition Facts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8 fl oz (240mL)																																																																											
Amount per serving																																																																											
Calories	110																																																																										
Total Fat 0g 0%																																																																											
Saturated Fat 0g 0%																																																																											
Trans Fat 0g 0%																																																																											
Cholesterol 0mg 0%																																																																											
Sodium 0mg 0%																																																																											
Dietary Fiber 0g 0%																																																																											
Total Sugars 25g	46%																																																																										
Includes 23g Added Sugars																																																																											
Protein 0g																																																																											
Vitamin D 0mcg 0%																																																																											
Calcium 0mg 0%																																																																											
Iron 0mg 0%																																																																											
Potassium 40mg 0%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주: 우리나라는 전체 당류 포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은 전체 당류와 첨가당의 포함량과 각각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그림 2-63〉 미국과 같이 영양표시에 첨가당 표시 추가 필요성

단위: %,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에 포함된 나트륨에 관하여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준 '나는 나트륨의 건강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3.77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나는 식생활에 너무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3.46점)', '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어렵다(3.04점)', '나는 나트륨 일일 권장량을 안다(2.68점)' 순으로 조사됨.

- '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

(3.79점), 60대(3.88점), 만 18세 미만 가구원 있음(3.80점), 월평균 가구 소득 800만 원 이상(3.90점) 등으로 조사됨.

〈표 2-11〉 나트륨 관련 동의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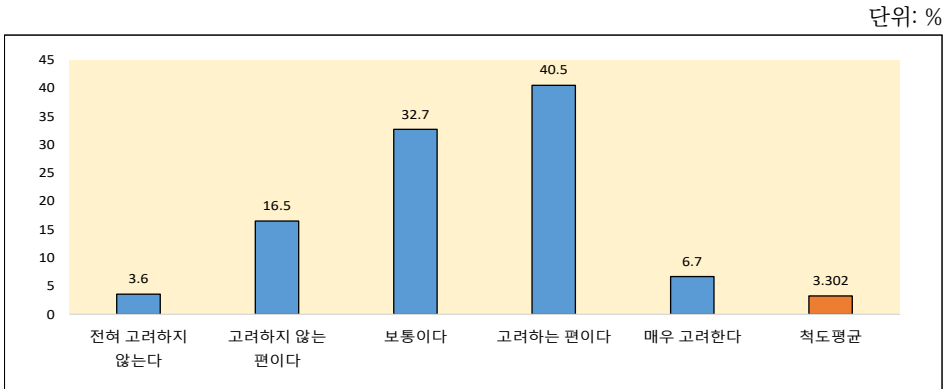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나는 식생활에 너무 많은 나트 륨을 섭취하고 있다	나는 나트륨의 건강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어렵다	나는 나트륨 일일권장량을 안다
전체		1,000	3.46	3.77	3.04	2.68
성별	남성	188	3.61	3.69	3.20	2.65
	여성	812	3.43	3.79	3.01	2.69
연령대	20대	68	3.62	3.74	3.35	2.69
	30대	204	3.72	3.76	3.31	2.60
	40대	272	3.47	3.74	3.08	2.58
	50대	272	3.35	3.75	2.90	2.69
	60대 이상	184	3.27	3.88	2.78	2.89
지역	서울	200	3.48	3.76	3.06	2.70
	경기/강원권	340	3.51	3.80	3.03	2.69
	충청권	108	3.56	3.74	3.21	2.69
	호남권	100	3.36	3.70	3.09	2.69
	경북권	96	3.32	3.88	2.85	2.63
	경남권	156	3.42	3.73	3.04	2.64
가구원 수	1명	179	3.53	3.72	3.20	2.65
	2명	259	3.38	3.75	2.95	2.59
	3명	253	3.48	3.81	3.01	2.71
	4명 이상	309	3.48	3.79	3.06	2.7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3.39	3.65	2.99	2.67
	대졸 이상	782	3.48	3.81	3.06	2.68
결혼 유무	기혼	697	3.43	3.82	2.97	2.68
	미혼	124	3.57	3.60	3.24	2.71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3.48	3.81	3.01	2.67
	맞벌이 가구 아님	294	3.36	3.83	2.91	2.69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3.52	3.80	3.09	2.67
	없음	718	3.44	3.76	3.03	2.6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3.34	3.62	3.02	2.73
	200만~400만 원 미만	253	3.46	3.73	3.09	2.61
	400만~600만 원 미만	262	3.55	3.78	3.06	2.70
	600만~800만 원 미만	196	3.43	3.77	3.03	2.71
	800만 원 이상	192	3.44	3.90	2.98	2.68
농식품 정보 확인 후	확인하지 않는 편	210	3.59	3.65	3.16	2.25
	보통이다	389	3.44	3.65	3.08	2.66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는 편	401	3.42	3.96	2.95	2.93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 구매 시, 식품에 첨가된 나트륨의 양 고려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려하는 편이다(40.5%)’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보였으며, 5점 척도 평균 기준 3.30점으로 조사됨.

〈그림 2-64〉 식품 구매 시 식품에 첨가된 나트륨의 양 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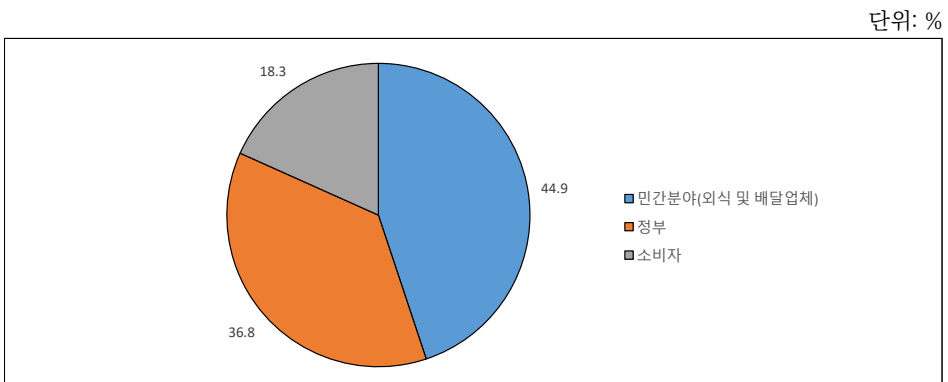


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1점)'~'매우 고려한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당류/나트륨 저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분야, 소비자 중 가장 주체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간분야(외식 및 배달업체)(44.9%)’, ‘정부(36.8%)’, ‘소비자(18.3%)’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5〉 당류/나트륨 저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분야, 소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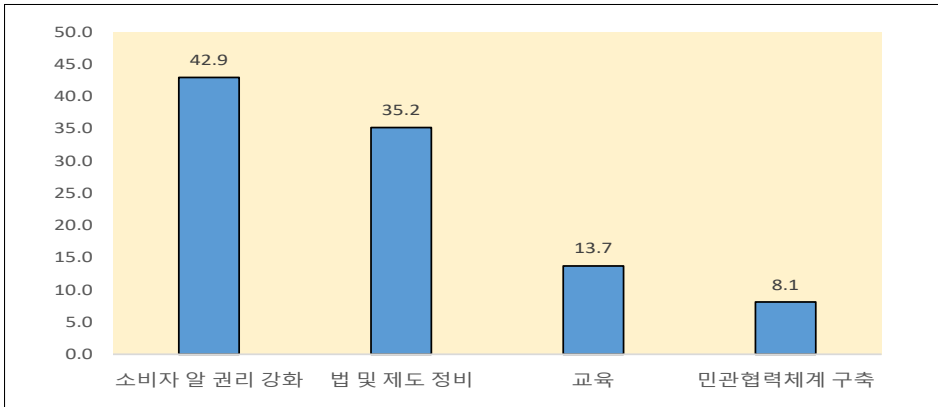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당류/나트륨 저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소비자 알 권리 강화(42.9%)’, ‘법 및 제도 정비(35.2%)’, ‘교육(13.7%)’, ‘민관협력 체계 구축(8.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6〉 당류/나트륨 저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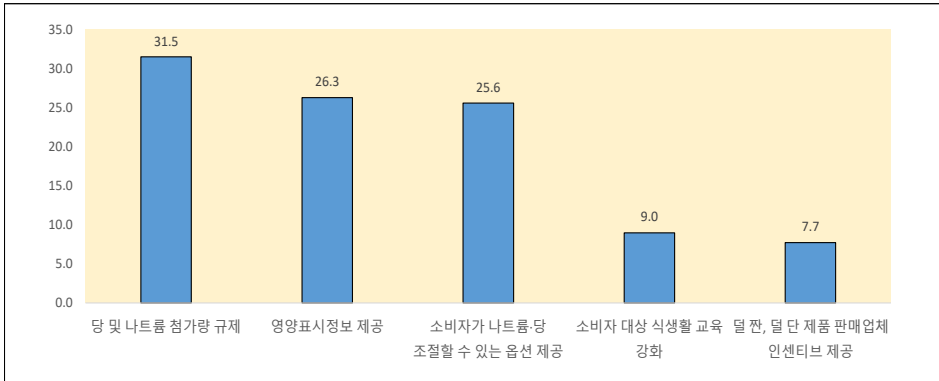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배달 음식/외식업소에서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 및 나트륨 첨가량 규제(3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영양 표시정보 제공(26.3%)’, ‘소비자가 나트륨·당 조절할 수 있는 옵션 제공(25.6%)’, ‘소비자 대상 식생활 교육 강화(9.0%)’, ‘덜 짠, 덜 단 제품 판매업체 인센티브 제공(7.7%)’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7〉 배달 음식/외식업소에서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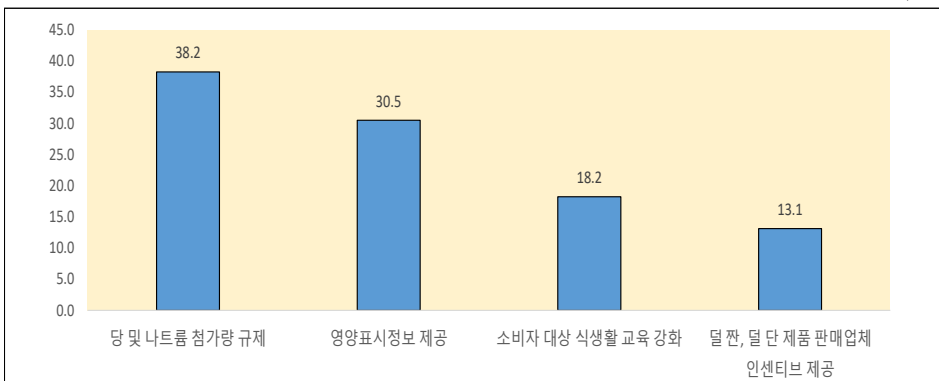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가공식품의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 및 나트륨 첨가량 규제(38.2%)’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영양 표시정보 제공(30.5%)’, ‘소비자 대상 식생활 교육 강화(18.2%)’, ‘덜 짠, 덜 단 제품 판매업체 인센티브 제공(13.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8〉 가공식품의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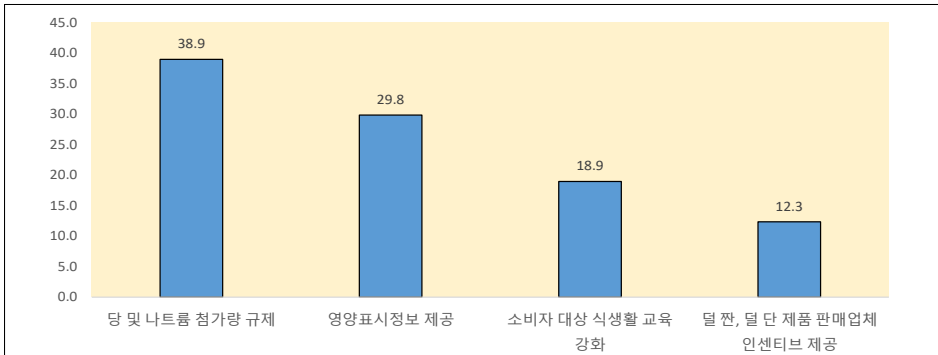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음료의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 및 나트륨 첨가량 규제(38.9%)’, ‘영양 표시정보 제공(29.8%)’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9〉 음료의 나트륨과 당류 조절 기능 강화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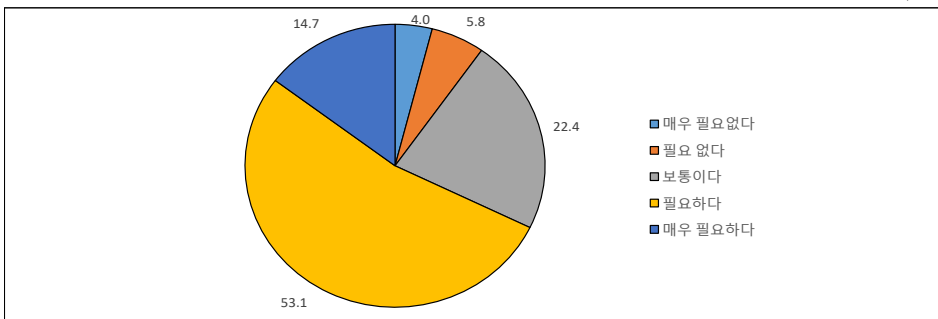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에 첨가된 당류를 줄이기 위한 우수 저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도입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53.1%)’, ‘보통이다(22.4%)’, ‘매우 필요하다(14.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0〉 식품에 첨가된 당류를 줄이기 위한 우수 저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도입 필요성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가공식품/음료와 외식/배달/테이크아웃 식품에 포함된 나트륨 양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에 대해 5점 척도 평균 점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준 ‘가공식품(4.17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배달/테이크아웃(4.10점)’, ‘음료(4.09점)’, ‘외식(4.08점)’ 순으로 조사됨.

- ‘가공식품’에서 높은 점수로 조사된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4.18점), 40대와 60대 이상(4.22점), 만 18세 미만 가구원 있음(4.27점), 월평균 가구소득(400만~600만 원 미만)(4.21점) 등으로 조사됨.

〈표 2-12〉 가공식품/음료와 외식/배달/테이크아웃 식품에 포함된 나트륨 양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가공식품	음료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전체		1,000	4.17	4.09	4.08	4.10
성별	남성	188	4.12	4.13	4.10	4.17
	여성	812	4.18	4.08	4.07	4.09
연령대	20대	68	3.92	3.84	4.28	4.08
	30대	204	4.07	3.99	3.93	4.01
	40대	272	4.22	4.10	4.20	4.18
	50대	272	4.18	4.18	4.07	4.11
	60대 이상	184	4.22	4.08	4.01	4.09
지역	서울	200	4.19	4.12	4.10	4.12
	경기/강원권	340	4.16	4.10	4.04	4.08
	충청권	108	4.02	4.08	3.98	3.98
	호남권	100	4.15	4.05	4.07	4.05
	경북권	96	4.36	4.15	4.23	4.30
가구원 수	경남권	156	4.16	3.99	4.12	4.14
	1명	179	3.99	3.95	3.96	4.00
	2명	259	4.13	4.09	3.98	3.99
	3명	253	4.24	4.13	4.09	4.14
	4명 이상	309	4.21	4.11	4.18	4.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4.18	3.95	4.00	4.08
	대졸 이상	782	4.16	4.12	4.09	4.11
결혼 유무	기혼	697	4.20	4.12	4.08	4.12
	미혼	124	4.18	4.04	4.20	4.16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4.18	4.08	4.13	4.16
	맞벌이 가구 아님	294	4.22	4.17	4.01	4.07

(계속)

구분		응답자 수	가공식품	음료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4.27	4.19	4.20	4.21
	없음	718	4.12	4.05	4.03	4.0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4.12	3.98	4.10	4.14
	200만~400만 원 미만	253	4.09	4.01	4.01	4.05
	400만~600만 원 미만	262	4.21	4.19	4.14	4.16
	600만~800만 원 미만	196	4.18	4.15	4.04	4.06
	800만 원 이상	192	4.19	4.03	4.10	4.14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4.13	3.97	4.02	4.05
	보통이다	389	4.07	4.06	3.90	4.01
	확인하는 편	401	4.25	4.15	4.22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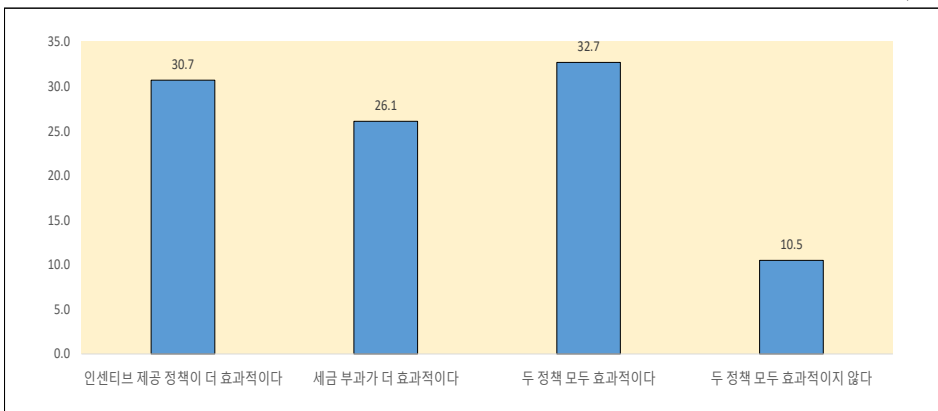
주: '매우 필요 없다(1점)'~'매우 필요하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에 첨가된 나트륨의 양을 줄이기 위한 우수 저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나트륨 양에 대한 세금 부과 중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정책 모두 효과적이다(32.7%)'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인센티브 제공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30.7%)', '세금 부과가 더 효과적이다(26.1%)', '두 정책 모두 효과적이지 않다(10.5%)'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1〉 식품에 첨가된 당류 조절하는 데 있어 첨가당 양에 대한 세금 부과제도 도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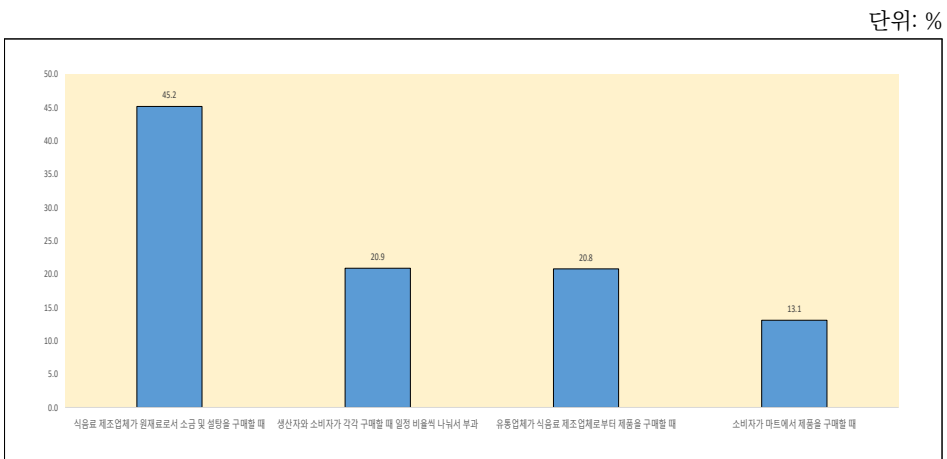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정부가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활성화를 위한 세금 부과 시, 적합한 부과 단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음료 제조업체가 원재료로서 소금 및 설탕을 구매할 때(45.2%)’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구매할 때 일정 비율씩 나눠서 부과(20.9%)’, ‘유통업체가 식음료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때(20.8%)’, ‘소비자가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13.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2〉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활성화를 위한 세금 부과 시 적합한 부과 단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5. 식품 관련 소비자정책 추진체제 개선

○ 각 정책 수단별 인지도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균 점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3.1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영양 보충적 지원제도(2.68점)’, ‘식생활, 영양 관련 소비자교육 및 홍보(2.68점)’,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2.60점)’, ‘건강위해요인 관리제도(2.58점)’ 순으로 조사됨.

-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3.11점), 60대 이상(3.28점),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29점), 농식품 정보 확인 후 구매하는 편(3.38점) 등으로 조사됨.

〈표 2-13〉 정책 수단별 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	건강 위해요인 관리제도	영양 보충적 지원제도	식생활, 영양 관련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전체		1,000	2.60	3.10	2.58	2.68	2.68
성별	남성	188	2.52	3.09	2.69	2.63	2.70
	여성	812	2.62	3.11	2.55	2.69	2.68
연령대	20대	68	2.56	3.00	2.54	2.71	2.65
	30대	204	2.44	3.08	2.40	2.64	2.46
	40대	272	2.46	2.90	2.42	2.61	2.51
	50대	272	2.77	3.23	2.74	2.74	2.87
	60대 이상	184	2.74	3.28	2.77	2.74	2.91
지역	서울	200	2.63	3.16	2.60	2.72	2.66
	경기/강원권	340	2.56	3.09	2.50	2.65	2.64
	충청권	108	2.69	3.20	2.75	2.71	2.78
	호남권	100	2.70	3.09	2.66	2.82	2.80
	경북권	96	2.58	3.04	2.58	2.61	2.70
가구원 수	경남권	156	2.54	3.04	2.54	2.63	2.65
	1명	179	2.53	3.07	2.46	2.56	2.60
	2명	259	2.53	3.07	2.52	2.60	2.64
	3명	253	2.67	3.14	2.62	2.70	2.70
	4명 이상	309	2.63	3.12	2.66	2.80	2.74

(계속)

구분		응답자 수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	건강 위해요인 관리제도	영양 보충적 지원제도	식생활, 영양 관련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2.57	3.05	2.59	2.63	2.67
	대졸 이상	782	2.61	3.12	2.57	2.69	2.69
결혼 유무	기혼	697	2.65	3.13	2.64	2.72	2.73
	미혼	124	2.40	3.01	2.42	2.62	2.51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2.66	3.15	2.67	2.79	2.74
	맞벌이 가구 아님	294	2.64	3.10	2.59	2.63	2.72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2.56	3.06	2.51	2.70	2.59
	없음	718	2.61	3.12	2.60	2.67	2.7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2.48	2.99	2.49	2.56	2.64
	200만~400만 원 미만	253	2.56	3.00	2.53	2.66	2.60
	400만~600만 원 미만	262	2.60	3.14	2.60	2.72	2.70
	600만~800만 원 미만	196	2.54	3.07	2.54	2.68	2.67
	800만 원 이상	192	2.76	3.29	2.70	2.71	2.79
농식품 정보 확인 후	확인하지 않는 편	210	2.25	2.79	2.17	2.30	2.26
	보통이다	389	2.61	2.99	2.59	2.72	2.64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는 편	401	2.77	3.38	2.78	2.84	2.94

주: '매우 필요 없다(1점)'~'매우 필요하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정책 수단 중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및 충분하고 다양한 영양 섭취 차원에서 선호하는 정책 수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 (35.6%)'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건강위해요인 관리제도(23.8%)',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16.2%)', '소비자교육 및 홍보(13.3%)', '영양 보충적 지원제도(11.1%)' 순으로 조사됨.

-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39.4%), 30대(41.2%),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8.0%) 등으로 조사됨.

〈표 2-14〉 정책 수단 중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및 충분하고 다양한 영양 섭취 차원에서 선호하는 정책 수단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	건강 위해요인 관리제도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및 홍보	영양 보충적 지원제도
전체		1,000	35.6	23.8	16.2	13.3	11.1
성별	남성	188	39.4	26.1	12.2	10.1	12.2
	여성	812	34.7	23.3	17.1	14.0	10.8
연령대	20대	68	32.4	20.6	16.2	8.8	22.1
	30대	204	41.2	18.6	13.2	9.3	17.6
	40대	272	36.4	23.2	17.3	12.1	11.0
	50대	272	30.9	26.5	19.5	15.4	7.7
	60대 이상	184	36.4	27.7	13.0	17.9	4.9
지역	서울	200	38.5	23.0	14.0	13.0	11.5
	경기/강원권	340	35.9	24.7	15.6	14.7	9.1
	충청권	108	31.5	22.2	22.2	13.9	10.2
	호남권	100	31.0	23.0	20.0	12.0	14.0
	경북권	96	38.5	20.8	21.9	7.3	11.5
가구원 수	경남권	156	35.3	26.3	10.3	14.7	13.5
	1명	179	38.5	20.1	17.9	11.7	11.7
	2명	259	39.0	24.3	11.6	15.1	10.0
	3명	253	33.6	22.1	16.6	16.6	11.1
	4명 이상	309	32.7	26.9	18.8	10.0	11.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40.4	23.4	14.2	12.4	9.6
	대졸 이상	782	34.3	23.9	16.8	13.6	11.5
결혼 유무	기혼	697	35.0	24.4	16.6	14.2	9.8
	미혼	124	34.7	25.8	11.3	10.5	17.7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32.5	24.6	18.9	12.9	11.2
	맞벌이 가구 아님	294	38.4	24.1	13.6	16.0	7.8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34.0	23.4	18.8	10.6	13.1
	없음	718	36.2	24.0	15.2	14.3	10.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35.1	22.7	16.5	13.4	12.4
	200만~400만 원 미만	253	34.0	25.7	12.3	15.8	12.3
	400만~600만 원 미만	262	34.4	24.0	16.4	12.6	12.6
	600만~800만 원 미만	196	37.2	22.4	17.9	12.2	10.2
	800만 원 이상	192	38.0	22.9	19.3	12.0	7.8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35.2	16.7	16.7	19.0	12.4
	보통이다	389	36.8	25.4	15.2	11.1	11.6
	확인하는 편	401	34.7	25.9	17.0	12.5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자녀/가족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29.3%)’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건강위해요인 관리제도(23.3%)’, ‘소비자교육 및 홍보(17.9%)’,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17.3%)’, ‘영양보충적 지원제도(12.2%)’ 순으로 조사됨.

-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29.7%), 30대(34.3%),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8.0%) 등으로 조사됨.

〈표 2-15〉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자녀/가족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책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	건강 위해요인 관리제도	소비자교육 및 홍보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영양 보충적 지원제도	
전체	1,000	29.3	23.3	17.9	17.3	12.2	
성별	남성	188	27.7	31.4	11.2	16.0	13.8
	여성	812	29.7	21.4	19.5	17.6	11.8
연령대	20대	68	29.4	25.0	10.3	17.6	17.6
	30대	204	34.3	19.6	14.7	13.2	18.1
	40대	272	27.2	24.6	17.3	17.6	13.2
	50대	272	28.3	23.5	22.8	19.1	6.3
	60대 이상	184	28.3	24.5	17.9	18.5	10.9
지역	서울	200	33.0	24.0	18.5	11.0	13.5
	경기/강원권	340	29.7	20.6	20.0	20.6	9.1
	충청권	108	30.6	20.4	16.7	16.7	15.7
	호남권	100	27.0	22.0	17.0	17.0	17.0
	경북권	96	29.2	26.0	16.7	15.6	12.5
	경남권	156	24.4	29.5	14.7	19.9	11.5
가구원 수	1명	179	27.9	22.3	16.2	17.9	15.6
	2명	259	32.0	22.4	17.8	17.0	10.8
	3명	253	31.2	19.8	20.2	15.4	13.4
	4명 이상	309	26.2	27.5	17.2	18.8	10.4

(계속)

구분		응답자 수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	건강 위해요인 관리제도	소비자교육 및 홍보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영양 보충적 지원제도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30.7	24.3	16.5	14.7	13.8
	대졸 이상	782	28.9	23.0	18.3	18.0	11.8
결혼 유무	기혼	697	29.3	23.4	19.5	17.2	10.6
	미혼	124	31.5	24.2	11.3	16.9	16.1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29.0	23.1	19.4	17.6	10.9
	맞벌이 가구 아님	294	29.6	23.8	19.7	16.7	10.2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26.6	23.8	17.7	18.8	13.1
	없음	718	30.4	23.1	18.0	16.7	11.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28.9	20.6	19.6	15.5	15.5
	200~400만 원 미만	253	28.9	21.3	16.2	19.4	14.2
	400~600만 원 미만	262	24.4	26.0	19.5	17.6	12.6
	600~800만 원 미만	196	28.1	25.5	21.9	16.8	7.7
	800만 원 이상	192	38.0	21.4	13.0	15.6	12.0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26.7	20.0	23.3	17.1	12.9
	보통이다	389	28.3	23.1	17.7	17.5	13.4
	확인하는 편	401	31.7	25.2	15.2	17.2	10.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우리나라의 건강한 식생활, 영양 관련 정책 수준 평가에 대해 5점 척도 평균 점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 평가 정도는 2.91점으로 정책 항목별로 평가 시,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3.05점)’, ‘영양보충적 지원제도(2.81점)’, ‘건강위해요인 관리제도(2.75점)’ 등 순으로 조사됨.

-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가 더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3.11점), 20대(3.16점), 만 18세 미만 가구원 없음(3.06점),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15점), 농식품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하는 편(3.12점) 등으로 조사됨.

〈표 2-16〉 우리나라의 건강한 식생활, 영양 관련 정책 수준 평가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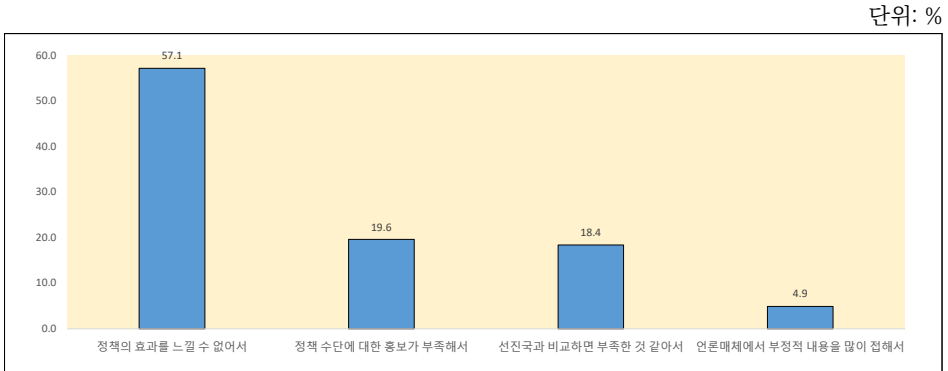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전반적 평가 정도	식생활 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	건강 위해요인 관리제도	영양 보충적 지원제도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전체		1,000	2.91	2.74	3.05	2.75	2.81	2.67
성별	남성	188	2.95	2.74	3.11	2.80	2.80	2.74
	여성	812	2.91	2.73	3.04	2.74	2.82	2.66
연령대	20대	68	3.12	2.90	3.16	3.00	2.96	2.88
	30대	204	2.85	2.67	3.06	2.72	2.81	2.64
	40대	272	2.86	2.63	2.95	2.67	2.72	2.63
	50대	272	2.96	2.82	3.12	2.79	2.83	2.73
	60대 이상	184	2.91	2.78	3.05	2.77	2.88	2.61
지역	서울	200	2.90	2.79	3.10	2.74	2.90	2.72
	경기/강원권	340	2.88	2.71	3.04	2.73	2.74	2.59
	충청권	108	3.07	2.93	3.15	2.90	2.89	2.82
	호남권	100	2.90	2.68	2.99	2.73	2.83	2.70
	경북권	96	2.97	2.68	2.99	2.75	2.88	2.65
	경남권	156	2.88	2.66	3.03	2.76	2.76	2.68
가구원 수	1명	179	2.94	2.83	3.09	2.79	2.82	2.73
	2명	259	2.85	2.64	3.00	2.66	2.70	2.59
	3명	253	2.92	2.74	3.07	2.77	2.83	2.66
	4명 이상	309	2.94	2.75	3.06	2.80	2.89	2.7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2.98	2.76	3.06	2.74	2.85	2.64
	대졸 이상	782	2.90	2.73	3.05	2.76	2.80	2.68
결혼 유무	기혼	697	2.92	2.74	3.05	2.76	2.82	2.66
	미혼	124	2.85	2.57	3.02	2.69	2.77	2.67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2.93	2.72	3.03	2.79	2.84	2.66
	맞벌이 가구 아님	294	2.89	2.77	3.07	2.71	2.78	2.65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2.88	2.67	3.02	2.75	2.77	2.66
	없음	718	2.93	2.76	3.06	2.75	2.83	2.6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2.88	2.77	3.02	2.66	2.73	2.63
	200~400만 원 미만	253	2.87	2.74	3.01	2.75	2.82	2.66
	400~600만 원 미만	262	2.91	2.67	3.01	2.74	2.80	2.67
	600~800만 원 미만	196	2.93	2.70	3.09	2.74	2.82	2.65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800만 원 이상	192	2.97	2.83	3.15	2.83	2.86	2.74
	확인하지 않는 편	210	2.75	2.57	2.84	2.54	2.62	2.52
	보통이다	389	2.95	2.77	3.09	2.81	2.87	2.72
	확인하는 편	401	2.96	2.79	3.12	2.81	2.86	2.70

주: '매우 필요 없다(1점)'~'매우 필요하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우리나라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분야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없어서(57.1%)’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정책 수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19.6%)’,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 같아서(18.4%)’, ‘언론매체에서 부정적 내용을 많이 접해서(4.9%)’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3〉 우리나라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분야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국민의 영양 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정부, 민간분야, 소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57.9%)’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민간분야(외식 및 배달업체)(25.2%)’, ‘소비자(16.9%)’ 순으로 조사됨.

- ‘정부’의 비중이 높은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58.4%), 30대(63.2%),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800만 원 미만(61.2%), 농식품 정보 확인 후 구매하는 편(58.9%) 등으로 조사됨.

〈표 2-17〉 국민의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정부, 민간분야, 소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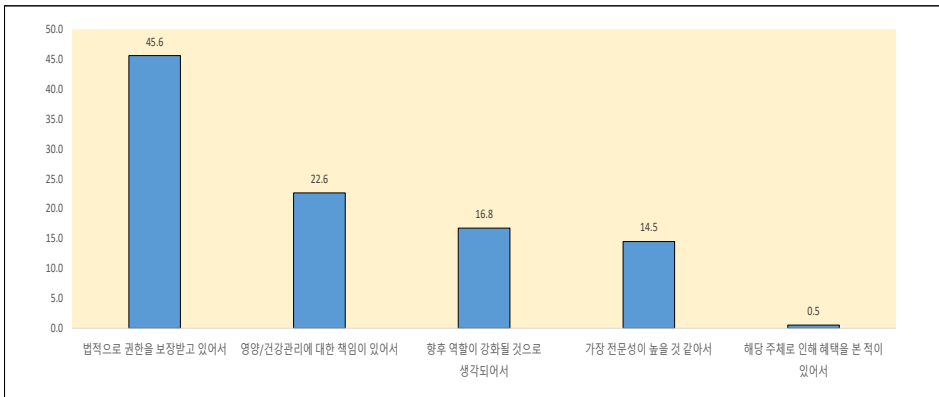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정부	민간분야 (외식 및 배달업체)	소비자
전체		1,000	57.9	25.2	16.9
성별	남성	188	55.9	30.3	13.8
	여성	812	58.4	24.0	17.6
연령대	20대	68	50.0	27.9	22.1
	30대	204	63.2	26.0	10.8
	40대	272	58.5	24.6	16.9
	50대	272	58.5	23.2	18.4
	60대 이상	184	53.3	27.2	19.6
지역	서울	200	59.0	28.0	13.0
	경기/강원권	340	61.2	24.1	14.7
	충청권	108	54.6	23.1	22.2
	호남권	100	54.0	24.0	22.0
	경북권	96	55.2	25.0	19.8
가구원 수	1명	179	51.4	29.1	19.6
	2명	259	57.5	27.8	14.7
	3명	253	61.3	18.6	20.2
	4명 이상	309	59.2	26.2	14.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44.0	34.9
대졸 이상		782	61.8	22.5	15.7
결혼 유무	기혼	697	59.4	24.1	16.5
	미혼	124	58.9	25.8	15.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59.8	23.6	16.6
	맞벌이 가구 아님	294	58.8	24.8	16.3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62.1	23.0	14.9
	없음	718	56.3	26.0	17.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51.5	25.8	22.7
	200만~400만 원 미만	253	57.3	28.5	14.2
	400만~600만 원 미만	262	56.9	24.8	18.3
	600만~800만 원 미만	196	61.2	24.5	14.3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800만 원 이상	192	59.9	21.9	18.2
	확인하지 않는 편	210	56.7	24.8	18.6
	보통이다	389	57.6	27.0	15.4
	확인하는 편	401	58.9	23.7	17.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서(45.6%)’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영양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22.6%)’,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16.8%)’,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14.5%)’, ‘해당 주체로 인해 혜택을 본 적이 있어서(0.5%)’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4〉 국민의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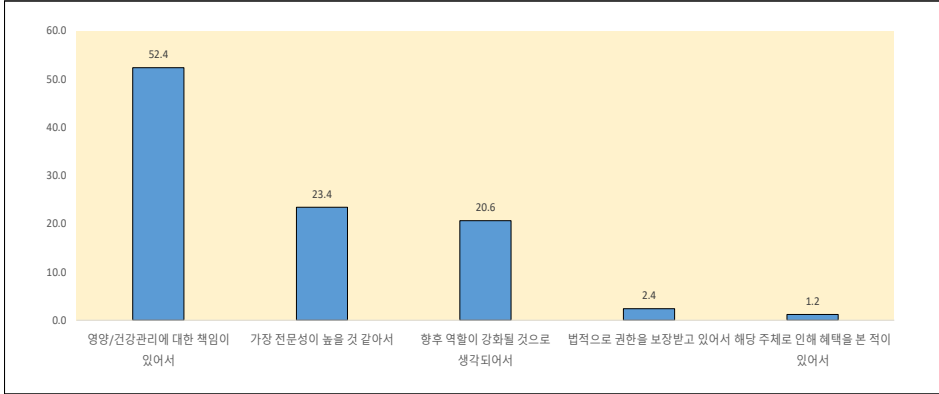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민간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양/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52.4%)’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23.4%)’,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20.6%)’,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서(2.4%)’, ‘해당 주체로 인해 혜택을 본 적이 있어서(1.2%)’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5〉 국민의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민간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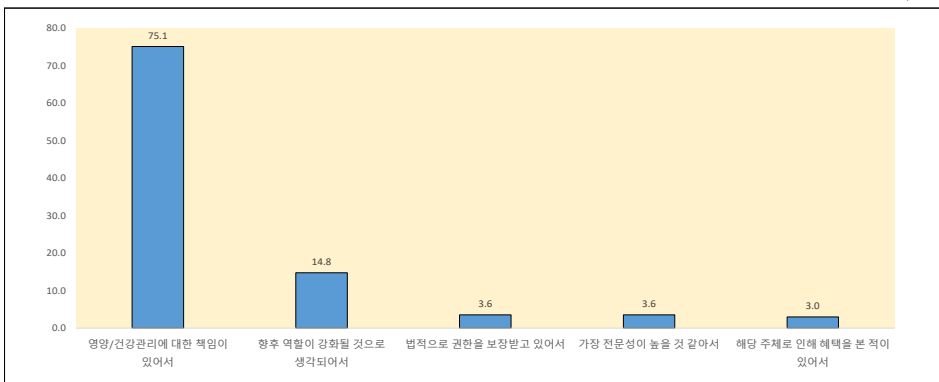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양/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75.1%)’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14.8%)’,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서(3.6%)’,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3.6%)’, ‘해당 주체로 인해 혜택을 본 적이 있어서(3.0%)’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6〉 국민의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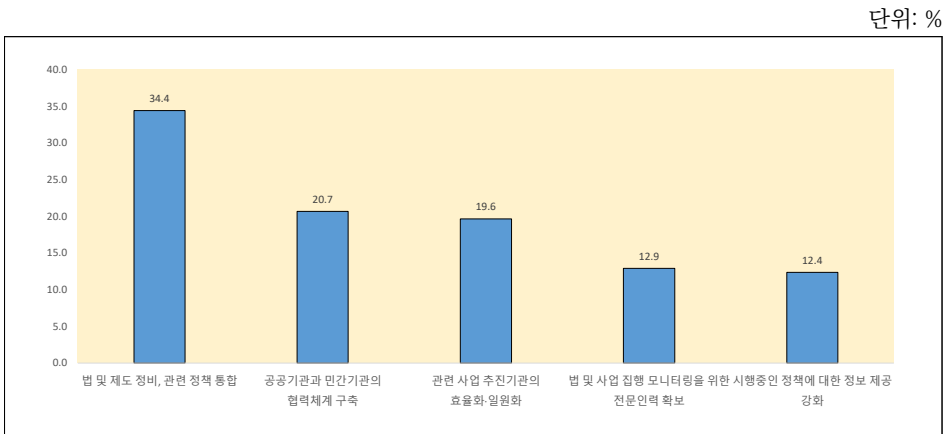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정부의 소비자 영양/건강관리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및 제도 정비 관련 정책 통합(34.4%)’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20.7%)’, ‘관련 사업 추진기관의 효율화·일원화(19.6%)’, ‘법 및 사업 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12.9%)’,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12.4%)’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7〉 정부의 소비자 영양/건강관리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 (1,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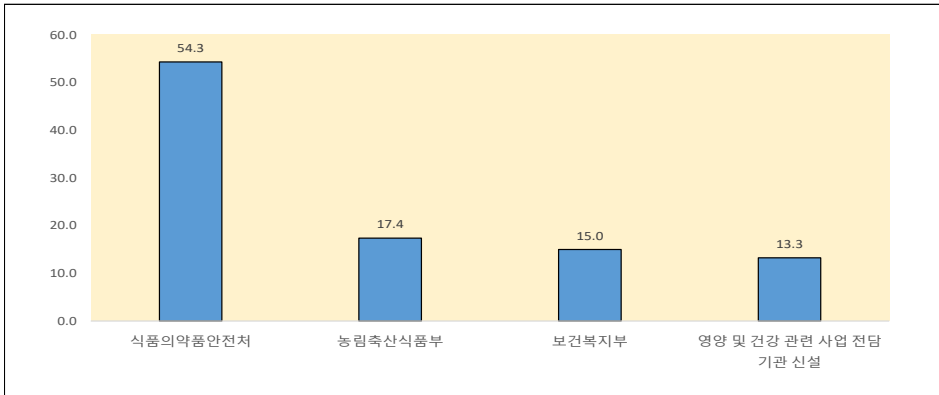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정부의 영양 및 건강 관련 사업 추진체계 관리를 위한 통합부처로서 가장 적절한 부처를 설문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54.3%)’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농림축산식품부(17.4%)’, ‘보건복지부(15.0%)’, ‘영양 및 건강 관련 사업 전담 기관 신설(13.3%)’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8〉 영양/건강 관련 사업 추진체계 관리 일원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통합 부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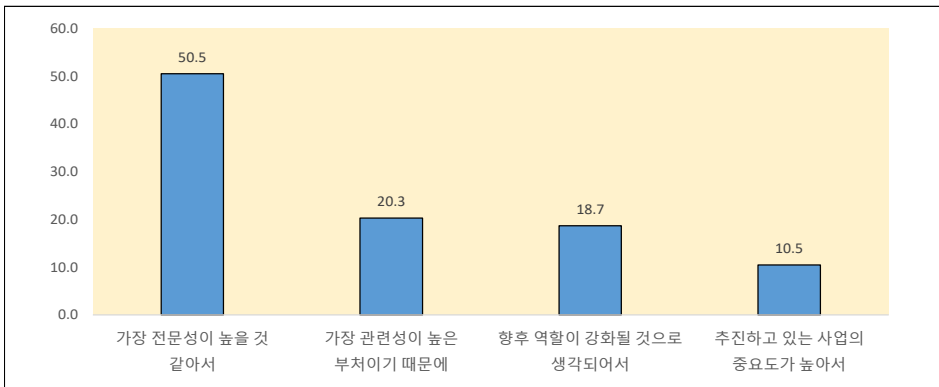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해당 부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50.5%)’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처이기 때문에(20.3%)’,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18.7%)’,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도가 높아져서(10.5%)’ 순으로 조사됨.

〈그림 2-79〉 해당 부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국내산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3.53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가공식품(3.17점)’, ‘외식(2.81점)’ 순으로 조사됨.

- ‘신선식품’의 점수가 높은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3.55점), 50대(3.57점), 만 18세 미만 가구원 있음(3.58점),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64점), 농식품 정보 확인 후 구매하는 편(3.65점) 등으로 조사됨.

〈표 2-18〉 국내산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전체		1,000	3.53	3.17	2.81
성별	남성	188	3.44	3.20	2.82
	여성	812	3.55	3.17	2.81
연령대	20대	68	3.56	3.16	2.99
	30대	204	3.53	3.14	2.78
	40대	272	3.49	3.16	2.82
	50대	272	3.57	3.22	2.86
	60대 이상	184	3.50	3.16	2.71
지역	서울	200	3.62	3.23	2.82
	경기/강원권	340	3.53	3.14	2.76
	충청권	108	3.53	3.16	2.85
	호남권	100	3.52	3.16	2.90
	경북권	96	3.48	3.18	2.79
	경남권	156	3.46	3.19	2.84
가구원 수	1명	179	3.46	3.23	2.85
	2명	259	3.46	3.10	2.74
	3명	253	3.56	3.23	2.82
	4명 이상	309	3.60	3.16	2.8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3.45	3.12	2.79
	대졸 이상	782	3.55	3.19	2.82
결혼 유무	기혼	697	3.56	3.18	2.81
	미혼	124	3.46	3.07	2.78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3.54	3.14	2.78
	맞벌이 가구 아님	294	3.58	3.23	2.8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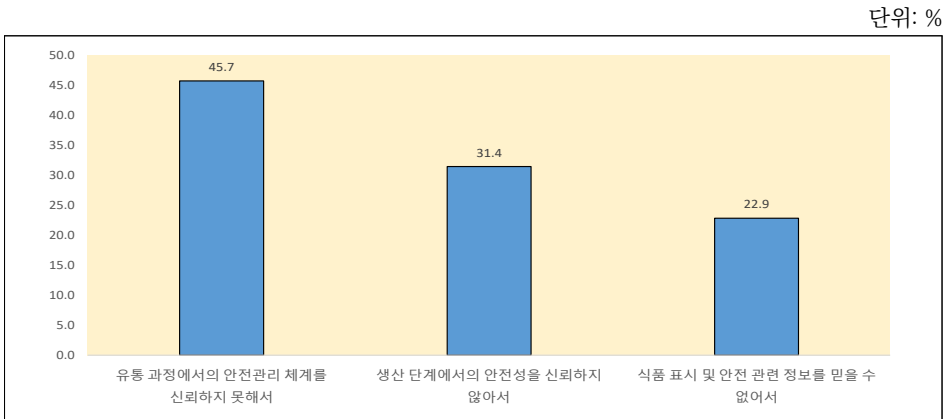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3.58	3.15	2.85
	없음	718	3.51	3.18	2.8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3.39	3.08	2.78
	200만~400만 원 미만	253	3.42	3.15	2.82
	400만~600만 원 미만	262	3.57	3.15	2.82
	600만~800만 원 미만	196	3.58	3.22	2.80
	800만 원 이상	192	3.64	3.24	2.81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3.44	3.04	2.63
	보통이다	389	3.45	3.15	2.84
	확인하는 편	401	3.65	3.26	2.88

주: '전혀 안전하지 않다(1점)'~'매우 안전하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신선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통과정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45.7%)'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유통과정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31.4%)', '식품 표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22.9%)'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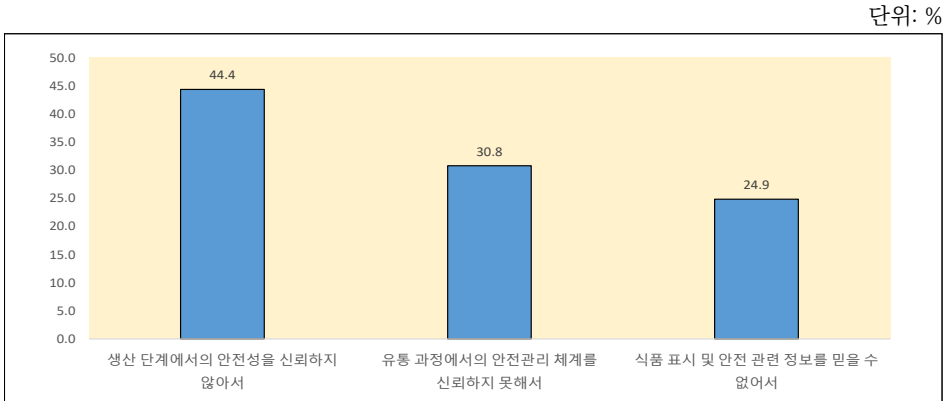
〈그림 2-80〉 신선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가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아서(44.4%)’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30.8%)’, ‘식품 표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24.9%)’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1〉 가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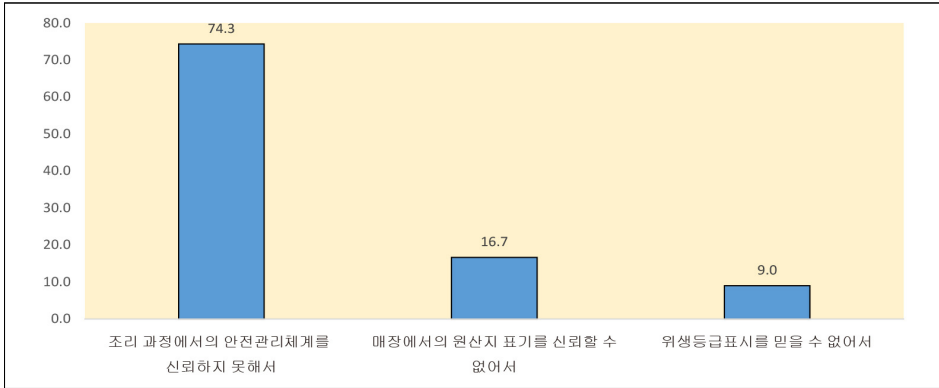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리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74.3%)’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기를 신뢰할 수 없어서(16.7%)’, ‘위생등급표시를 믿을 수 없어서(9.0%)’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2〉 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수입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마트를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3.10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온라인을 통한 구입한 수입식품(2.85점)’,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수입식품(2.73점)’ 순으로 조사됨.

- ‘오프라인 마트를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에서 점수가 높은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3.18점), 20대(3.51점),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16점), 농식품 정보 확인 후 구매하는 편(3.15점) 등으로 조사됨.

〈표 2-19〉 수입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오프라인 마트를 통한 구입한 수입식품	온라인을 통한 구입한 수입식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수입식품	
전체	1,000	3.10	2.85	2.73	
성별	남성	188	3.18	2.95	2.73
	여성	812	3.08	2.83	2.73
연령대	20대	68	3.51	3.10	2.87
	30대	204	3.18	2.90	2.75
	40대	272	3.08	2.82	2.71
	50대	272	2.99	2.76	2.68
	60대 이상	184	3.02	2.86	2.78

(계속)

구분		응답자 수	오프라인 마트를 통한 구입한 수입식품	온라인을 통한 구입한 수입식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수입식품
지역	서울	200	3.13	2.83	2.75
	경기/강원권	340	3.09	2.86	2.77
	충청권	108	3.19	2.84	2.70
	호남권	100	2.96	2.77	2.74
	경북권	96	2.99	2.74	2.63
	경남권	156	3.15	2.97	2.71
가구원 수	1명	179	3.14	2.89	2.77
	2명	259	3.02	2.80	2.73
	3명	253	3.08	2.87	2.71
	4명 이상	309	3.14	2.85	2.73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3.04	2.85	2.72
	대졸 이상	782	3.11	2.85	2.74
결혼 유무	기혼	697	3.07	2.82	2.73
	미혼	124	3.20	2.93	2.71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3.08	2.82	2.72
	맞벌이 가구 아님	294	3.04	2.83	2.73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3.09	2.83	2.71
	없음	718	3.10	2.86	2.7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2.98	2.82	2.72
	200만~400만 원 미만	253	3.07	2.82	2.69
	400만~600만 원 미만	262	3.09	2.84	2.71
	600만~800만 원 미만	196	3.14	2.90	2.79
	800만 원 이상	192	3.16	2.85	2.77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3.04	2.74	2.60
	보통이다	389	3.07	2.86	2.73
	확인하는 편	401	3.15	2.89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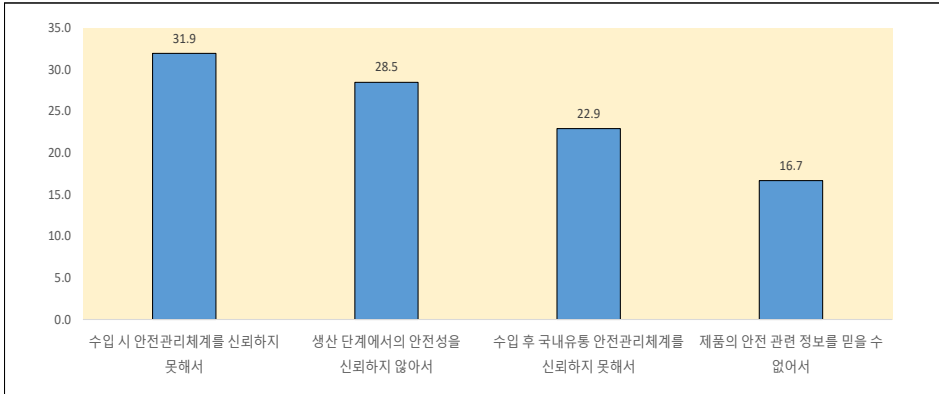
주: '전혀 안전하지 않다(1점)'~'매우 안전하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오프라인 마트를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입 시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31.9%)'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아서(28.5%)', '수입 후 국내유통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22.9%)',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16.7%)'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3〉 오프라인 마트를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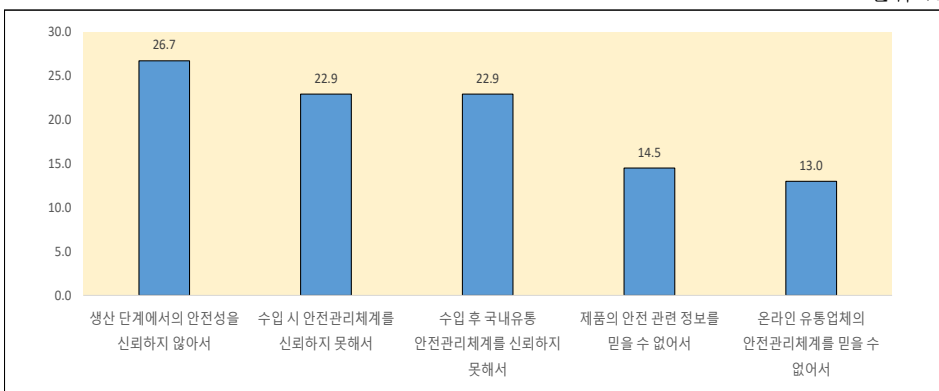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아서(26.7%)’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수입 시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22.9%)’, ‘수입 후 국내유통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22.9%)’,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14.5%)’ 등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4〉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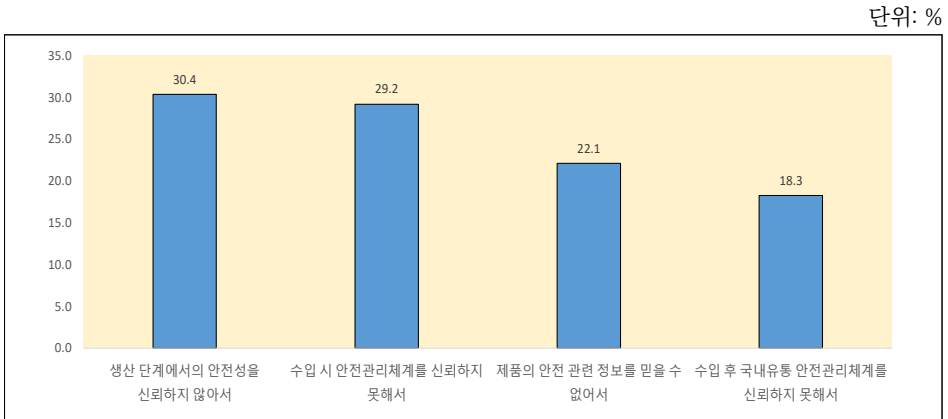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아서(30.4%)’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수입 시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29.2%)’,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22.1%)’, ‘수입 후 국내유통 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18.3%)’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5〉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정책 수단별로 인지도에 대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식품 안전관리(2.91점)’, ‘식품 안전 지침 마련(2.86점)’, ‘식품 안전 정보 제공(2.80점)’, ‘식품 안전 피해 구제(2.74점)’ 순으로 조사됨.

- ‘식품 안전관리’에서 점수가 높은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2.98점), 60대 이상(3.16점),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04점), 농식품 정보 확인 후 구매하는 편(3.13점)으로 조사됨.

〈표 2-20〉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정책 수단별 인지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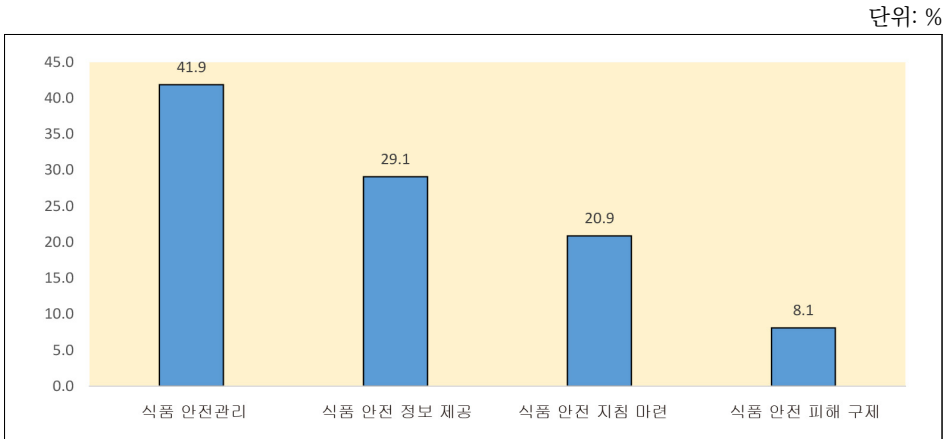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식품 안전 지침 마련	식품 안전관리	식품 안전 정보 제공	식품 안전 피해 구제	
전체	1,000	2.86	2.91	2.80	2.74	
성별	남성	188	2.88	2.98	2.76	2.74
	여성	812	2.85	2.89	2.81	2.73
연령대	20대	68	2.74	2.74	2.68	2.57
	30대	204	2.74	2.76	2.72	2.71
	40대	272	2.80	2.80	2.68	2.63
	50대	272	2.93	2.99	2.92	2.78
	60대 이상	184	3.02	3.16	2.95	2.92
지역	서울	200	2.96	2.98	2.87	2.87
	경기/강원권	340	2.82	2.89	2.79	2.67
	충청권	108	2.84	2.82	2.82	2.72
	호남권	100	2.85	2.83	2.78	2.70
	경북권	96	2.77	2.90	2.69	2.71
가구원 수	경남권	156	2.88	2.96	2.79	2.75
	1명	179	2.74	2.74	2.70	2.62
	2명	259	2.78	2.85	2.73	2.62
	3명	253	2.94	3.04	2.85	2.79
	4명 이상	309	2.92	2.94	2.87	2.8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2.80	2.94	2.79	2.71
	대졸 이상	782	2.87	2.90	2.80	2.74
결혼 유무	기혼	697	2.89	2.96	2.85	2.77
	미혼	124	2.84	2.85	2.67	2.69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2.94	2.98	2.89	2.80
	맞벌이 가구 아님	294	2.82	2.93	2.80	2.73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2.83	2.88	2.81	2.75
	없음	718	2.87	2.91	2.80	2.7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2.69	2.74	2.60	2.57
	200만~400만 원 미만	253	2.74	2.79	2.71	2.61
	400만~600만 원 미만	262	2.90	2.94	2.85	2.76
	600만~800만 원 미만	196	2.86	2.95	2.82	2.82
	800만 원 이상	192	3.03	3.04	2.94	2.86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2.53	2.58	2.46	2.38
	보통이다	389	2.79	2.85	2.77	2.72
	확인하는 편	401	3.09	3.13	3.01	2.94

주: '전혀 모른다(1점)'~'매우 잘 알고 있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자녀/가족 대상으로 선호하는 식품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 안전관리(41.9%)’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식품 안전 정보 제공(29.1%)’, ‘식품 안전 지킴마련(20.9%)’, ‘식품 안전 피해 구제(8.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6〉 자녀/가족 대상으로 선호하는 식품 정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5점 척도 평균 점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평가 점수는 2.99점이며, 정책 수단별로 ‘식품 안전 지킴 마련(3.00점)’, ‘식품 안전관리(2.94점)’, ‘식품 안전 정보 제공(2.90점)’, ‘식품 안전 피해 구제(2.71점)’ 순으로 조사됨.

- ‘식품 안전 지킴 마련’에서 점수가 높은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3.04점), 60대 이상(3.14점),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3.09점), 농식품 정보 확인 후 구매하는 편(3.09점) 등으로 조사됨.

〈표 2-21〉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관련된 소비자 정책 평가 결과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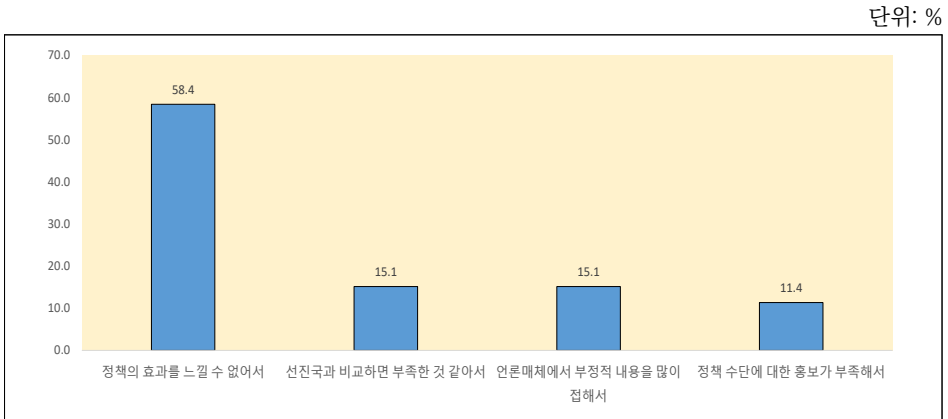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전반적 평가 정도	식품 안전 지침 마련	식품 안전 관리	식품 안전 정보 제공	식품 안전 피해 구제	
전체	1,000	2.99	3.00	2.94	2.90	2.71	
성별	남성	188	2.99	3.04	3.00	2.88	2.75
	여성	812	2.99	3.00	2.93	2.90	2.70
연령대	20대	68	3.13	3.09	3.04	3.03	3.01
	30대	204	2.92	2.96	2.89	2.85	2.71
	40대	272	2.92	2.88	2.85	2.78	2.61
	50대	272	3.03	3.06	2.95	2.97	2.69
	60대 이상	184	3.07	3.14	3.09	2.96	2.78
지역	서울	200	3.04	3.03	2.97	2.92	2.73
	경기/강원권	340	3.00	2.99	2.92	2.87	2.64
	충청권	108	3.02	3.06	3.03	3.00	2.82
	호남권	100	2.88	3.01	2.90	2.87	2.69
	경북권	96	2.97	2.99	2.88	2.84	2.71
	경남권	156	2.99	2.98	2.96	2.90	2.78
가구원 수	1명	179	2.99	2.97	2.92	2.89	2.72
	2명	259	2.89	2.95	2.86	2.77	2.55
	3명	253	2.99	3.01	2.96	2.94	2.73
	4명 이상	309	3.08	3.06	3.01	2.96	2.83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3.02	2.98	2.97	2.89	2.71
	대졸 이상	782	2.98	3.01	2.93	2.90	2.71
결혼 유무	기혼	697	3.00	3.02	2.96	2.92	2.71
	미혼	124	2.98	2.97	2.90	2.77	2.70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3.01	3.02	2.96	2.94	2.72
	맞벌이 가구 아님	294	2.98	3.02	2.95	2.89	2.70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2.98	2.96	2.92	2.91	2.72
	없음	718	3.00	3.02	2.95	2.89	2.7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2.88	2.92	2.87	2.79	2.65
	200만~400만 원 미만	253	2.98	2.94	2.89	2.82	2.68
	400만~600만 원 미만	262	2.97	3.01	2.92	2.89	2.71
	600만~800만 원 미만	196	3.01	3.04	2.98	2.92	2.74
	800만 원 이상	192	3.09	3.09	3.04	3.04	2.76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2.83	2.81	2.72	2.71	2.50
	보통이다	389	3.00	3.02	2.95	2.92	2.78
	확인하는 편	401	3.07	3.09	3.05	2.97	2.76

주: '매우 미흡한 수준(1점)'~'매우 우수한 수준(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안전 확보 관련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없어서(58.4%)’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보였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 같아서(15.1%)’, ‘언론매체에서 부정적 내용을 많이 접해서(15.1%)’, ‘정책 수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11.4%)’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7〉 식품 안전 분야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 안전 확보에 있어 정부, 민간분야, 소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67.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민간분야(외식 및 배달업체)(24.0%)’, ‘소비자(8.2%)’ 순으로 조사됨.

- ‘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69.2%), 30대 (74.0%),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71.4%), 농식품 정보 확인 후 구매하는 편(68.8%) 등으로 조사됨.

〈표 2-22〉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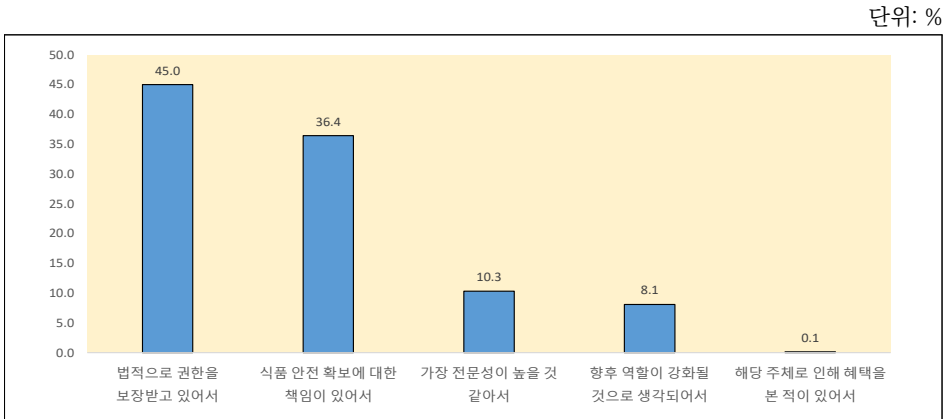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정부	민간분야	소비자		
전체	1,000	67.8	24.0	8.2		
성별	남성	188	61.7	29.8	8.5	
	여성	812	69.2	22.7	8.1	
연령대	20대	68	55.9	35.3	8.8	
	30대	204	74.0	18.1	7.8	
	40대	272	65.8	27.2	7.0	
	50대	272	67.6	23.5	8.8	
	60대 이상	184	68.5	22.3	9.2	
지역	서울	200	68.5	24.5	7.0	
	경기/강원권	340	71.5	21.2	7.4	
	충청권	108	66.7	22.2	11.1	
	호남권	100	62.0	29.0	9.0	
	경북권	96	63.5	28.1	8.3	
지역	경남권	156	66.0	25.0	9.0	
	가구원 수	1명	179	59.2	30.2	10.6
		2명	259	68.3	25.5	6.2
		3명	253	70.4	20.9	8.7
		4명 이상	309	70.2	21.7	8.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57.8	33.5	8.7	
	대졸 이상	782	70.6	21.4	8.1	
결혼 유무	기혼	697	69.7	22.2	8.0	
	미혼	124	69.4	25.0	5.6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70.0	21.1	8.9	
	맞벌이 가구 아님	294	69.4	23.8	6.8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71.6	20.2	8.2	
	없음	718	66.3	25.5	8.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57.7	32.0	10.3	
	200만~400만 원 미만	253	66.8	26.5	6.7	
	400만~600만 원 미만	262	69.1	21.8	9.2	
	600만~800만 원 미만	196	68.9	25.0	6.1	
	800만 원 이상	192	71.4	18.8	9.9	
농식품 정보 확인 후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지 않는 편	210	67.6	24.3	8.1	
	보통이다	389	66.8	24.4	8.7	
	확인하는 편	401	68.8	23.4	7.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서(45.0%)’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식품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36.4%)’,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10.3%)’,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8.1%)’, ‘해당 주체로 인해 혜택을 본 적이 있어서(0.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8〉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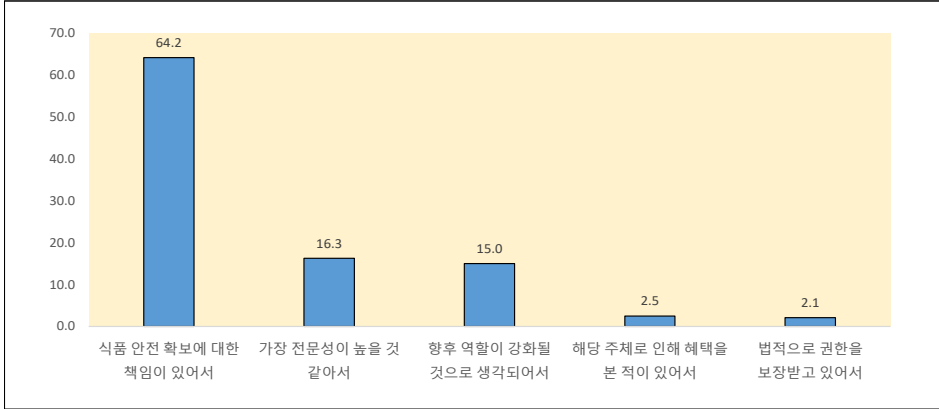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민간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64.2%)’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16.3%)’,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15.0%)’, ‘해당 주체로 인해 혜택을 본 적이 있어서(2.5%)’,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서(2.1%)’ 순으로 조사됨.

〈그림 2-89〉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민간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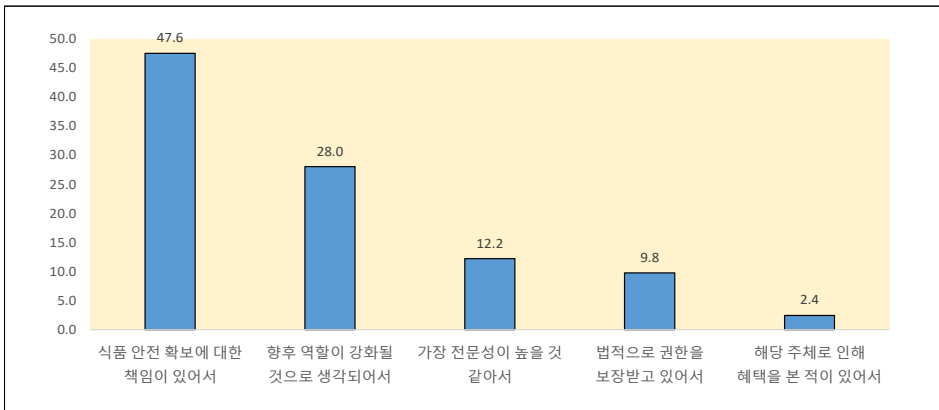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47.6%)’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28.0%)’,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12.2%)’,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서(9.8%)’, ‘해당 주체로 인해 혜택을 본 적이 있어서(2.4%)’ 순으로 조사됨.

〈그림 2-90〉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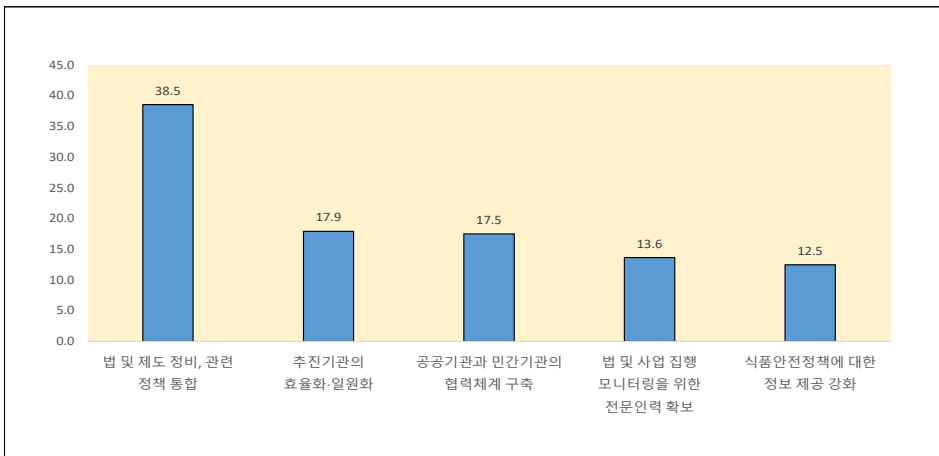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정부의 식품 안전 확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및 제도 정비, 관련 정책 통합(38.5%)’이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추진기관의 효율화·일원화(17.9%)’,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17.5%)’, ‘법 및 사업 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13.6%)’, ‘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12.5%)’ 순으로 조사됨.

〈그림 2-91〉 정부의 식품 안전 확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사항(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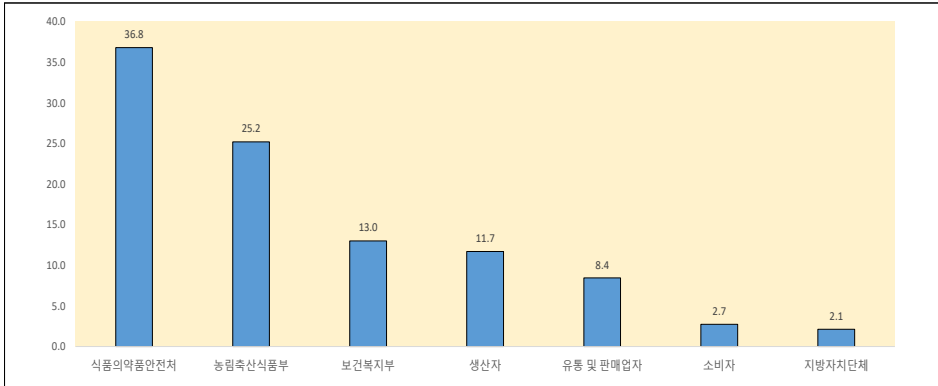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36.8%)’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농림축산식품부(25.2%)’, ‘보건복지부(13.0%)’, ‘생산자(11.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92〉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체(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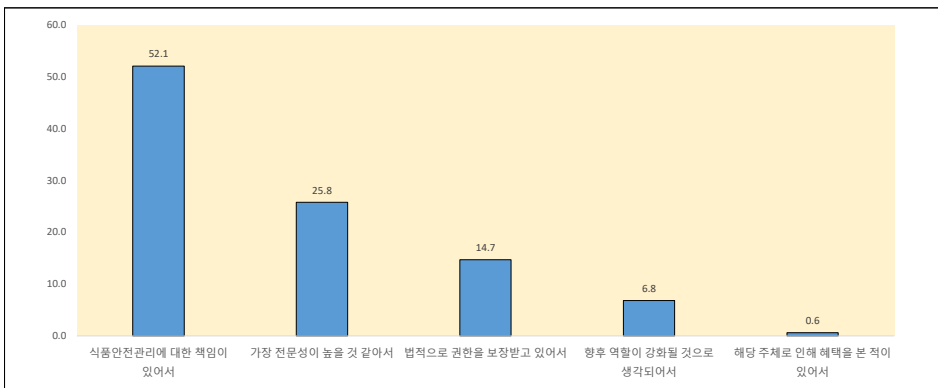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에 2점, 2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대비 해당 응답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해당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52.1%)’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25.8%)’,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서(14.7%)’,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6.8%)’, ‘해당 주체로 인해 혜택을 본 적이 있어서(0.6%)’ 순으로 조사됨.

〈그림 2-93〉 해당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체계에 있어 관리부처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가 전체 응답자의 91.9%를 차지하였고, ‘필요하지 않다’ 응답은 8.1%로 조사됨.

- ‘필요하다’의 비중이 높은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95.2%), 60대 이상(96.7%),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600만 원 미만(93.1%), 농식품 정보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편(93.3%) 등으로 조사됨.

〈표 2-23〉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체계에 있어 관리부처의 일원화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1,000	91.9	8.1
성별	남성	188	95.2	4.8
	여성	812	91.1	8.9
연령대	20대	68	86.8	13.2
	30대	204	85.3	14.7
	40대	272	92.3	7.7
	50대	272	94.5	5.5
	60대 이상	184	96.7	3.3
지역	서울	200	89.5	10.5
	경기/강원권	340	91.5	8.5
	충청권	108	94.4	5.6
	호남권	100	94.0	6.0
	경북권	96	96.9	3.1
	경남권	156	89.7	10.3
가구원 수	1명	179	88.3	11.7
	2명	259	93.4	6.6
	3명	253	91.7	8.3
	4명 이상	309	92.9	7.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8	93.6	6.4
	대졸 이상	782	91.4	8.6
결혼 유무	기혼	697	93.8	6.2
	미혼	124	86.3	13.7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3	92.8	7.2
	맞벌이 가구 아님	294	95.2	4.8
만 18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	282	92.2	7.8
	없음	718	91.8	8.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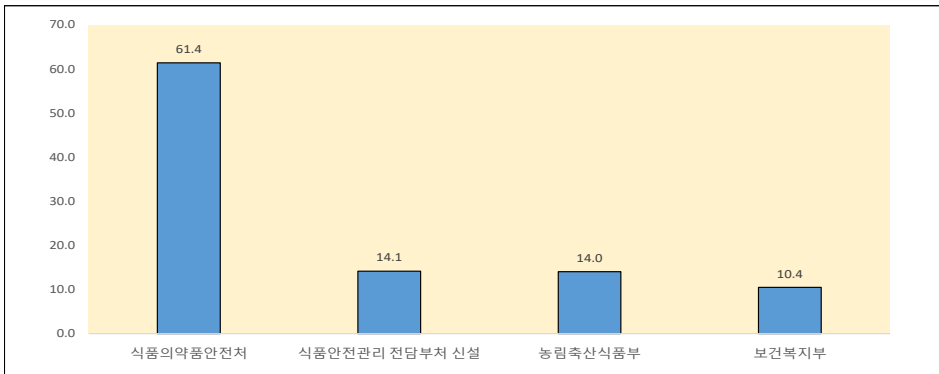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87.6	12.4
	200만~400만 원 미만	253	92.1	7.9
	400만~600만 원 미만	262	93.1	6.9
	600만~800만 원 미만	196	92.3	7.7
	800만 원 이상	192	91.7	8.3
농식품 정보 확인 후	확인하지 않는 편	210	93.3	6.7
	보통이다	389	91.3	8.7
식품 구매 여부	확인하는 편	401	91.8	8.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통합 부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61.4%)’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보임.

〈그림 2-94〉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통합 부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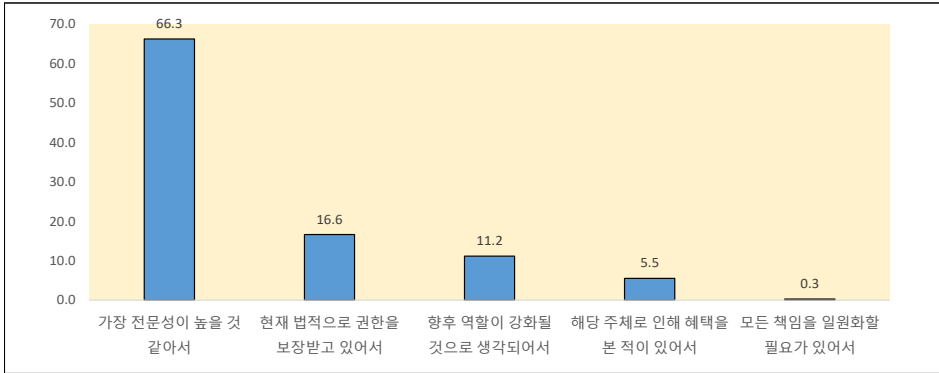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 해당 부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66.3%)’가 가장 높은 응답값을 나타냈고, ‘현재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고 있어서(16.6%)’, ‘향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11.2%)’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95〉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부처로 해당 부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N=1,000).

제3장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



3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

1. 식품 구입 행태 조사

- 취약계층은 주로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약계층은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여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특성이 있음.
- 품목별 구입처를 살펴보면, 쌀의 경우 동네 슈퍼마켓(50.4%), 과일·채소류의 경우 동네 슈퍼마켓(40.6%) 및 전통시장(36.0%), 육류의 경우 전통시장(37.2%)과 동네 슈퍼마켓(33.8%), 수산물의 경우 전통시장(51.8%), 동네 슈퍼마켓(26.8%), 가공식품의 경우 동네 슈퍼마켓(57.8%)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 취약계층의 식료품 주 구입처

구분	응답자 수	동네 슈퍼마켓	중소형 슈퍼마켓 (대기업)	오프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로컬푸드 마켓	기타
쌀	500	50.4	9.0	13.8	14.2	6.2	0.8	5.6
과일, 채소	500	40.6	7.8	12.2	36.0	1.4	1.8	0.2
육류	500	33.8	10.6	14.0	37.2	0.8	3.2	0.4
수산물	500	26.8	6.8	10.8	51.8	1.6	0.2	1.6
가공식품	500	57.8	10.4	19.0	5.4	6.4	0.0	1.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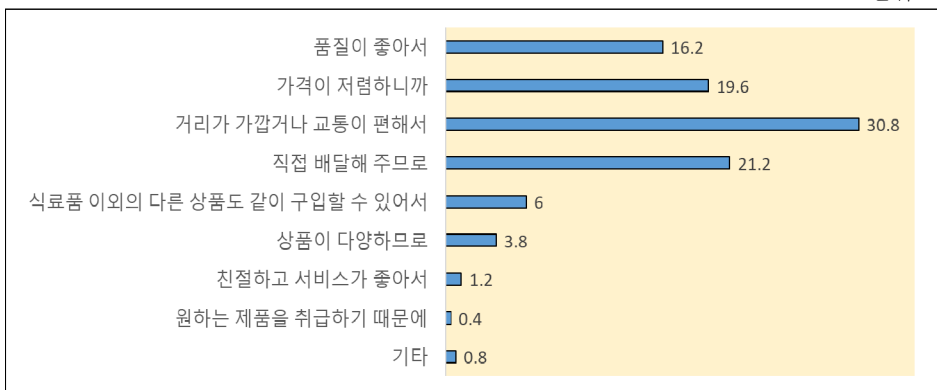
○ 취약계층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식품 구입 시 접근성, 가격, 품질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은 쌀의 경우 접근성 및 편리성(배달), 청과물의 경우 접근성과 가격, 육류의 경우 가격과 품질, 접근성, 수산물의 경우 가격과 품질, 편리성, 가공식품의 경우 접근성을 중시하였음.

○ 쌀에 대한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는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30.8%)’, 직접 배달해 주므로(21.2%), ‘가격이 저렴해서(19.6%)’ 순임.

〈그림 3-1〉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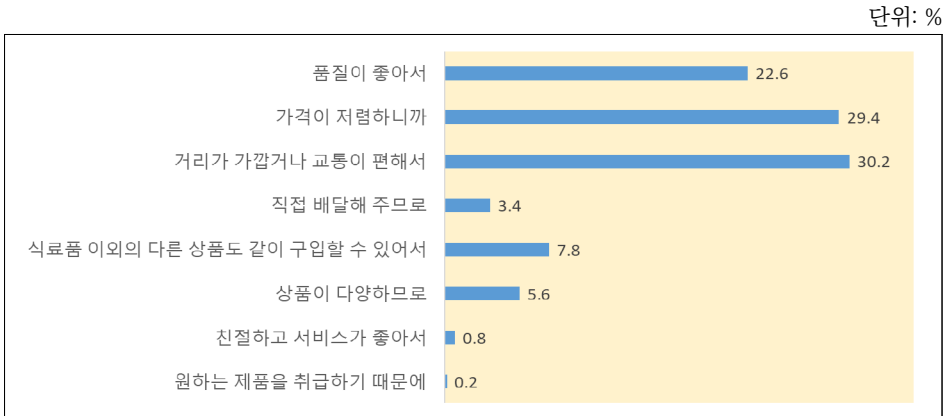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의 청과물(채소·과일)에 대한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로는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30.2%)’, ‘가격이 저렴해서(29.4%)’ 순으로 가격과 편리성을 비슷하게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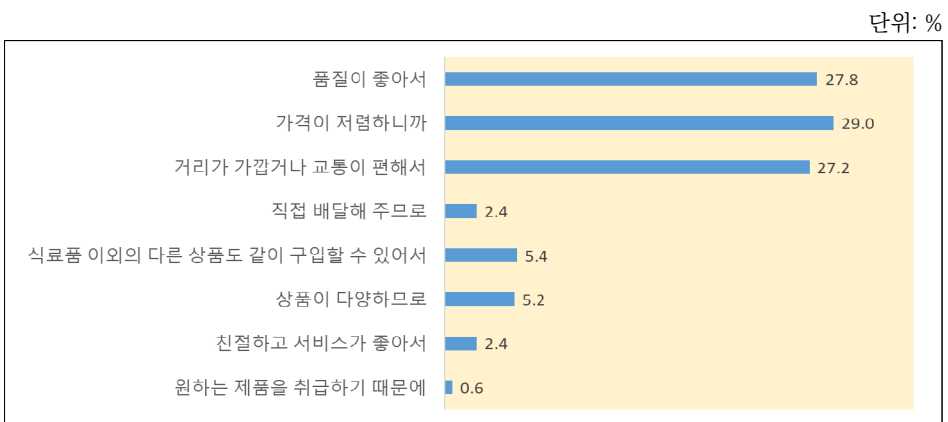
〈그림 3-2〉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청과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은 육류를 구입할 때 가격(29.0%), 품질(27.8%), 접근성(27.2%)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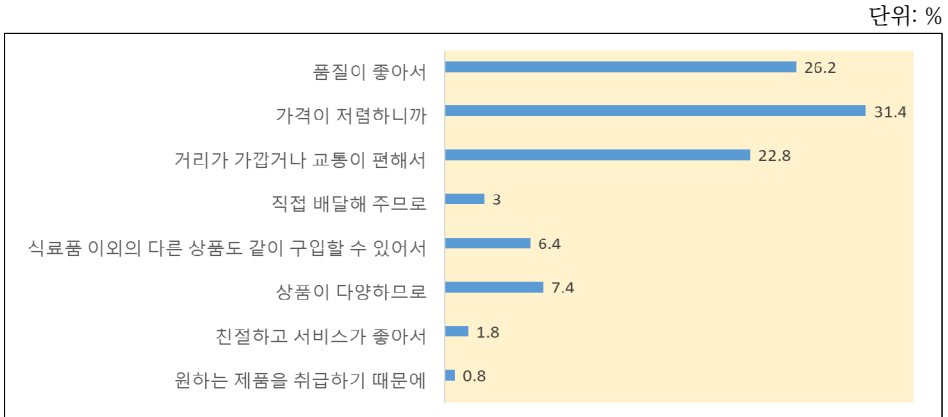
〈그림 3-3〉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육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은 수산물 구입 시 가격(31.4%), 품질(26.2%), 접근성(22.8%)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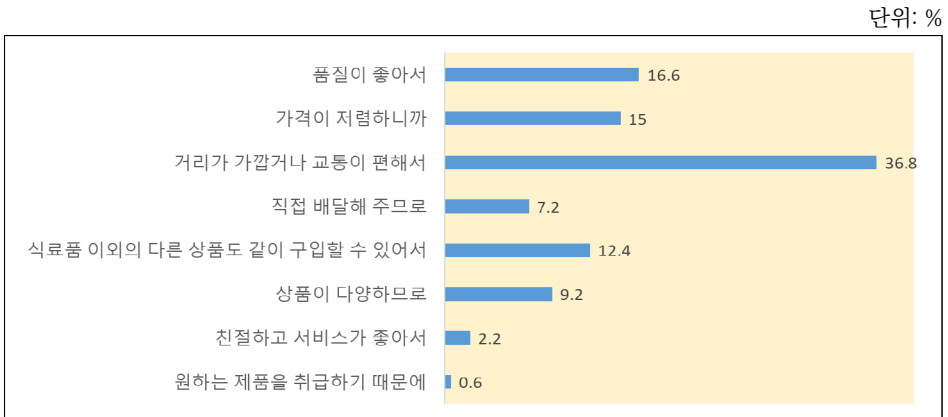
〈그림 3-4〉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수산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유통경로별 품질의 차이가 없는 가공식품 구입에 있어서는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라고 응답한 취약계층이 36.8%로 가장 높았음.

〈그림 3-5〉 식료품 주 구입처 선택 이유(가공식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여부 설문 결과, 취약계층은 방법을 몰라 구입하지 않거나(46.8%), 방법을 알지만 구입하지 않았음(27.6%). ‘가끔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 ‘자주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불과함. 단, 가구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구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빈도가 증가함.

〈표 3-2〉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방법을 몰라서 구입하지 않는다	방법을 알지만 구입하지 않는다	가끔 구입한다	자주 구입한다
전체		500	46.8	27.6	20.6	5.0
거주지	서울	170	44.1	27.1	22.9	5.9
	인천	165	47.9	21.8	26.1	4.2
	경기	165	48.5	33.9	12.7	4.8
성별	남성	137	52.6	29.2	13.1	5.1
	여성	363	44.6	27.0	23.4	5.0
연령대	55세 미만	244	16.8	36.9	36.5	9.8
	55세 이상	256	75.4	18.8	5.5	0.4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46.7	29.5	19.7	4.1
	2인 이상	256	46.9	25.8	21.5	5.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73	49.1	32.2	16.5	2.2
	100만~150만원 미만	133	51.9	22.6	21.1	4.5
	150만~200만원 미만	63	41.3	23.8	27.0	7.9
	200만~250만원 미만	29	17.2	17.2	37.9	27.6
	250만~300만원 미만	2	0.0	0.0	10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89.7	9.3	0.9	0.0
	고졸	366	37.4	33.9	24.0	4.6
	대졸 이상	27	3.7	14.8	51.9	29.6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53.7	31.4	13.7	1.2
	의료급여	186	48.9	32.3	17.7	1.1
	주거급여	278	43.9	28.1	23.7	4.3
	교육급여	47	21.3	25.5	34.0	19.1
	긴급복지지원	11	45.5	27.3	27.3	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53.1	31.6	13.3	2.0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0.0	66.7	33.3
	우유 무상급식	23	17.4	21.7	39.1	21.7
	영양플러스	1	100.0	0.0	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0.0	10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100.0	0.0	0.0	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18.8	12.5	62.5	6.3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0.0	75.0	0.0
	기타 식료품 지원	4	25.0	25.0	50.0	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45.2	19.4	27.4	8.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계획적 소비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소 가계부 작성 여부를 조사함.
전체의 3.4% 응답자만이 꾸준히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3〉 평소 가계부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보통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다	항상 가계부를 쓴다
전체		500	75.2	21.4	3.4
거주지	서울	170	81.8	15.9	2.4
	인천	165	73.9	19.4	6.7
	경기	165	69.7	29.1	1.2
성별	남성	137	85.4	12.4	2.2
	여성	363	71.3	24.8	3.9
연령대	55세 미만	244	70.5	26.6	2.9
	55세 이상	256	79.7	16.4	3.9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78.7	18.4	2.9
	2인 이상	256	71.9	24.2	3.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80.6	16.8	2.6
	100만~150만 원 미만	133	71.4	23.3	5.3
	150만~200만 원 미만	63	61.9	36.5	1.6
	200만~250만 원 미만	29	69.0	24.1	6.9
	250만~300만 원 미만	2	100.0	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79.4	15.9	4.7
	고졸	366	74.6	22.1	3.3
	대졸 이상	27	66.7	33.3	0.0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78.4	18.4	3.1
	의료급여	186	77.4	20.4	2.2
	주거급여	278	73.7	21.6	4.7
	교육급여	47	70.2	25.5	4.3
	긴급복지지원	11	81.8	18.2	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80.6	17.3	2.0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83.3	16.7	0.0
	우유 무상급식	23	69.6	26.1	4.3
	영양플러스	1	100.0	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100.0	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100.0	0.0	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75.0	25.0	0.0
	아동 도시락 배달	4	100.0	0.0	0.0
	기타 식료품 지원	4	100.0	0.0	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91.9	8.1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장 볼 때 물건 목록 작성 여부 조사 결과, ‘매번 작성한다’고 응답한 취약계층의 비중은 5.2%로 나타났으며, ‘작성한 적 없다’는 67.2%로 나타나 취약계층은 계획적으로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편으로 분석됨.

〈표 3-4〉 평소 장 볼 때 물건 목록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작성한 적 없다	작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매번 작성한다
전체		500	67.2	27.6	5.2
거주지	서울	170	64.1	31.2	4.7
	인천	165	71.5	21.2	7.3
	경기	165	66.1	30.3	3.6
성별	남성	137	83.2	14.6	2.2
	여성	363	61.2	32.5	6.3
연령대	55세 미만	244	59.4	35.2	5.3
	55세 이상	256	74.6	20.3	5.1
가구원수	1인가구	244	72.1	23.8	4.1
	2인 이상	256	62.5	31.3	6.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72.5	23.4	4.0
	100만~150만 원 미만	133	67.7	27.8	4.5
	150만~200만 원 미만	63	52.4	39.7	7.9
	200만~250만 원 미만	29	48.3	41.4	10.3
	250만~300만 원 미만	2	50.0	0.0	5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80.4	15.9	3.7
	고졸	366	65.3	29.2	5.5
	대졸 이상	27	40.7	51.9	7.4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71.4	25.1	3.5
	의료급여	186	69.4	26.9	3.8
	주거급여	278	70.5	22.7	6.8
	교육급여	47	55.3	38.3	6.4
	긴급복지지원	11	63.6	36.4	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67.3	29.6	3.1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33.3	50.0	16.7
	우유 무상급식	23	47.8	43.5	8.7
	영양플러스	1	100.0	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100.0	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66.7	33.3	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56.3	31.3	12.5
	아동 도시락 배달	4	100.0	0.0	0.0
	기타 식료품 지원	4	100.0	0.0	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69.4	30.6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최근 한 달 장보기 이동 불편 정도 설문 결과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14.6%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음.

〈표 3-5〉 최근 한 달 장보기 이동 불편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불편함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5점 평균
전체		500	14.6	32.4	44.4	8.6	3.47
거주지	서울	170	12.9	34.7	44.1	8.2	3.48
	인천	165	11.5	25.5	50.3	12.7	3.64
	경기	165	19.4	37.0	38.8	4.8	3.29
성별	남성	137	15.3	36.5	42.3	5.8	3.39
	여성	363	14.3	30.9	45.2	9.6	3.50
연령대	55세 미만	244	13.1	29.5	47.5	9.8	3.54
	55세 이상	256	16.0	35.2	41.4	7.4	3.40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14.3	30.3	46.3	9.0	3.50
	2인 이상	256	14.8	34.4	42.6	8.2	3.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7.6	32.2	44.3	5.9	3.38
	100만~150만 원 미만	133	12.8	35.3	41.4	10.5	3.50
	150만~200만 원 미만	63	7.9	30.2	44.4	17.5	3.71
	200만~250만 원 미만	29	6.9	27.6	58.6	6.9	3.66
	250만~300만 원 미만	2	50.0	0.0	50.0	0.0	3.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18.7	37.4	40.2	3.7	3.29
	고졸	366	13.9	31.1	44.8	10.1	3.51
	대졸 이상	27	7.4	29.6	55.6	7.4	3.63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7.6	37.3	38.8	6.3	3.34
	의료급여	186	14.5	29.0	46.2	10.2	3.52
	주거급여	278	9.7	29.1	49.6	11.5	3.63
	교육급여	47	10.6	42.6	40.4	6.4	3.43
	긴급복지지원	11	27.3	27.3	45.5	0.0	3.18
	정부양곡할인지원	98	19.4	22.4	48.0	10.2	3.49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16.7	16.7	50.0	16.7	3.67
	우유 무상급식	23	13.0	30.4	52.2	4.3	3.48
	영양플러스	1	100.0	0.0	0.0	0.0	2.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0.0	3.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33.3	33.3	33.3	0.0	3.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18.8	6.3	75.0	0.0	3.56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0.0	75.0	0.0	3.50
	기타 식품품 지원	4	25.0	0.0	75.0	0.0	3.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17.7	24.2	56.5	1.6	3.4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식품비 지출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월평균 식품비 지출 금액 설문 결과, 취약 계층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은 335,120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식비가 259,420원, 외식비는 75,700원으로 분석됨.

〈표 3-6〉 월평균 식품비 지출 금액

단위: 명, 원

구분		응답자 수	가정식비	외식비	합계
전체		500	259,420	75,700	335,120
거주지	서울	170	288,382	82,606	370,988
	인천	165	220,212	73,261	293,473
	경기	165	268,788	71,024	339,812
성별	남성	137	246,314	85,124	331,438
	여성	363	264,366	72,143	336,510
연령대	55세 미만	244	264,693	92,135	356,828
	55세 이상	256	254,395	60,035	314,430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205,893	73,541	279,434
	2인 이상	256	310,438	77,758	388,19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225,037	65,311	290,348
	100만~150만 원 미만	133	285,000	85,564	370,564
	150만~200만 원 미만	63	299,683	88,413	388,095
	200만~250만 원 미만	29	360,000	95,517	455,517
	250만~300만 원 미만	2	525,000	150,000	675,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7	234,093	40,430	274,523
	고졸	366	266,290	82,689	348,978
	대졸 이상	27	266,667	120,741	387,407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253,247	67,584	320,831
	의료급여	186	277,177	68,812	345,989
	주거급여	278	261,252	79,468	340,719
	교육급여	47	370,426	118,787	489,213
	긴급복지지원	11	279,091	140,909	420,0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295,918	65,143	361,061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491,667	133,333	625,000
	우유 무상급식	23	396,087	94,261	490,348
	영양플러스	1	220,000	150,000	370,000
	건강과일바구니	1	400,000	100,000	500,0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141,000	41,667	182,667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357,500	123,938	481,438
	아동 도시락 배달	4	265,000	202,500	467,500
	기타 식료품 지원	4	217,500	180,000	397,5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245,516	56,903	302,41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가구 내 식품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로 나타남.

〈표 3-7〉 가구 내 식품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500	1.8	25.4	31.6	38.0	3.2	3.15
거주지	서울	170	0.0	21.2	32.9	41.8	4.1	3.29
	인천	165	5.5	44.8	22.4	23.0	4.2	2.76
	경기	165	0.0	10.3	39.4	49.1	1.2	3.41
성별	남성	137	2.2	24.1	23.4	45.3	5.1	3.27
	여성	363	1.7	25.9	34.7	35.3	2.5	3.11
연령대	55세 미만	244	2.0	24.2	29.1	40.2	4.5	3.21
	55세 이상	256	1.6	26.6	34.0	35.9	2.0	3.10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2.5	27.9	31.1	34.8	3.7	3.09
	2인 이상	256	1.2	23.0	32.0	41.0	2.7	3.2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1	18.7	32.6	43.2	4.4	3.31
	100만~150만 원 미만	133	2.3	29.3	33.1	32.3	3.0	3.05
	150만~200만 원 미만	63	3.2	42.9	27.0	27.0	0.0	2.78
	200만~250만 원 미만	29	3.4	34.5	24.1	37.9	0.0	2.97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50.0	50.0	0.0	3.5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0.9	22.4	26.2	48.6	1.9	3.28
	고졸	366	2.2	27.0	33.1	33.9	3.8	3.10
	대졸 이상	27	0.0	14.8	33.3	51.9	0.0	3.37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0.8	17.6	33.3	44.7	3.5	3.33
	의료급여	186	0.0	31.7	36.0	30.6	1.6	3.02
	주거급여	278	3.2	35.6	33.1	24.8	3.2	2.89
	교육급여	47	2.1	21.3	40.4	36.2	0.0	3.11
	긴급복지지원	11	0.0	9.1	18.2	72.7	0.0	3.64
	정부양곡할인지원	98	1.0	25.5	33.7	36.7	3.1	3.15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16.7	33.3	50.0	0.0	3.33
	우유 무상급식	23	0.0	13.0	52.2	34.8	0.0	3.22
	영양플러스	1	0.0	0.0	100.0	0.0	0.0	3.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0.0	100.0	0.0	4.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33.3	33.3	0.0	33.3	0.0	2.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6.3	31.3	62.5	0.0	3.56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0.0	25.0	75.0	0.0	3.75
	기타 식품품 지원	4	0.0	0.0	25.0	75.0	0.0	3.75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14.5	33.9	46.8	4.8	3.4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은 월평균 131,113원의 식비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175,299원의 식비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식비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표 3-8〉 추가적으로 필요한 식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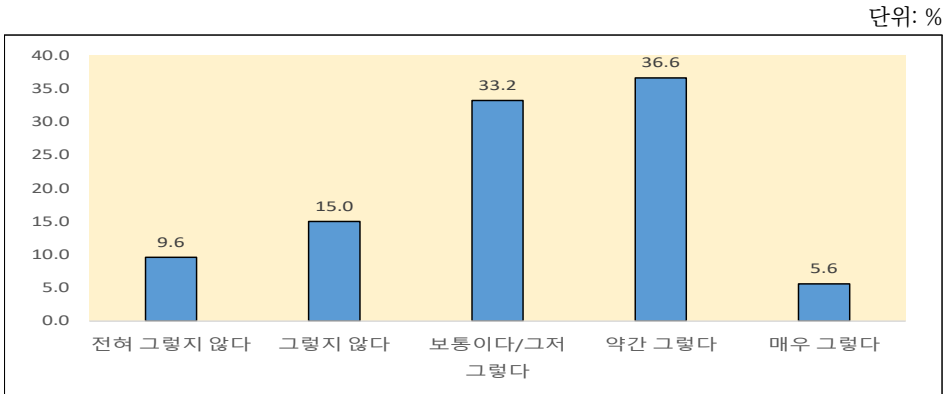
단위: 명, 원

구분		응답자 수	월평균 필요 추가 식비
전체		500	131,113
거주지	서울	170	175,299
	인천	165	94,817
	경기	165	111,216
성별	남성	137	137,525
	여성	363	128,650
연령대	55세 미만	244	143,611
	55세 이상	256	118,886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113,647
	2인 이상	256	146,41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36,644
	100만~150만 원 미만	133	111,648
	150만~200만 원 미만	63	147,353
	200만~250만 원 미만	29	129,444
	250만~300만 원 미만	2	150,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130,488
	고졸	366	130,405
	대졸 이상	27	141,304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55,577
	의료급여	186	165,118
	주거급여	278	122,794
	교육급여	47	200,556
	긴급복지지원	11	181,0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152,778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304,000
	우유 무상급식	23	221,000
	영양플러스	1	140,000
	건강과일바구니	1	300,0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200,0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217,333
	아동 도시락 배달	4	122,500
	기타 식료품 지원	4	125,0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102,83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식품 구매 시 중량당 가격 확인 여부 설문 결과, 75.4%의 응답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4.6%의 취약계층 응답자는 확인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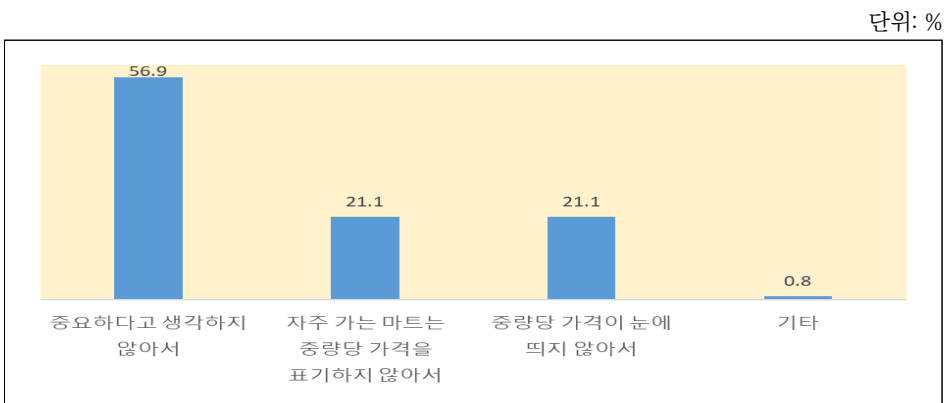
〈그림 3-6〉 식품 구매 시 중량당 가격 확인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중량당 가격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자주 가는 마트는 중량당 가격을 표기하지 않아서(21.1%)’, ‘중량당 가격이 눈에 띄지 않아서(21.1%)’의 응답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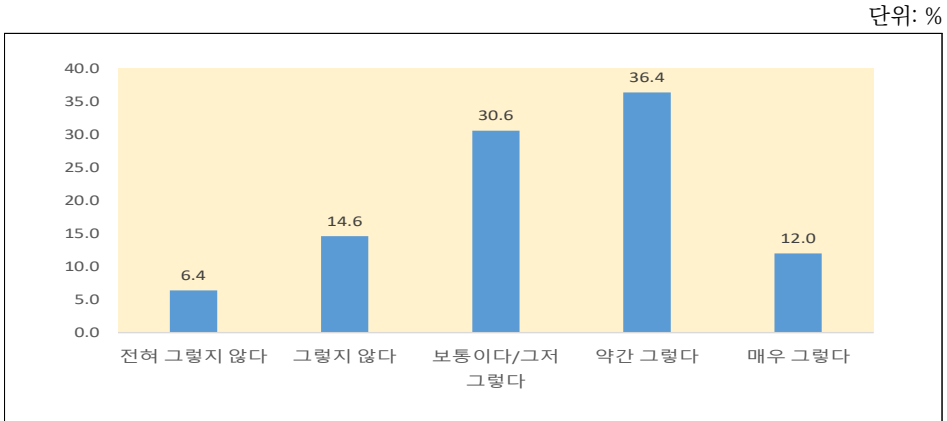
〈그림 3-7〉 식품 구매 시 중량당 가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평소 장을 볼 때 마트 할인정보를 얼마나 잘 확인하는지 설문한 결과, 78.4%의 응답자가 할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8〉 평소 장 볼 때 마트 할인정보 확인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식생활 또는 품질 관련 정보 습득 경로를 설문한 결과, 취약계층은 각종 정보를 주로 판매자(29.2%), 주위 사람(26.6%), 포장지 표시나 문구(19.9%), 방송(15.0%)에서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9〉 식생활 또는 품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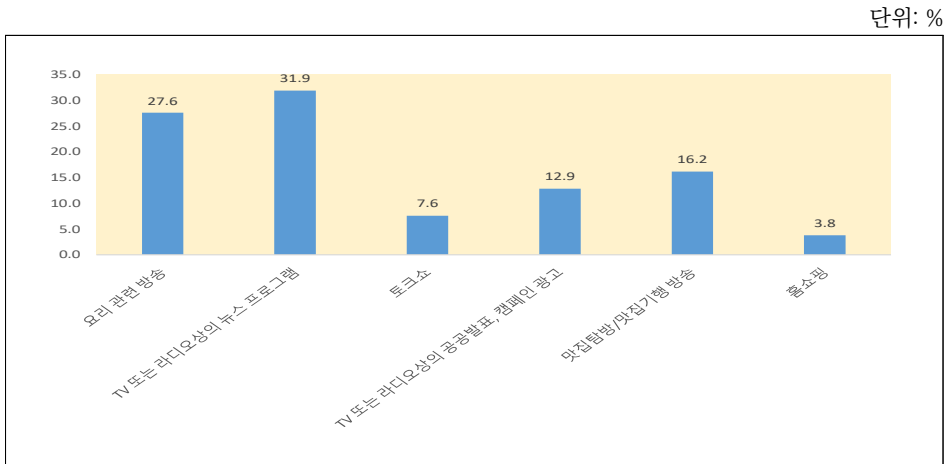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판매자	주위 사람	포장지 표시나 문구	방송	광고문구	인터넷 블로그/SNS	정부기관 홈페이지	소비자단체/행사/교육	학교	전문가	전사회/비밀회	
전체	500	29.2	26.6	19.9	15.0	4.9	2.5	0.1	0.3	0.1	1.4	0.1	
	서울	170	27.0	25.6	18.5	18.6	3.9	4.2	0.2	0.0	1.6	0.2	
	인천	165	28.9	26.2	17.9	14.5	7.6	1.5	0.1	0.4	2.5	0.2	
거주지	경기	165	31.7	28.1	23.2	11.7	3.1	1.6	0.0	0.0	0.2	0.0	
	남성	137	32.0	23.5	19.8	14.0	6.4	2.9	0.1	0.0	0.7	0.0	
성별	여성	363	28.1	27.8	19.9	15.4	4.3	2.3	0.1	0.1	1.7	0.2	
	연령대	244	27.5	24.7	20.6	16.3	5.3	3.5	0.2	0.5	0.1	1.3	0.0
연령대	55세 이상	256	30.8	28.4	19.1	13.7	4.5	1.5	0.0	0.0	1.6	0.3	
	가구원 수	244	29.7	26.6	19.5	15.0	5.0	2.6	0.1	0.3	1.1	0.1	
가구원 수	2인 이상	256	28.6	26.6	20.2	15.0	4.8	2.3	0.1	0.3	1.8	0.1	
	100만 원 미만	273	31.1	26.7	21.2	13.4	3.6	2.3	0.0	0.4	0.0	1.2	0.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150만 원 미만	133	29.3	28.4	16.9	14.7	6.0	2.6	0.1	0.4	0.0	1.5	0.0
	150만~200만 원 미만	63	21.7	23.8	21.7	19.3	8.5	2.1	0.5	0.0	0.5	1.9	0.0
소득	200만~250만 원 미만	29	25.9	22.4	18.4	23.6	2.9	4.0	0.0	0.0	0.0	2.9	0.0
	250만~300만 원 미만	2	41.7	41.7	0.0	0.0	16.7	0.0	0.0	0.0	0.0	0.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7	29.8	27.9	22.1	14.3	2.8	0.6	0.0	0.3	0.0	1.9	0.3
	고졸	366	29.1	26.2	19.3	15.9	5.6	2.0	0.0	0.3	0.1	1.4	0.1
대졸 이상	27	28.4	27.2	18.5	5.6	2.5	16.0	1.2	0.0	0.0	0.6	0.0	

단위: 명, 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또한, 주로 식품 관련 정보를 얻는 프로그램은 뉴스(31.9%), 요리 관련 방송(27.6%), 맛집탐방/맛집기행 방송(16.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주로 식품 관련 정보를 얻는 프로그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2. 식생활 조사

○ 가족구성원 모두가 하루에 세 끼를 챙겨 먹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취약계층의 절반은 끼니를 모두 챙겨 먹지 못함.

〈표 3-10〉 가족 구성원 모두 하루에 세 끼를 챙겨 먹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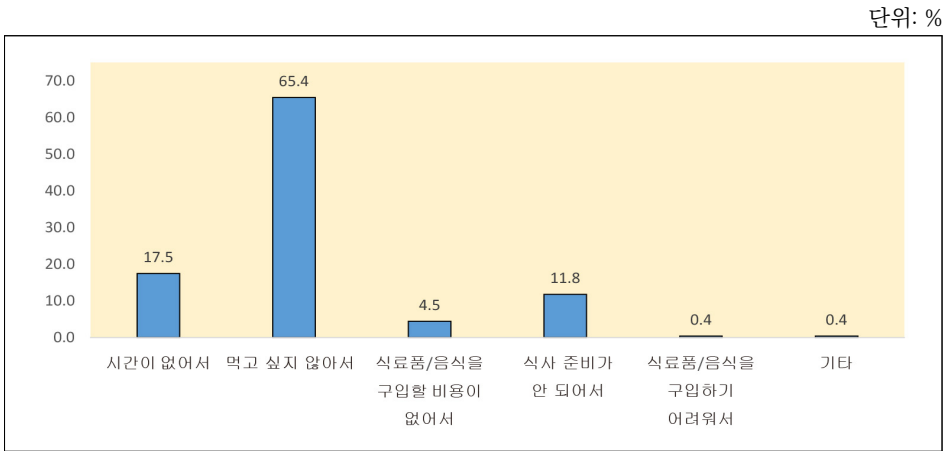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아니오, 끼니를 모두 챙겨 먹지는 못 합니다	예, 끼니를 모두 챙겨 먹습니다
전체		500	49.2	50.8
거주지	서울	170	43.5	56.5
	인천	165	49.1	50.9
	경기	165	55.2	44.8
성별	남성	137	56.9	43.1
	여성	363	46.3	53.7
연령대	55세 미만	244	57.4	42.6
	55세 이상	256	41.4	58.6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56.1	43.9
	2인 이상	256	42.6	57.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58.6	41.4
	100만~150만 원 미만	133	39.8	60.2
	150만~200만 원 미만	63	30.2	69.8
	200만~250만 원 미만	29	44.8	55.2
	250만~300만 원 미만	2	50.0	5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46.7	53.3
	고졸	366	49.5	50.5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대졸 이상	27	55.6	44.4
	생계급여	255	56.9	43.1
	의료급여	186	36.0	64.0
	주거급여	278	43.2	56.8
	교육급여	47	38.3	61.7
	긴급복지지원	11	90.9	9.1
	정부양곡할인지원	98	41.8	58.2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33.3	66.7
	우유 무상급식	23	30.4	69.6
	영양플러스	1	10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10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66.7	3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50.0	50.0
	아동 도시락 배달	4	100.0	0.0
	기타 식료품 지원	4	75.0	2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48.4	51.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주된 이유로는 ‘먹고 싶지 않아서(65.4%)’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시간이 없어서(17.5%)’, ‘조리를 할 줄 모르고 차려줄 사람이 없는 등 식사 준비가 안 되어서(11.8%)’, ‘식료품/음식을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4.5%)’ 등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그림 3-10〉 가족구성원이 끼니를 거르는 이유



주: ‘식사 준비가 안 되어서’에는 ‘조리를 할 줄 모르고,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가 포함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본인 또는 가구원의 급식소/급식 이용 여부 설문 결과 85.0%의 응답자가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급식을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일주일 평균 4.35회 급식소/급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본인 또는 가구원의 급식소/급식 이용 여부

단위: 명, %, 회

구분		응답자 수	모든 가구원이 급식을 이용 (A)	일부 가구원이 급식을 이용 (B)	이용하지 않음	(A,B대상) 1인 1주 평균 이용횟수
전체		500	1.8	13.2	85.0	4.35
거주지	서울	170	1.2	17.1	81.8	4.42
	인천	165	4.2	9.1	86.7	4.00
	경기	165	0.0	13.3	86.7	4.59
성별	남성	137	1.5	5.1	93.4	3.67
	여성	363	1.9	16.3	81.8	4.44
연령대	55세 미만	244	2.0	23.8	74.2	4.60
	55세 이상	256	1.6	3.1	95.3	3.00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2.0	1.6	96.3	2.33
	2인 이상	256	1.6	24.2	74.2	4.6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5	4.8	93.8	3.53
	100만~150만 원 미만	133	3.8	16.5	79.7	4.48
	150만~200만 원 미만	63	0.0	23.8	76.2	4.67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51.7	48.3	4.67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50.0	50.0	5.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2.8	2.8	94.4	3.33
	고졸	366	1.4	14.8	83.9	4.44
	대졸 이상	27	3.7	33.3	63.0	4.40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0.8	9.8	89.4	4.07
	의료급여	186	1.6	8.1	90.3	4.22
	주거급여	278	3.2	11.2	85.6	4.25
	교육급여	47	4.3	80.9	14.9	4.83
	긴급복지지원	11	9.1	18.2	72.7	3.67
	정부양곡할인지원	98	4.1	10.2	85.7	4.43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100.0	0.0	5.00
	우유 무상급식	23	0.0	95.7	4.3	4.82
	영양플러스	1	100.0	0.0	0.0	1.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4.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66.7	0.0	33.3	2.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6.3	81.3	12.5	4.43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25.0	50.0	3.0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25.0	75.0	5.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14.5	85.5	5.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은 최근 일주일간 아침을 먹을 때 주로 집에서 만들어서 먹거나 (4.76회) 거른 것으로(2.07회) 분석됨.

〈표 3-12〉 최근 일주일간 식사 현황(아침)

단위: 명, 회

구분		응답자 수	집에서 만들어 먹음	가정 외 식사	거른 횟수
전체		500	4.76	0.17	2.07
거주지	서울	170	4.93	0.12	1.95
	인천	165	4.68	0.20	2.12
	경기	165	4.67	0.19	2.13
성별	남성	137	4.49	0.12	2.39
	여성	363	4.87	0.19	1.94
연령대	55세 미만	244	4.13	0.18	2.69
	55세 이상	256	5.36	0.16	1.47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4.26	0.15	2.59
	2인 이상	256	5.24	0.19	1.5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4.37	0.19	2.44
	100만~150만 원 미만	133	4.98	0.21	1.80
	150만~200만 원 미만	63	5.62	0.05	1.33
	200만~250만 원 미만	29	5.66	0.07	1.28
	250만~300만 원 미만	2	3.50	0.00	3.5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5.62	0.16	1.22
	고졸	366	4.63	0.17	2.20
	대졸 이상	27	3.19	0.26	3.56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4.62	0.20	2.18
	의료급여	186	5.36	0.19	1.45
	주거급여	278	4.82	0.25	1.93
	교육급여	47	4.85	0.36	1.79
	긴급복지지원	11	3.73	0.73	2.55
	정부양곡할인지원	98	5.34	0.09	1.57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5.67	0.00	1.33
	우유 무상급식	23	5.39	0.09	1.52
	영양플러스	1	2.00	2.00	3.00
	건강과일바구니	1	5.00	0.00	2.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4.67	0.00	2.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4.44	0.63	1.94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1.50	3.00
	기타 식료품 지원	4	2.75	1.00	3.25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5.21	0.05	1.7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은 최근 일주일간 점심 식사 시 주로 집에서 만들어서 먹거나(4.27회) 가정 외에서 식사함(2.17회).

〈표 3-13〉 최근 일주일간 식사 현황(점심)

단위: 명, 회

구분		응답자 수	집에서 만들어 먹음	가정 외 식사	거른 횟수
전체		500	4.27	2.17	0.56
거주지	서울	170	3.98	2.51	0.51
	인천	165	4.61	1.93	0.46
	경기	165	4.22	2.07	0.71
성별	남성	137	3.81	2.74	0.45
	여성	363	4.44	1.96	0.60
연령대	55세 미만	244	3.80	2.64	0.56
	55세 이상	256	4.71	1.73	0.56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4.07	2.39	0.55
	2인 이상	256	4.46	1.96	0.5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4.40	1.93	0.66
	100만~150만 원 미만	133	4.19	2.43	0.38
	150만~200만 원 미만	63	3.84	2.73	0.43
	200만~250만 원 미만	29	4.28	2.00	0.72
	250만~300만 원 미만	2	4.50	2.50	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4.94	1.36	0.69
	고졸	366	4.14	2.33	0.53
	대졸 이상	27	3.26	3.30	0.44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4.37	1.95	0.68
	의료급여	186	4.69	1.84	0.47
	주거급여	278	4.09	2.45	0.46
	교육급여	47	4.09	2.66	0.26
	긴급복지지원	11	3.73	2.91	0.36
	정부양곡할인지원	98	4.39	2.09	0.52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3.50	3.33	0.17
	우유 무상급식	23	3.61	3.00	0.39
	영양플러스	1	4.00	3.00	0.00
	건강과일바구니	1	5.00	2.00	0.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5.00	2.00	0.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3.31	3.25	0.44
	아동 도시락 배달	4	3.50	3.25	0.25
	기타 식료품 지원	4	2.50	4.00	0.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4.69	1.92	0.3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저녁 식사의 경우 집에서 만들어 먹는 횟수가 일주일에 5.61회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외에서 먹는 횟수는 1.11회, 거른 횟수는 0.29회로 분석됨.

〈표 3-14〉 최근 일주일간 식사 현황(저녁)

단위: 명, 회

구분		응답자 수	집에서 만들어 먹음	가정 외 식사	거른 횟수
전체		500	5.61	1.11	0.29
거주지	서울	170	5.66	1.09	0.25
	인천	165	5.64	1.19	0.18
	경기	165	5.53	1.04	0.44
성별	남성	137	5.31	1.39	0.30
	여성	363	5.72	1.00	0.28
연령대	55세 미만	244	5.32	1.38	0.30
	55세 이상	256	5.88	0.85	0.27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5.41	1.25	0.34
	2인 이상	256	5.80	0.96	0.2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5.55	1.05	0.40
	100만~150만 원 미만	133	5.73	1.13	0.14
	150만~200만 원 미만	63	5.62	1.25	0.13
	200만~250만 원 미만	29	5.52	1.24	0.24
	250만~300만 원 미만	2	7.00	0.00	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5.91	0.69	0.40
	고졸	366	5.59	1.16	0.25
	대졸 이상	27	4.70	1.96	0.33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5.56	1.11	0.33
	의료급여	186	5.72	1.09	0.19
	주거급여	278	5.46	1.30	0.24
	교육급여	47	5.55	1.34	0.11
	긴급복지지원	11	4.45	2.45	0.09
	정부양곡할인지원	98	5.59	1.17	0.23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5.83	1.17	0.00
	우유 무상급식	23	5.70	1.09	0.22
	영양플러스	1	3.00	4.00	0.00
	건강과일바구니	1	4.00	0.00	3.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6.00	1.00	0.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5.00	1.88	0.13
	아동 도시락 배달	4	2.75	4.25	0.00
	기타 식료품 지원	4	3.75	3.00	0.25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5.97	0.84	0.1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최근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식사한 경우는 아침 2.23회, 점심 1.58회, 저녁 2.74회로 나타났으며, 혼자 식사한 경우는 아침 2.56회, 점심 2.89회, 저녁 3.06회로 나타남.

〈표 3-15〉 최근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혼자 식사한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응답자 수	가족과 함께			혼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전체	500	2.23	1.58	2.74	2.56	2.89	3.06	
거주지	서울	170	2.28	1.51	2.69	2.65	2.73	3.06
	인천	165	2.15	1.57	2.81	2.52	3.10	3.13
	경기	165	2.27	1.65	2.71	2.50	2.86	2.98
성별	남성	137	1.55	1.20	1.89	2.88	2.84	3.53
	여성	363	2.49	1.72	3.06	2.44	2.91	2.88
연령대	55세 미만	244	1.82	1.26	2.48	2.39	2.75	3.06
	55세 이상	256	2.63	1.88	2.98	2.72	3.03	3.05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0.09	0.30	0.30	4.18	3.88	5.11
	2인 이상	256	4.28	2.79	5.06	1.01	1.96	1.1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22	1.19	1.65	3.37	3.53	4.15
	100만~150만 원 미만	133	2.74	1.83	3.56	1.93	2.34	2.14
	150만~200만 원 미만	63	4.40	2.11	4.43	1.13	1.71	1.25
	200만~250만 원 미만	29	4.76	2.83	5.34	0.90	2.14	1.03
	250만~300만 원 미만	2	2.50	2.00	5.00	2.00	1.00	1.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2.50	1.98	2.81	3.03	3.22	3.30
	고졸	366	2.20	1.51	2.75	2.42	2.82	3.03
	대졸 이상	27	1.67	0.81	2.30	2.59	2.63	2.41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85	1.70	2.35	2.89	3.05	3.48
	의료급여	186	2.70	1.94	2.92	2.64	2.97	3.08
	주거급여	278	2.40	1.69	2.93	2.47	2.69	2.83
	교육급여	47	3.77	2.53	4.77	1.09	2.13	1.28
	긴급복지지원	11	2.73	3.45	3.91	1.64	2.00	1.91
	정부양곡할인지원	98	2.96	1.96	3.23	2.43	2.83	2.69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4.67	2.17	5.00	0.83	1.83	0.67
	우유 무상급식	23	4.48	2.13	5.04	0.91	2.00	1.04
	영양플러스	1	2.00	3.00	2.00	3.00	2.00	2.00
	건강과일바구니	1	2.00	2.00	3.00	2.00	0.00	1.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1.33	0.67	2.33	3.67	4.00	3.67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3.50	2.81	4.69	1.13	1.56	1.25
	아동 도시락 배달	4	2.00	3.75	3.75	1.75	2.25	2.25
	기타 식료품 지원	4	2.50	3.25	4.50	.75	1.25	1.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2.37	1.50	2.76	2.76	3.37	3.2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최근 일주일 동안 식사를 제때 챙겨 먹었는지를 설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 (42.4%)’, ‘매우 그렇다(8.8%)’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4%)’, ‘매우 그렇지 않다(0.8%)’와 비교하여 더 높게 나타남.

〈표 3-16〉 최근 일주일 동안 식사 시간의 정시성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500	0.8	19.4	28.6	42.4	8.8	3.39
거주지	서울	170	1.8	21.2	33.5	37.6	5.9	3.25
	인천	165	0.0	11.5	22.4	50.3	15.8	3.70
	경기	165	0.6	25.5	29.7	39.4	4.8	3.22
성별	남성	137	0.7	22.6	33.6	35.8	7.3	3.26
	여성	363	0.8	18.2	26.7	44.9	9.4	3.44
연령대	55세 미만	244	0.8	24.6	32.0	35.7	7.0	3.23
	55세 이상	256	0.8	14.5	25.4	48.8	10.5	3.54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1.2	23.8	29.9	37.3	7.8	3.27
	2인 이상	256	0.4	15.2	27.3	47.3	9.8	3.5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1	24.9	27.8	39.2	7.0	3.26
	100만~150만 원 미만	133	0.8	10.5	35.3	39.8	13.5	3.55
	150만~200만 원 미만	63	0.0	12.7	22.2	58.7	6.3	3.59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24.1	17.2	51.7	6.9	3.41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50.0	0.0	50.0	4.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0.0	23.4	16.8	48.6	11.2	3.48
	고졸	366	1.1	17.8	31.4	41.3	8.5	3.38
	대졸 이상	27	0.0	25.9	37.0	33.3	3.7	3.15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2	23.1	30.2	39.2	6.3	3.26
	의료급여	186	0.0	8.6	28.5	51.1	11.8	3.66
	주거급여	278	0.4	10.4	27.3	49.3	12.6	3.63
	교육급여	47	0.0	14.9	42.6	40.4	2.1	3.30
	긴급복지지원	11	0.0	18.2	36.4	45.5	0.0	3.27
	정부양곡할인지원	98	0.0	11.2	32.7	46.9	9.2	3.54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33.3	0.0	50.0	16.7	3.50
	우유 무상급식	23	0.0	17.4	21.7	52.2	8.7	3.52
	영양플러스	1	0.0	0.0	100.0	0.0	0.0	3.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0.0	0.0	2.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0.0	33.3	33.3	33.3	4.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12.5	37.5	43.8	6.3	3.44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25.0	50.0	25.0	0.0	3.0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25.0	50.0	25.0	0.0	3.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24.2	32.3	40.3	3.2	3.2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최근 일주일 동안 식사의 규칙성 역시 ‘그런 편이다(38.2%)’, ‘매우 그렇다(13.6%)’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5점 평균 점수는 3.45점으로 나타남.

〈표 3-17〉 최근 일주일 동안 식사의 규칙성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500	1.2	17.8	29.2	38.2	13.6	3.45
거주지	서울	170	1.8	19.4	32.9	36.5	9.4	3.32
	인천	165	0.6	11.5	24.2	40.6	23.0	3.74
	경기	165	1.2	22.4	30.3	37.6	8.5	3.30
성별	남성	137	2.2	18.2	35.8	32.1	11.7	3.33
	여성	363	0.8	17.6	26.7	40.5	14.3	3.50
연령대	55세 미만	244	1.6	22.5	31.6	31.6	12.7	3.31
	55세 이상	256	0.8	13.3	27.0	44.5	14.5	3.59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2.0	21.3	32.4	32.0	12.3	3.31
	2인 이상	256	0.4	14.5	26.2	44.1	14.8	3.5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8	23.8	28.2	34.4	11.7	3.30
	100만~150만 원 미만	133	0.8	6.8	39.1	39.8	13.5	3.59
	150만~200만 원 미만	63	0.0	12.7	19.0	47.6	20.6	3.76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24.1	17.2	41.4	17.2	3.52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0.0	100.0	0.0	4.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0.0	18.7	25.2	44.9	11.2	3.49
	고졸	366	1.6	16.9	31.1	35.0	15.3	3.45
	대졸 이상	27	0.0	25.9	18.5	55.6	0.0	3.30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2.0	22.0	31.0	33.7	11.4	3.31
	의료급여	186	0.0	7.5	31.7	39.8	21.0	3.74
	주거급여	278	0.4	8.6	29.5	40.6	20.9	3.73
	교육급여	47	0.0	12.8	42.6	38.3	6.4	3.38
	긴급복지지원	11	0.0	18.2	27.3	54.5	0.0	3.36
	정부양곡할인지원	98	0.0	7.1	32.7	35.7	24.5	3.78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0.0	33.3	66.7	0.0	3.67
	우유 무상급식	23	0.0	8.7	34.8	52.2	4.3	3.52
	영양플러스	1	0.0	0.0	0.0	100.0	0.0	4.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0.0	0.0	2.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0.0	0.0	100.0	0.0	4.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0.0	31.3	56.3	12.5	3.81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0.0	50.0	50.0	0.0	3.5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0.0	50.0	50.0	0.0	3.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19.4	35.5	41.9	3.2	3.2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최근 한 달 동안 식비 부족 경험 정도를 설문한 결과, 취약계층의 11.0%가 식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8.6%에 그쳤음. 5점 평균 또한 3.46점으로 나타남.

〈표 3-18〉 최근 한 달 동안 식비 부족 경험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었다	5점 평균
전체		500	11.0	40.8	39.6	8.6	3.46
거주지	서울	170	15.3	42.9	35.3	6.5	3.33
	인천	165	6.7	22.4	53.9	17.0	3.81
	경기	165	10.9	57.0	29.7	2.4	3.24
성별	남성	137	16.8	38.7	41.6	2.9	3.31
	여성	363	8.8	41.6	38.8	10.7	3.52
연령대	55세 미만	244	11.1	41.0	40.6	7.4	3.44
	55세 이상	256	10.9	40.6	38.7	9.8	3.47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10.7	45.5	36.9	7.0	3.40
	2인 이상	256	11.3	36.3	42.2	10.2	3.5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2.1	48.0	35.5	4.4	3.32
	100만~150만 원 미만	133	12.0	36.8	33.1	18.0	3.57
	150만~200만 원 미만	63	7.9	28.6	55.6	7.9	3.63
	200만~250만 원 미만	29	3.4	17.2	72.4	6.9	3.83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50.0	50.0	0.0	3.5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11.2	41.1	33.6	14.0	3.50
	고졸	366	11.2	40.2	41.8	6.8	3.44
	대졸 이상	27	7.4	48.1	33.3	11.1	3.48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4.5	48.6	32.5	4.3	3.27
	의료급여	186	14.5	38.7	43.0	3.8	3.36
	주거급여	278	10.1	33.5	44.6	11.9	3.58
	교육급여	47	10.6	51.1	36.2	2.1	3.30
	긴급복지지원	11	27.3	36.4	36.4	0.0	3.09
	정부양곡할인지원	98	20.4	37.8	36.7	5.1	3.27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33.3	66.7	0.0	3.67
	우유 무상급식	23	8.7	52.2	39.1	0.0	3.30
	영양플러스	1	0.0	0.0	100.0	0.0	4.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0.0	3.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0.0	33.3	66.7	4.67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12.5	25.0	62.5	0.0	3.50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0.0	75.0	0.0	3.50
	기타 식료품 지원	4	25.0	0.0	75.0	0.0	3.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1.6	38.7	46.8	12.9	3.7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최근 한 달 동안 균형 잡힌 식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취약계층 비율은 20.8%에 달하였으며, 5점 평균은 3.23점으로 분석됨.

〈표 3-19〉 최근 한 달 균형 잡힌 식사 부족 경험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많았다	있는 편이다	보통 이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었다	5점 평균
전체		500	1.4	19.4	45.6	21.8	11.8	3.23
거주지	서울	170	2.4	18.8	54.7	19.4	4.7	3.05
	인천	165	0.0	13.3	34.5	25.5	26.7	3.65
	경기	165	1.8	26.1	47.3	20.6	4.2	2.99
성별	남성	137	0.0	28.5	43.1	17.5	10.9	3.11
	여성	363	1.9	16.0	46.6	23.4	12.1	3.28
연령대	55세 미만	244	1.6	19.3	45.1	21.7	12.3	3.24
	55세 이상	256	1.2	19.5	46.1	21.9	11.3	3.23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0.4	24.2	43.4	21.7	10.2	3.17
	2인 이상	256	2.3	14.8	47.7	21.9	13.3	3.2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2.6	26.0	44.7	18.3	8.4	3.04
	100만~150만 원 미만	133	0.0	12.8	46.6	27.1	13.5	3.41
	150만~200만 원 미만	63	0.0	11.1	42.9	28.6	17.5	3.52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3.4	55.2	17.2	24.1	3.62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50.0	50.0	0.0	0.0	2.5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3.7	25.2	41.1	20.6	9.3	3.07
	고졸	366	0.8	17.8	47.0	21.3	13.1	3.28
	대졸 이상	27	0.0	18.5	44.4	33.3	3.7	3.22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2.7	22.4	47.8	19.2	7.8	3.07
	의료급여	186	0.0	17.7	47.8	22.0	12.4	3.29
	주거급여	278	0.0	14.0	41.0	25.2	19.8	3.51
	교육급여	47	0.0	8.5	66.0	12.8	12.8	3.30
	긴급복지지원	11	0.0	18.2	54.5	27.3	0.0	3.09
	정부양곡할인지원	98	0.0	18.4	45.9	26.5	9.2	3.27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16.7	66.7	16.7	0.0	3.00
	우유 무상급식	23	0.0	13.0	60.9	21.7	4.3	3.17
	영양플러스	1	0.0	0.0	100.0	0.0	0.0	3.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0.0	0.0	2.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0.0	33.3	66.7	0.0	3.67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6.3	75.0	18.8	0.0	3.13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0.0	100.0	0.0	0.0	3.0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25.0	75.0	0.0	0.0	2.75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12.9	67.7	19.4	0.0	3.0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3. 건강 상태 및 식품·영양 섭취 조사

○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설문 결과, ‘매우 건강하지 않다’ 혹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취약계층 비율은 26.0%에 달함. 반면에,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불과하였음.

〈표 3-20〉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매우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		500	1.8	24.2	37.0	32.0	5.0
거주지	서울	170	1.8	26.5	38.2	30.0	3.5
	인천	165	0.6	15.8	33.9	40.6	9.1
	경기	165	3.0	30.3	38.8	25.5	2.4
성별	남성	137	4.4	23.4	40.9	27.0	4.4
	여성	363	0.8	24.5	35.5	33.9	5.2
연령대	55세 미만	244	2.9	19.7	30.3	41.0	6.1
	55세 이상	256	0.8	28.5	43.4	23.4	3.9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2.9	25.0	37.7	28.3	6.1
	2인 이상	256	0.8	23.4	36.3	35.5	3.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2.6	31.5	37.4	23.8	4.8
	100만~150만 원 미만	133	0.8	20.3	36.1	36.8	6.0
	150만~200만 원 미만	63	1.6	9.5	39.7	44.4	4.8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6.9	31.0	58.6	3.4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50.0	5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0.9	40.2	36.4	17.8	4.7
	고졸	366	2.2	20.5	38.5	34.2	4.6
	대졸 이상	27	0.0	11.1	18.5	59.3	11.1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3.5	34.9	35.7	22.0	3.9
	의료급여	186	2.2	28.5	43.0	26.3	0.0
	주거급여	278	0.7	14.0	38.5	39.9	6.8
	교육급여	47	0.0	12.8	27.7	51.1	8.5
	긴급복지지원	11	0.0	18.2	36.4	45.5	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3.1	34.7	36.7	22.4	3.1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0.0	16.7	50.0	33.3
	우유 무상급식	23	0.0	8.7	21.7	56.5	13.0
	영양플러스	1	0.0	0.0	0.0	10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0.0	10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0.0	66.7	0.0	3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12.5	25.0	56.3	6.3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0.0	25.0	75.0	0.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25.0	25.0	50.0	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22.6	50.0	27.4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을 설문한 결과, 쌀에 대해서 ‘적정량을 섭취하려고 한다’가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가 22.8%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혹은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3-21〉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쌀)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	3점 평균
전체		500	22.8	75.2	2.0	1.79
거주지	서울	170	21.8	78.2	0.0	1.78
	인천	165	27.9	67.3	4.8	1.77
	경기	165	18.8	80.0	1.2	1.82
성별	남성	137	13.9	83.2	2.9	1.89
	여성	363	26.2	72.2	1.7	1.75
연령대	55세 미만	244	24.6	74.2	1.2	1.77
	55세 이상	256	21.1	76.2	2.7	1.82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22.1	75.4	2.5	1.80
	2인 이상	256	23.4	75.0	1.6	1.7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9.8	77.3	2.9	1.83
	100만~150만 원 미만	133	29.3	69.2	1.5	1.72
	150만~200만 원 미만	63	27.0	73.0	0.0	1.73
	200만~250만 원 미만	29	13.8	86.2	0.0	1.86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100.0	0.0	2.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16.8	81.3	1.9	1.85
	고졸	366	24.6	73.2	2.2	1.78
	대졸 이상	27	22.2	77.8	0.0	1.78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6.9	80.8	2.4	1.85
	의료급여	186	24.2	72.6	3.2	1.79
	주거급여	278	23.4	73.7	2.9	1.79
	교육급여	47	17.0	80.9	2.1	1.85
	긴급복지지원	11	27.3	63.6	9.1	1.82
	정부양곡할인지원	98	17.3	79.6	3.1	1.86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16.7	83.3	0.0	1.83
	우유 무상급식	23	8.7	91.3	0.0	1.91
	영양플러스	1	0.0	0.0	100.0	3.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2.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33.3	66.7	0.0	1.67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93.8	6.3	2.06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75.0	25.0	2.25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100.0	0.0	2.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19.4	80.6	0.0	1.8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잡곡의 경우에는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61.6%)’,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27.6%)’,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10.8%)’ 순으로 나타남.

〈표 3-22〉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잡곡)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	3점 평균
전체		500	10.8	61.6	27.6	2.17
거주지	서울	170	9.4	70.6	20.0	2.11
	인천	165	13.9	52.1	33.9	2.20
	경기	165	9.1	61.8	29.1	2.20
성별	남성	137	14.6	62.8	22.6	2.08
	여성	363	9.4	61.2	29.5	2.20
연령대	55세 미만	244	15.2	57.4	27.5	2.12
	55세 이상	256	6.6	65.6	27.7	2.21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11.5	63.9	24.6	2.13
	2인 이상	256	10.2	59.4	30.5	2.2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1.7	68.9	19.4	2.08
	100만~150만 원 미만	133	12.0	59.4	28.6	2.17
	150만~200만 원 미만	63	3.2	46.0	50.8	2.48
	200만~250만 원 미만	29	10.3	41.4	48.3	2.38
	250만~300만 원 미만	2	50.0	0.0	50.0	2.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2.8	72.0	25.2	2.22
	고졸	366	12.0	59.8	28.1	2.16
	대졸 이상	27	25.9	44.4	29.6	2.04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8.2	71.0	20.8	2.13
	의료급여	186	4.3	58.1	37.6	2.33
	주거급여	278	11.2	59.7	29.1	2.18
	교육급여	47	4.3	63.8	31.9	2.28
	긴급복지지원	11	18.2	63.6	18.2	2.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3.1	70.4	26.5	2.23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16.7	50.0	33.3	2.17
	우유 무상급식	23	4.3	73.9	21.7	2.17
	영양플러스	1	0.0	100.0	0.0	2.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2.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66.7	33.3	2.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6.3	93.8	0.0	1.94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100.0	0.0	2.00
	기타 식품품 지원	4	0.0	100.0	0.0	2.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12.9	54.8	32.3	2.1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육류의 경우에는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는 의견이 57.6%로 곡물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가 23.4%,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가 19.0%로 나타남.

〈표 3-23〉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육류)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	3점 평균
전체		500	23.4	57.6	19.0	1.96
거주지	서울	170	22.4	61.2	16.5	1.94
	인천	165	31.5	52.7	15.8	1.84
	경기	165	16.4	58.8	24.8	2.08
성별	남성	137	15.3	59.9	24.8	2.09
	여성	363	26.4	56.7	16.8	1.90
연령대	55세 미만	244	26.2	56.6	17.2	1.91
	55세 이상	256	20.7	58.6	20.7	2.00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23.8	57.0	19.3	1.95
	2인 이상	256	23.0	58.2	18.8	1.9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22.0	58.6	19.4	1.97
	100만~150만 원 미만	133	28.6	52.6	18.8	1.90
	150만~200만 원 미만	63	17.5	69.8	12.7	1.95
	200만~250만 원 미만	29	20.7	48.3	31.0	2.10
	250만~300만 원 미만	2	100.0	0.0	0.0	1.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21.5	57.9	20.6	1.99
	고졸	366	23.8	57.9	18.3	1.95
	대졸 이상	27	25.9	51.9	22.2	1.96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23.1	57.6	19.2	1.96
	의료급여	186	25.8	58.1	16.1	1.90
	주거급여	278	26.6	61.2	12.2	1.86
	교육급여	47	19.1	59.6	21.3	2.02
	긴급복지지원	11	36.4	54.5	9.1	1.73
	정부양곡할인지원	98	18.4	66.3	15.3	1.97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33.3	33.3	33.3	2.00
	우유 무상급식	23	17.4	52.2	30.4	2.13
	영양플러스	1	100.0	0.0	0.0	1.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100.0	3.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33.3	33.3	33.3	2.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37.5	43.8	18.8	1.81
	아동 도시락 배달	4	100.0	0.0	0.0	1.00
	기타 식품품 지원	4	50.0	50.0	0.0	1.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12.9	58.1	29.0	2.1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과일류의 경우에는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는 의견이 57.2%,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는 의견이 3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3-24〉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과일류)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	3점 평균
전체		500	12.6	57.2	30.2	2.18
거주지	서울	170	11.8	60.0	28.2	2.16
	인천	165	19.4	58.2	22.4	2.03
	경기	165	6.7	53.3	40.0	2.33
성별	남성	137	16.1	56.9	27.0	2.11
	여성	363	11.3	57.3	31.4	2.20
연령대	55세 미만	244	14.3	54.1	31.6	2.17
	55세 이상	256	10.9	60.2	28.9	2.18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13.5	59.4	27.0	2.14
	2인 이상	256	11.7	55.1	33.2	2.2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2.8	54.9	32.2	2.19
	100만~150만 원 미만	133	13.5	65.4	21.1	2.08
	150만~200만 원 미만	63	11.1	52.4	36.5	2.25
	200만~250만 원 미만	29	10.3	55.2	34.5	2.24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100.0	3.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9.3	56.1	34.6	2.25
	고졸	366	13.4	59.0	27.6	2.14
	대졸 이상	27	14.8	37.0	48.1	2.33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1.0	58.4	30.6	2.20
	의료급여	186	8.6	63.4	28.0	2.19
	주거급여	278	14.7	67.6	17.6	2.03
	교육급여	47	10.6	46.8	42.6	2.32
	긴급복지지원	11	18.2	9.1	72.7	2.55
	정부양곡할인지원	98	6.1	69.4	24.5	2.18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16.7	83.3	2.83
	우유 무상급식	23	4.3	47.8	47.8	2.43
	영양플러스	1	0.0	0.0	100.0	3.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100.0	3.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66.7	33.3	2.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6.3	37.5	56.3	2.50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25.0	50.0	2.25
	기타 식료품 지원	4	50.0	0.0	50.0	2.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14.5	43.5	41.9	2.2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채소류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한다’는 의견이 8.0%로 낮게 나타난 반면,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의견이 45.0%로 높게 분석됨.

〈표 3-25〉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채소류)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려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고 한다	3점 평균
전체		500	8.0	47.0	45.0	2.37
거주지	서울	170	10.0	47.1	42.9	2.33
	인천	165	10.9	49.7	39.4	2.28
	경기	165	3.0	44.2	52.7	2.50
성별	남성	137	10.2	52.6	37.2	2.27
	여성	363	7.2	44.9	47.9	2.41
연령대	55세 미만	244	10.7	45.9	43.4	2.33
	55세 이상	256	5.5	48.0	46.5	2.41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7.8	50.8	41.4	2.34
	2인 이상	256	8.2	43.4	48.4	2.4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8.4	47.6	44.0	2.36
	100만~150만 원 미만	133	8.3	58.6	33.1	2.25
	150만~200만 원 미만	63	9.5	31.7	58.7	2.49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24.1	75.9	2.76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100.0	3.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3.7	54.2	42.1	2.38
	고졸	366	8.7	45.4	45.9	2.37
	대졸 이상	27	14.8	40.7	44.4	2.30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7.5	48.2	44.3	2.37
	의료급여	186	4.3	38.7	57.0	2.53
	주거급여	278	9.4	49.6	41.0	2.32
	교육급여	47	8.5	48.9	42.6	2.34
	긴급복지지원	11	9.1	54.5	36.4	2.27
	정부양곡할인지원	98	1.0	39.8	59.2	2.58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33.3	66.7	2.67
	우유 무상급식	23	13.0	39.1	47.8	2.35
	영양플러스	1	0.0	100.0	0.0	2.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100.0	3.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33.3	66.7	2.67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12.5	50.0	37.5	2.25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75.0	0.0	1.75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75.0	25.0	2.25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3.2	53.2	43.5	2.4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55세 미만 응답자보다 55세 이상 응답자들이 가능하다면 적게 먹으려고 노력함.

〈표 3-26〉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가공식품)

단위: 명, %, 점

구분		응답자 수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	3점 평균
전체		500	53.6	42.8	3.6	1.50
거주지	서울	170	59.4	38.2	2.4	1.43
	인천	165	47.3	48.5	4.2	1.57
	경기	165	53.9	41.8	4.2	1.50
성별	남성	137	45.3	51.1	3.6	1.58
	여성	363	56.7	39.7	3.6	1.47
연령대	55세 미만	244	50.4	45.1	4.5	1.54
	55세 이상	256	56.6	40.6	2.7	1.46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52.0	44.7	3.3	1.51
	2인 이상	256	55.1	41.0	3.9	1.4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54.6	42.5	2.9	1.48
	100만~150만 원 미만	133	48.1	45.9	6.0	1.58
	150만~200만 원 미만	63	52.4	44.4	3.2	1.51
	200만~250만 원 미만	29	72.4	27.6	0.0	1.28
	250만~300만 원 미만	2	50.0	50.0	0.0	1.5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47.7	49.5	2.8	1.55
	고졸	366	56.0	40.7	3.3	1.47
	대졸 이상	27	44.4	44.4	11.1	1.67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55.7	39.2	5.1	1.49
	의료급여	186	63.4	32.8	3.8	1.40
	주거급여	278	50.7	46.0	3.2	1.53
	교육급여	47	46.8	44.7	8.5	1.62
	긴급복지지원	11	45.5	36.4	18.2	1.73
	정부양곡할인지원	98	69.4	27.6	3.1	1.34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50.0	50.0	0.0	1.50
	우유 무상급식	23	56.5	39.1	4.3	1.48
	영양플러스	1	0.0	0.0	100.0	3.00
	건강과일바구니	1	100.0	0.0	0.0	1.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33.3	66.7	0.0	1.67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43.8	37.5	18.8	1.75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50.0	50.0	2.5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75.0	25.0	2.25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58.1	38.7	3.2	1.4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은 외식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적게 먹으려는 경향을 보임.

〈표 3-27〉 식품별 소비/섭취 수준(외식)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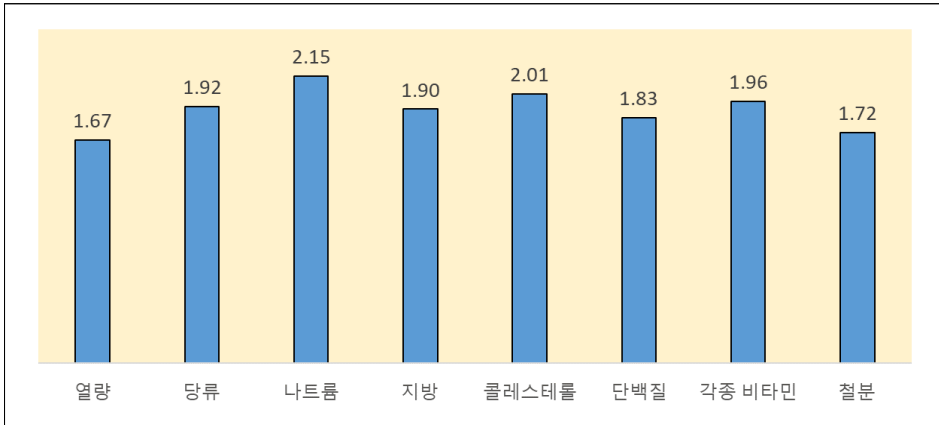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려 한다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 한다	3점 평균
전체		500	46.4	50.6	3.0	1.57
거주지	서울	170	49.4	47.6	2.9	1.54
	인천	165	44.8	53.9	1.2	1.56
	경기	165	44.8	50.3	4.8	1.60
성별	남성	137	39.4	56.2	4.4	1.65
	여성	363	49.0	48.5	2.5	1.53
연령대	55세 미만	244	41.4	54.9	3.7	1.62
	55세 이상	256	51.2	46.5	2.3	1.51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42.2	54.1	3.7	1.61
	2인 이상	256	50.4	47.3	2.3	1.5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47.3	49.8	2.9	1.56
	100만~150만 원 미만	133	43.6	51.9	4.5	1.61
	150만~200만 원 미만	63	41.3	57.1	1.6	1.60
	200만~250만 원 미만	29	58.6	41.4	0.0	1.41
	250만~300만 원 미만	2	100.0	0.0	0.0	1.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50.5	46.7	2.8	1.52
	고졸	366	45.9	51.9	2.2	1.56
	대졸 이상	27	37.0	48.1	14.8	1.78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49.8	47.1	3.1	1.53
	의료급여	186	47.3	50.5	2.2	1.55
	주거급여	278	43.2	53.2	3.6	1.60
	교육급여	47	42.6	55.3	2.1	1.60
	긴급복지지원	11	45.5	54.5	0.0	1.55
	정부양곡할인지원	98	49.0	48.0	3.1	1.54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66.7	33.3	0.0	1.33
	우유 무상급식	23	47.8	52.2	0.0	1.52
	영양플러스	1	0.0	100.0	0.0	2.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2.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33.3	66.7	0.0	1.67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56.3	43.8	0.0	1.44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75.0	0.0	1.75
	기타 식료품 지원	4	25.0	75.0	0.0	1.75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54.8	43.5	1.6	1.4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열량 및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3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나트륨(2.15점), 콜레스테롤(2.01점), 각종 비타민(1.96점), 당류(1.92점), 지방(1.90점), 단백질(1.83점), 철분(1.72점), 열량(1.67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 열량/영양성분 소비 및 관심 수준

단위: 3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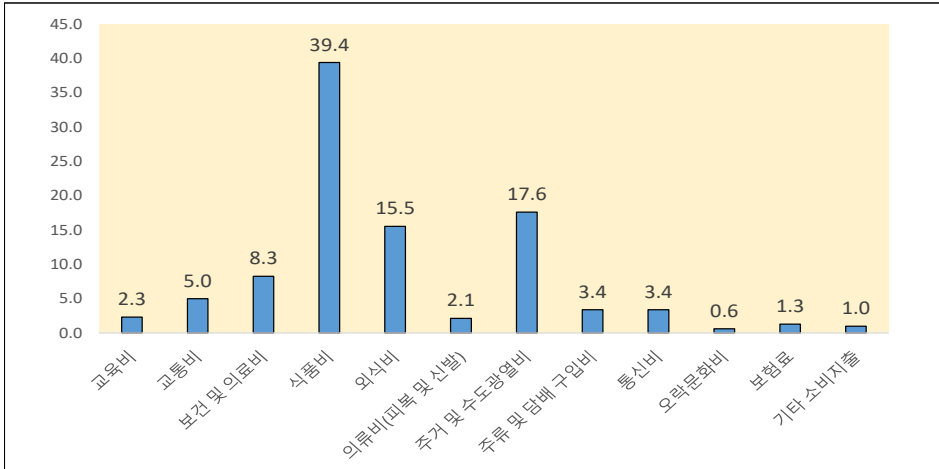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4. 물가 관련 조사

○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및 농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식품 구입 및 섭취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취약계층의 39.4%는 2022년 한 해 식품비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응답하였고, 주거 및 수도광열비(17.6%)에 이어 외식비 또한 15.5%의 응답자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응답함.

〈그림 3-12〉 올해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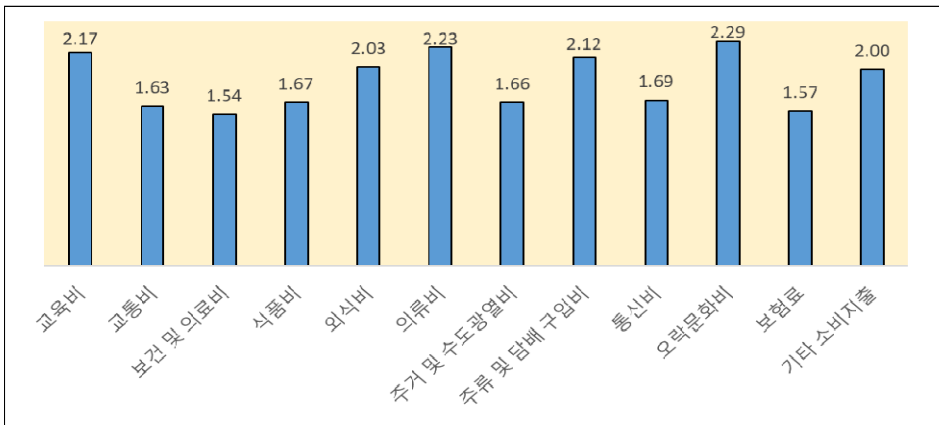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식품비 물가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식품비는 고정비용에 가까운 보건 및 의료비, 보험료, 교통비, 주거 및 수도광열비 다음으로 소비 절약이 어려운 분야로 꼽힌 반면, 외식비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로 꼽힘.

〈그림 3-13〉 지출항목별 소비 절약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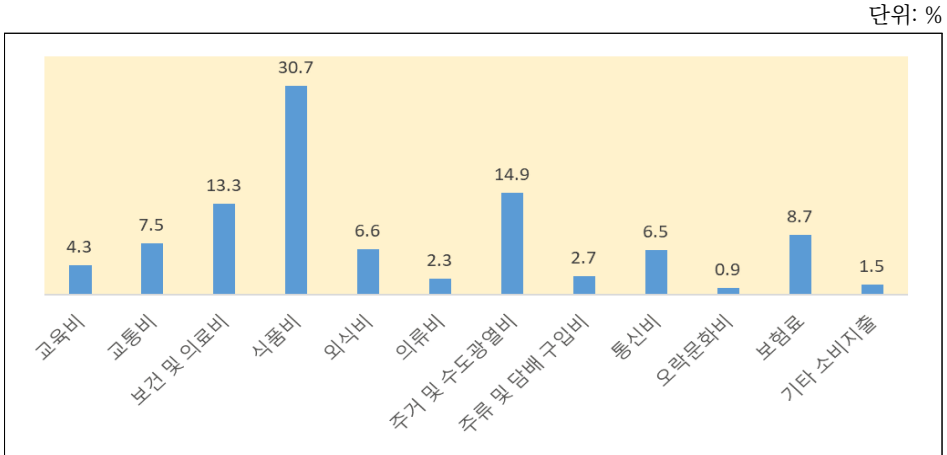
단위: 3점 척도



주: 3점 척도에서 1은 줄이는 것이 불가, 2는 줄이는 것이 조금 가능, 3은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12개 지출항목 가장 줄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를 설문한 결과, 식품비를 가장 줄이기 어렵다고 응답함(30.7%).

〈그림 3-14〉 지출 분야 중 가장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2개 분야



주: 3점 척도에서 1은 줄이는 것이 불가, 2는 줄이는 것이 조금 가능, 3은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구체적으로 올해 농식품 물가 체감 변화를 설문한 결과, '6% 이상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3~6% 증가했다'고 답한 취약계층의 비율도 34.4%로 높게 나타남. '3% 이내로 증가했다'도 17.6%의 비율을 보임. 반면에 '하락했다', '비슷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에 불과함.

〈표 3-28〉 올해 물가 체감 변화(농축수산물)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하락했다	비슷했다	3% 이내로 증가	3~6% 증가	6% 이상 증가
전체		500	0.8	2.6	17.6	34.4	44.6
거주지	서울	170	0.0	2.4	16.5	31.8	49.4
	인천	165	0.0	2.4	27.9	48.5	21.2
	경기	165	2.4	3.0	8.5	23.0	63.0
성별	남성	137	0.7	2.9	19.0	38.7	38.7
	여성	363	0.8	2.5	17.1	32.8	46.8
연령대	55세 미만	244	0.8	3.7	18.9	32.8	43.9
	55세 이상	256	0.8	1.6	16.4	35.9	45.3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1.2	2.5	18.9	34.8	42.6
	2인 이상	256	0.4	2.7	16.4	34.0	46.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1	2.9	11.0	33.0	52.0
	100만~150만 원 미만	133	0.8	1.5	21.8	37.6	38.3
	150만~200만 원 미만	63	0.0	3.2	36.5	33.3	27.0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3.4	20.7	37.9	37.9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0.0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0.0	0.9	10.3	26.2	62.6
	고졸	366	0.8	3.0	20.5	37.2	38.5
	대졸 이상	27	3.7	3.7	7.4	29.6	55.6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2	1.2	14.5	31.0	52.2
	의료급여	186	0.0	1.6	29.0	36.0	33.3
	주거급여	278	0.7	2.2	27.7	38.8	30.6
	교육급여	47	0.0	4.3	12.8	29.8	53.2
	긴급복지지원	11	0.0	0.0	0.0	81.8	18.2
	정부양곡할인지원	98	0.0	3.1	27.6	40.8	28.6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16.7	0.0	33.3	50.0
	우유 무상급식	23	0.0	4.3	8.7	39.1	47.8
	영양플러스	1	0.0	0.0	0.0	10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0.0	10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0.0	33.3	33.3	3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0.0	6.3	56.3	37.5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0.0	0.0	100.0	0.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0.0	0.0	75.0	2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6.5	3.2	33.9	56.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은 가공식품 물가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물가와 유사한 결과였으나, '6% 이상 증가했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46.8%로 농축산물보다 더 많았음.

〈표 3-29〉 올해 물가 체감 변화(가공식품)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하락했다	비슷했다	3% 이내로 증가했다	3~6% 증가했다	6% 이상 증가했다	모르겠다
전체		500	0.8	1.6	16.0	34.0	46.8	0.8
거주지	서울	170	0.0	2.9	16.5	30.0	48.8	1.8
	인천	165	0.0	0.0	24.2	46.1	29.7	0.0
	경기	165	2.4	1.8	7.3	26.1	61.8	0.6
성별	남성	137	0.7	1.5	15.3	39.4	41.6	1.5
	여성	363	0.8	1.7	16.3	32.0	48.8	0.6
연령대	55세 미만	244	0.4	2.5	16.8	35.7	44.7	0.0
	55세 이상	256	1.2	0.8	15.2	32.4	48.8	1.6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0.8	2.0	16.8	38.5	41.4	0.4
	2인 이상	256	0.8	1.2	15.2	29.7	52.0	1.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5	2.2	11.7	33.7	50.5	0.4
	100만~150만 원 미만	133	0.0	1.5	15.8	37.6	43.6	1.5
	150만~200만 원 미만	63	0.0	0.0	25.4	38.1	34.9	1.6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0.0	37.9	10.3	51.7	0.0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0.0	50.0	5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0.0	0.0	11.2	29.9	57.9	0.9
	고졸	366	1.1	1.6	17.8	36.1	42.6	0.8
	대졸 이상	27	0.0	7.4	11.1	22.2	59.3	0.0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6	0.8	12.5	30.6	54.1	0.4
	의료급여	186	0.5	1.1	21.5	37.6	38.7	0.5
	주거급여	278	0.4	1.4	21.2	42.4	33.1	1.4
	교육급여	47	0.0	0.0	12.8	23.4	63.8	0.0
	긴급복지지원	11	0.0	0.0	18.2	45.5	36.4	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0.0	1.0	17.3	42.9	38.8	0.0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0.0	16.7	33.3	50.0	0.0
	우유 무상급식	23	0.0	0.0	8.7	26.1	65.2	0.0
	영양플러스	1	0.0	0.0	0.0	0.0	10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0.0	0.0	10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0.0	33.3	33.3	33.3	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0.0	6.3	43.8	50.0	0.0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0.0	25.0	50.0	25.0	0.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0.0	50.0	50.0	0.0	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4.8	14.5	30.6	50.0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외식 물가에 대한 취약계층의 평가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비슷했다(6.4%)’, ‘하락했다(1.0%)’ 및 ‘모르겠다(2.0%)’를 제외한 90.6%의 취약계층 응답자가 증가했다고 평가함.

〈표 3-30〉 올해 물가 체감 변화(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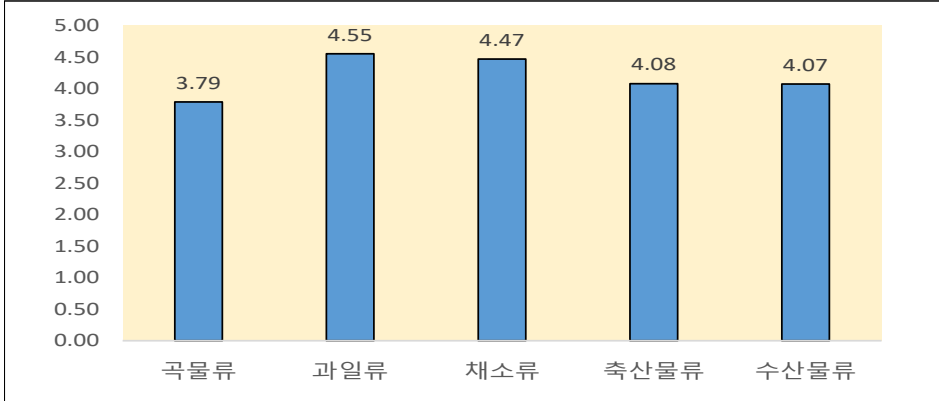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하락했다	비슷했다	3% 이내로 증가했다	3~6% 증가했다	6% 이상 증가했다	모르겠다	
전체	500	1.0	6.4	14.4	33.6	42.6	2.0	
거주지	서울	170	0.0	7.1	15.9	31.8	44.1	1.2
	인천	165	0.0	7.9	20.6	44.2	24.2	3.0
	경기	165	3.0	4.2	6.7	24.8	59.4	1.8
성별	남성	137	0.7	4.4	10.9	38.7	43.1	2.2
	여성	363	1.1	7.2	15.7	31.7	42.4	1.9
연령대	55세 미만	244	0.8	9.0	13.9	35.2	40.2	0.8
	55세 이상	256	1.2	3.9	14.8	32.0	44.9	3.1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0.8	6.1	15.2	32.8	43.0	2.0
	2인 이상	256	1.2	6.6	13.7	34.4	42.2	2.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1.8	4.0	9.2	27.1	56.4	1.5
	100만~150만 원 미만	133	0.0	9.8	17.3	45.1	26.3	1.5
	150만~200만 원 미만	63	0.0	6.3	28.6	30.2	28.6	6.3
	200만~250만 원 미만	29	0.0	13.8	17.2	51.7	17.2	0.0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0.0	50.0	0.0	5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0.0	2.8	7.5	29.9	56.1	3.7
	고졸	366	1.1	7.7	16.7	35.0	38.0	1.6
	대졸 이상	27	3.7	3.7	11.1	29.6	51.9	0.0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1.6	3.1	11.4	26.7	54.9	2.4
	의료급여	186	0.5	10.2	13.4	30.6	41.4	3.8
	주거급여	278	0.7	9.0	18.0	38.5	31.3	2.5
	교육급여	47	0.0	4.3	14.9	34.0	46.8	0.0
	긴급복지지원	11	0.0	0.0	18.2	27.3	54.5	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0.0	7.1	17.3	30.6	42.9	2.0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0.0	16.7	0.0	83.3	0.0
	우유 무상급식	23	0.0	0.0	17.4	39.1	43.5	0.0
	영양플러스	1	0.0	0.0	0.0	0.0	10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0.0	100.0	0.0	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0.0	33.3	0.0	0.0	66.7	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0.0	0.0	18.8	31.3	50.0	0.0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0.0	25.0	0.0	75.0	0.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0.0	25.0	25.0	50.0	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0.0	6.5	9.7	41.9	41.9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축수산물 품목별 원물 물가 체감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의견이 나타남. 그중 과일류가 4.55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채소류(4.47점), 축산물류(4.08점), 수산물류(4.07점), 곡물류(3.79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올해 농축수산물 원물 물가 체감 변화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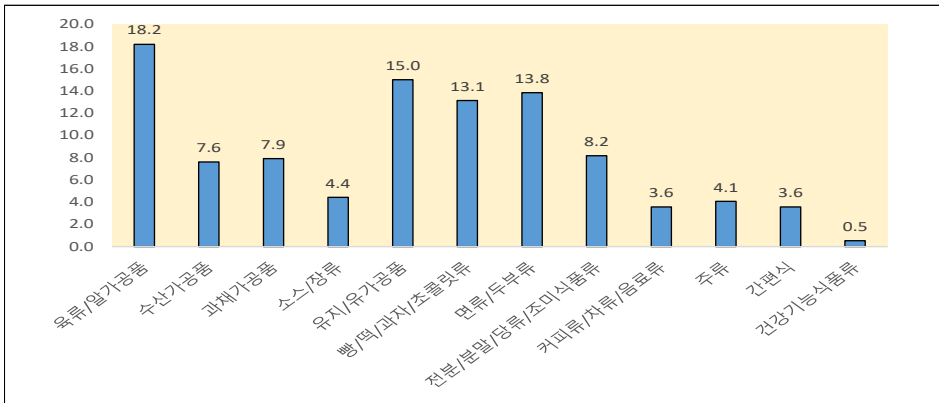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육류/알가공품(18.2%)’, ‘유지/유가공품(15.0%)’, ‘면류/두부류(13.8%)’ 등의 순으로 가장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응답함. 반면에 ‘건강기능식품류(0.5%)’, ‘간편식(3.6%)’과 ‘커피류/차류/음료류(3.6%)’, ‘소스/장류(4.4%)’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다고 평가함.

〈그림 3-16〉 가장 물가가 크게 오른 가공식품(중복 응답)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비 지출 변화에 대해 직접 설문한 결과, ‘매우 증가했

다'는 4.6%로 많지 않았으나, '증가했다(42.6%)'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표 3-31〉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비 지출 변화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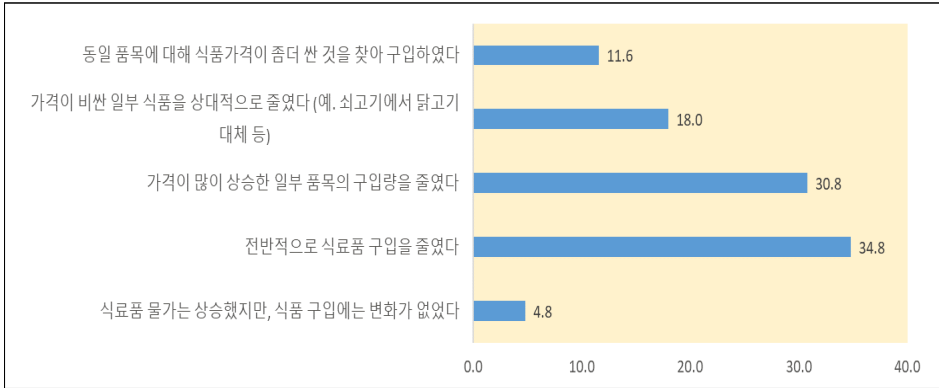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매우 증가했다	증가했다	비슷하다	감소했다	매우 감소했다	5점 평균
전체		500	4.6	42.6	39.8	12.8	0.2	2.61
거주지	서울	170	1.2	47.1	34.7	17.1	0.0	2.68
	인천	165	7.9	42.4	44.2	5.5	0.0	2.47
	경기	165	4.8	38.2	40.6	15.8	0.6	2.69
성별	남성	137	3.6	42.3	41.6	12.4	0.0	2.63
	여성	363	5.0	42.7	39.1	12.9	0.3	2.61
연령대	55세 미만	244	5.3	44.3	41.0	9.4	0.0	2.55
	55세 이상	256	3.9	41.0	38.7	16.0	0.4	2.68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4.5	34.4	48.4	12.3	0.4	2.70
	2인 이상	256	4.7	50.4	31.6	13.3	0.0	2.5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3.7	38.5	44.0	13.6	0.4	2.68
	100만~150만 원 미만	133	4.5	44.4	44.4	6.8	0.0	2.53
	150만~200만 원 미만	63	4.8	49.2	25.4	20.6	0.0	2.62
	200만~250만 원 미만	29	13.8	58.6	10.3	17.2	0.0	2.31
	250만~300만 원 미만	2	0.0	50.0	50.0	0.0	0.0	2.5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4.7	41.1	36.4	16.8	0.9	2.68
	고졸	366	4.6	43.2	41.0	11.2	0.0	2.59
	대졸 이상	27	3.7	40.7	37.0	18.5	0.0	2.70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3.5	37.3	43.5	15.3	0.4	2.72
	의료급여	186	3.2	37.6	48.9	10.2	0.0	2.66
	주거급여	278	5.4	38.1	48.6	7.9	0.0	2.59
	교육급여	47	12.8	34.0	44.7	8.5	0.0	2.49
	긴급복지지원	11	0.0	45.5	36.4	18.2	0.0	2.73
	정부양곡할인지원	98	3.1	44.9	43.9	8.2	0.0	2.57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0.0	83.3	0.0	16.7	0.0	2.33
	우유 무상급식	23	0.0	47.8	30.4	21.7	0.0	2.74
	영양플러스	1	0.0	0.0	0.0	100.0	0.0	4.00
	건강과일바구니	1	0.0	100.0	0.0	0.0	0.0	2.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33.3	0.0	66.7	0.0	0.0	2.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6.3	37.5	18.8	37.5	0.0	2.88
	아동 도시락 배달	4	0.0	25.0	50.0	25.0	0.0	3.00
	기타 식료품 지원	4	0.0	50.0	50.0	0.0	0.0	2.5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1.6	46.8	37.1	14.5	0.0	2.6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은 식품 물가 상승에 대해 식료품 구입을 줄이거나(34.8%), 가격이 많이 상승한 품목의 구입량을 줄이는(30.8%)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7〉 물가 상승 대응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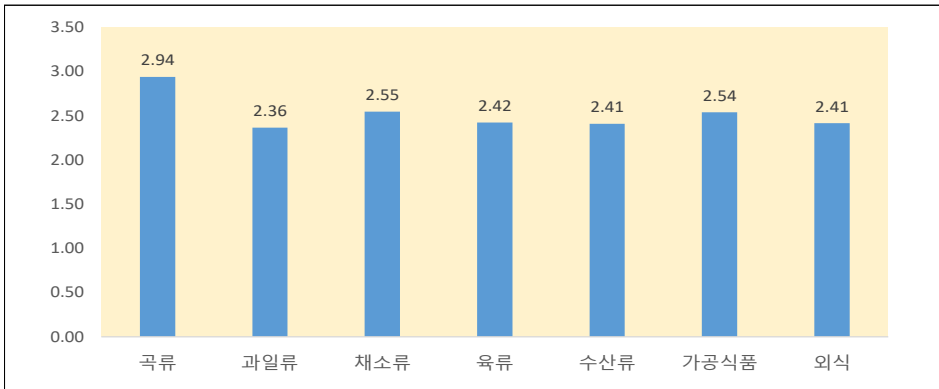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별 구입 변화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곡류(2.94 점), 채소류(2.55점), 가공식품(2.54점), 육류(2.42점), 수산류(2.41점), 외식(2.41점), 과일류(2.36점) 순으로 모든 품목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3-1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품별 구입 변화

단위: 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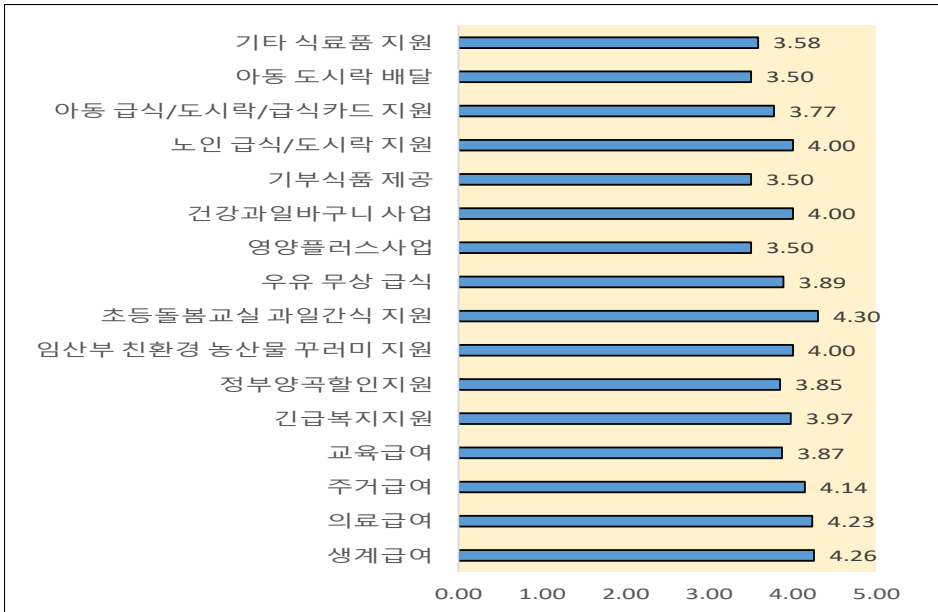
5. 기존 식품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 취약계층이 지원받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 중 수혜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식품지원사업별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모든 사업의 만족도가 5점 척도 기준 3.5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4.30점), 생계급여(4.26점), 의료급여(4.23점), 주거급여(4.14점), 노인급식/도시락지원 및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4.00점)의 경우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
- 영양플러스사업(3.50점), 기부식품 제공(3.50점), 아동 도시락 배달(3.50점)의 식품지원사업 내 만족도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3-19〉 식품지원사업이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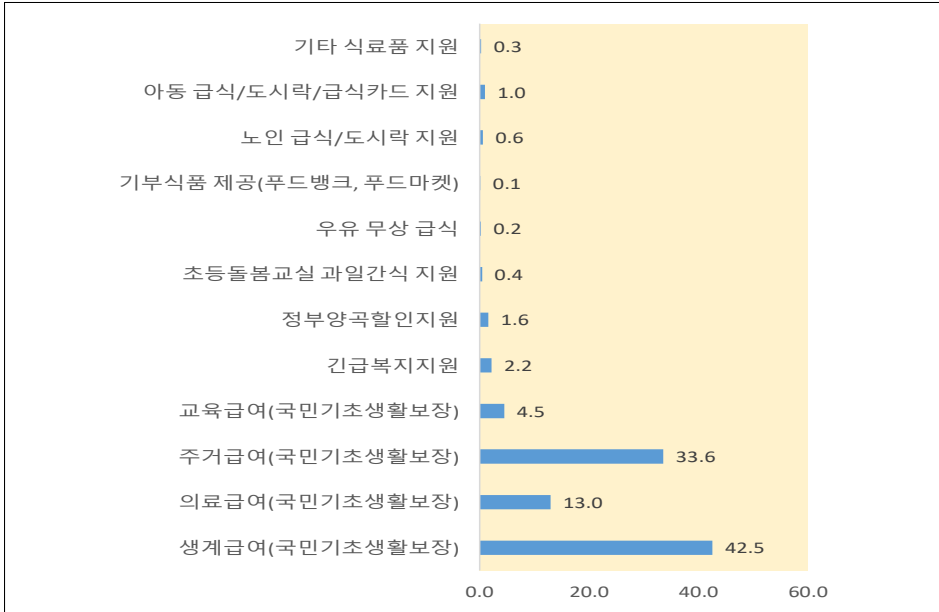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수혜 받는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현금 형태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42.5%), 주거급여(33.6%), 의료급여(13.0%), 교육급여(4.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3-20〉 수혜 받는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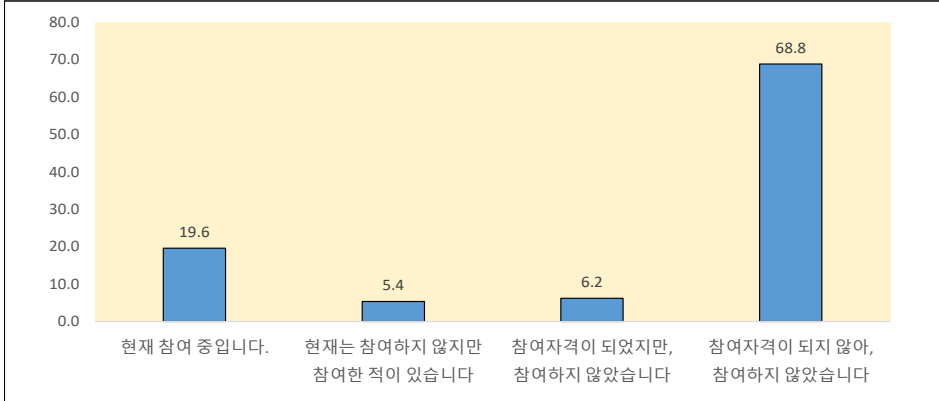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19.6%로 나타났으며, 참여 자격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는 68.8%, 참여자격이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는 6.2%로 분석됨.

〈그림 3-2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참여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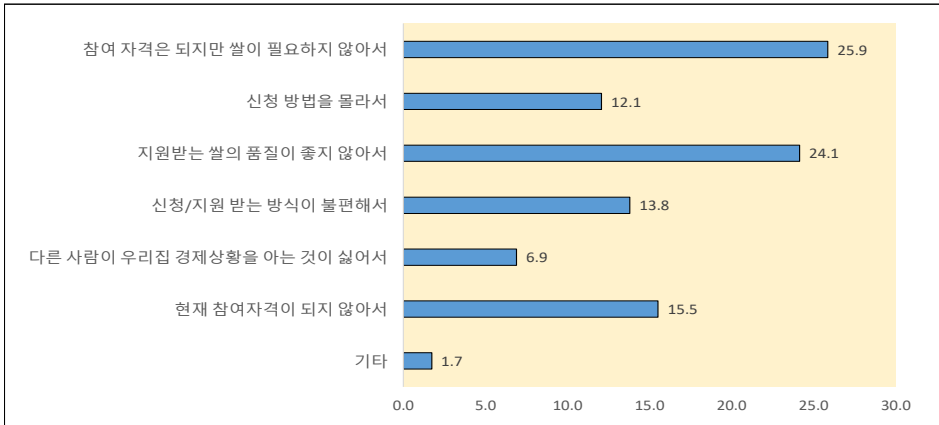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서(25.9%), 품질이 좋지 않아서(24.1%)가 다수 의견임.

〈그림 3-2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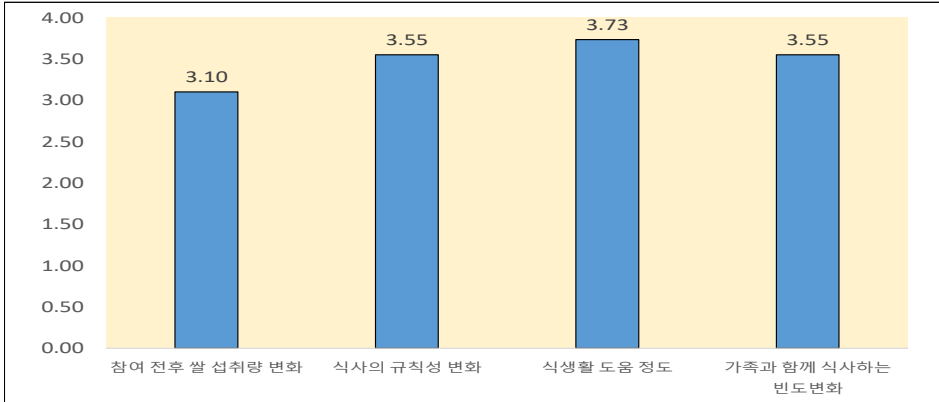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수혜자들의 식생활 및 쌀 소비량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임. 특히 식생활 도움 정도(3.73점), 식사의 규칙성 변화 및 가

족과 함께하는 식사 빈도 변화(3.55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자평함.

〈그림 3-23〉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이후 변화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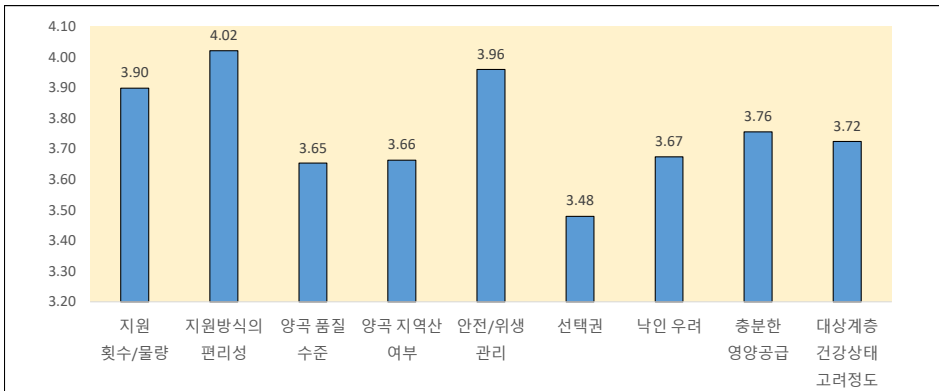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절성 설문 결과, 배송 형태의 지원방식 편리성을 가장 선호함(4.02점). 다음으로 쌀의 안전/위생 관리(3.96점), 지원 횟수/물량(3.90점), 충분한 영양공급(3.76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그림 3-24〉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시행 적절성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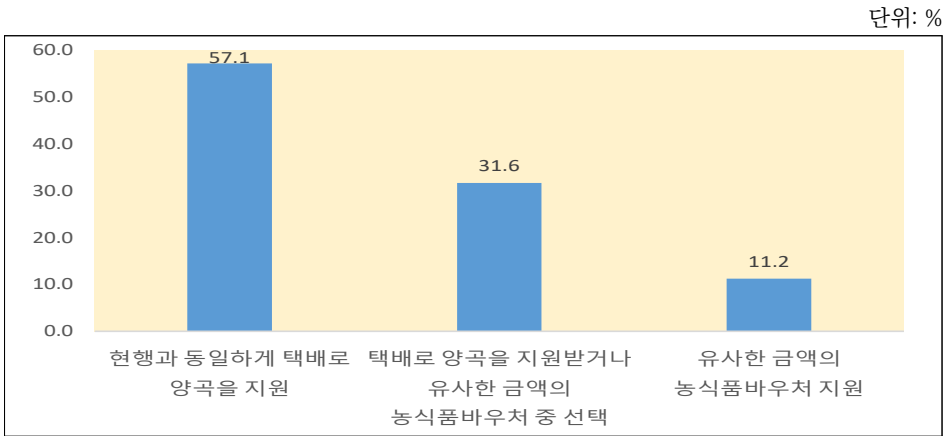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개선 방안을 물어본 결과, 현행과 동일하게 택배로 양곡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수혜자 비율이 57.1%로 높게 나타났다. 농식품바우처와 택배 중 선택하는 경우도 31.6%의 응답자가 선호하였고, 11.2%의 응답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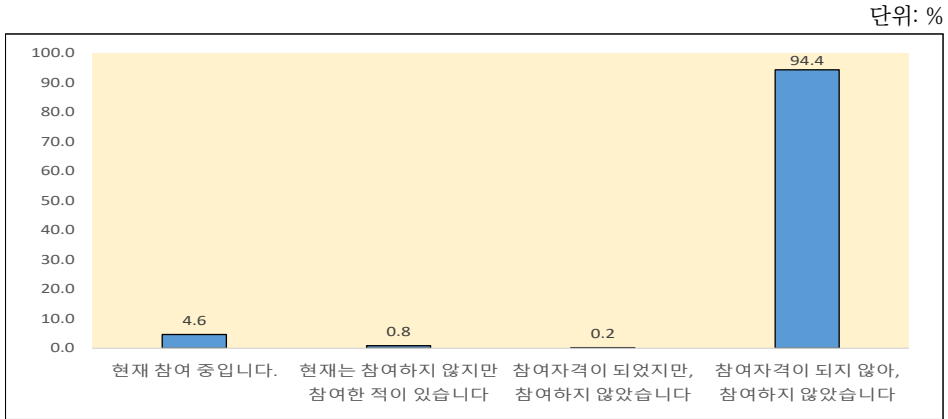
〈그림 3-25〉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개선 방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4.6%에 불과하였으며, 참여자격이 되지 않은 응답자가 94.4%로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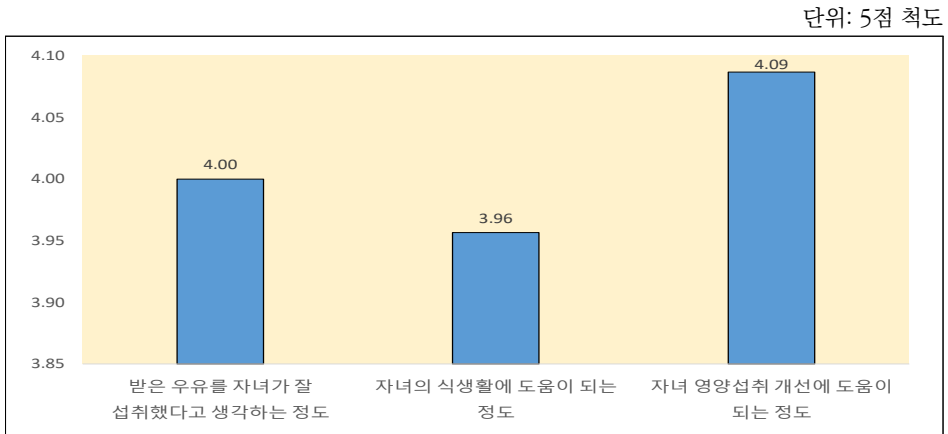
〈그림 3-26〉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참여 현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자녀 영양 섭취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4.09점), 받은 우유를 자녀가 잘 먹었으며(4.00점), 자녀의 식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편(3.96점)이라고 응답함.

〈그림 3-27〉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이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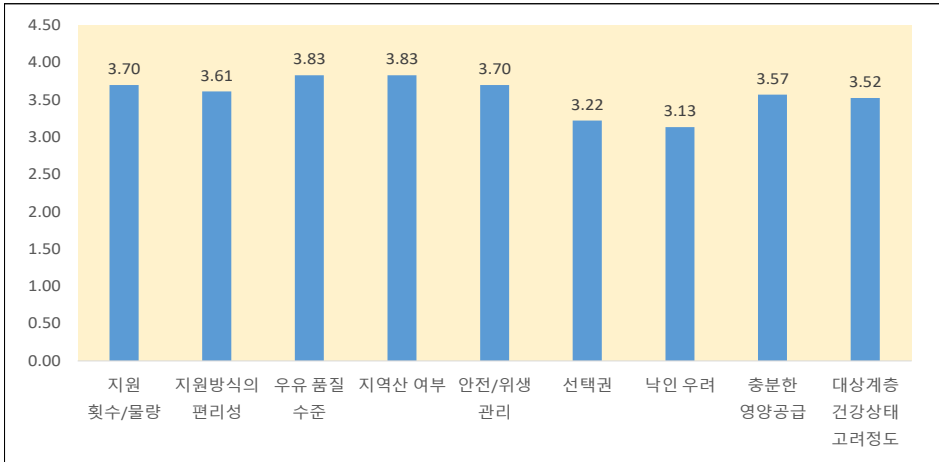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절성 설문 결과, 취약계층은 우유 품질, 지역산 여부, 안전 및 위생 관리와 지원 횟수/물량, 지원 방식의 편리성, 충분한 영양 공급, 대상 계층 건강상태 고려 정도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선택권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낙인 우려가 존재함.

〈그림 3-28〉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절성 설문 결과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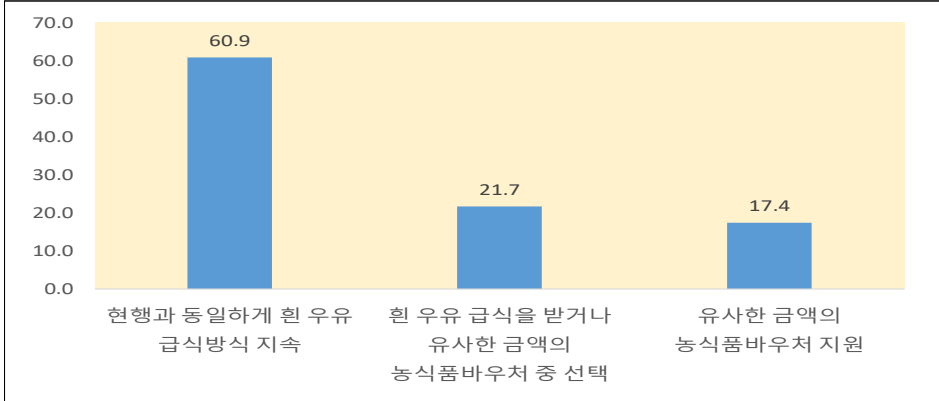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제도에 대한 설명 이후에도 동일하게 흰 우유 중심으로 지급받고 싶다는 응답자는 60.9%로 높게 나타남. 동시에, 농식품바우처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하거나(21.7%), 유사한 금액의 농식품바우처 지원(17.4%)도 낮지 않은 비율을 보임.

〈그림 3-29〉 우유급식 무상지원사업 개선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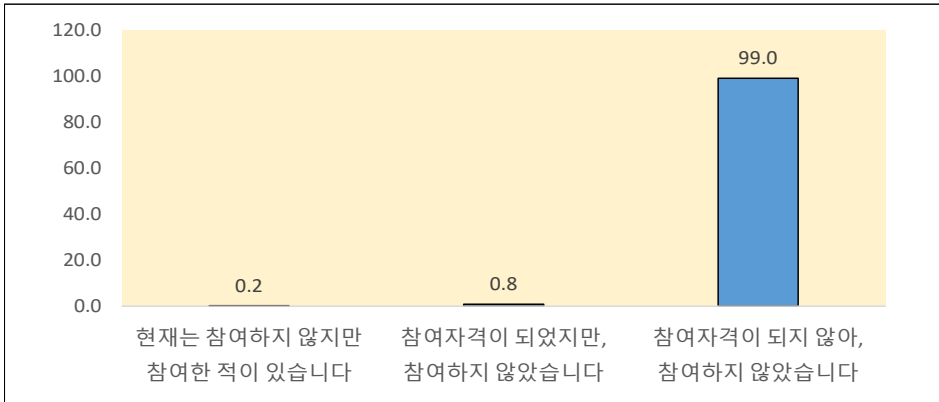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임신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단계로 설문 대상자 중 충분한 참여 수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그림 3-30〉 임신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 참여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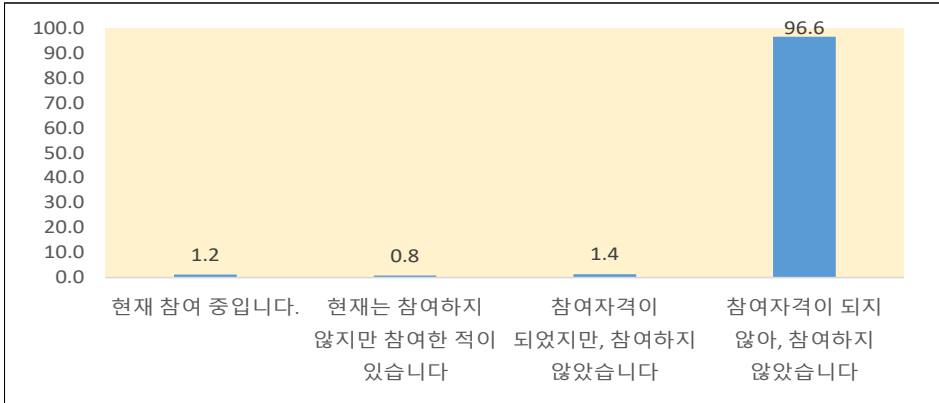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설문 대상자 중 1.2%만이 참여 중이며,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도 0.8%로 낮게 나타남.

〈그림 3-31〉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참여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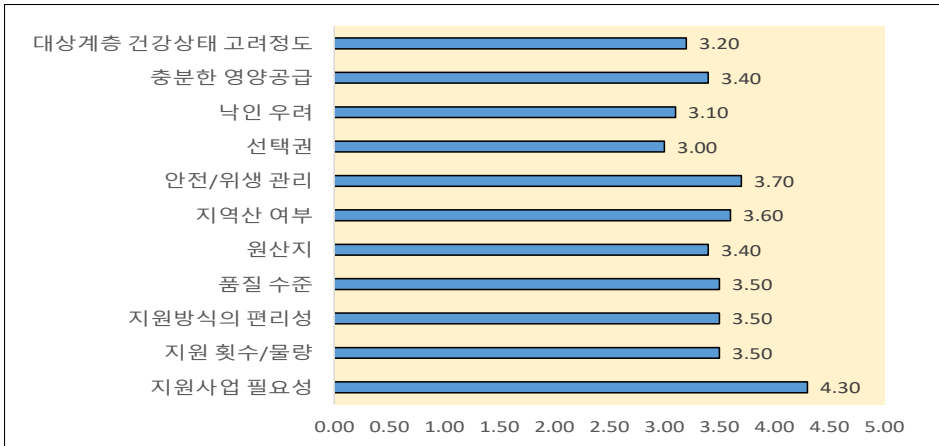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설문한 결과,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점수(4.30점)를 부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낙인 우려 및 선택권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3-3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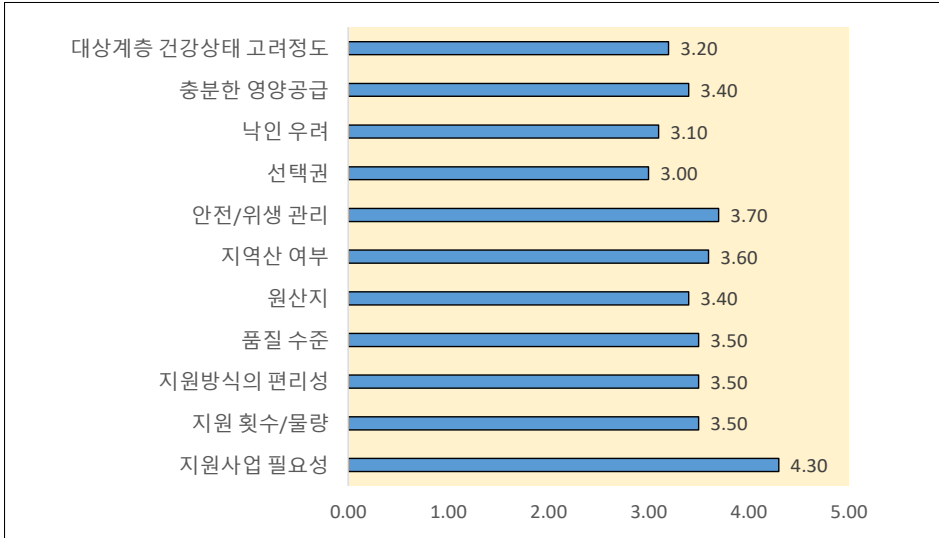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절성 설문 결과, 취약계층은 안전/위생 관리, 지원 횟수/물량, 지원 방식의 편리성, 품질 수준, 원산지, 충분한 영양 공급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그림 3-33〉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절성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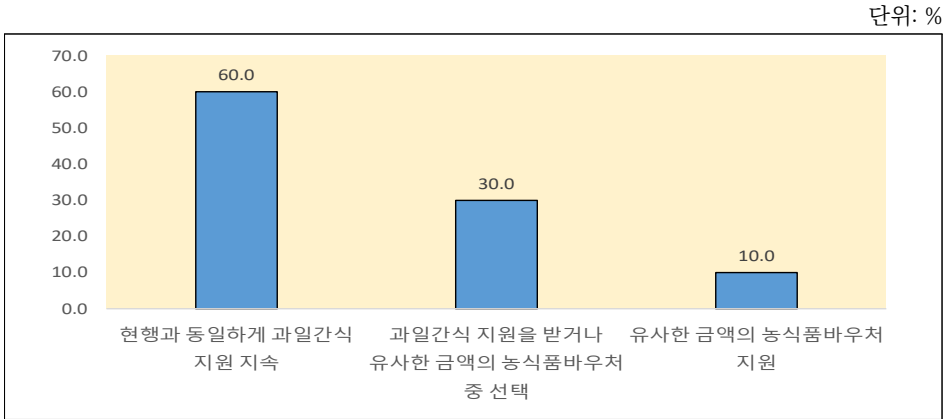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설문한 결과, 60%의 응답자가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 하는 것을 바랐고, 선택권 제공(30%), 농식품바우처로 대신 제공(10%)의 의견도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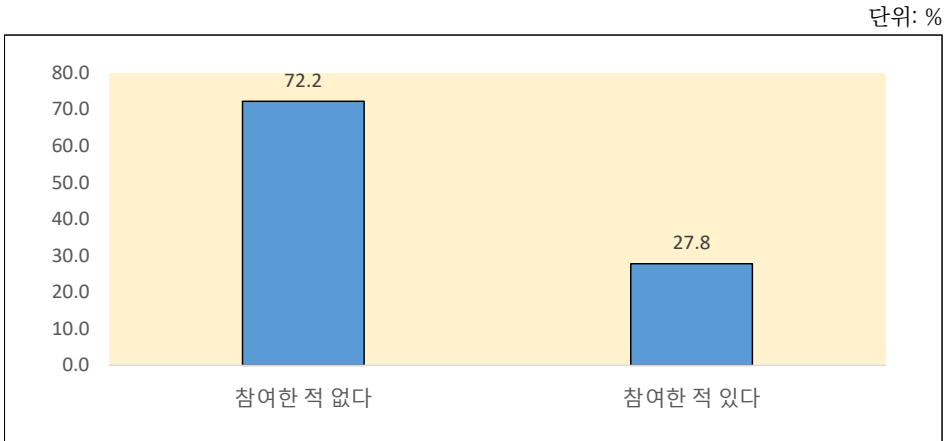
〈그림 3-3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개선 방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급식형태 지원서비스는 27.8%의 응답자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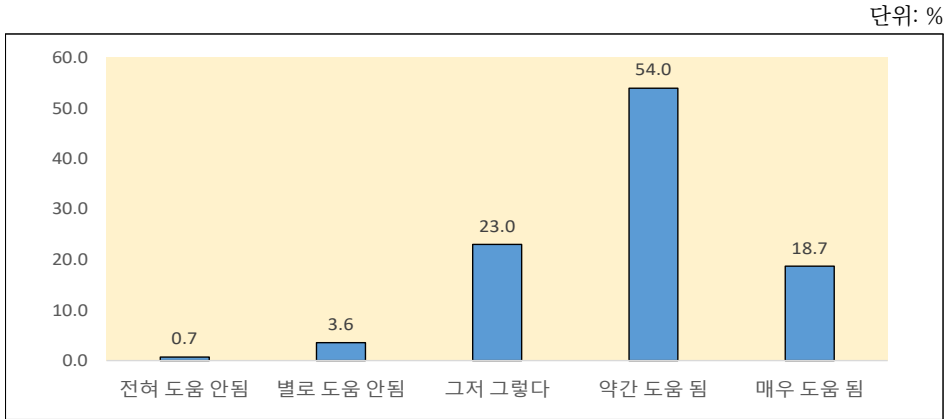
〈그림 3-35〉 급식형태 지원서비스 참여 현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급식형태 지원서비스 수혜자들의 도움 정도 설문 결과, ‘약간 도움 됨(54.0%)’, ‘그저 그렇다(23.0%)’, ‘매우 도움 됨(18.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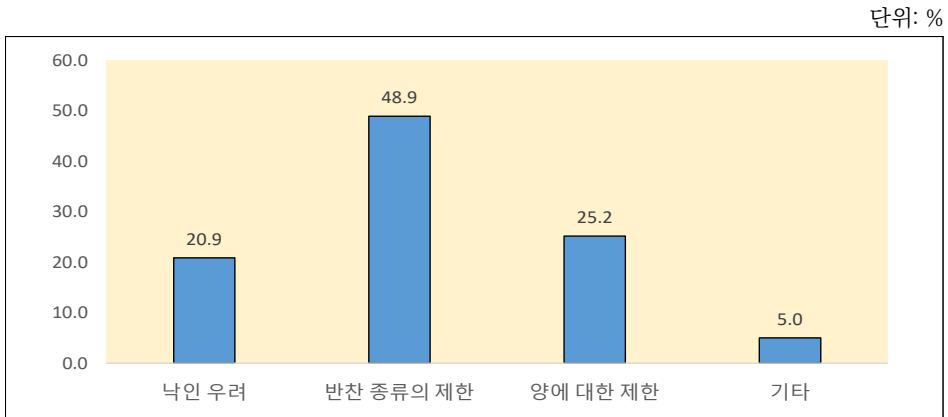
〈그림 3-36〉 급식형태 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급식형태 지원서비스 시행에 대해 불편한 점으로는 ‘반찬 종류의 제한(48.9%)’, ‘양에 대한 제한(25.2%)’, ‘낙인 우려(20.9%)’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3-37〉 급식형태 지원서비스 시행에 대해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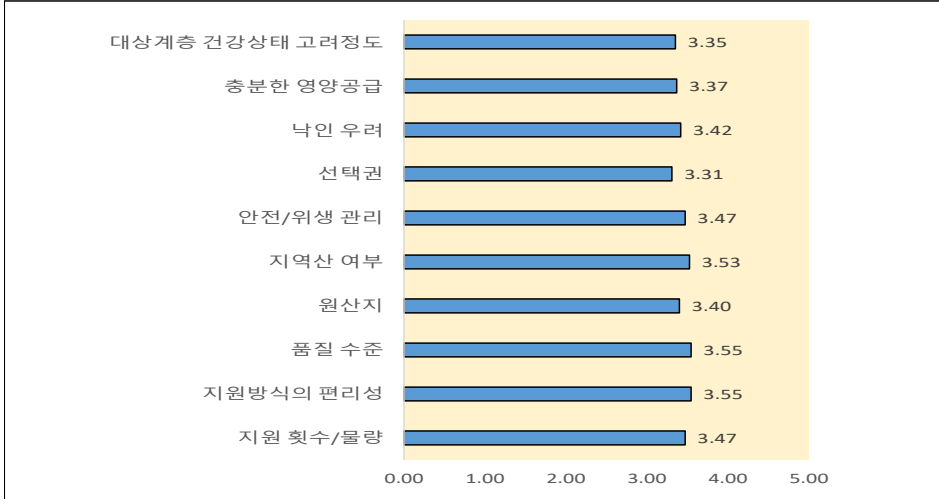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급식형태 지원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결과 타 사업 대비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취약계층은 급식형태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3.50점 내외의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그림 3-38〉 급식형태 지원사업 시행의 적절성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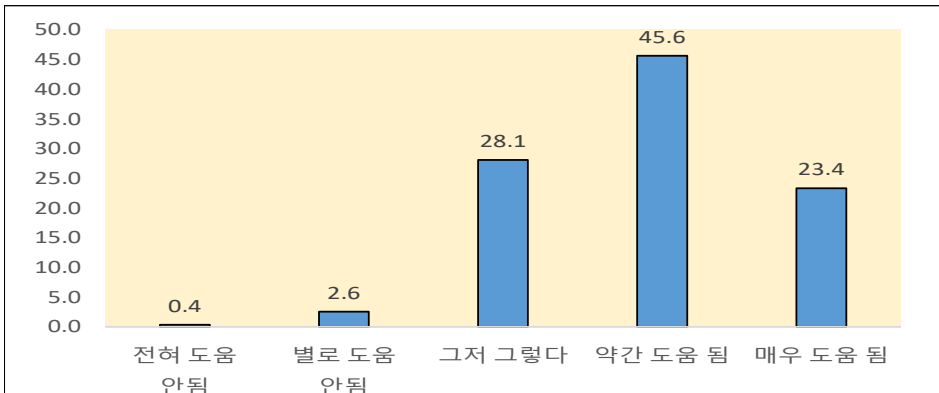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다음으로, 식품비를 포괄하여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생계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설문하였음. 취약계층에서는 식생활 보장에 있어서 생계급여에 대해 ‘약간 도움이 된다(45.6%)’ 및 ‘매우 도움이 된다(23.4%)’라고 응답함.

〈그림 3-39〉 생계급여가 식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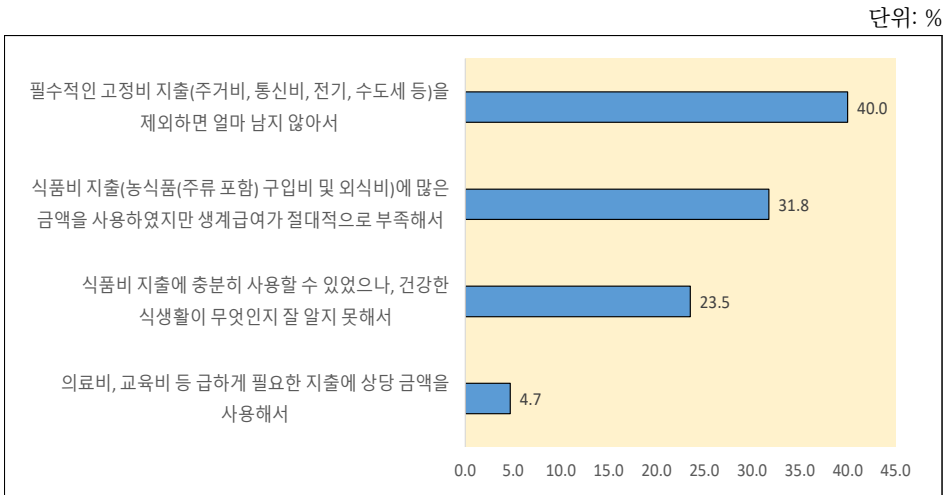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생계급여가 식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필수적인 고정비 지출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아서(40.0%)’, ‘식품비 지출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지만 생계급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31.8%)’, ‘식품비 지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으나, 건강한 식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23.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3-40〉 생계급여 지원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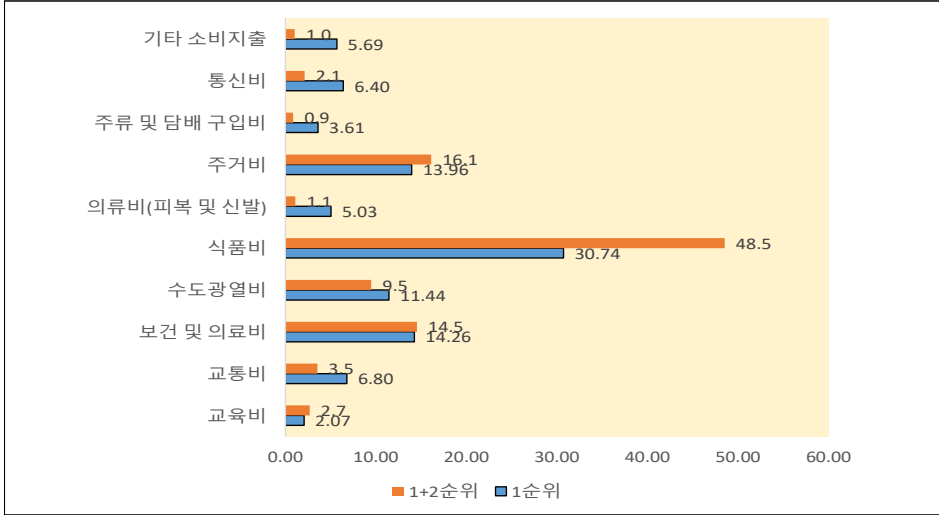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실제로 생계급여 사용 비중 1, 2순위를 설문한 결과, 취약계층은 생계급여 중 식품비에 30.74%를 사용하였으며, 2순위까지 설문 시 식품비에 48.5%를 지출하였음. 건강한 식생활 확보를 위해 생계급여와 보완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식품 섭취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식품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3-41〉 생계급여 사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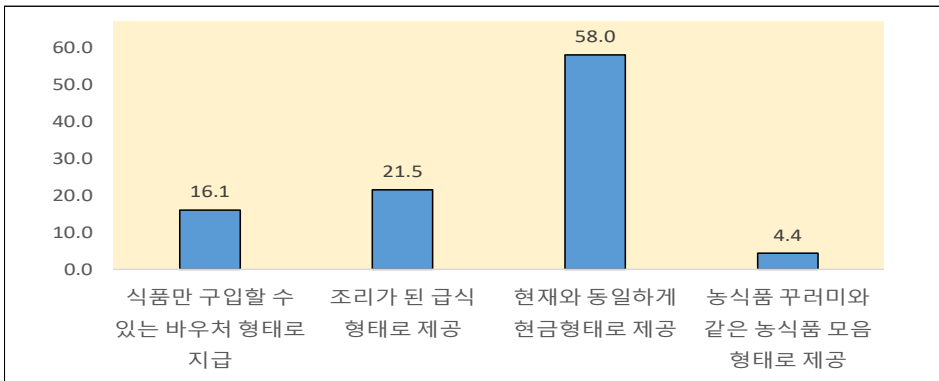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생계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현재와 동일한 방식을 58.0%의 응답자가 선호하였으며, 조리가 된 급식 형태로 제공을 원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1.5%, 식품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원하는 응답자의 의견은 전체의 16.1%를 차지함.

〈그림 3-42〉 적절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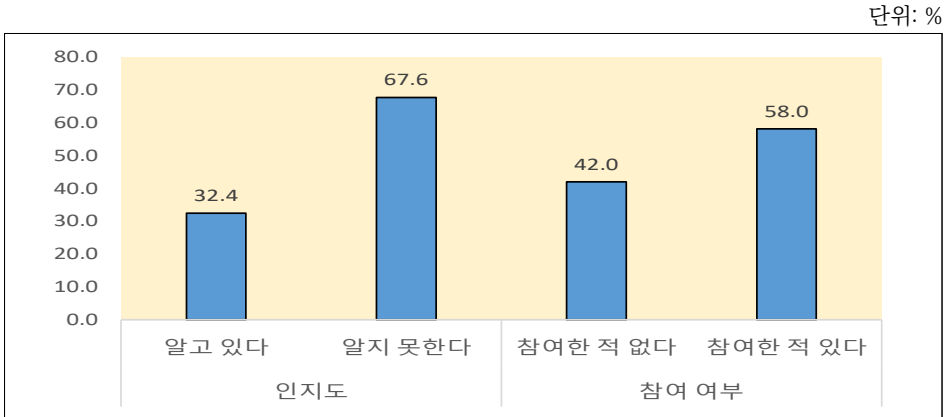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신선농축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발행한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 사업 인지도 및 참여 경험 조사 결과, 취약계층의 32.4%는 해당 사업을 잘 알고 있었으며, 58.0%는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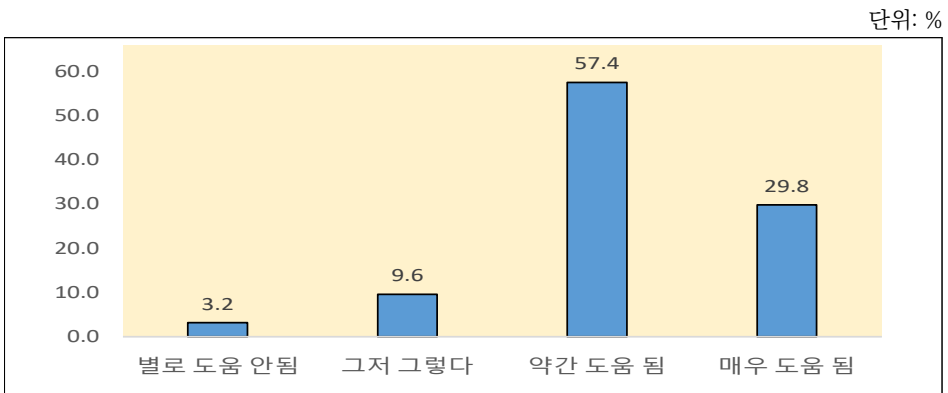
〈그림 3-43〉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 인지도 및 참여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이 식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2%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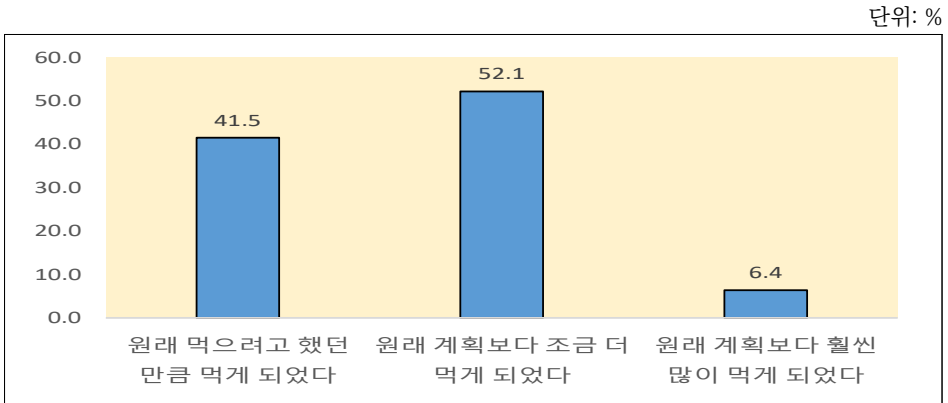
〈그림 3-44〉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의 식생활 도움 정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은 취약계층의 식품 섭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응답자의 52.1%는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먹게 되었다’라고 응답하였고, 6.4%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먹게 되었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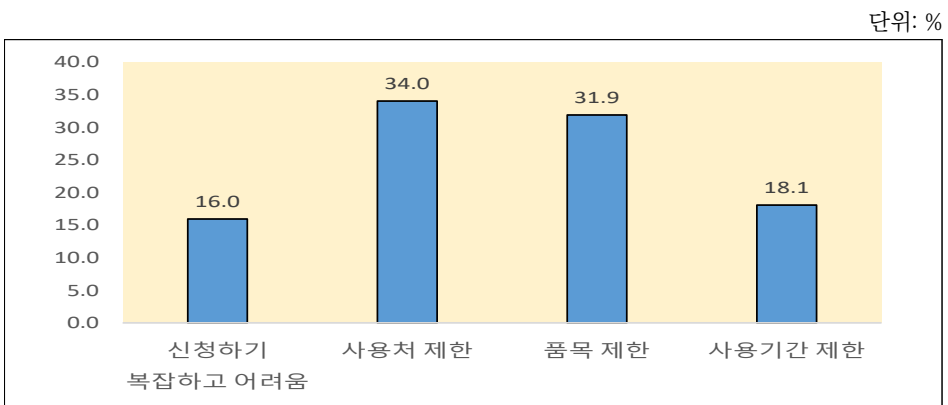
〈그림 3-45〉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으로 인한 농축산물 추가 구매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 이용의 불편한 점으로는 ‘사용처 제한(34.0%)’, ‘품목 제한(31.9%)’, ‘사용기간 제한(18.1%)’ 등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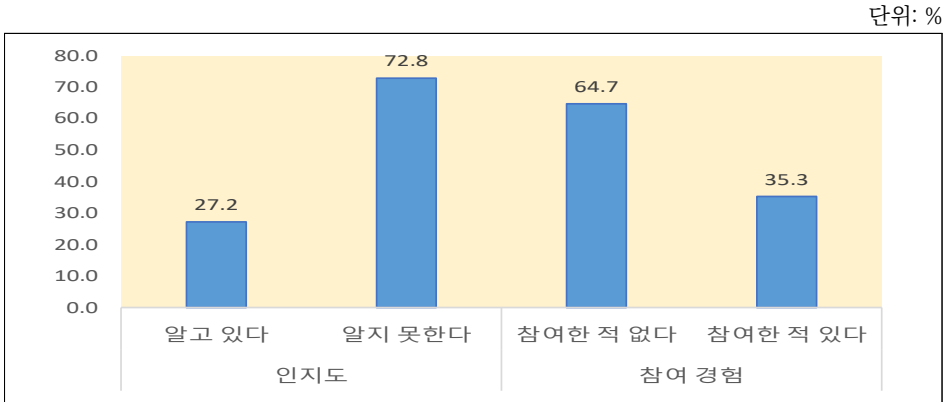
〈그림 3-46〉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쿠폰 이용의 불편한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인지도와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27.2%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고, 35.3%의 응답자가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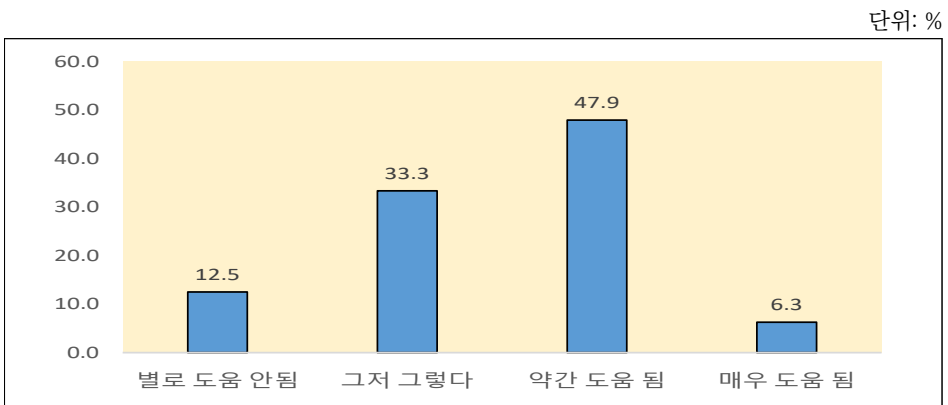
〈그림 3-47〉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 인지도 및 참여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의 식생활 도움 정도는 '약간 도움 됨(47.9%)'이 약 절반을 차지했으나, '그저 그렇다(33.3%)'의 의견도 존재함. 이는 외식 소비자 자체가 적은 취약계층의 특성상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그림 3-48〉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의 식생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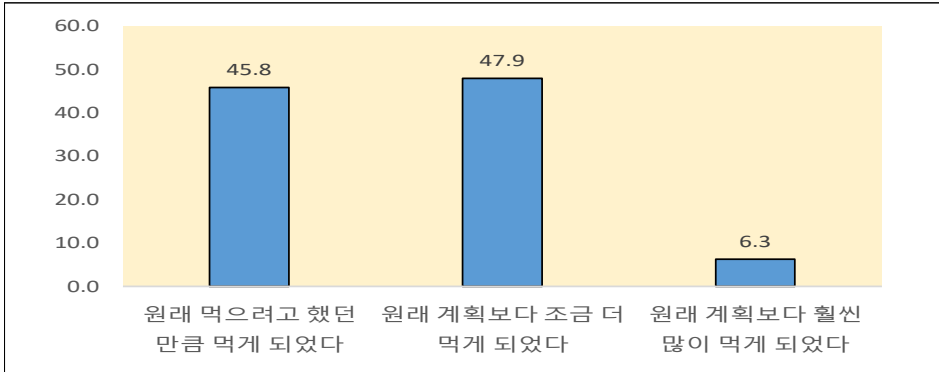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으로 인한 외식 증가 여부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9%는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먹게 되었다’라고 응답하였고, 6.3%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었다’라고 응답함.

〈그림 3-49〉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으로 인한 외식 증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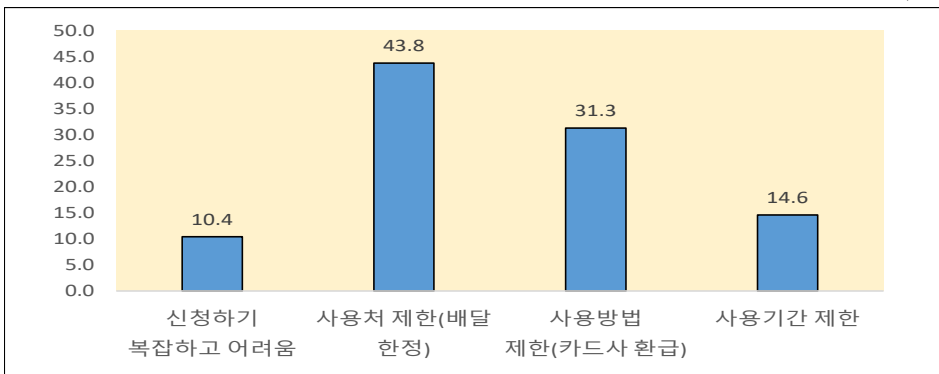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 이용의 불편한 점으로는 주로 ‘사용처 제한 (43.8%)’, ‘(카드사 환급 형태로) 사용방법 제한(31.3%)’, ‘사용기간 제한 (14.6%)’을 꼽았음.

〈그림 3-50〉 외식업 소비활성화 캠페인 이용의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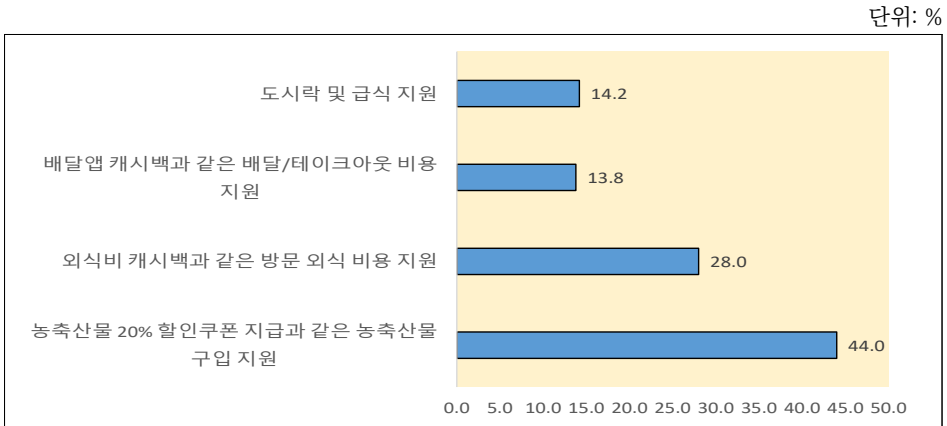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 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설문한 결과,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같은 농축산물 구입 지원사업(44.0%)', '방문 외식 비용 지원(28.0%)'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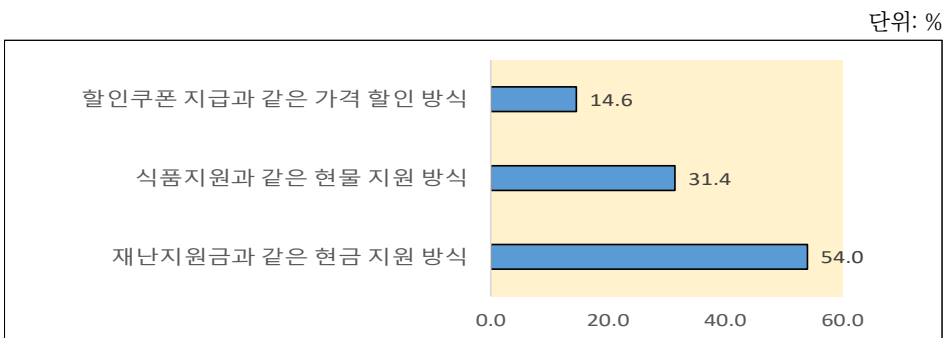
〈그림 3-5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 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 시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설문한 결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 방식(54.0%)', '식품 지원과 같은 현물 지원 방식(31.4%)'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5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발 시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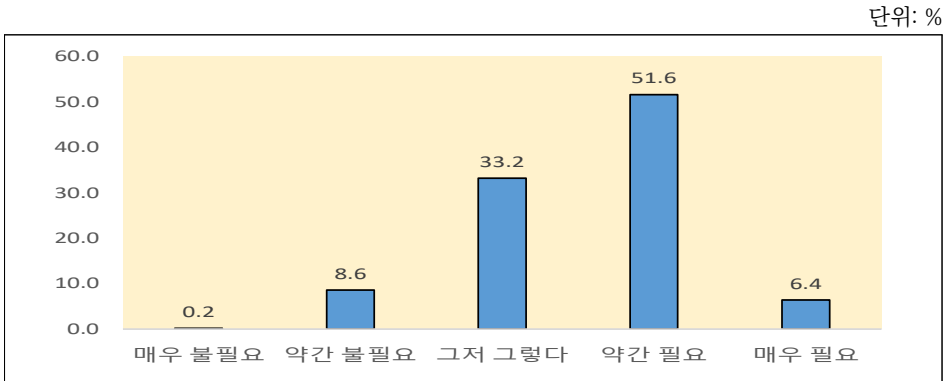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6. 신규 식품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8.0%인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8%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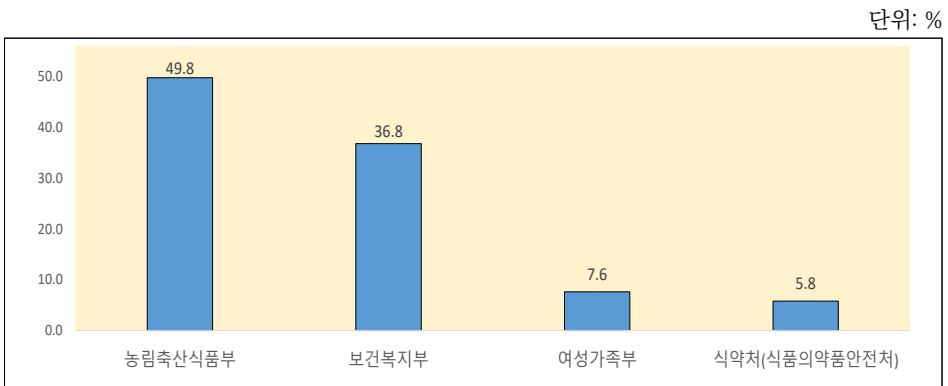
〈그림 3-53〉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가장 적절한 운영 부처로는 ‘농림축산식품부(49.8%)’, ‘보건복지부(36.8%)’ 순으로 지목됨.

〈그림 3-54〉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적합한 운영 부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생계급여의 식품비 지원항목에 대하여 별도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들도 기초 생계급여에서 식품비 지원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58.8%가 동의함.

〈표 3-32〉 생계급여의 식품비 지원항목 별도 분리 필요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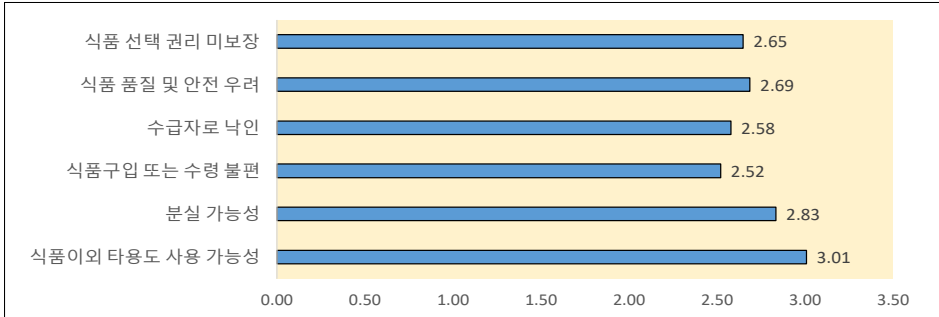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500	61.2	38.8
거주지	서울	170	60.0	40.0
	인천	165	53.3	46.7
	경기	165	70.3	29.7
성별	남성	137	59.1	40.9
	여성	363	62.0	38.0
연령대	55세 미만	244	60.7	39.3
	55세 이상	256	61.7	38.3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56.6	43.4
	2인 이상	256	65.6	34.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56.0	44.0
	100만~150만 원 미만	133	64.7	35.3
	150만~200만 원 미만	63	74.6	25.4
	200만~250만 원 미만	29	62.1	37.9
	250만~300만 원 미만	2	10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68.2	31.8
	고졸	366	57.7	42.3
	대졸 이상	27	81.5	18.5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58.8	41.2
	의료급여	186	66.1	33.9
	주거급여	278	56.1	43.9
	교육급여	47	68.1	31.9
	긴급복지지원	11	54.5	45.5
	정부양곡할인지원	98	64.3	35.7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83.3	16.7
	우유 무상급식	23	73.9	26.1
	영양플러스	1	0.0	100.0
	건강과일바구니	1	10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66.7	33.3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62.5	37.5
	아동 도시락 배달	4	25.0	75.0
	기타 식료품 지원	4	50.0	5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59.7	40.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한편, 취약계층은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직접 수령/배달 방식에 대해 ‘식품 이외 타 용도 사용 가능성(3.01점)’, ‘분실 가능성(2.83점)’, ‘식품 품질 및 안전 우려(2.69점)’ 등의 순으로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5〉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직접 수령/배달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정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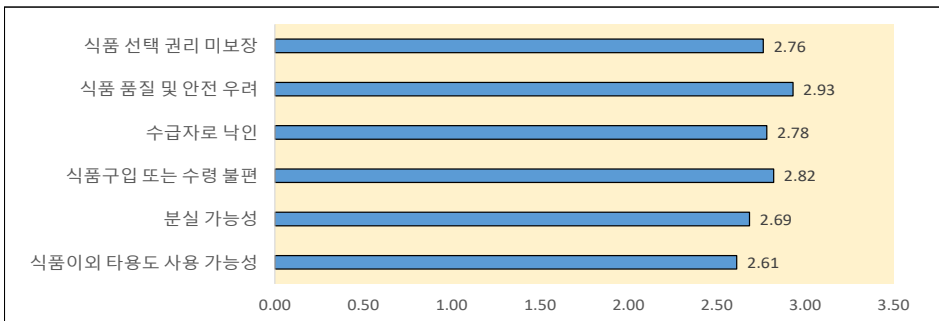


주: 해당 문항의 5점 척도는 ‘매우 우려됨(1점)’, ‘보통/그저 그렇다(3점)’, ‘매우 우려되지 않음(5점)’으로 구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전자카드 지급 및 정해진 판매점에서 정해진 식품을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식품 품질 및 안전 우려(2.93점)’, ‘식품구입 또는 수령 불편(2.82점)’, ‘수급자로 낙인(2.78점)’을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6〉 신규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전자카드 지급 및 정해진 판매점에서 정해진 식품을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정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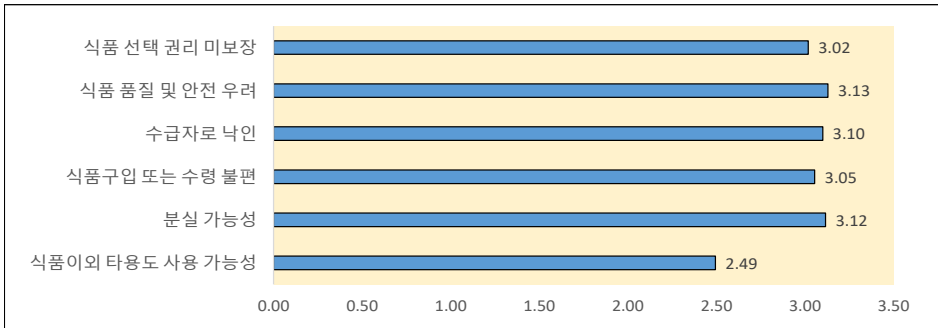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은 ‘식품 이외 타 용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제외하면 다른 형식 대비 우려되지 않는 사업 형태로 나타남.

〈그림 3-57〉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정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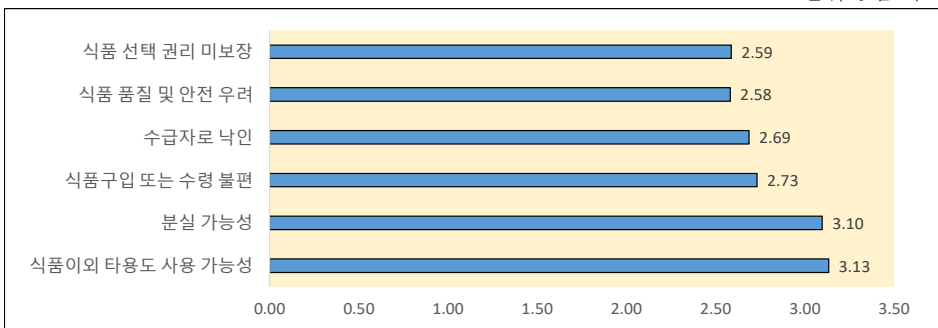


주: 해당 문항의 5점 척도는 ‘매우 우려됨(1점)’, ‘보통/그저 그렇다(3점)’, ‘매우 우려되지 않음(5점)’으로 구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에게 음식(급식)을 통해 식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식품 이외 타 용도 사용 가능성’ 및 ‘분실 가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었으나, ‘식품구입 또는 수령 불편’, ‘수급자로 낙인’, ‘식품 품질 및 안전 우려’, ‘식품 선택 권리 미보장’ 측면을 우려함.

〈그림 3-58〉 음식(급식)을 통한 지원 방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정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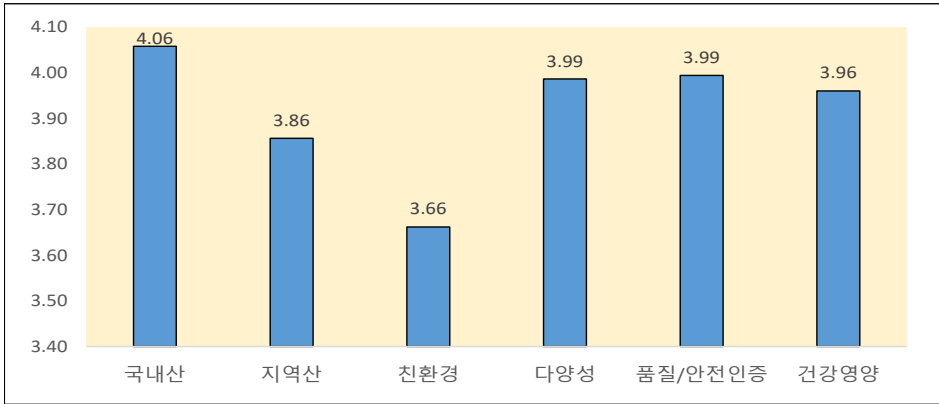


주: 해당 문항의 5점 척도는 ‘매우 우려됨(1점)’, ‘보통/그저 그렇다(3점)’, ‘매우 우려되지 않음(5점)’으로 구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을 지원받아 구매하는 경우 특성별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 ‘국내산 여부(4.06점)’, ‘다양성(3.99점)’, ‘품질/안전인증(3.99점)’, ‘건강영양(3.96점)’, ‘지역산(3.86점)’ 순으로 중요하게 보았으며, ‘친환경(3.66점)’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3-59〉 농식품을 지원받아 구매하는 경우 특성별 중요도

단위: 5점 척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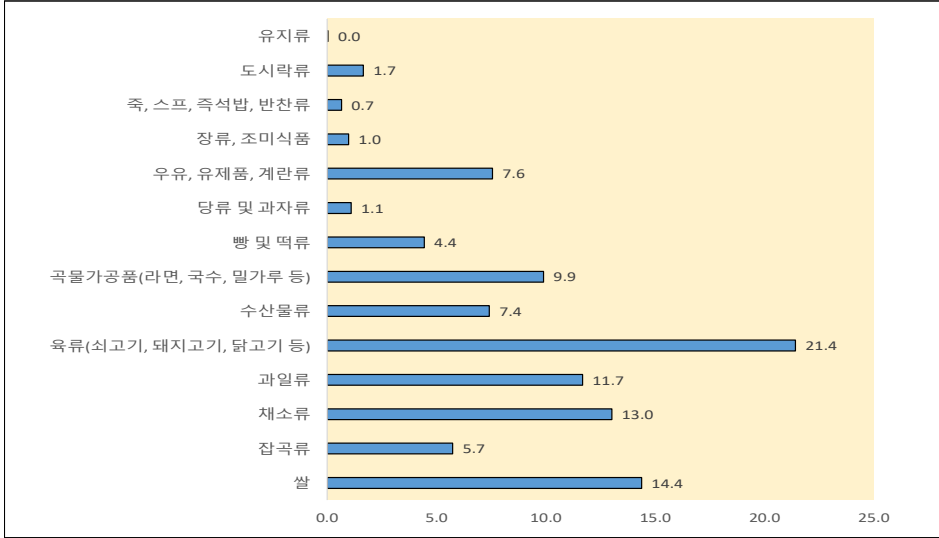
7.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함. 지정된 농산물만 구입 가능할 경우 구매를 원하는 농식품에 대해 중복을 허용하여 설문한 결과, 육류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쌀(14.4%), 채소류(13.0%), 과일류(11.7%), 곡물가공품(9.9%) 순으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남.

- 특히,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쌀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점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통해 쌀 품목 안에서 품질 등을 고려한 개인의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그림 3-60〉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지정 농산물만 구매 가능한 경우 원하는 품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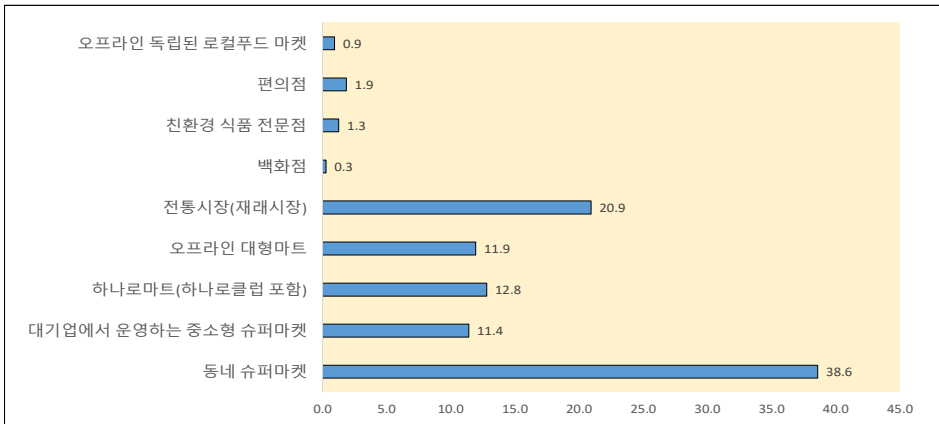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사용하지길 희망하는 오프라인 구매처 설문 결과 '동네 슈퍼마켓(38.6%)'과 '전통시장(20.9%)'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그림 3-6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사용하지길 희망하는 오프라인 구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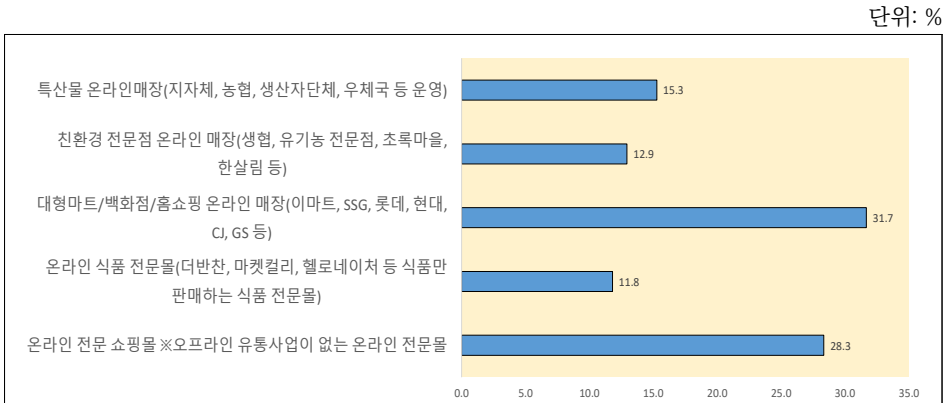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사용할길 희망하는 온라인 구매처로는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온라인 매장(31.7%)’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온라인 전문 쇼핑몰(28.3%)’을 두 번째로 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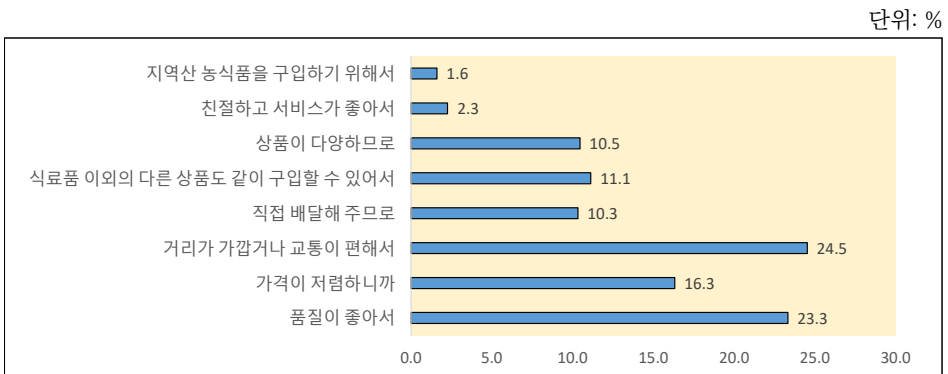
〈그림 3-6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사용할길 희망하는 온라인 구매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 희망하는 구매처를 선택한 이유는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24.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접근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다음으로 ‘품질이 좋아서(23.3%)’, ‘가격이 저렴해서(16.3%)’순임.

〈그림 3-63〉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 희망하는 구매처를 선택한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포함된 식생활 교육을 받기 원하는 시점으로 '카드 신청 시점(51.8%)'이 가장 많았으며,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한 달 이내(37.8%)'가 두 번째로 원하는 시점으로 분석됨.

〈표 3-33〉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교육을 받길 원하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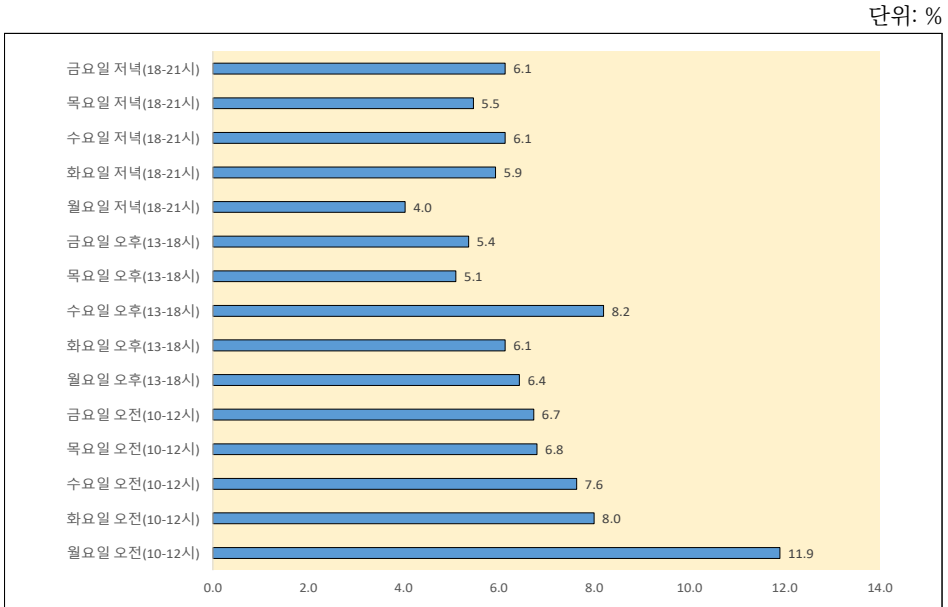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신청하는 시점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후 한 달 이내	그 이후
전체		500	51.8	37.8	10.4
거주지	서울	170	50.0	35.9	14.1
	인천	165	54.5	34.5	10.9
	경기	165	50.9	43.0	6.1
성별	남성	137	48.2	39.4	12.4
	여성	363	53.2	37.2	9.6
연령대	55세 미만	244	55.3	36.5	8.2
	55세 이상	256	48.4	39.1	12.5
가구원 수	1인가구	244	50.4	37.3	12.3
	2인 이상	256	53.1	38.3	8.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73	52.4	35.5	12.1
	100만~150만 원 미만	133	51.9	42.9	5.3
	150만~200만 원 미만	63	47.6	42.9	9.5
	200만~250만 원 미만	29	51.7	27.6	20.7
	250만~300만 원 미만	2	100.0	0.0	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7	54.2	37.4	8.4
	고졸	366	51.1	38.0	10.9
	대졸 이상	27	51.9	37.0	11.1
수혜 중인 지원사업 (중복)	생계급여	255	51.4	37.3	11.4
	의료급여	186	46.2	39.8	14.0
	주거급여	278	47.5	39.6	12.9
	교육급여	47	48.9	40.4	10.6
	긴급복지지원	11	54.5	45.5	0.0
	정부양곡할인지원	98	55.1	32.7	12.2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6	50.0	50.0	0.0
	우유 무상급식	23	60.9	30.4	8.7
	영양플러스	1	100.0	0.0	0.0
	건강과일바구니	1	100.0	0.0	0.0
	노인급식/도시락 지원	3	66.7	33.3	0.0
	아동급식/도시락카드 지원	16	56.3	37.5	6.3
	아동 도시락 배달	4	50.0	50.0	0.0
	기타 식품품 지원	4	25.0	75.0	0.0
	지원받은 사업 없음	62	66.1	30.6	3.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시간대는 '월요일 오전(10~12시)'로 나타남.

〈그림 3-64〉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교육을 받길 원하는 시간대(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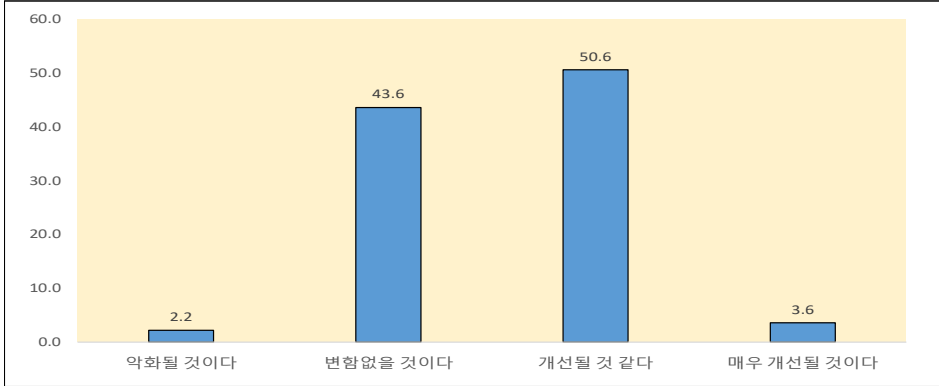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예상되는 식생활 도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임. '개선될 것 같다'는 의견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적어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3.6%, 매우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3.6%로 분석됨.

〈그림 3-65〉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예상되는 식생활 도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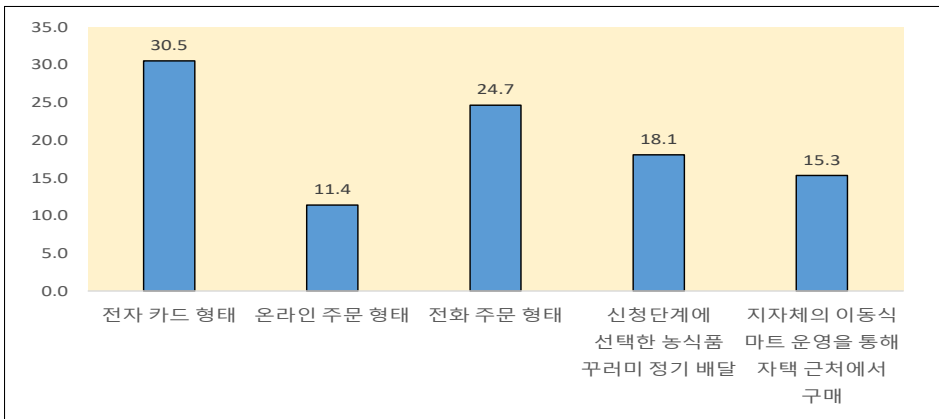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취약계층이 원하는 지급형태는 ‘전자 카드 형태(30.5%)’, ‘전화 주문 형태(24.7%)’, ‘신청단계에 선택한 농식품꾸러미 정기 배달(18.1%)’, ‘지자체의 이동식 마트 운영을 통한 자택 근처에서 구매 (15.3%)’ 순으로 조사됨.

〈그림 3-66〉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원하는 지급형태(중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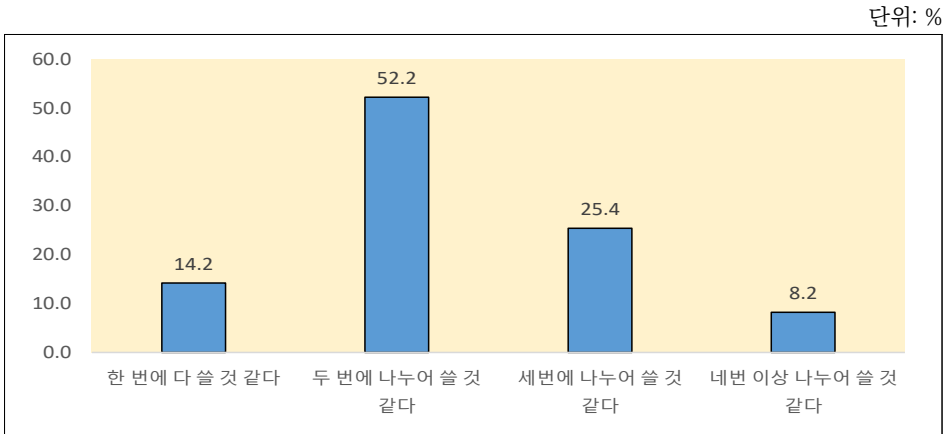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바우처 분할 사용 횟수에 대한 예상은 ‘두 번에 나누어 쓸 것 같다’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 번에 나누어 쓸 것 같다’는 의견도 25.4%로 분석됨.

〈그림 3-67〉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시 바우처 분할 사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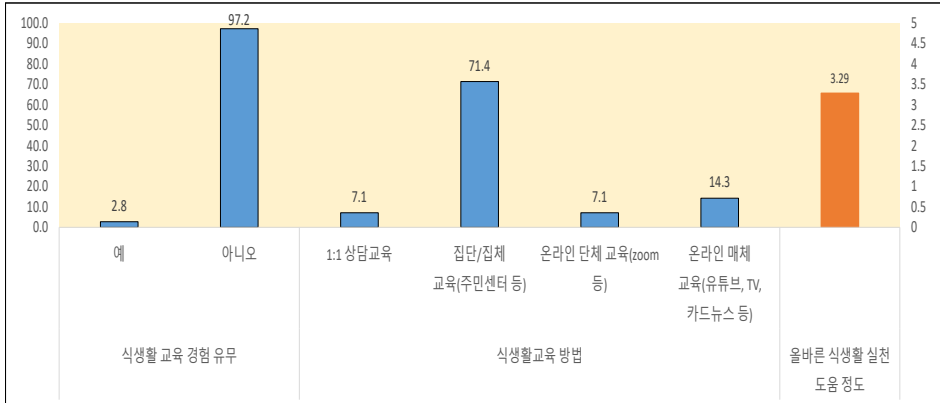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8. 식생활 교육 관련 조사

- 식생활교육 경험 여부를 설문한 결과, 경험하지 못한 취약계층 응답자는 97.2%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식생활 교육 강화 필요성이 나타남. 교육방법으로는 집단/집체교육이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한 비율은 14.3%로 나타남. 올바른 식생활 실천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3.29점으로 분석됨.

〈그림 3-68〉 식생활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방법, 식생활교육이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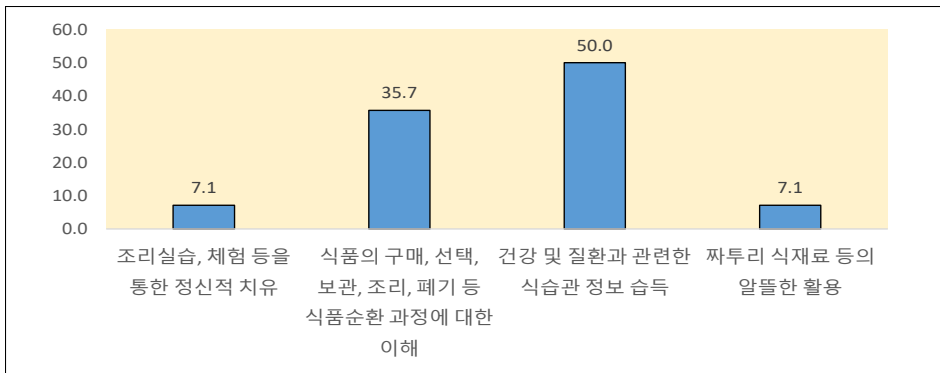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 응답자들은 식생활교육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점으로 ‘건강 및 질환과 관련한 식습관 정보 습득(50.0%)’을 꼽았으며, 두 번째로 도움이 된 점으로 ‘식품의 구매, 선택, 보관, 조리, 폐기 등 식품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35.7%)’를 선택함.

〈그림 3-69〉 식생활교육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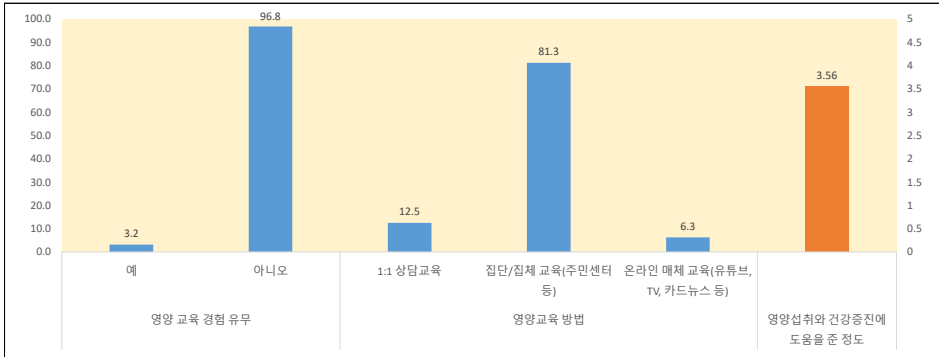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을 설문한 결과, 경험한 취약계층(전체의 3.2%)이 매우 적으며, 교육 방법으로는 집단/집체교육이 주를 이루었음(81.3%).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 정도는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분석됨.

〈그림 3-70〉 영양교육 경험 유무 및 교육방법,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 정도

단위: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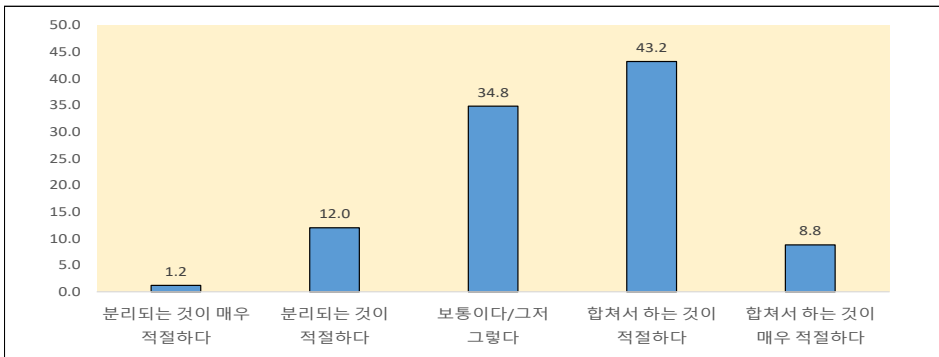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식생활교육과 영양교육 분리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결과 취약계층은 식생활교육과 영양교육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음. ‘합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43.2%인 반면, ‘분리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12.0%임.

〈그림 3-71〉 식생활교육과 영양교육 분리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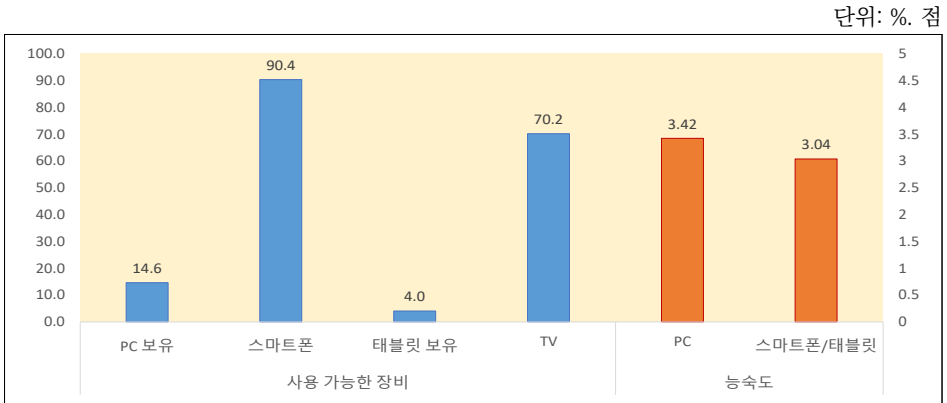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이 온라인 식생활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스마트폰(90.4%), TV(70.2%), PC(14.6%)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능숙도의 경우 PC가 스마트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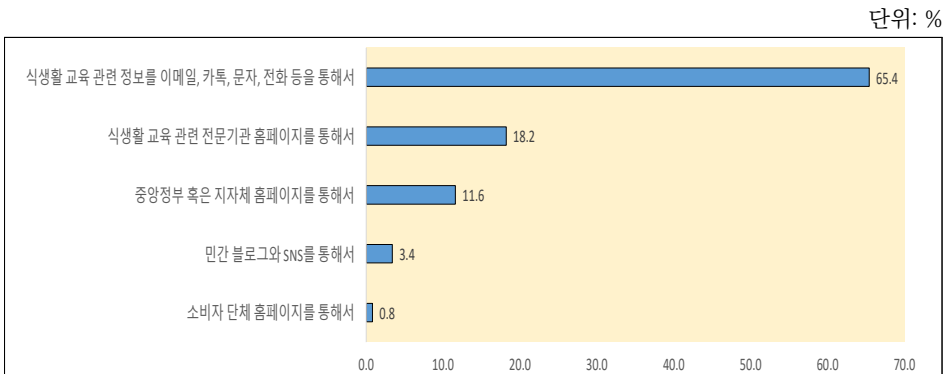
〈그림 3-72〉 온라인을 통한 식생활교육 시 사용 가능한 장비와 PC/스마트폰 능숙도 비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선호하는 식생활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방식으로는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기관(18.2%)’, ‘정부기관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11.6%)’ 등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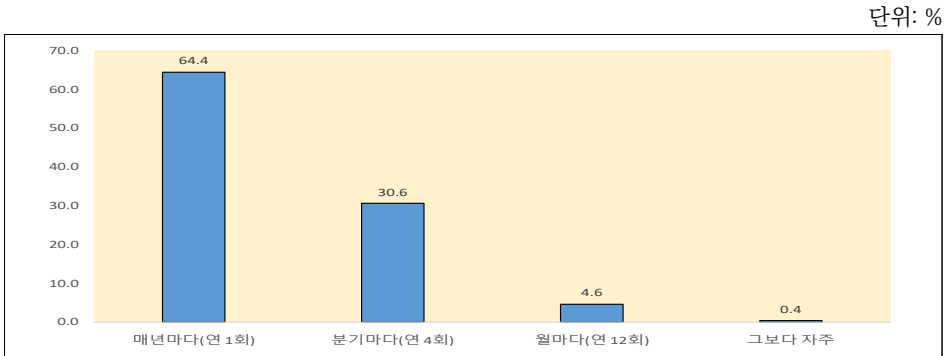
〈그림 3-73〉 선호하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방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적절한 식생활 교육 빈도는 ‘매년(64.4%)’이 가장 높게 나타남. ‘분기마다’의 경우 30.6%의 응답자가 선호하는 교육 빈도로 분석되었으며, 월 1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취약계층 비중은 4.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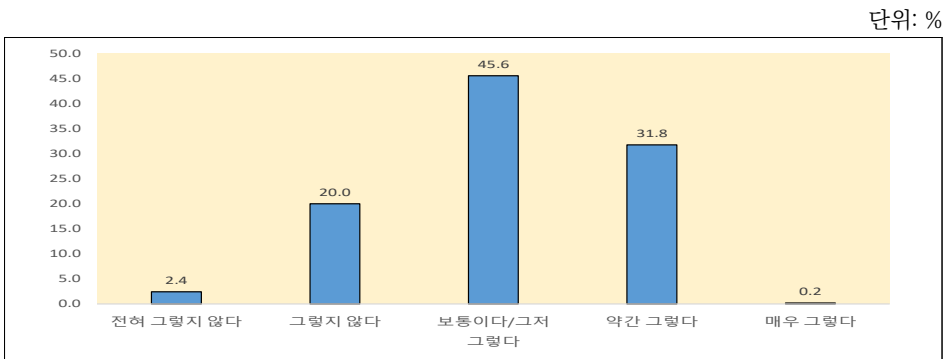
〈그림 3-74〉 적절한 식생활 교육 빈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식생활 교육에 구입 및 조리 등 실습과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그저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45.6%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그렇다(31.8%)’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음.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도 22.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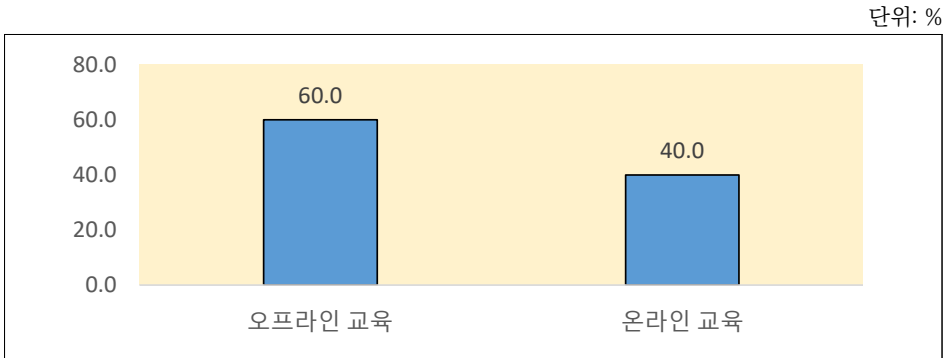
〈그림 3-75〉 식생활 교육에 구입 및 조리 등 실습과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설문한 결과, 취약계층은 오프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취약계층 대부분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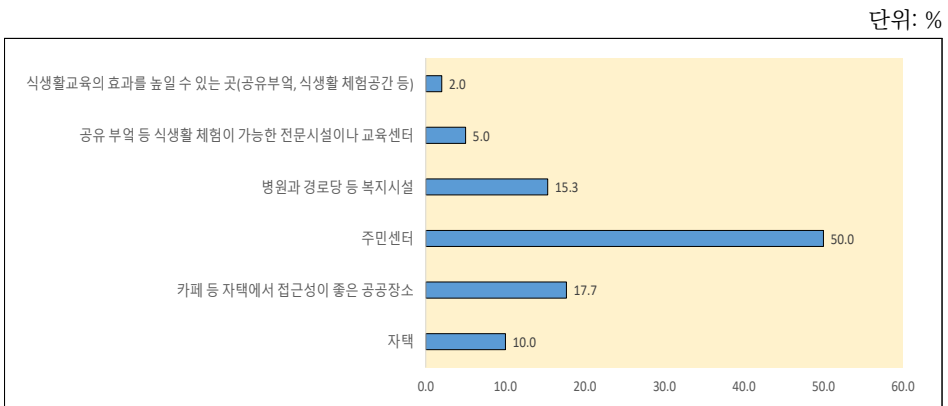
〈그림 3-76〉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중 선호하는 방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이 선호하는 식생활교육 오프라인 교육장소로는 ‘주민센터(50.0%)’, ‘카페 등 자택에서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17.7%)’, ‘병원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15.3%)’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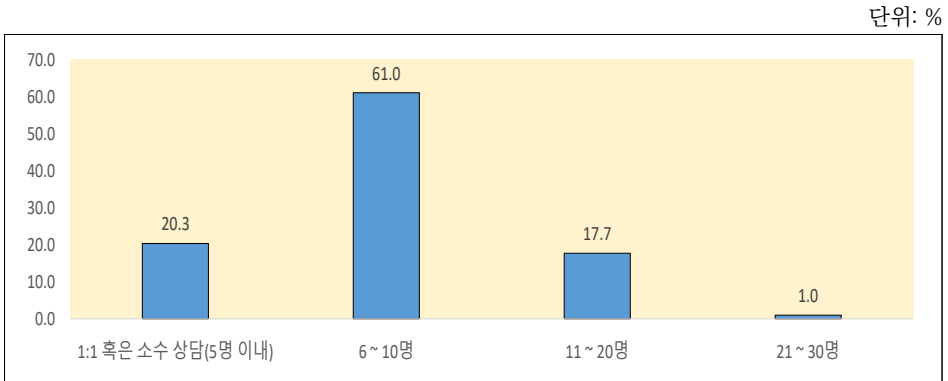
〈그림 3-77〉 선호하는 오프라인 교육장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적절한 오프라인 교육인원은 ‘6~10명 이내’가 61.0%의 응답자가 선호하는 규모로 분석되었고, ‘1대1 혹은 소수 상담(5명 이내)’도 20.3%의 응답자가 선호하는 교육인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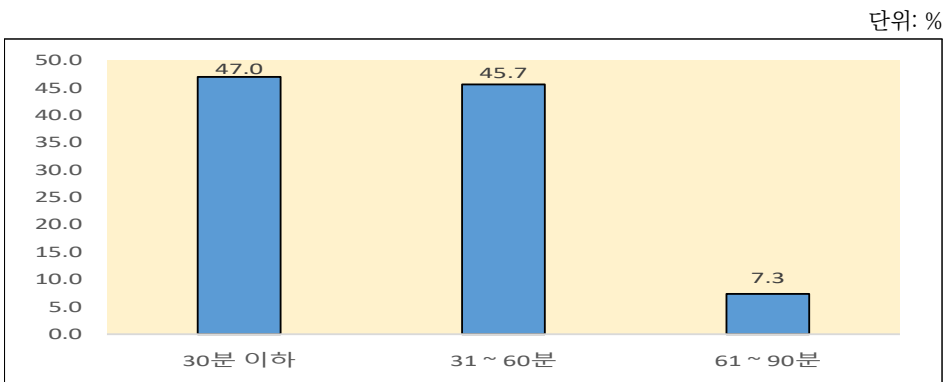
〈그림 3-78〉 적절한 오프라인 교육인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 응답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기에 적절한 오프라인 교육 시간은 ‘30분 이하(47.0%)’, ‘31~60분(45.7%)’ 순으로 나타나 한 시간 이내의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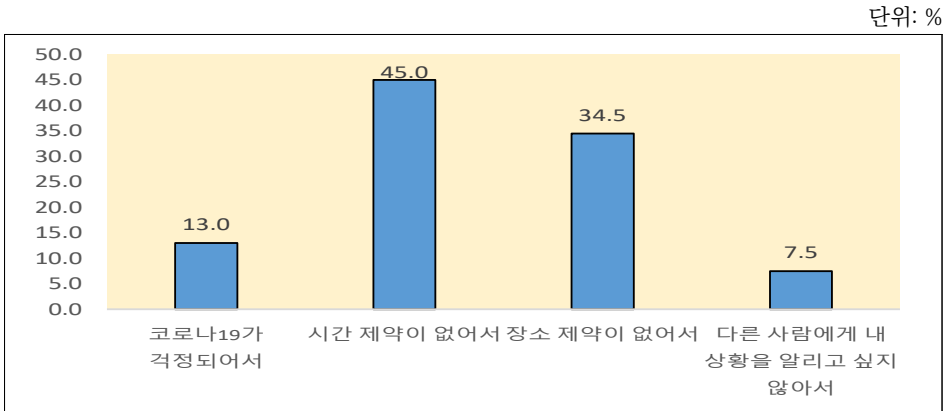
〈그림 3-79〉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기에 적절한 오프라인 교육시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한편,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로 ‘시간적 제약(45.0%)과 장소의 제약(34.5%)이 없어서’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도 13.0%의 응답자가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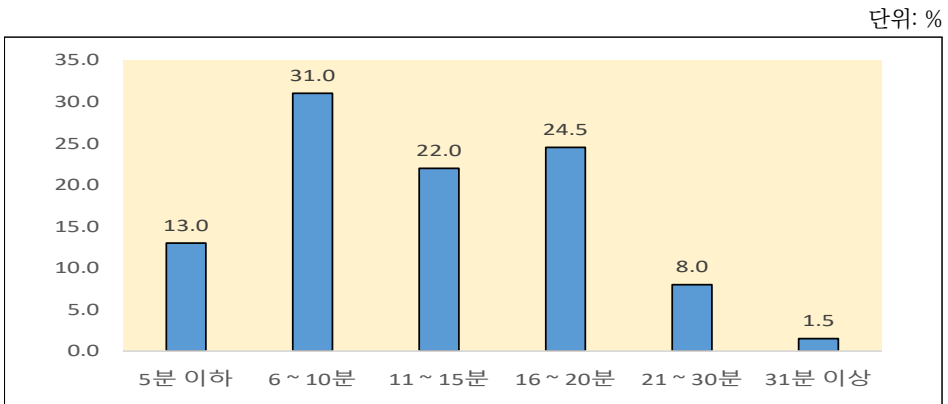
〈그림 3-80〉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온라인 교육시간은 ‘6~10분(31.0%)’, ‘16~20분(24.5%)’, ‘11~15분(22.0%)’ 등 20분 이내의 짧은 교육시간이 선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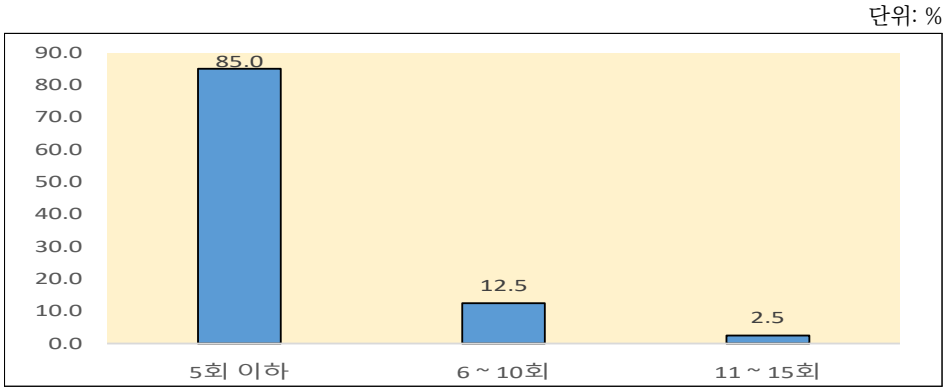
〈그림 3-81〉 적절한 온라인 교육시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1년 기준 적절한 온라인 교육횟수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취약계층은 ‘5회 이하(85.0%)’가 가장 적절한 온라인 교육횟수라고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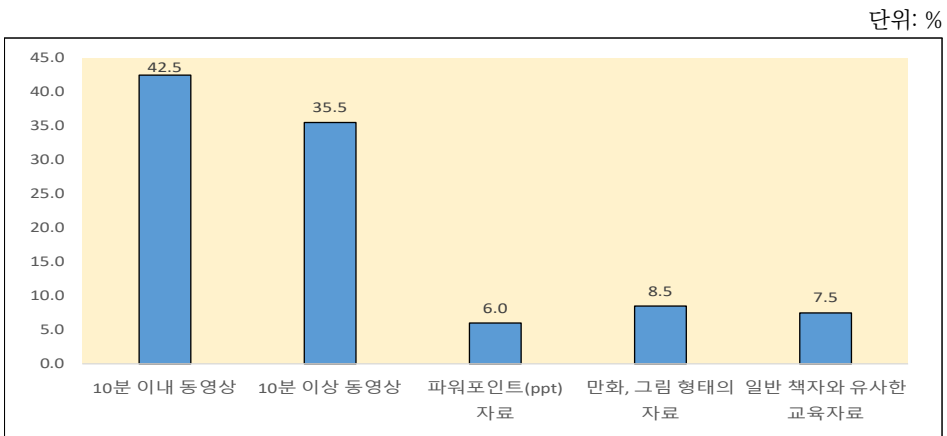
〈그림 3-82〉 1년 기준 적절한 온라인 교육횟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온라인 식생활 교육자료 형태는 ‘10분 이내 동영상 (42.5%)’, ‘10분 이상 동영상(35.5%)’ 순으로 나타나 동영상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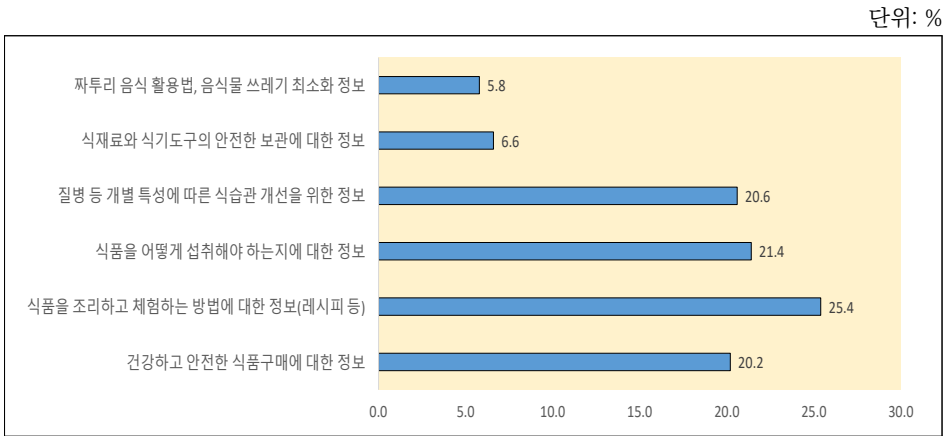
〈그림 3-83〉 적합한 온라인 식생활 교육자료 형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 식생활교육의 우선사항은 ‘식품을 조리하고 체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25.4%)’, ‘식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21.4%)’, ‘질병 등 개별 특성에 따른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정보(20.6%)’,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구매에 대한 정보(20.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84〉 식생활 교육의 우선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N=500).

제4장

초등학생 부모 조사



4

초등학생 부모 조사

1. 가구 내 식생활 평가

○ 초등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하루 3끼 식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끼니를 모두 챙겨 먹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8.7%, ‘끼니를 모두 챙겨 먹지 못하는 편’은 41.3%가 응답함. 맛별이 가구가 아닐수록, 자녀의 체중 감량 필요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부모가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끼니를 모두 챙겨 먹는 편이라 응답한 응답자가 높게 나타남.

〈표 4-1〉 가족 구성원 하루 3끼 식사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끼니를 모두 챙겨 먹고 있는 편이다	끼니를 모두 챙겨 먹지 못하는 편이다	계	
전체	1,000	58.7	41.3	100.0	
성별	남성	121	53.7	46.3	100.0
	여성	879	59.4	40.6	100.0
연령대	30대 이하	219	49.8	50.2	100.0
	40대	730	61.6	38.4	100.0
	50대	51	54.9	45.1	100.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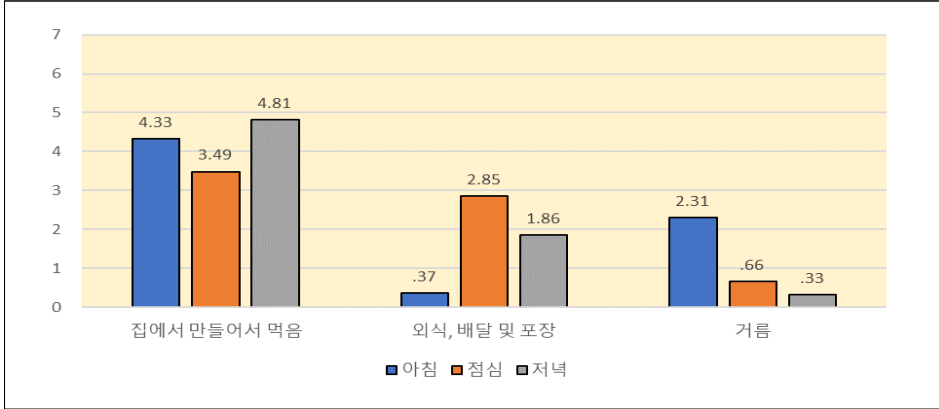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끼니를 모두 챙겨 먹고 있는 편이다	끼니를 모두 챙겨 먹지 못하는 편이다	계
지역	서울	155	60.0	40.0	100.0
	경기/강원권	372	58.6	41.4	100.0
	충청권	114	58.8	41.2	100.0
	호남권	114	53.5	46.5	100.0
	경북권	93	67.7	32.3	100.0
	경남권	152	55.9	44.1	100.0
자녀 수	1명	236	52.1	47.9	100.0
	2명	627	61.4	38.6	100.0
	3명	124	57.3	42.7	100.0
	4명	13	61.5	38.5	100.0
최종학력 (본인기준)	고졸 이하	118	58.5	41.5	100.0
	대졸 이상	882	58.7	41.3	100.0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608	55.8	44.2	100.0
	맞벌이 가구 아님	392	63.3	36.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세전 기준)	200만 원 미만	16	56.3	43.8	100.0
	200만~400만원미만	190	58.9	41.1	100.0
	400만~600만원미만	395	56.5	43.5	100.0
	600만~800만원미만	238	58.4	41.6	100.0
	800만 원 이상	161	64.6	35.4	100.0
자녀 체중 감량 필요	필요 낮은 편	642	60.9	39.1	100.0
	보통	157	59.2	40.8	100.0
	필요가 높은 편	201	51.2	48.8	100.0
규칙적인 운동 여부	운동하지 않는 편	453	55.8	44.2	100.0
	보통	264	56.4	43.6	100.0
	운동하는 편	283	65.4	34.6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현재 평균적인 끼니별 식사 현황을 살펴보면, 끼니와 상관없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횟수가 많았으며, 외식, 배달 및 포장의 경우 점심이 주 평균 2.85회, 식사를 거르는 경우는 아침이 2.31회로 많은 것으로 응답함.

〈그림 4-1〉 응답자 현재 평균적인 끼니별 식사 현황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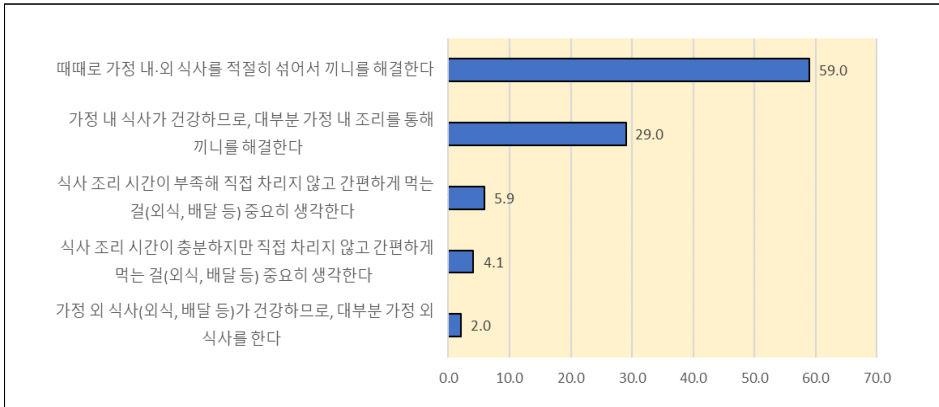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가정 내외 식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때때로 가정 내외 식사를 적절히 섞어서 끼니를 해결한다(59.0%)’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그다음으로 ‘가정 내 식사가 건강하므로, 대부분 가정 내 조리를 통해 끼니를 해결한다(29.0%)’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4-2〉 가정 내외 식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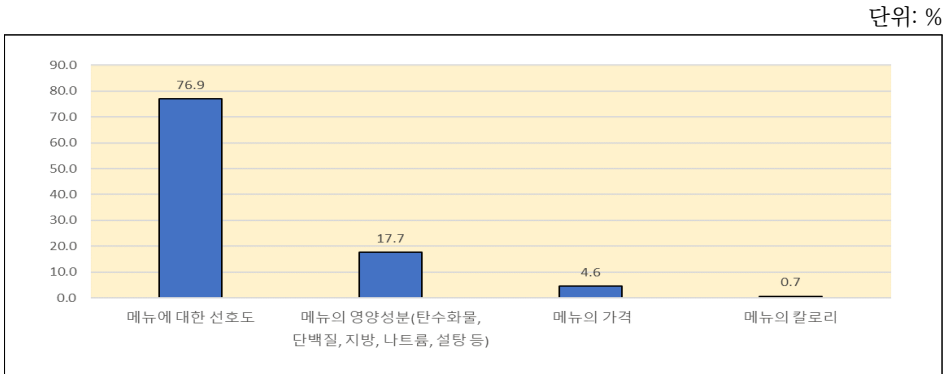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가정 외 식사 메뉴 선정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메뉴에 대한 선호도 (76.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메뉴의 영양성분(17.7%)’, ‘메뉴의 가격 (4.6%)’ 등의 고려사항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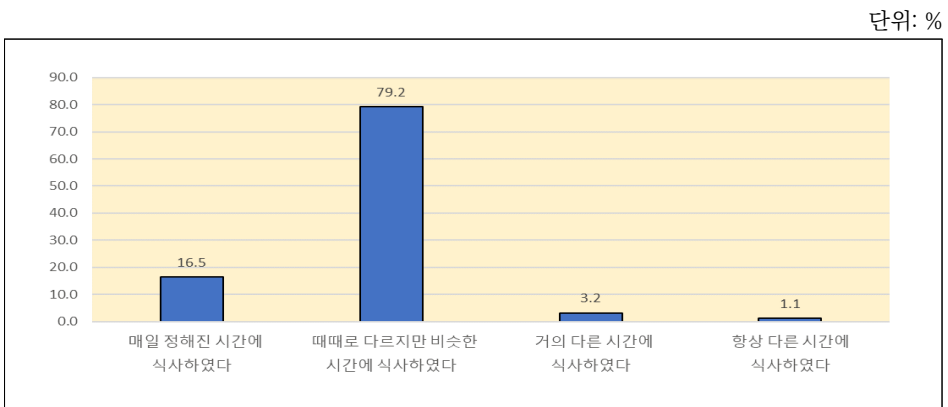
〈그림 4-3〉 가정 외 식사 메뉴 선정 시 고려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지난 1주일간 설문 응답자들의 규칙적 식사 여부를 살펴보면, ‘때때로 다르지만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였다(79.2%)’,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였다 (16.5%)’로 대체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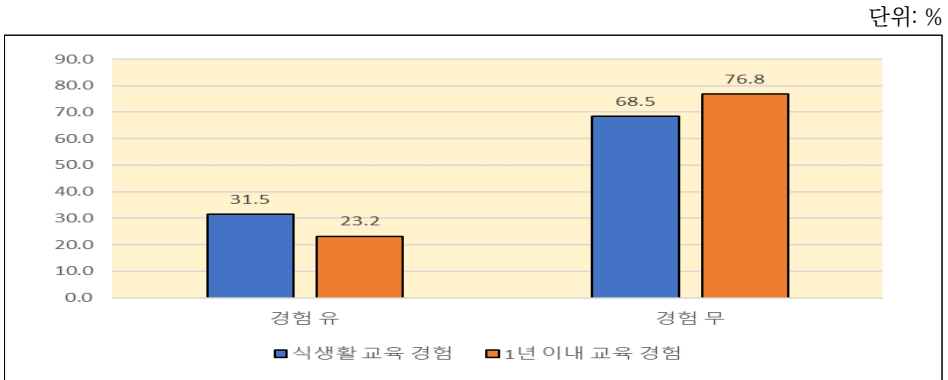
〈그림 4-4〉 규칙적 식사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초등 자녀를 둔 부모의 식생활교육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식생활교육 경험 이 없다(68.5%)’ 응답이 ‘식생활교육 경험이 있다(31.5%)’ 응답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1년 이내 식생활교육 경험 여부 비율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남.

〈그림 4-5〉 식생활교육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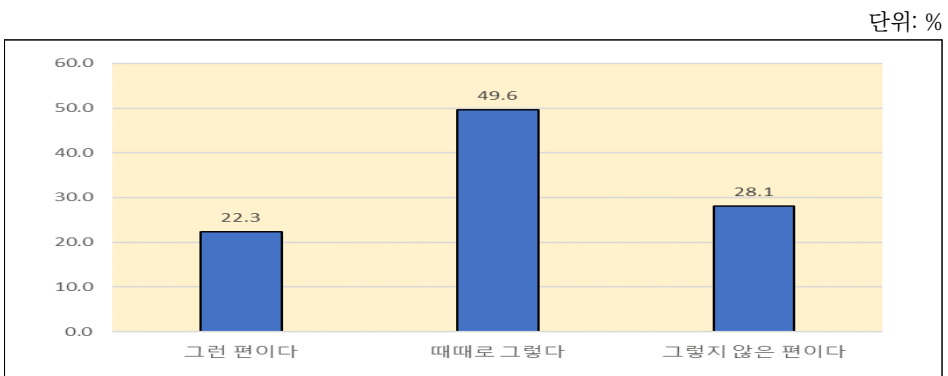


주: 1년 이내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은 식생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315명을 대상으로 정리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가정 내 식단을 미리 계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때때로 그렇다(49.6%)’, ‘그렇지 않은 편이다(28.1%)’, ‘그런 편이다(22.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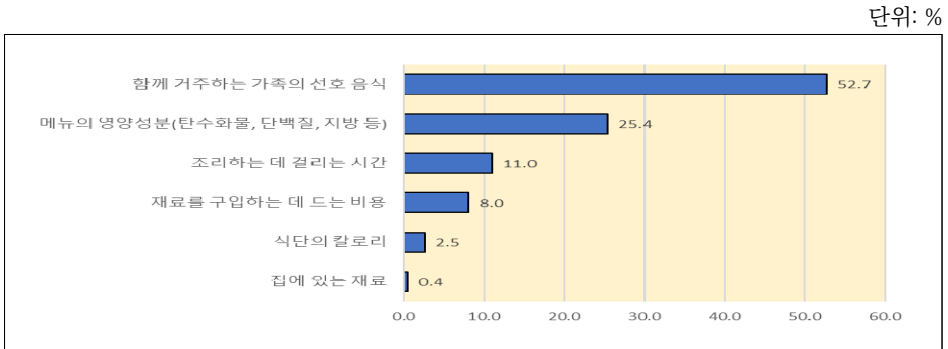
〈그림 4-6〉 가정 내 식단 사전 계획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식사 메뉴를 미리 계획 시 우선으로 생각하는 1, 2순위 기준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를 정리하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선호 음식(52.7%)’과 ‘메뉴의 영양성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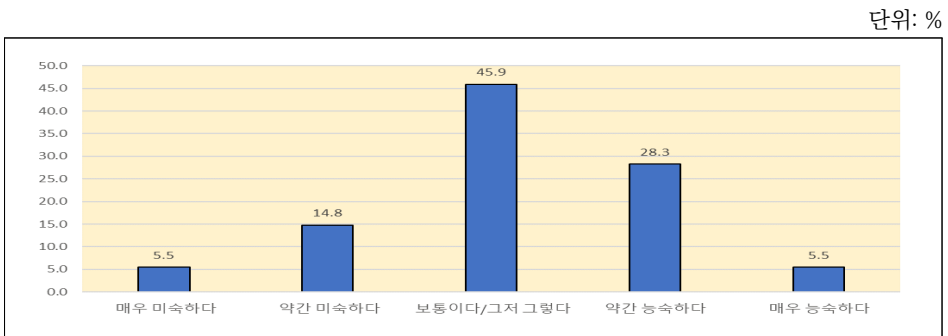
〈그림 4-7〉 식사 메뉴 사전 계획 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준(1, 2순위)



주: 가정에서의 식사 메뉴를 ‘미리 계획하는 편이거나 때때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7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주관적 요리 실력에 대해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그저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 수준(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요리실력이 ‘능숙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3.8%로, 전반적으로 설문 대상자인 초등 학부모는 요리를 능숙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임.

〈그림 4-8〉 주관적 요리실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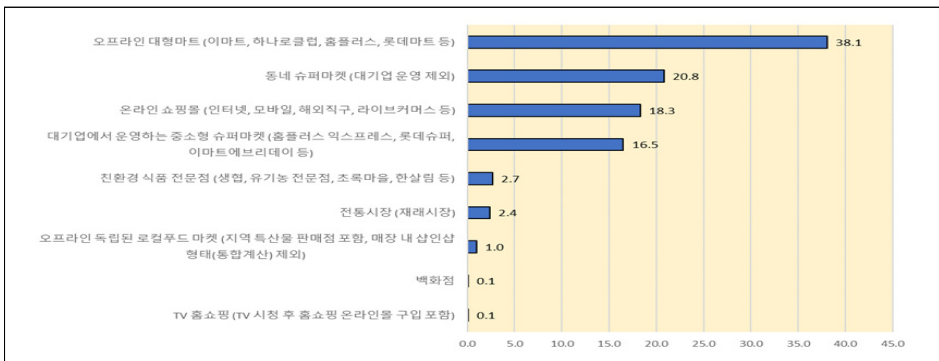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초등 부모가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를 묻은 결과, 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38.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동네 슈퍼마켓(20.8%), 인터넷, 모바일, 해외직구, 라이브 커머스 등의 온라인 쇼핑몰(18.3%),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의 중소형 슈퍼마켓(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 외 생협, 한살림 등의 친환경 식품 전문점, 전통시장, 오프라인으로 독립된 로컬푸드 마켓에서의 구매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임.

〈그림 4-9〉 초등 부모가 주로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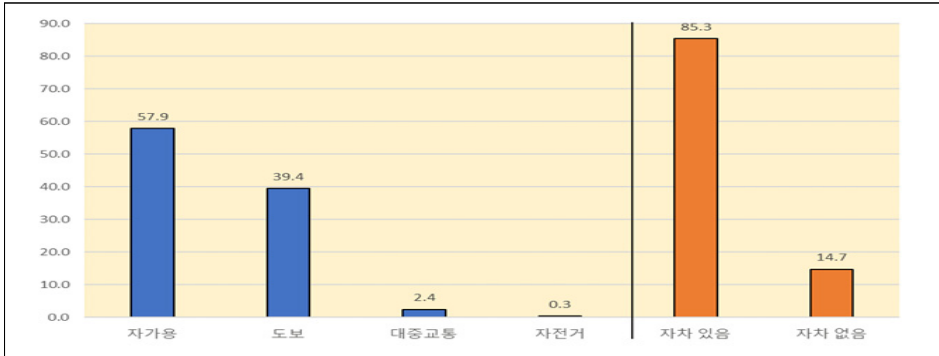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오프라인 통한 식품 구매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전체 설문 응답자의 57.9%는 자가용을 이용하며, 39.4%는 도보, 2.4%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식품 구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차 소유 여부에 대해 설문을 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85.3%가 자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식품을 구매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중이 유사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아 초등 부모 소비자들이 도보를 통한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10〉 오프라인 통한 식품 구매 시 이용 교통수단 및 자차 소유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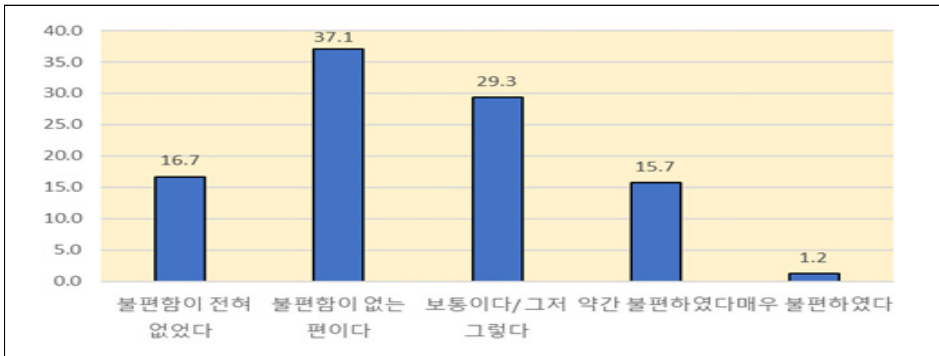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자주 장을 보러 가는 장소까지 이동 시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응답에 1점, ‘매우 불편하였다’ 응답에 5점을 적용해 가중평균한 결과, 평균 2.48점으로 상대적으로 불편함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전체 설문 응답자의 53.8%가 불편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불편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16.9% 수준임.

〈그림 4-11〉 자주 장을 보러 가는 장소까지 이동 시 불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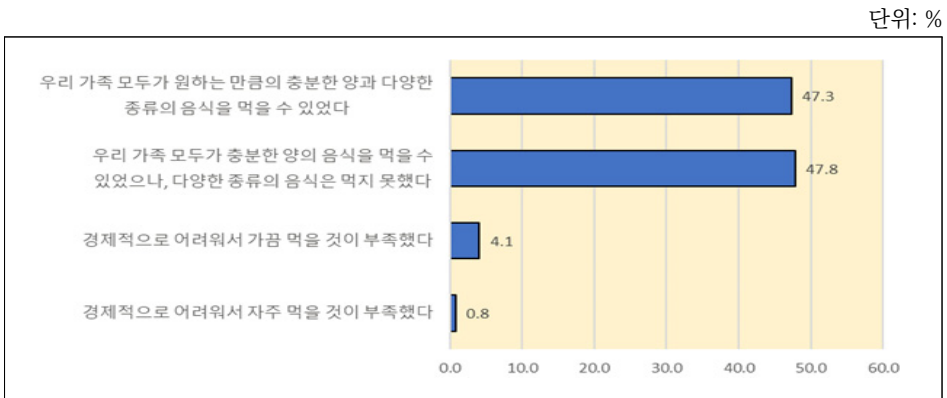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최근 1년간 설문 응답자의 식생활 형편은 대체적으로 충분성과 다양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가족 모두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47.8%)’, ‘가족 모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47.3%)’,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4.1%)’,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0.8%)’ 순으로 응답함.

〈그림 4-12〉 최근 1년간 식생활 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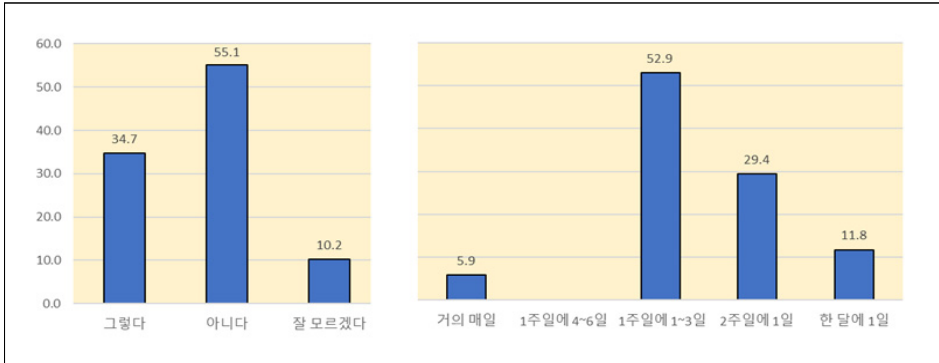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또는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자 중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을 물었을 때, 3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절반 정도(52.9%)가 1주일에 1~3일 정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4-13〉 형편이 어려워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하지 못한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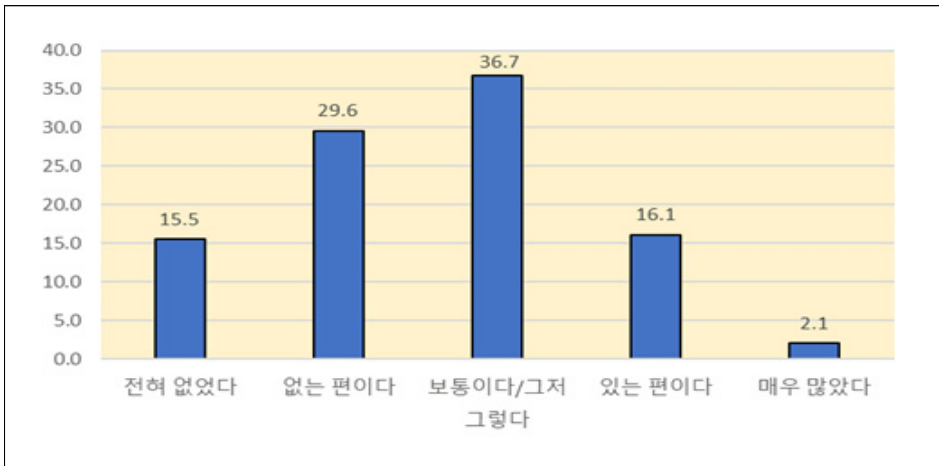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최근 1년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 빈도로는 전혀 없거나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절반 정도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고 나타남.

〈그림 4-14〉 최근 1년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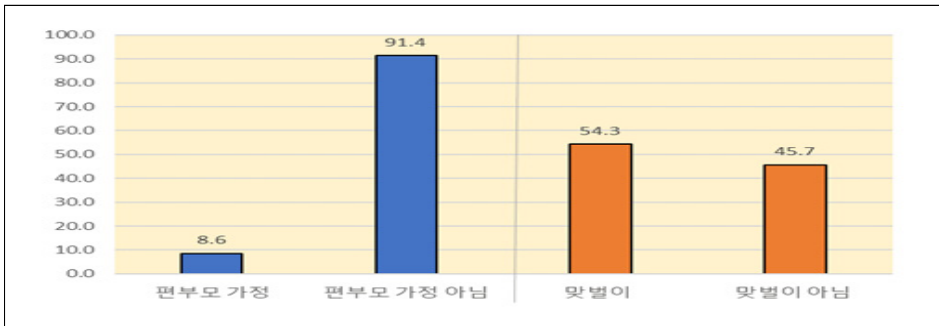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2. 응답자의 아동기, 가정형편 및 식생활

- 응답자가 만 6~12세 아동기일 당시 편부모, 맞벌이 환경에 대해 질문한 결과, 편부모 가정이 아닌 비율이 91.4%였으며, 맞벌이 비율은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4-15〉 응답자 아동기 편부모, 맞벌이 환경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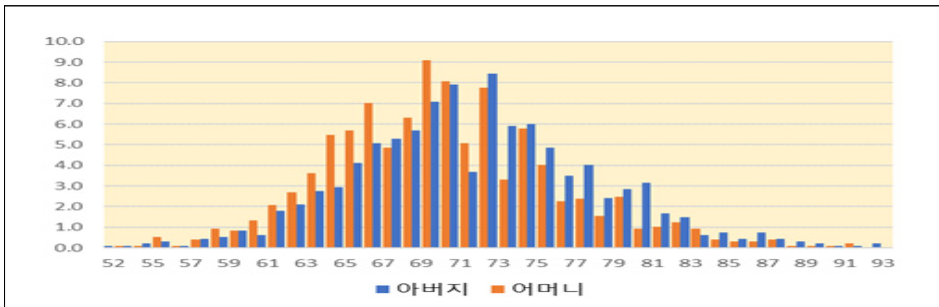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10세 당시 설문 응답자 부모의 평균 나이를 보면 부의 경우 약 72.3세, 모의 경우 68.8세임.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부는 52세부터 93세까지, 모는 49세에서 91세로, 모의 나이가 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더 많이 분포함.

〈그림 4-16〉 응답자 10세 당시 부모님의 나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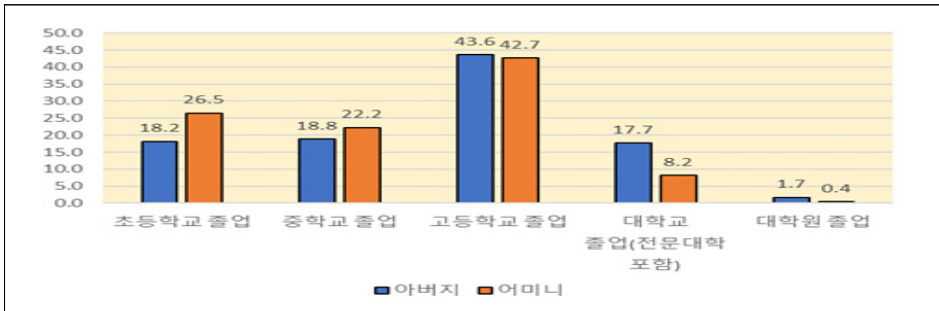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부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부모 각각 43.6%, 42.7%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부는 ‘중학교 졸업(18.8%)’, ‘초등학교 졸업(18.2%)’, ‘대학교 졸업(17.7%)’, ‘대학원 졸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는 ‘초등학교 졸업(26.5%)’, ‘중학교 졸업(22.2%)’, ‘대학교 졸업(8.2%)’, ‘대학원 졸업(0.4%)’ 순임.

〈그림 4-17〉 응답자 부모님의 최종학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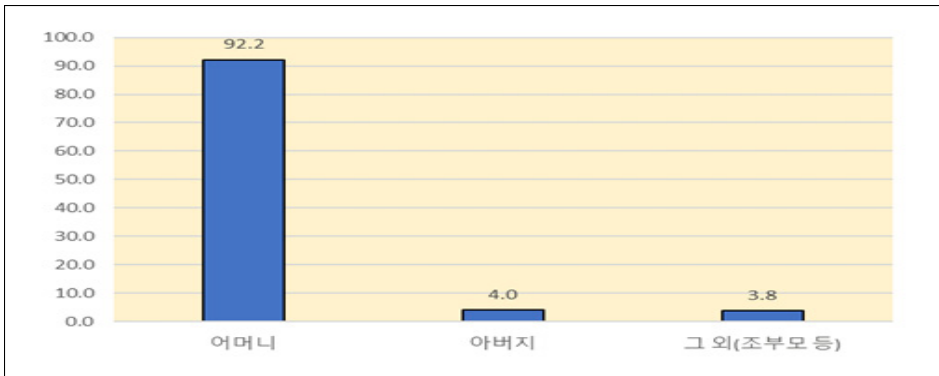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당시 가족의 식사를 위한 준비활동(식재료 장보기, 식사메뉴 선정, 식재료 다듬기 등)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구성원은 ‘어머니(92.2%)’, ‘아버지(4.0%)’, ‘그 외(조부모 등)(3.8%)’ 순으로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8〉 응답자 아동가: 가정 내 식사 준비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구성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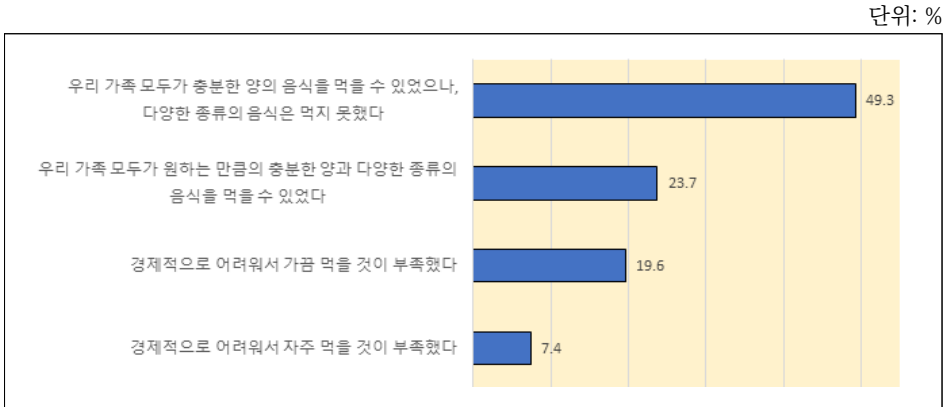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의 만 6~12세 아동기 당시 식생활 형편을 설문한 결과, 식생활 충분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모두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는 49.3%,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7%로 나타남.
-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또는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7%로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4-19〉 응답자 아동기: 식생활 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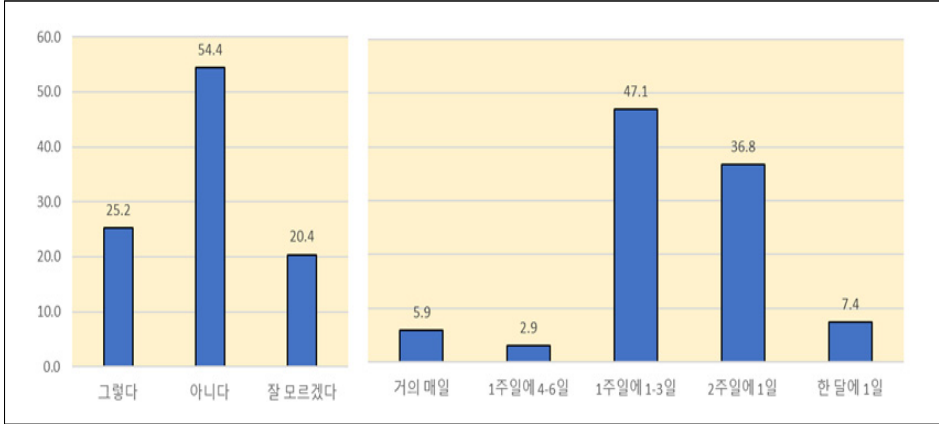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식생활에 부족함을 느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없다 응답한 비율이 54.4%, ‘그렇다(경험 있음)(25.2%)’, ‘잘 모르겠다(20.4%)’ 순으로 나타남.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47.1%가 1주일에 1~3일 정도 식사량을 줄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주일에 1일(36.8%)’, ‘한 달에 1일(7.4%)’, ‘거의 매일(5.9%)’, ‘1주일에 4~6일(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0〉 응답자 아동기: 형편이 어려워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 및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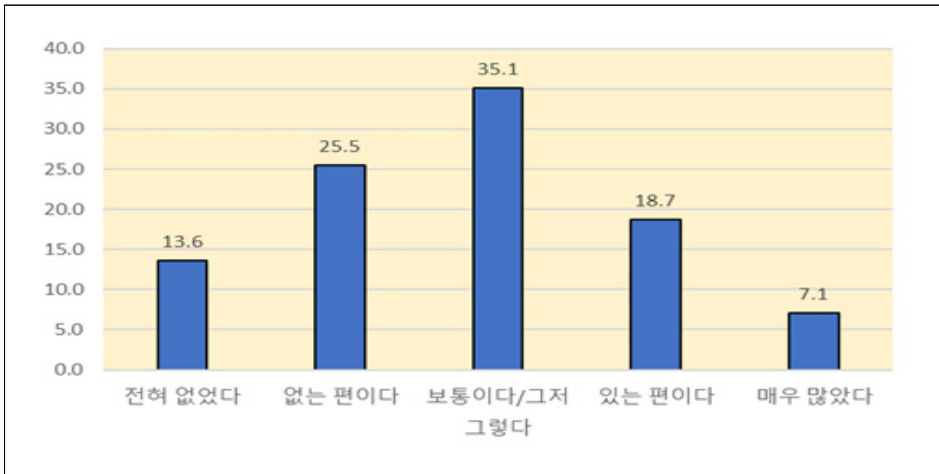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가 아동기일 당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 빈도는 '전혀 없거나 없는 편이다'가 39.1%, '매우 많거나 있는 편이었다'가 25.8%로 대체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1〉 응답자 아동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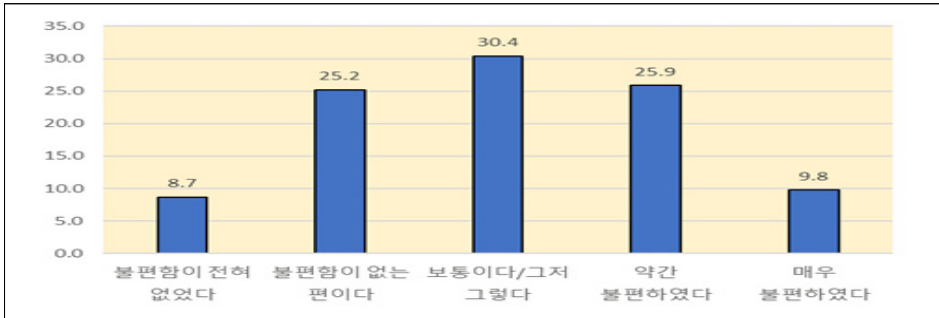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아동기 당시 자주 장을 보러 가는 장소까지 이동 시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응답에 1점, ‘매우 불편하였다’ 응답에 5점을 적용해 가중평균한 결과 평균 3.3점으로 조사됨. 전체 설문 응답자의 35.7%가 불편한 편이라고 느꼈으며, 불편함이 없는 편이었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33.9% 수준임.

〈그림 4-22〉 응답자 아동기: 자주 장을 보러 가는 장소까지 이동 시 불편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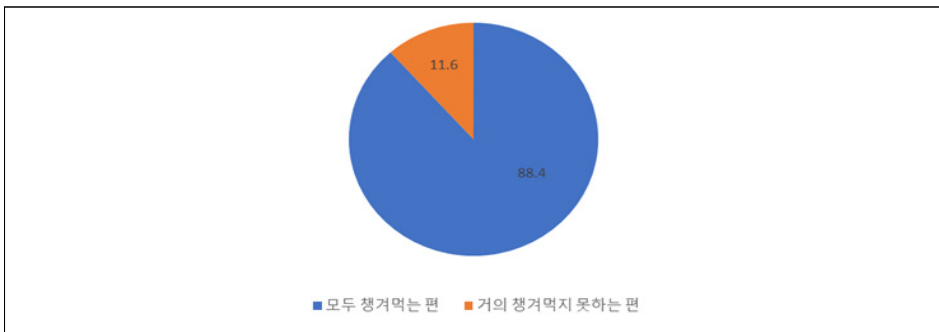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아동기 당시 가족 구성원 모두 하루 3끼를 먹는 비율은 88.4%, 거의 챙겨 먹지 못하는 편은 11.6%로, 전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3〉 응답자 아동기: 가족 구성원 모두 하루 3끼 식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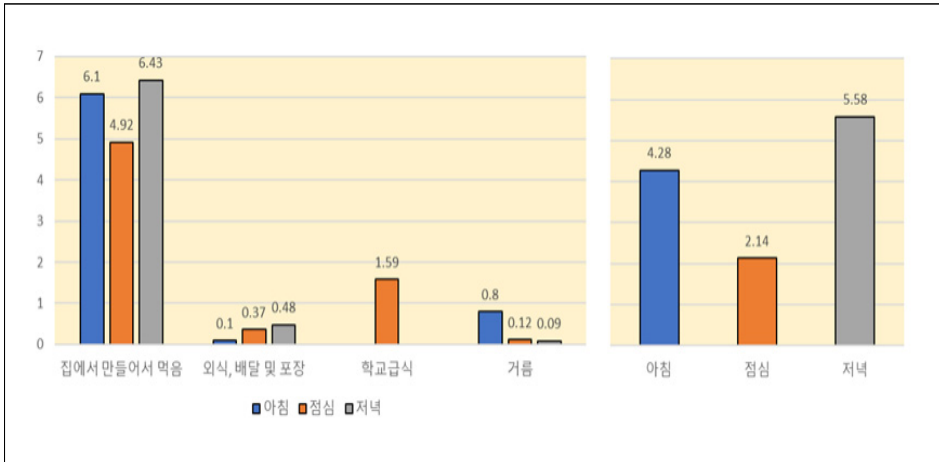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실제 식사 현황을 설문한 결과, 집에서 만들어 먹는 횟수가 끼니때와 상관없이 가장 많았고, 외식, 배달 및 포장은 ‘저녁(0.48회)’, ‘점심(0.37회)’, ‘아침(0.1회)’ 순이었지만, 횟수 자체가 적음. 학교급식은 점심의 경우에만 일주일 기준 평균 1.59회 이용하였고, 식사를 거른 경우는 ‘아침(0.8회)’, ‘점심(0.12회)’, ‘저녁(0.09회)’ 순으로 나타남. 아침, 점심, 저녁 중 가족과 함께한 식사횟수는 일주일 기준 저녁이 평균 5.58회, 아침 4.28회, 점심 2.14회로 조사됨.

〈그림 4-24〉 응답자 아동기: 끼니별 식사 현황 및 가족 구성원과 함께한 식사횟수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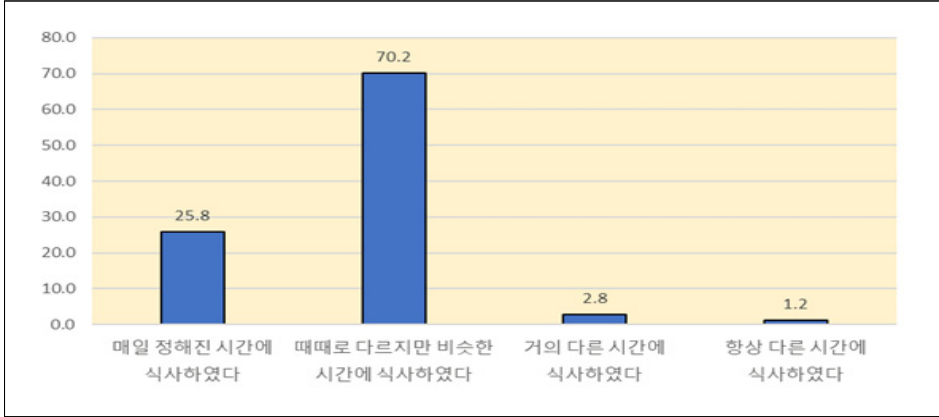
주: 아침, 점심, 저녁 최대 횟수는 주 7일 기준으로 7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의 만 6~12세 당시 규칙적으로 식사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때때로 다르지만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였다(70.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였다(25.8%)’, ‘거의 다른 시간에 식사하였다(2.8%)’, ‘항상 다른 시간에 식사하였다(1.2%)’ 순으로 조사됨.

〈그림 4-25〉 응답자 아동기: 규칙적인 식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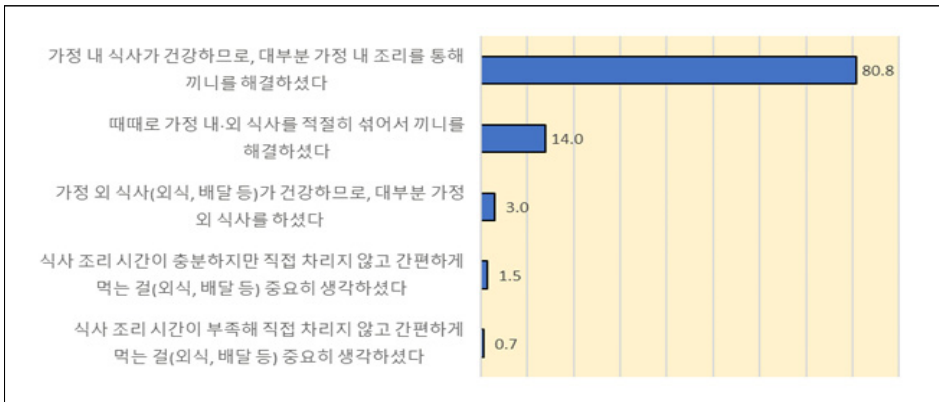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가정 내에서 만들어 먹는 식사와 외식에 대한 태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가정 내 식사가 건강하므로, 대부분 가정 내 조리를 통해 끼니를 해결했으며, ‘때때로 가정 내외 식사를 적절히 섞어서 끼니를 해결하셨다(14.0%)’, ‘가정 외 식사(외식, 배달 등)가 건강하므로, 대부분 가정 외 식사를 하셨다(3.0%)’ 등으로 나타남.

〈그림 4-26〉 응답자 아동기: 귀댁 가정 내외 식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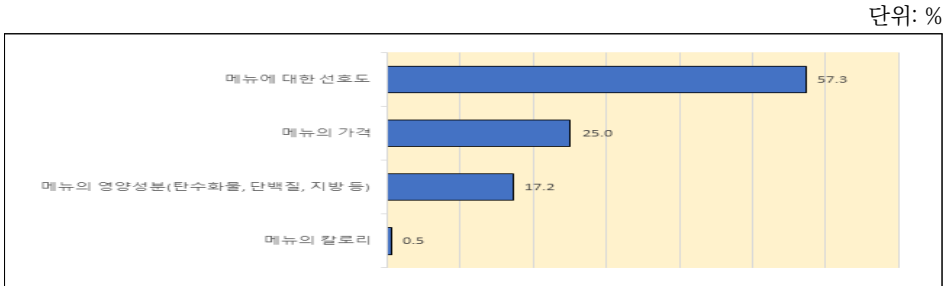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당시 가정 외 식사 시 메뉴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메뉴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한다는 응답자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메뉴의 가격(25.0%)’, ‘메뉴의 영양성분(17.2%)’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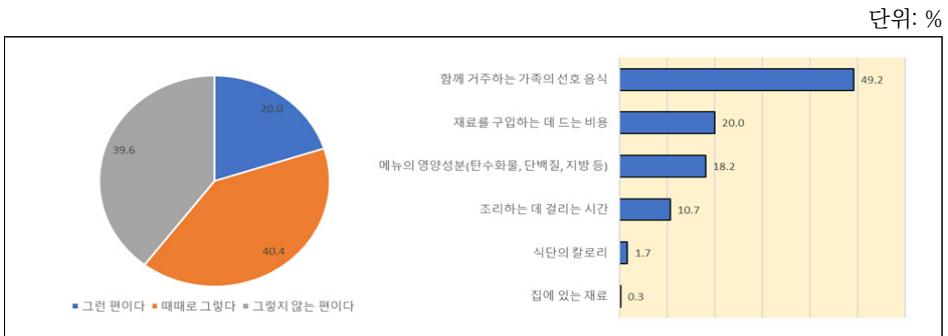
〈그림 4-27〉 응답자 아동기: 외식 메뉴 선정 시 고려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당시 가정 내 식단을 미리 계획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때때로 그렇다(40.4%)’, ‘그렇지 않다(39.6%)’가 높았으며,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0.0%임. 식단을 미리 계획하는 응답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준 1, 2순위를 묻은 결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선호 음식(49.2%)’,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20.0%)’, ‘메뉴의 영양성분(18.2%)’,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10.7%)’ 등의 순임.

〈그림 4-28〉 응답자 아동기: 식단 사전 계획 여부 및 우선적 고려 기준(1,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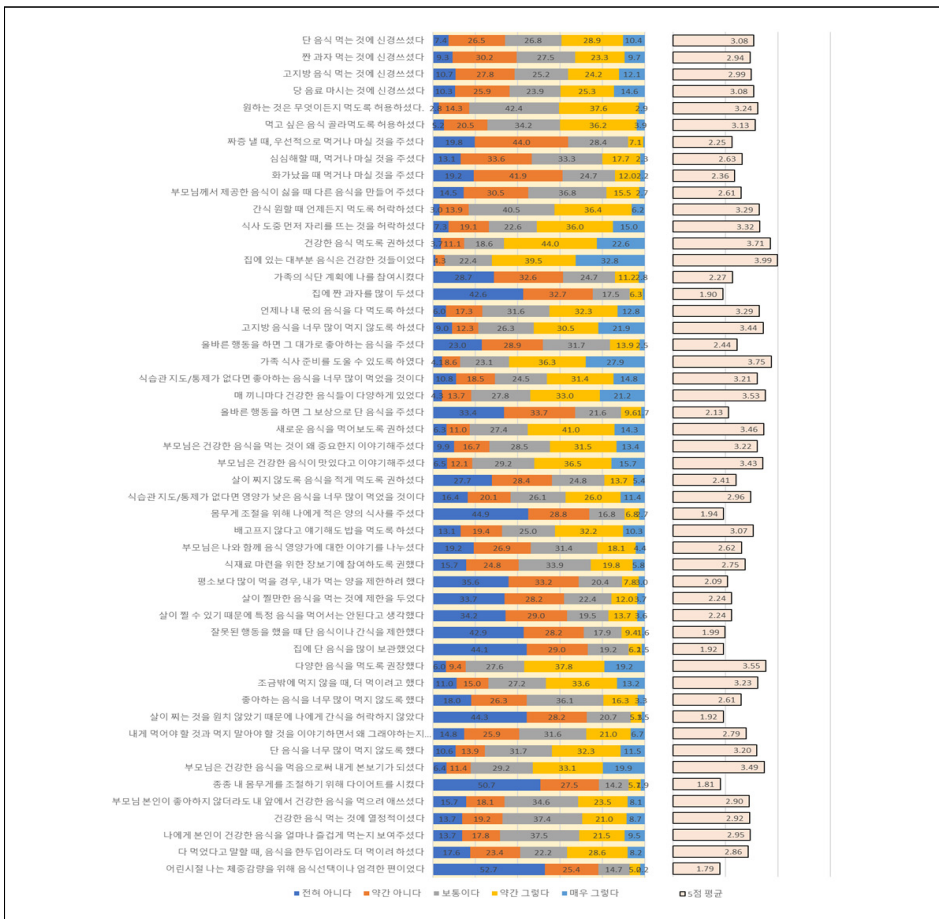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3. 응답자의 아동기, 부모의 식사 양육 행위

○ 응답자 아동기 시절, 부모의 식사 양육 실태에 관한 여러 문항을 토대로 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 척도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부모의 식사 양육 실태는 자녀의 식습관, 식사예절 등과 관련한 문항으로 이뤄짐.

〈그림 4-29〉 응답자 아동기: 부모의 식사 양육 실태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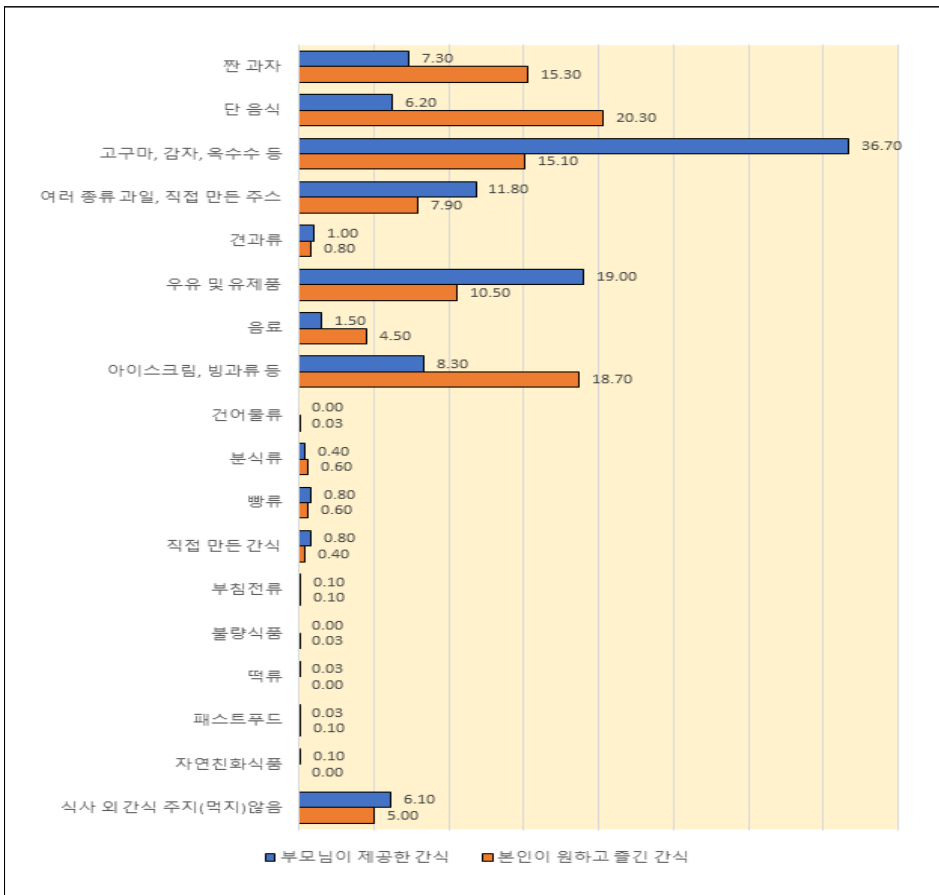
주: 5점 평균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그렇다(동의한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어린 시절 부모님이 주로 제공하는 간식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36.7%)’이 가장 많았고, ‘우유 및 유제품(19.0%)’,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8.3%)’ 등의 순이었으며, 식사 외 간식을 주지 않는 비율도 6.1%를 차지함. 이에 반해 본인이 즐겼던 간식으로는 ‘초콜릿, 사탕, 쿠키 등과 같은 단 음식(20.3%)’,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18.7%)’, ‘감자칩 등 짠 과자(15.3%)’ 등의 순임.

〈그림 4-30〉 응답자 아동기: 부모님이 제공하는 간식 vs 본인이 원하고 즐긴 간식(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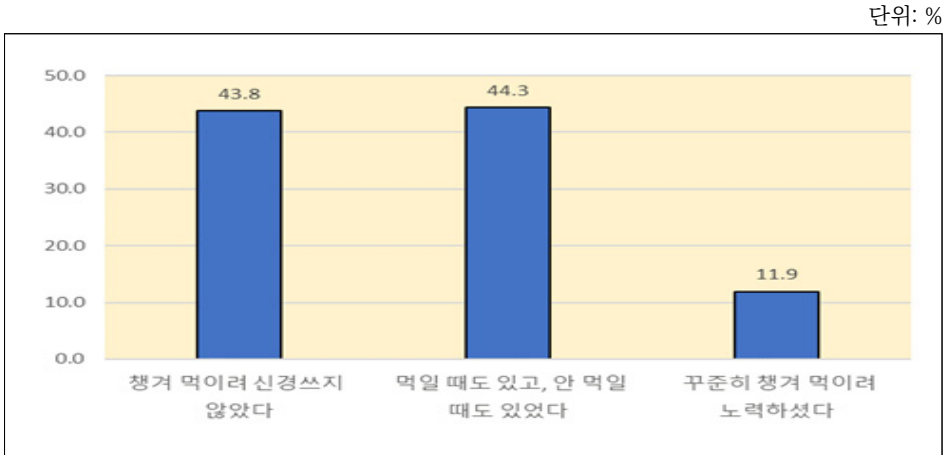


주: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중복응답을 정리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어린 시절 부모님이 본인에게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를 따로 먹였는지를 설문한 결과, ‘먹일 때도 있고, 안 먹일 때도 있었다(44.3%)’, ‘챙겨 먹이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43.8%)’ 순이었으며, ‘꾸준히 챙겨 먹이려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4-31〉 응답자 아동기: 건강보조제나 영양제 섭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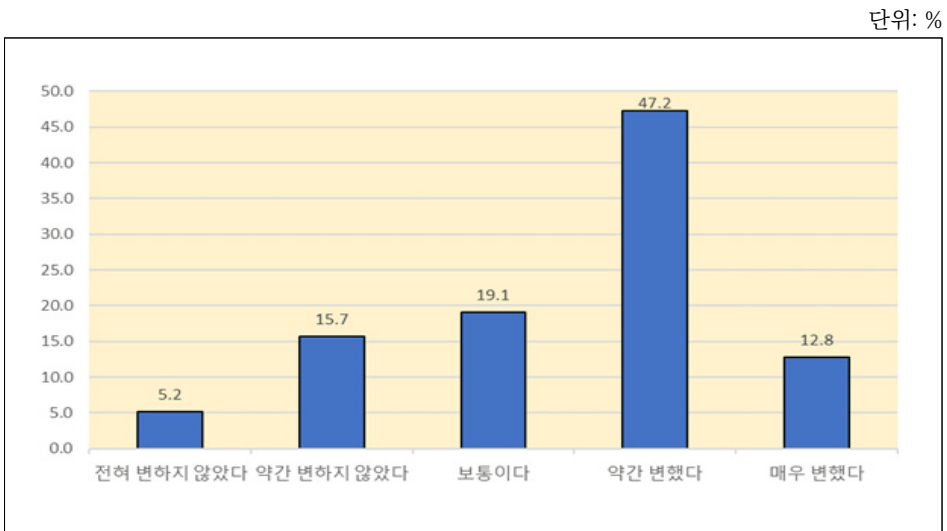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4. 응답자의 현재 식습관

○ 본인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 현재 식습관이 변했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0%(‘약간 변했다(47.2%)’, ‘매우 변했다(12.8%)’로, 전혀 또는 약간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0.9%로 조사됨.

〈그림 4-32〉 응답자 본인의 어린 시절 vs 현재 식습관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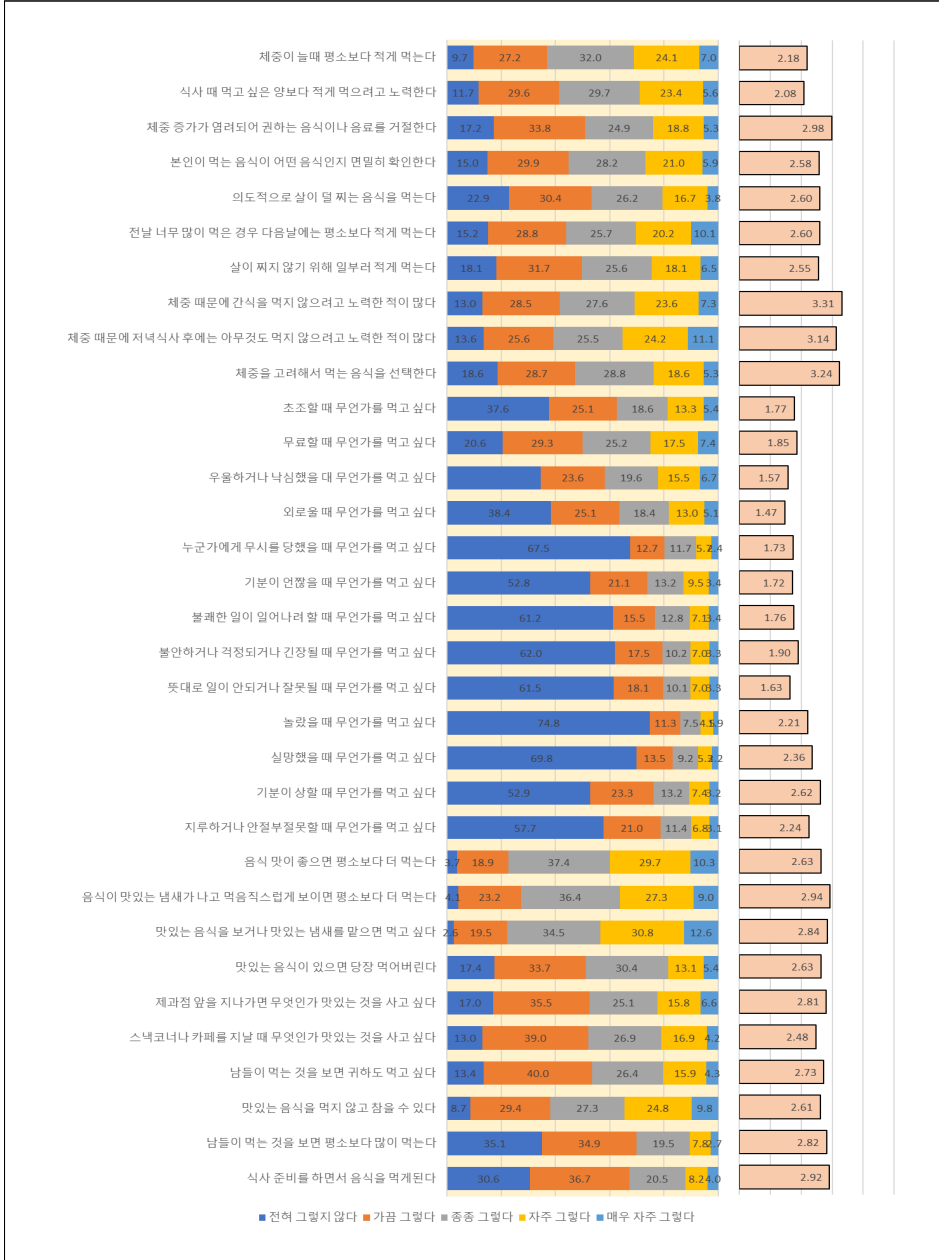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의 현재 식습관에 대해 여러 문항을 토대로 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 척도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응답자의 현재 식습관에 관한 문항은 체중 관리 관점, 심리 상태에 따른 식이 행태 등으로 이루어짐.

〈그림 4-33〉 응답자 본인의 현재 식습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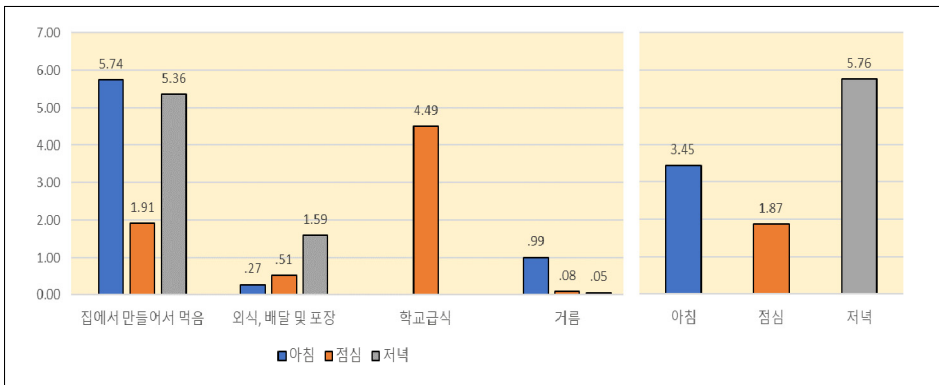
주: 5점 평균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5. 응답자의 식사 양육 실태

- 이후 문항은 현재 응답자가 자신의 자녀의 식사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며, 초등학생(만 6~12세) 자녀 중 나이가 어린 자녀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를 정리함. 응답자 자녀의 끼니별 식사 현황을 살펴보면, 집에서 점심 학교급식을 제외하고, 아침과 저녁은 각각 일주일 평균 5.74회, 5.36회로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음. 외식, 배달 및 포장의 경우 저녁때가 많고, 거름은 아침 때가 많음. 가족과 함께한 식사 횟수도 ‘저녁(5.76회)’, ‘아침(3.45회)’, ‘점심(1.87회)’ 순으로 응답함.

〈그림 4-34〉 응답자 자녀: 끼니별 식사 현황 및 가족 구성원과 함께한 식사 횟수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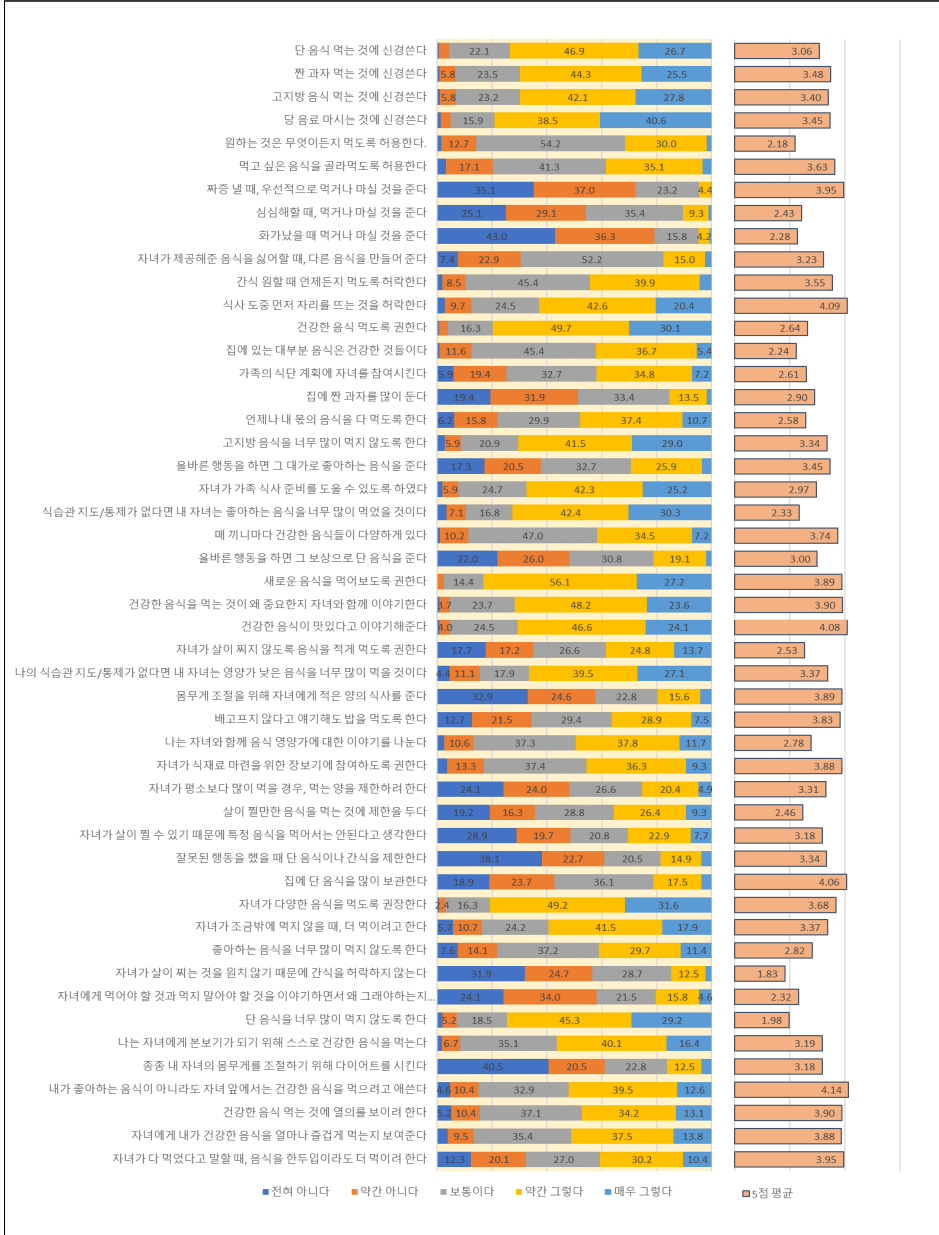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식사 양육 실태에 대해 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 척도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응답자 자녀에 대한 식사 양육 행태에 관한 문항은 자녀의 식습관, 식사예절 등과 관련한 문항으로 이뤄짐.

〈그림 4-35〉 응답자 자녀: 응답자의 식사 양육 실태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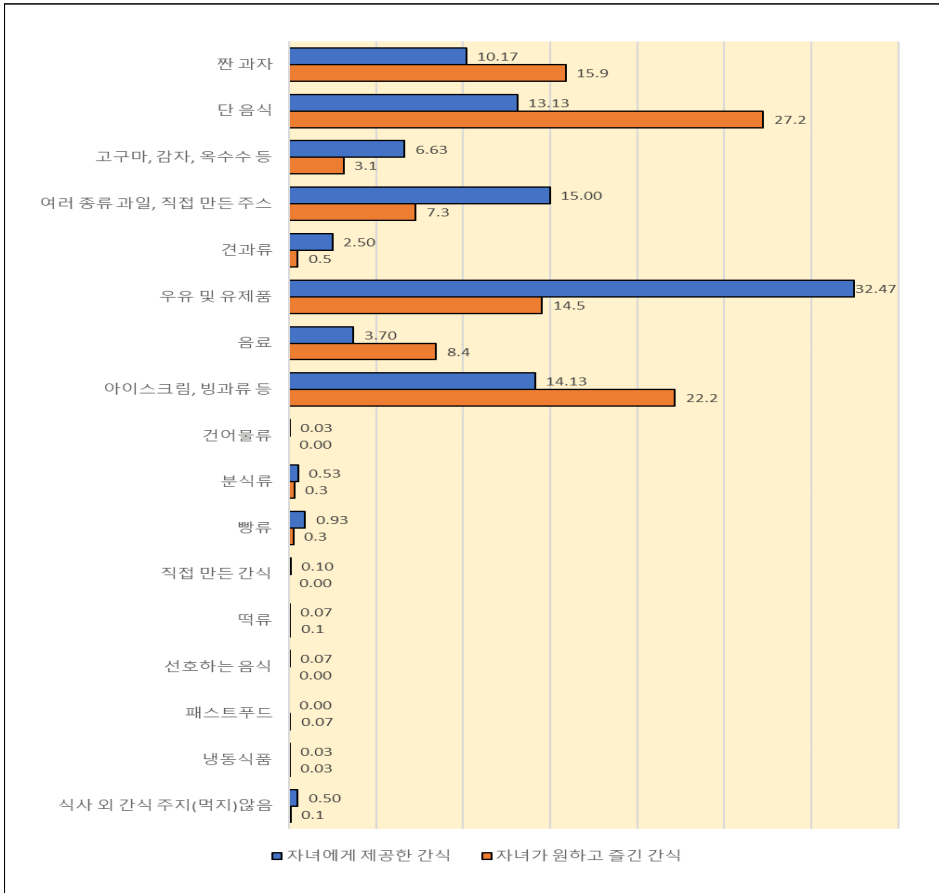
주: 5점 평균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그렇다(동의한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가 현재 자녀에게 주로 제공하는 간식은 ‘우유 및 유제품(32.5%)’이 가장 많았고, ‘여러 종류 과일, 직접 만든 주스(15.0%)’,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14.1%)’ 등 순이었으며, 식사 외 간식을 주지 않는 비율은 0.5%로 극히 드뭅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자녀가 원하고 즐기는 간식으로는 ‘초콜릿, 사탕, 쿠키 등과 같은 단 음식(27.2%)’,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22.2%)’, ‘감자칩 등 짠 과자(15.9%)’ 등 순임.

〈그림 4-36〉 응답자 자녀: 응답자가 제공하는 간식 vs 자녀가 원하고 즐기는 간식(1, 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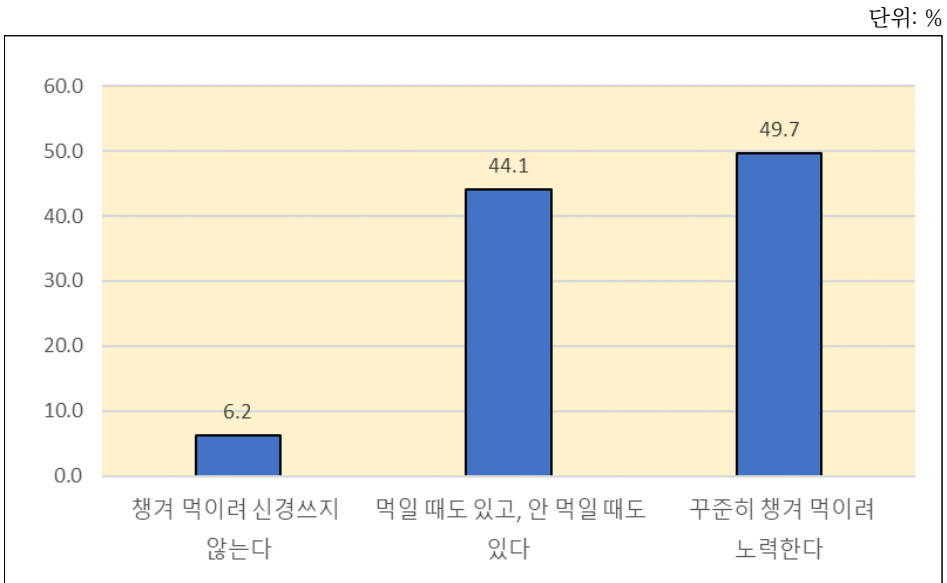


주: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중복 응답을 정리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를 따로 먹이는지를 설문한 결과, ‘꾸준히 챙겨 먹이려 노력한다(49.7%)’, ‘먹일 때도 있고, 안 먹일 때도 있다(44.1%)’ 순이었으며, ‘챙겨 먹이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2%로 낮은 수준임.

〈그림 4-37〉 응답자 자녀: 건강보조제나 영양제 섭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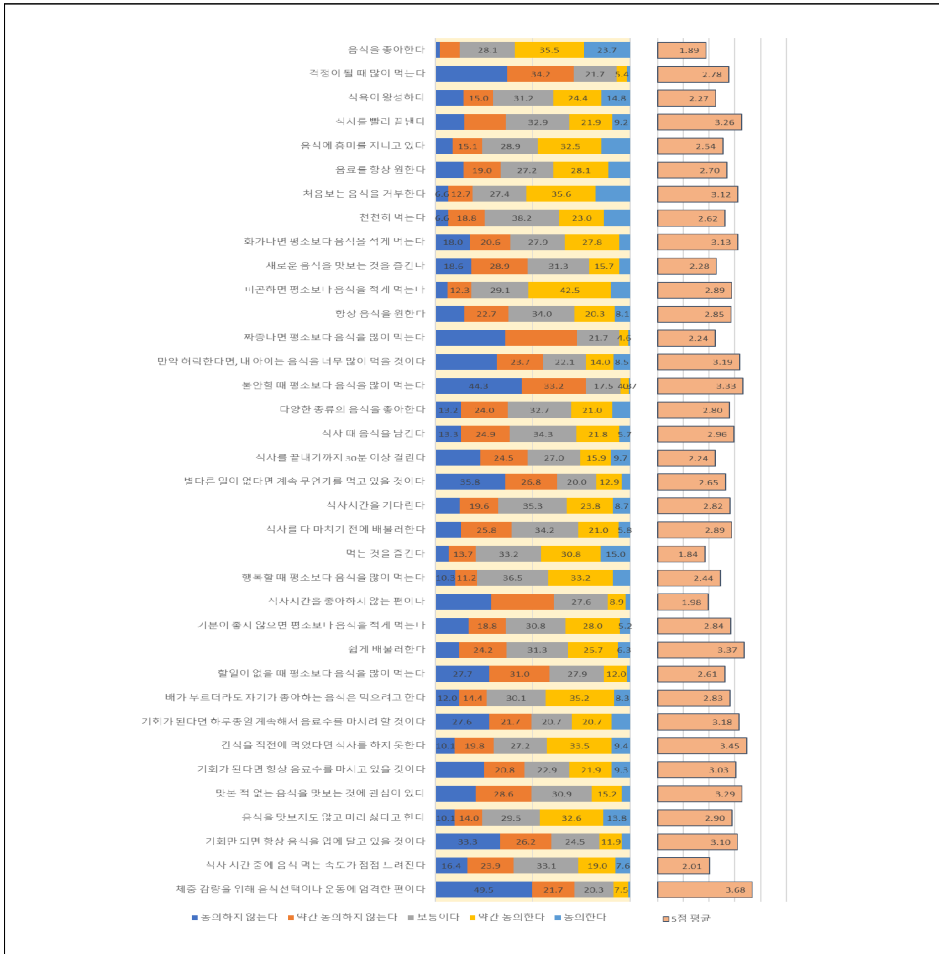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6. 현재 응답자 자녀의 식습관

○ 응답자 자녀의 식습관은 음식에 대한 선호, 심리 상태에 따른 식이 행태, 식사 예절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38〉 응답자 자녀: 식습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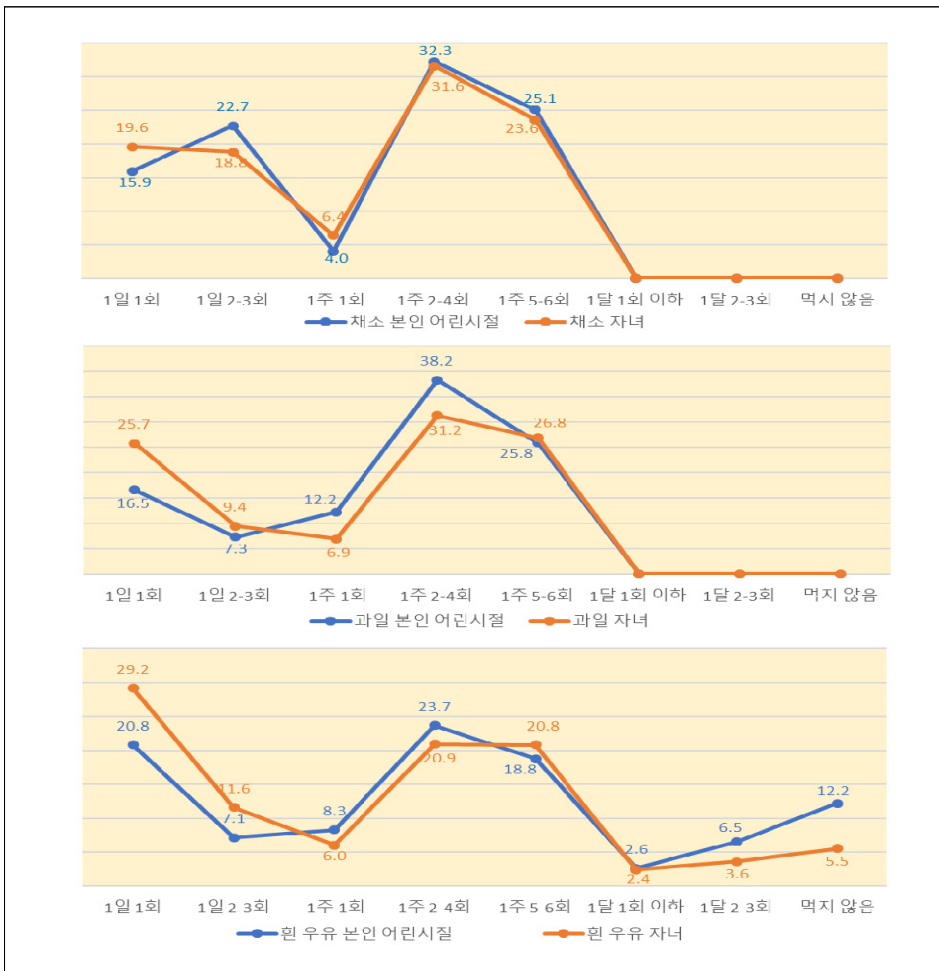
주: 5점 평균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그렇다(동의한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본인의 어린 시절과 현재 자녀의 채소, 과일, 흰 우유의 섭취 빈도를 비교한 결과, 1주에 2~4회 먹는 빈도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음. 1주에 2~4회, 채소를 먹는 비율은 응답자 어린 시절이나 현재 자녀나 유사하고, 과일과 흰 우유는 응답자 어린 시절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현재 자녀의 경우 주단위보다 더 다빈도인 1일 1회 먹는 비율이 응답자 어린 시절 대비 더 높음.

〈그림 4-39〉 채소, 과일, 흰 우유 섭취 빈도 비교: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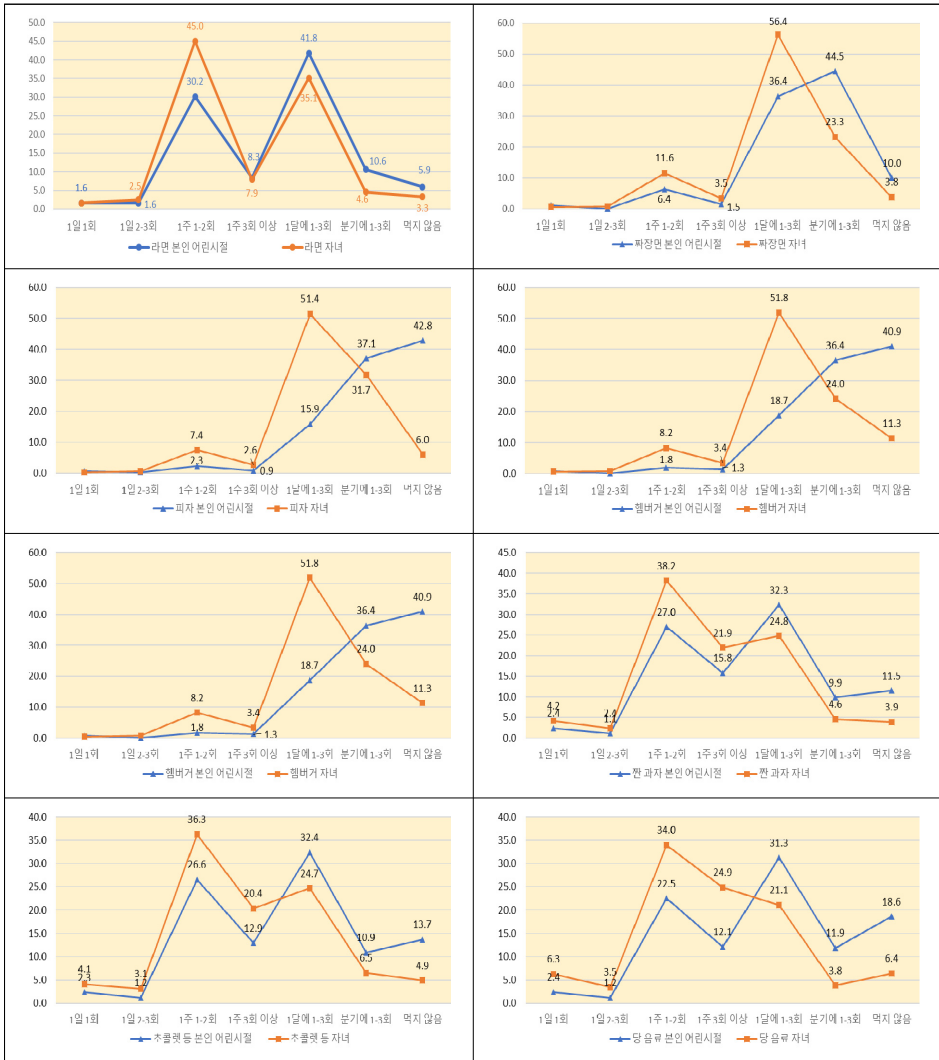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응답자 본인의 어린 시절과 현재 자녀의 라면, 짜장면, 피자, 햄버거, 치킨, 짬
 과자, 초콜릿 등 단 간식, 당 음료의 섭취 빈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
 녀의 섭취 빈도가 더 높았음.

〈그림 4-40〉 라면, 짜장면, 피자, 햄버거, 치킨, 짬 과자, 단 음식, 당 음료 섭취 빈도 비교: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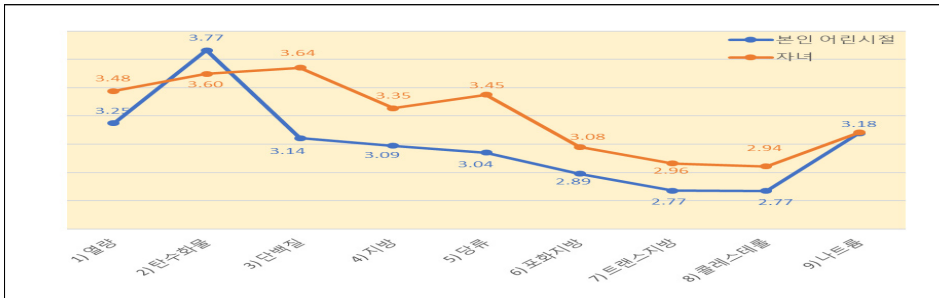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영양소별 섭취 빈도를 비교해보면, 본인의 어린 시절 대비 현재 자녀는 열량, 단백질, 지방,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가 더 많으며, 나트륨의 경우는 유사하고, 탄수화물은 과거 본인 어린 시절에 섭취를 더 많이 했다고 응답함.

〈그림 4-41〉 영양소별 섭취 빈도 비교: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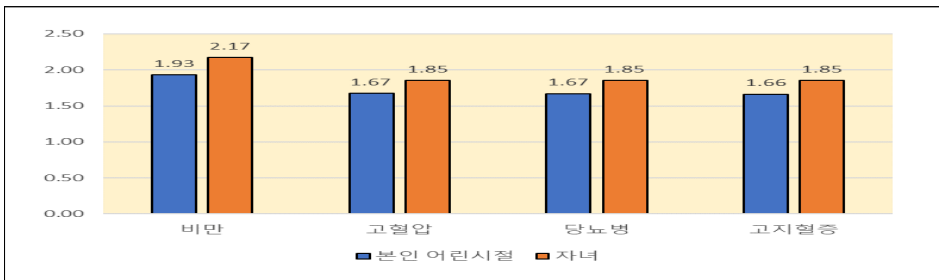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식생활 관련 질병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노출 위험도를 비교해보면, 현재 응답자의 자녀가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는 비만 2.17점, 고혈압 1.85점, 당뇨병 1.85점, 고지혈증 1.85점으로 응답자 어린 시절 식습관을 바탕으로 평가한 각각의 질병 노출 위험도 1.93점, 1.67점, 1.67점, 1.66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4-42〉 식생활 관련 질병 노출 위험도 비교: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단위: 점



주: '매우 위험하지 않다(1점)'~'매우 위험하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7. 자녀 식생활 관련 정책 추진체계 개선

○ 자녀의 식생활 환경별 우려도를 평가한 결과, ‘학원 등의 학교 외(3.3점)’, ‘가정(2.67점)’, ‘학교 내(2.3점)’ 순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부모가 맞벌이일수록 학교 외와 가정에 대한 식생활 환경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됨.

〈표 4-2〉 자녀 식생활 환경별 우려도 평가

단위: 점

구분		학교 내	학교 외	가정
전체		2.30	3.30	2.67
성별	남성	2.38	3.45	2.57
	여성	2.28	3.28	2.68
연령대	30대 이하	2.23	3.25	2.74
	40대	2.31	3.30	2.66
	50대	2.37	3.49	2.47
지역	서울	2.50	3.45	2.66
	경기/강원권	2.20	3.19	2.63
	충청권	2.32	3.42	2.65
	호남권	2.43	3.28	2.75
	경북권	2.28	3.49	2.73
자녀 수	경남권	2.21	3.22	2.68
	1명	2.34	3.36	2.69
	2명	2.28	3.28	2.65
	3명	2.21	3.21	2.67
최종학력 (본인기준)	4명	2.77	3.92	2.92
	고졸 이하	2.34	3.09	2.63
맞벌이 가구	대졸 이상	2.29	3.33	2.67
	맞벌이 가구	2.27	3.33	2.71
월평균 가구소득	맞벌이 가구 아님	2.33	3.26	2.59
	200만 원 미만	2.69	3.06	3.00
	200만~400만 원 미만	2.27	3.25	2.78
	400만~600만 원 미만	2.32	3.30	2.65
	600만~800만 원 미만	2.26	3.30	2.57
자녀 체중 감량 필요	800만 원 이상	2.29	3.39	2.67
	체중 감량할 필요가 낮은 편	2.25	3.26	2.60
	보통	2.31	3.28	2.50
규칙적인 운동 여부	체중 감량할 필요가 높은 편	2.42	3.43	3.00
	운동하지 않는 편	2.29	3.28	2.73
	보통	2.38	3.28	2.62
	운동하는 편	2.22	3.35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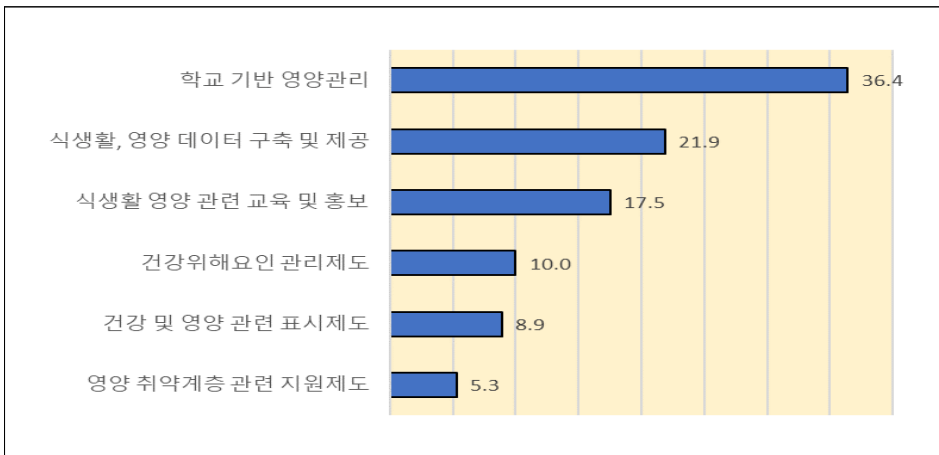
주: ‘매우 우려하지 않는다(1점)’~‘매우 우려한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및 충분하고 다양한 영양섭취 차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묻은 결과, ‘학교 기반 영양관리(36.4%)’, ‘식생활, 영양 데이터 구축 및 제공(21.9%)’, ‘식생활 영양 관련 교육 및 홍보(17.5%)’, ‘건강위해요인 관리제도(10.0%)’,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8.9%)’, ‘영양 취약계층 관련 지원제도(5.3%)’ 순으로 응답함.

〈그림 4-43〉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및 충분·다양한 영양 섭취 차원에서 선호하는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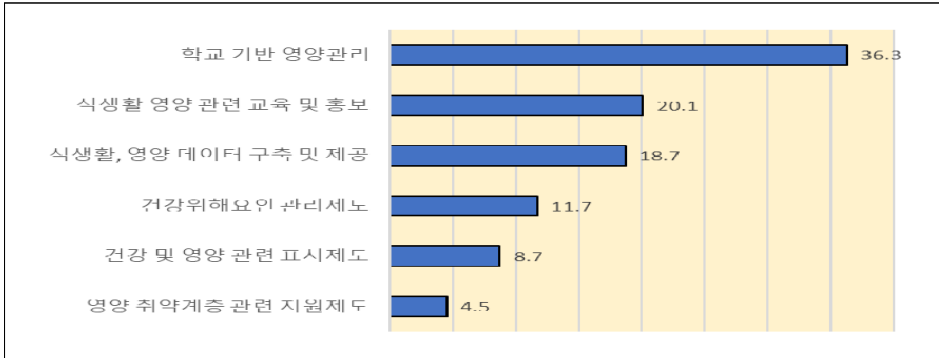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본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는 ‘학교 기반 영양관리(36.3%)’로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식생활 영양 관련 교육 및 홍보(20.1%)’, ‘식생활, 영양 데이터 구축 및 제공(18.7%)’, ‘건강위해요인관리제도(11.7%)’,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8.7%)’, ‘영양 취약계층 관련 지원제도(4.5%)’ 순임.

〈그림 4-44〉 자녀 대상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및 충분·다양한 영양 섭취 차원에서 선호하는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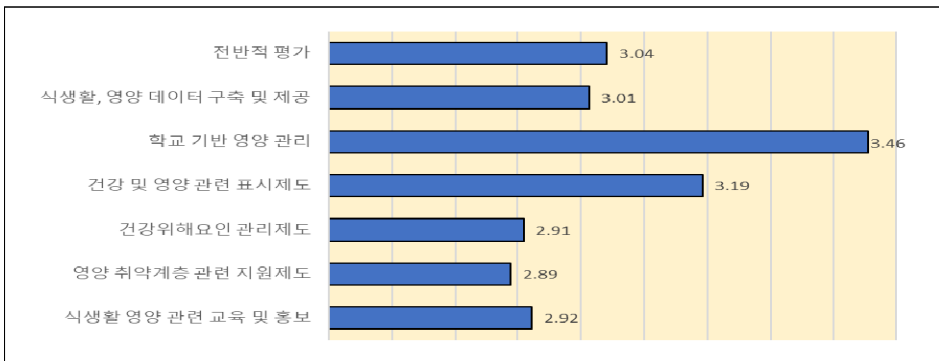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어린이 식생활 관련 정책 실시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학교 기반 영양 관리(3.46점)’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건강 및 영양 관련 표시제도(3.19점)’, ‘식생활, 영양 데이터 구축 및 제공(3.01점)’, ‘식생활 영양 관련 교육 및 홍보(2.92점)’, ‘건강위해요인 관리제도(2.91점)’, ‘영양취약계층 관련 지원제도(2.89점)’ 순으로 조사됨. 이상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점수는 3.04점임.

〈그림 4-45〉 어린이 식생활 관련 정책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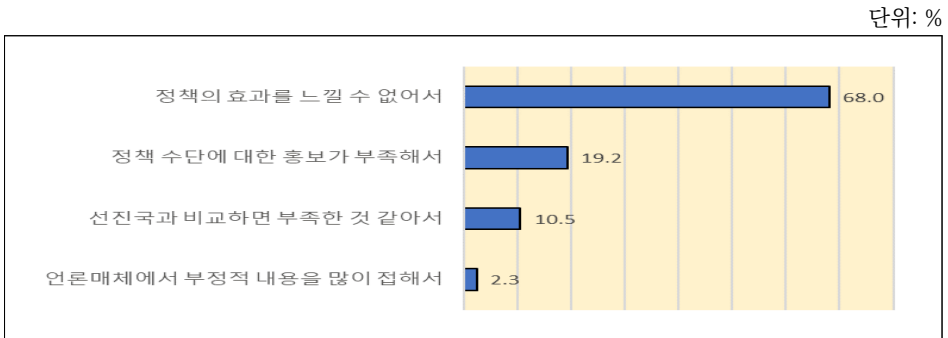


주: ‘매우 미흡한 수준(1점)’~‘매우 우수한 수준(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이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 정책 실시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없어서(68.0%)’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정책 수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19.2%)’,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 같아서(10.5%)’, ‘언론매체에서 부정적 내용을 많이 접해서(2.3%)’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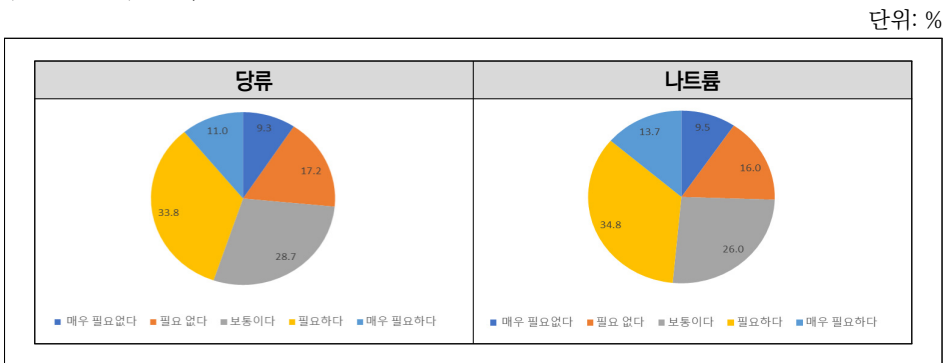
〈그림 4-46〉 어린이 식생활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식품에 첨가된 당류나 나트륨을 줄이는 데 있어 첨가량에 따른 세금 부과제도 도입이 필요성 정도를 설문한 결과, 당류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4.8%, ‘필요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6.5%를 차지하였으며, 나트륨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5%, ‘필요 없다’는 25.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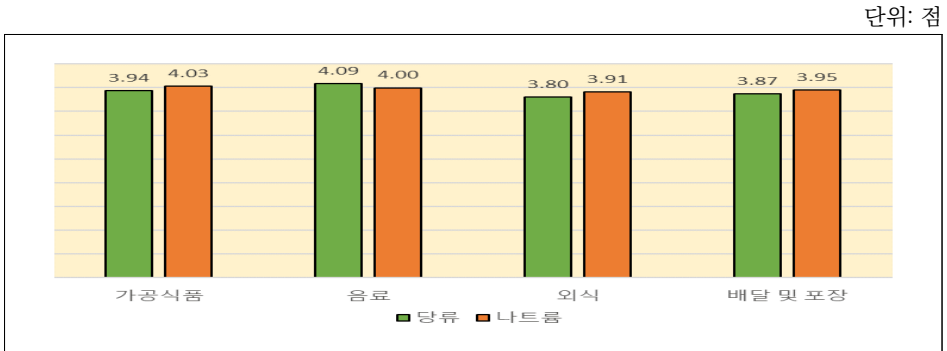
〈그림 4-47〉 당류, 나트륨 첨가량에 따른 세금 부과제도 도입 필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음료에 대해서는 당 첨가량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이 4.09점으로 높았으며, 가공식품, 외식, 배달 및 포장 모두 나트륨량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이 약 4점으로 당류에 비해 높았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4-48〉 식품류 및 매식 형태별 당, 나트륨 첨가량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 정도



주: '매우 필요 없다(1점)'~'매우 필요하다(5점)' 응답을 가중평균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개선 차원에서 어느 주체가 가장 중요한지 설문한 결과, '가정(35.8%)', '정부(25.5%)', '민간분야(식품제조·유통 및 판매업체, 외식업체)(20.7%)', '학교(18.0%)' 순으로 응답함.

〈표 4-3〉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개선 차원에서 중요한 주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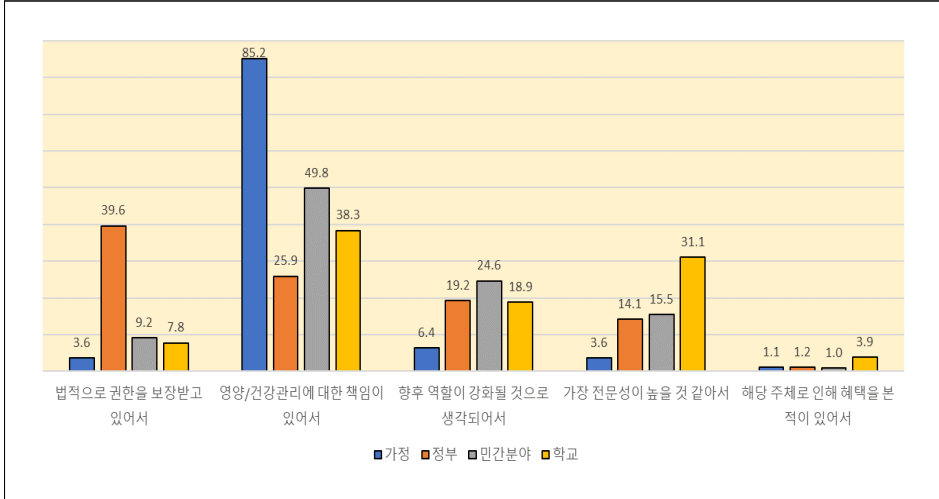
가정	정부	민간분야	학교
35.8	25.5	20.7	18.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개선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로 평가한 이유에 대한 설문한 결과, 가정과 민간분야, 학교의 경우 '영양/건강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를 각각 85.2%, 49.8%, 38.3%로 높게 응답하였고, 정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 받고 있어서(39.6%)'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음.

〈그림 4-49〉 해당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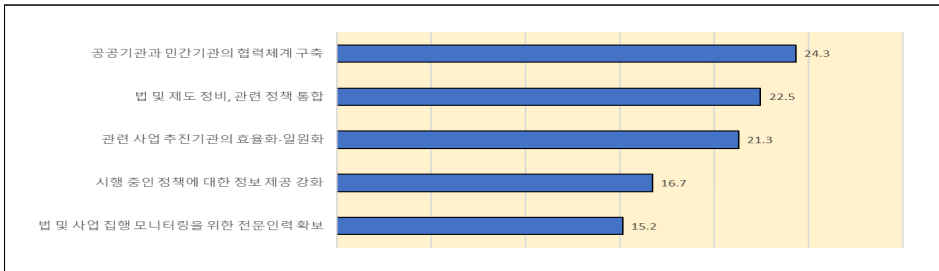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 어린이 식생활 및 영양 개선 관련 정책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 부분에 대해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24.3%)’, ‘법 및 제도 정비, 관련 정책 통합(22.5%)’, ‘관련 사업 추진기관의 효율화, 일원화(21.3%)’,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16.7%)’, ‘법 및 사업 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15.2%)’ 순으로 응답함.

〈그림 4-50〉 어린이 식생활 및 영양 개선 관련 정책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부분(1, 2순위)

단위: %



주: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중복 응답을 정리한 결과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소비자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식품 주 구입자 조사 (N=1,00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소비자 조사 (N=50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어린이 영양/건강 개선을 위한 초등 부모 조사(N=1,000).

KREI

www.krei.re.kr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소비자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